

韓國漢文教育學會

2015年 冬季學術大會

## 한국한문교육학회 2015년 동계학술대회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 분석과 적용 방안 탐색”

■ 일시 : 2016년 1월 23일(토) 09:20-18:10

■ 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110호

■ 주최 : 한국한문교육학회

■ 주관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후원 : (재) 국제교류진흥회

韓 國 漢 文 教 育 學 會



韓國漢文教育學會

2015年 冬季學術大會

## 한국한문교육학회 2015년 동계학술대회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 분석과 적용 방안 탐색”

- 일시 : 2016년 1월 23일(토) 09:20-18:10
- 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110호
- 주최 : 한국한문교육학회
- 주관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후원 : (재) 국제교류진흥회

韓 國 漢 文 教 育 學 會





**<한국한문교육학회 2015년 동계학술대회 일정표>**

시간	발 표 및 내 용	사회
09:20~09:30	<b>개회식</b> - 개회사 : 송병렬(한국한문교육학회 회장)	김영주 (성균관대)
09:30~09:50	<b>기조 발표 :</b> <b>장호성(한국교육과정평가원) :</b>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주안점과 특징	
09:50~10:10	<b>이군선(원광대) :</b> ‘한문의 이해 - 한자와 어휘’ 영역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분석	
10:10~10:30	<b>윤재민(고려대) :</b> ‘한문의 이해 - 한문의 독해’ 영역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분석	
10:30~10:50	<b>김우정(단국대) :</b>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한문의 활용’ 영역 중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분석	
10:50~11:10	<b>김왕규(교원대) :</b> ‘한문의 활용 -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 영역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분석	
11:10~11:30	휴식	
11:30~12:30	<b>종합토론</b> - 좌장 : 한연석(공주대) - 토론 : 김성중(계명대), 안재철(단국대), 이동재(공주대), 신영주(성신여대)	
12:30~14:00	점심 식사	
14:00~14:20	<b>배희정(대부중) :</b> ‘한문의 이해 - 한자와 어휘’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 분석	이돈석 (한국고전번역원)
14:20~14:40	<b>이승현(고색고) :</b> ‘한문의 이해 - 한문의 독해’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 분석	
14:40~15:00	<b>최현선(창일중) :</b> ‘한문의 활용 -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 분석	
15:00~15:10	휴식	
15:10~15:30	<b>김은경(능곡고) :</b> ‘한문과 인성’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사례	
15:30~15:50	<b>정효영(등촌중) :</b> ‘한문의 활용 - 한문과 문화’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 분석	
15:50~16:10	<b>윤지훈(한국교육과정평가원) :</b>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방향	
16:10~16:30	휴식	
16:30~17:50	<b>종합토론</b> - 좌장 : 정재철(단국대) - 토론 : 한은수(서울난향초), 김연수(고려대), 김병철(군포고), 김경익(울산여고), 허철(교원대), 최상근(신동중)	
17:50~18:00	연구윤리교육 [진행: 송병렬 한국한문교육학회 회장]	
18:00~18:10	<b>폐회식</b> - 폐회사 : 송병렬(한국한문교육학회 회장)	



# 目次

## 【기조 발표】

장호성,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주안점과 특징 .....	1
--------------------------------------	---

## 【기획 주제 발표】

이군선, ‘한문의 이해 - 한자와 어휘’ 영역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분석 .....	29
윤재민, ‘한문의 이해 - 한문의 독해’ 영역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분석 .....	53
김우정,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한문의 활용’ 영역 중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분석 .....	67
김왕규, ‘한문의 활용 -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 영역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분석 .....	79
배희정, ‘한문의 이해 - 한자와 어휘’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 분석 .....	85
이승현, ‘한문의 이해 - 한문의 독해’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 분석 .....	103
최현선, ‘한문의 활용 - 한자 어휘와 언어 생활’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 분석 .....	129
김은경, ‘한문의 활용 - 한문과 인성’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 분석 .....	143
정효영, ‘한문의 활용 - 한문과 문화’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 분석 .....	165
윤지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방향 .....	179

【토론문】 .....	187
-------------	-----



## <기조 발표>

###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주안점과 특징

장호성(한국교육과정평가원)

#### 目次

- I. 머리말
- II. 漢文科 教育課程 改定の 方向 및 重點
  - 가. 교육과정 총론 개정의 방향 및 중점
  - 나. 한문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및 중점
- III. 2015 改定 漢文科 教育課程의 主要 內容
  - 가. 성격
  - 나. 목표
  - 다.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 라. 교수·학습 및 평가
- IV. 맺음말

## I. 머리말

교육부에서는 2015년 9월 23일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하여 발표한바 있다. 이번 교육과정의 특징으로는 ‘핵심역량 설정, 문·이과 공통 과목 신설,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 강화, 학습내용 적정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제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총론의 기본 방향을 토대로 教科別 教育課程을 개발하였고, 漢文科의 결과물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으로 고시되었다. 이번에 개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연차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하게 된다.

※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일정(교육부 고시 제2015-80호<2015. 12. 1.>)

- ▶ 2017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적용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의 ‘한국사’ 적용
- ▶ 2018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적용
- ▶ 2019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적용
- ▶ 2020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적용

이 자리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 기조 속에 개발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주안점 및 주요 내용 등을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漢文科 教育課程 改定の 方向 및 重點<sup>1)</sup>

### 가. 교육과정 총론 개정의 방향 및 중점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배움을 즐기며 개인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 추진”이라는 목적 하에 개발되었다. 구체적 개정의 방향은 ‘많이 가르치는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으로 교육패러다임 변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실수업 개선 필요’, ‘대학입시(수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고교 문·이과 구분 및 수능 과목 중심의 지식 편식 현상 개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 필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개정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많이 가르치는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으로 교육패러다임을 변화’한다는 것은 과도한 학습량과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 흥미 저하 및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적 지식 위주 수업에서 행복을 체험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실수업 개선 필요’는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에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제시하고 학습량 감축을 통해 협력학습 등 학생 참여 수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소프트웨어교육, 안전교육 등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융합형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입시(수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고교 문·이과 구분 및 수능 과목 중심의 지식 편식 현상 개선’은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융·복합적 사고력과 통찰력을 겸비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 필요’는 교육과정 운영을 왜곡하는 대입제도, 교원 양성 및 연수 체제 등에 대한 전반적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을 강화한다’, ‘교과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교과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능력을 함양한다’라는 6가지를 ‘구성의 중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 6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1) 이하 내용은 교육부(2015a; 2015b); 장호성 외(2015a; 2015b)를 참조하여 서술하였음.

#### 역량

-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 나. 한문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및 중점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은 우선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를 제고하고, 창의융합적 사고와 바른 인성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과교육과정 개발’이란 총론의 요구 사항에 따라 개발되었다. 한문과 교육과정의 개정 작업 시 국가 수준에서 제시된 교과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및 중점은 다음과 같다.

- 교과별 핵심 성취기준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습 경험의 질 제고가 가능한 교육과정 개발
- 교과별 인문학 요소 강화, SW교육 및 안전교육 등 국가·사회적 요구 반영을 통한 융합 인재 육성이 가능한 교과별 교육과정 개발
- 고등학교에서 기초 소량 함양이 가능한 공통 과목 이수 후 진로에 따른 선택과목 이수가 가능하도록 과목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교과 교육과정 구성
  - \* 공통 교육과정 및 고등학교 공통과목의 내용은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고, 고교 선택과목에서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
- 교육과정 총론의 취지가 반영된 교과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간 내용 중복 해소 등을 위해 ‘국가교육과정각론조정위원회’ 구성·운영
- 현장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현장교원 30% 이상 참여

또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개발 시 한문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및 중점을 설정하기 위해 한문 교육 및 한문과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연구,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격·목표·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관련 연구,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관련 연구, 한문과 교육 내용의 수준과 범위 관련 연구, 중·고 한문 교과서 개발 및 검정 기준 관련 연구 등 한문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참조가 될 만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과 교육과정은 전체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작성할 당시 국가 교육과정의 이념과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준과 발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적용 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내용 체계가 지식(주로 ‘한문 지식’의 한자, 어휘, 문장)과 기능(주로 ‘독해’의 읽기, 이해)에 ‘문

화'가 더해진 모습으로 구성되어 체계의 일관성 면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둘째, 대영역(한문, 문화, 한문 지식) 중 '한문 지식' 개념이 모호하다.

셋째, 공통 교육과정(중학교 한문)과 선택 교육과정(고등학교 한문 I, 한문 II)의 학습내용을 학년별·학교급별 학습시간과 학습발달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sup>2)</sup>

2015 한문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진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노정된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일관성 유지와 대영역 설정의 타당성 제고, 학교급별 학습내용의 위계화에 개정의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다음 3가지를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 내용 체계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지식과 기능을 합쳐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문화를 비롯한 인성 및 한자 어휘 활용과 같은 내용 요소를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
- 학년별·학교급별 학습시간과 학습발달상황을 고려하여 중학교 학습 내용 감축
-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교수·학습 및 평가 관련 내용 강화

### Ⅲ. 2015 改定 漢文科 教育課程의 主要 內容<sup>3)</sup>

#### 가. 성격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격'은 2009 개정 교육과정 때 '성격'과 '목표'를 통합하여 진술했던 것과 달리 '성격'과 '목표'를 분리해서 진술하는 문서 체제 방식이 사용되었다.

<표 1> 현행과 시안의 문서 체제 비교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1. 목표	1. 성격
2. 내용의 영역과 기준	2. 목표
가. 내용체계	3.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나. 학년군별 성취기준	가. 내용체계
다. 영역 성취기준	나. 성취기준
3. 교수학습 방법	(1) 성취기준 그룹명
4. 평가	(가) 주요 성취기준 해설 및 학습요소
	- 주요 성취기준 해설
	- 주요 학습요소
	(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다)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가. 교수학습 방향
	나. 평가 방향

2) 김영춘 외(2013). 85~85면 참조.

3) 이하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a; 2015b; 2015c; 2015d); 장호성 외(2015a; 2015b)를 참조하여 서술하였음.



또한, ‘성격’의 진술 내용은 교과에의 필요성 및 교과에의 역할, 교과에의 영역, 교과 역량 요소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진술 방식을 택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총론에서 제시한 다음의 작성 지침에 기인한 것이다.

- 각 교과에 갖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한다.
-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급별 교육목표’와 연계하여 교과 고유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성격에 제시해야 할 교과 공통 사항은 ‘교과교육의 필요성 및 역할’(본질, 의의, 기능 등), ‘교과에의 영역’, 교과를 통해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이다.
- 각 교과에 교과 공통 사항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컨대 교과에의 학교급별 특성 및 연계성, 타교과와의 관련성 등을 선택 사항으로 제시할 수 있다.
- 단, 교과 성격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닌 사항은 제시하지 않는다.<sup>4)</sup>

이러한 지침에 따라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진은 한문과에의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검토와 함께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의 계발을 위해 필요한 한문과에의 교과 역량을 설정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의사소통 능력, 정보처리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인성 역량, 심미적 감성 등의 5가지를 한문과 교과 역량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역량이 ‘성격’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격’은 과거에 비해 한문 교과를 왜 배워야 하며 한문 교과에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했으며, 한문 문장의 독해력과 함께 한자 어휘 학습, 인성 및 문화 소양 함양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격’ 전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문은 고전 문언문으로 한자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던 국제적 표기 수단의 하나였다. 우리 조상들 역시 수천 년 동안 한자와 한문을 사용하여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 왔으므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사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문으로 기록된 각종 전적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독해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상당 부분의 어휘가 한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다른 교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학습 용어의 상당수가 한자 어휘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원활한 언어 생활과 다른 교과에서 사용하는 학습 용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문 학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문 기록 속에는 우리의 정신문화가 대부분 축적되어 있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의 문제 등을 치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으므로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한문 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생활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 온 전통문화 역시 한자를 주된 기록 수단으로 하여 보존·전승되고 있으므로 전통문화를 바르게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문 학습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등 한자가 통용되는 한자문화권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1/4이나 된다. 우리의 문화는 독자적인 민족문화와는 별도로 이들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과 일정 부분 공유하는 정신문화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한문 학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문과는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이다. 또한, 한문과는 선인들의 삶과 지혜,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과이다.

따라서 한문과는 미래 사회에서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창의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 정보처리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인성 역량, 심미적 감성 등을 교과에의 중요한 역량으로 삼고 있다.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a). 14면 발췌.

의사소통 능력은 한자와 한문 자료 및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한자 어휘를 활용하여 생각과 감정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능력이다.

정보처리 능력은 한자와 한문 자료 및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한자 어휘 자료에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그 의미를 평가·선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활용하는 능력이다.

창의적 사고 능력은 한자와 한문 자료에 담겨 있는 다양한 영역의 폭넓은 지식과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성 역량은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과 자질을 지속적으로 계발·관리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및 한문 기록에 담긴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수용·실천함으로써,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능력이다.

심미적 감성은 다양한 유형의 한문 고전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향유함으로써 삶의 질과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 나. 목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목표’는 ‘성격’과 마찬가지로 2009 개정 교육과정 때 ‘성격’과 ‘목표’를 통합하여 진술했던 것과 달리 ‘성격’과 ‘목표’를 분리해서 진술하는 문서 체제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2007 개정 교육과정 때와 유사한 ‘총괄 목표’, ‘학교급별 목표’, ‘세부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목표’ 작성과 관련하여 총론에서 제시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 목표는 교과 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학생이 달성해야 할 학습의 도달점을 나타내도록 진술한다.
- 목표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급별 교육목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진술하도록 한다.
- 목표는 총괄목표, 학교급별 목표, 세부목표로 구성하되, 각 항을 구체화하는 제목을 삽입하지는 않는다.
- 두 학교급 이상에 해당하는 교과 진술시, 교과의 총괄목표를 먼저 제시한 후, 학교급별 목표를 별도로 제시한다. 한 학교급에 해당하는 교과의 경우 학교급별 목표를 제시한다.
- 목표 구분은 학교급에 따라 진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의 특성에 따라 학년(군)별 목표를 제시할 수도 있다.
- 각 교과는 필요한 경우 및 가능한 경우 핵심역량을 반영한 목표를 진술할 수 있다.
- 세부목표의 진술은 학습자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행동 동사(수행)를 사용하여 진술한다.
- 세부목표 하위 항목의 수는 3~4개 정도로 하되, 교과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제시할 수 있다.<sup>5)</sup>

이상의 지침을 토대로 작성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교육과정의 ‘성격’을 분리 서술하여 편폭이 다소 좁아진 것과 <중학교 한문>과 <고등학교 한문 I>에 ‘언어생활의 활용 능력’을 별도의 세부 목표로 설정한 것, 2007 개정 교육과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때 <고등학교 한문 II>에 세부 목표였던 ‘한문 한문학’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다는 점이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5)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a). 14~15면 발췌.

이번에 개발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목표’를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교육과정의 ‘목표’ 신·구 대조표

학교급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	<p>한문과는 한자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고전 문헌문인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데 필요한 도구 교과이며, 한문의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과이다.</p> <p>한문과는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우리 생활 전반에 면면히 이어온 전통문화를 바르게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교과이다.</p> <p>한문과는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과이다.</p> <p>중학교 ‘한문’은 위와 같은 한문과의 일반적인 성격에 근거하여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를 중심으로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한문 자료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의한다. 특히, 한문 교과가 학교 교육의 정규 교과로는 중학교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습자가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의한다.</p> <p>중학교 ‘한문’ 과목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p> <p>가.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p> <p>나.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p> <p>다.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p> <p>라.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p> <p>마.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p>	<p>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p> <p>중학교 ‘한문’은 위와 같은 한문과의 목표에 근거하여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를 중심으로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한문 자료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의한다. 특히, 한문과가 학교 교육의 정규 교과로는 중학교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습자가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의한다.</p> <p>중학교 ‘한문’ 과목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p> <p>가.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p> <p>나.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로 이루어진 한자 어휘를 익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p> <p>다.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p> <p>라.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p> <p>마.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p> <p>바.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p>
고등학교 한문 I	<p>한문과는 한자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고전 문헌문인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데 필요한 도구 교과이며, 한문의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과이다.</p>	<p>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한자</p>

학교급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p>한문과는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우리 생활 전반에 면면히 이어온 전통문화를 바르게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교과이다.</p> <p>한문과는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과이다.</p> <p>‘한문 I’은 중학교 한문 교육의 성과 위에서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를 중심으로 중학교 ‘한문’에 비해 보다 심화된 한문 독해 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바탕으로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한문 자료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의한다.</p> <p>‘한문 I’ 과목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p> <p>가.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p> <p>나.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p> <p>다.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p> <p>라.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p> <p>마.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p>	<p>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p> <p>고등학교 ‘한문 I’은 중학교 한문 교육의 성과 위에서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를 중심으로 중학교 ‘한문’에 비해 보다 심화된 한문 독해 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바탕으로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한문 자료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의한다.</p> <p>고등학교 ‘한문 I’ 과목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p> <p>가.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p> <p>나.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로 이루어진 한자 어휘를 익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p> <p>다.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p> <p>라.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p> <p>마.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p> <p>바.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p>
고등학교 한문Ⅱ	<p>한문과는 한자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고전 문헌인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데 필요한 도구 교과이며, 한문의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과이다.</p> <p>한문과는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우리 생활 전반에 면면히 이어온 전통문화를 바르게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교과이다.</p> <p>한문과는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과이다.</p> <p>‘한문 II’는 중학교 ‘한문’과 ‘한문 I’의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심화된 한문 독해 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한문 자료를 이해하고 향유하며, 아울러 한국 한문학의 대표적인 고전 작품을 이해하고 감</p>	<p>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p> <p>고등학교 ‘한문 II’는 중학교 ‘한문’과 고등학교 ‘한문 I’의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심화된 한문 독해 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한자를 중심으로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한문 자료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p>

학교급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p>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의한다.</p> <p>‘한문 II’ 과목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p> <p>가.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p> <p>나.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p> <p>다. 한국 한문학의 대표적인 고전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p> <p>라.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p> <p>마.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p>	<p>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의한다.</p> <p>고등학교 ‘한문 II’ 과목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p> <p>가.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p> <p>나.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p> <p>다.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p> <p>라.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p>

## 다.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 (1) 내용 체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과거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달리 교과 역량을 반영하기 위해 <표 3>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표 3> 내용 체계표 매트릭스 예시<sup>6)</sup>

영역	핵심 개념	내용(일반화된 지식)	학교급(혹은 학년군별) 주요 내용요소	기능

이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형식과 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용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에서 작성된 것인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각 요소의 대략적인 함의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내용 체계표에서 ‘영역’은 교과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면서도 교과 학습 내용을 조직화(범주화) 하는 최상위의 틀 혹은 체계이며, ‘핵심개념’은 빅 아이디어(big idea) 혹은 큰 개념(big concept)이라고 칭해지는 것으로서 교과 내용들 간의 관계를 구조화하여 개별 사실들을 묶어서 바라보게 해주는 전이가가 높은 상위 개념을 의미한다.

‘내용(일반화된 지식)’은 학습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학습 내용 진술문으로서 해당 학교급을 관통

6)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a). 15면 발췌.

하는 핵심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학습자가 교과에서 영역별로 해당 학년 혹은 학년 군에서 반드시 습득해야 할 내용을 일반화된 형태로 진술한 것이 ‘내용(일반화된 지식)’인 것이다.

‘기능’은 수행(practice), 탐구과정/전략, 사고 과정, 태도, 핵심역량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학습자가 ‘내용(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sup>7)</sup>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표 4>와 같다.

<표 4>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일반화된 지식)	중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 I	고등학교 한문 II	기능
한문 의 이해	한자와 어휘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음뜻을 지니고 있다.	한자의 모양음뜻	한자의 모양음뜻	한자의 모양음뜻	읽기 풀이하기 이해하기 표현하기 탐구하기 조사하기 분석하기 활용하기
			한자의 부수	한자의 부수		
			한자의 필순	한자의 필순		
			한자의 짜임	한자의 짜임		
		단어를 구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에는 일정한 결합 관계가 있다.	단어의 짜임	단어의 짜임	단어의 짜임	
			실사와 허사	실사와 허사	실사와 허사	
	한문의 독해	한문의 품사에는 단독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실사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허사가 있다.		품사의 활용	품사의 활용	읽기 풀이하기 이해하기 표현하기 비평하기 감상하기 탐구하기 조사하기 분석하기 토의·토론하기 활용하기
			문장의 구조	문장의 구조	문장의 구조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에는 일정한 결합 방식이 있다.		문장 성분의 생략과 도치	문장 성분의 생략과 도치	
			문장의 유형	문장의 유형		
		화자(話者)가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소리 내어 읽기	소리 내어 읽기	소리 내어 읽기	
			끊어 읽기	끊어 읽기	끊어 읽기	
한문 의 활용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한자 어휘에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하는 말도 있고, 다른 교과에서 학습 용어로 사용하는 말도 있다.	일상용어	일상용어	일상용어	읽기 풀이하기 이해하기 표현하기 탐구하기 조사하기 분석하기 활용하기
			학습 용어	학습 용어	학습 용어	
			성어	성어	성어	
	한문과 인성	한문 기록에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읽기 풀이하기 이해와 공감하기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a). 16~17면 참조.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일반화된 지식)	중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 I	고등학교 한문 II	기능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이 담겨 있다.				조사하기 토의·토론하기 적용하기
	한문과 문화	우리의 전통문화는 한자를 주된 기록 수단으로 하여 보존·전승되고 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읽기 풀이하기 이해하기 조사하기 토의·토론하기 적용하기
		한자문화권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언어와 문화에는 공통적 요소가 있다.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	

<표 4>와 같이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기존의 교육과정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우선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없던 ‘핵심 개념’, ‘내용(일반화된 지식)’, ‘기능’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영역도 ‘독해’, ‘문화’, ‘한문 지식’에서 ‘한문의 이해’, ‘한문의 활용’으로 변화되었다. ‘핵심 개념’을 기준으로 영역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문의 이해’ 영역은 교육과정 내용 중 기능적 요소를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하고자 ‘한자와 어휘’, ‘한문의 독해’를 두었으며, ‘한문의 활용’ 영역에는 한문과 수업에서 실질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를 두었다. ‘기능’의 경우는 ‘읽기’, ‘풀이하기’, ‘이해하기’, ‘조사하기’, ‘활용/적용하기’를 기본으로, 각 핵심 개념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하여 ‘표현하기’, ‘분석하기’, ‘토의·토론하기’ 등을 가감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변화상을 고등학교 한문 I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독해-읽기-소리 내어 읽기, 끊어 읽기’와 ‘독해-이해-풀이하기, 이해하기, 감상하기’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문의 이해-한문의 독해-소리 내어 읽기, 끊어 읽기, 내용과 주제, 이해와 감상’으로 변화되었으며, ‘문화-한자 문화-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은 ‘한문의 활용-한문과 인성-선인들의 지혜와 사상’과 ‘한문의 활용-한문과 문화-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으로 확대·분리되었다. ‘문화-한자 문화-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는 ‘한문의 활용-한문과 문화-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로 변화되었다. ‘문화-언어생활과 한자 문화-언어생활 속의 한자 어휘 알고 활용하기’의 경우는 ‘한문의 활용-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일상용어, 학습 용어’로 한층 강화되었고, ‘한문 지식-한자-한자의 특징, 한자의 짜임’과 ‘한문 지식-어휘-단어의 짜임, 단어의 갈래’는 ‘한문의 이해-한자와 어휘-한자의 모양·음·뜻, 한자의 부수, 한자의 필순, 한자의 짜임, 단어의 짜임, 실사와 허사, 품사의 활용’으로 바뀌었다. ‘한문 지식-어휘-성어의 의미’는 ‘한문의 활용-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성어’로 재편되었고, ‘한문 지식-문장-문장의 구조’는 ‘한문의 이해-한문의 독해-문장의 구조, 문장 성분의 생략과 도치, 문장의 유형’으로 세분화 되었으며, ‘한문 지식-문장-문장의 수사’는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삭제되었다(<표 5>).

<표 5>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변화상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비고 (2009 개정 교육과정 변화 양태)
한문의 이해	한자와 어휘	한자의 모양·음·뜻	이동 & 변형(한문 지식-한자-한자의 특징)
		한자의 부수	
		한자의 필순	
		한자의 짜임	이동(한문 지식-한자-한자의 짜임)
		단어의 짜임	이동(한문 지식-어휘-단어의 짜임)
		실사와 허사	이동 & 변형(한문 지식-어휘-단어의 갈래)
		품사의 활용	
	한문의 독해	문장의 구조	이동 & 변형(한문 지식-문장-문장의 구조)
		문장 성분의 생략과 도치	이동(한문 지식-문장-문장의 유형)
		문장의 유형	
		소리 내어 읽기	
		끊어 읽기	이동(독해-읽기-소리 내어 읽기, 끊어 읽기)
		내용과 주제	이동 & 변형(독해-이해-풀이하기, 이해하기, 감상하기)
		이해와 감상	
한문의 활용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일상용어	이동 & 변형(문화-언어생활과 한자 문화-언어생활 속의 한자 어휘 알고 활용하기)
		학습 용어	
		성어	이동(한문 지식-어휘-성어의 의미)
	한문과 인성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이동 & 변형(문화-한자문화-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한문과 문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이동(문화-한자문화-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	이동 & 변형(문화-한자문화-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 (2) 성취 기준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내용 체계표’ 상의 ‘학년(군)별 내용 요소’와 ‘기능’을 정합한 문장 형태로 진술하고자 했다. 이는 성취기준이 ‘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과 기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성취기준은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할 수 있어야 할 수행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며,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할, 또는 할 수 있기를 기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결과 중심의 도달점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sup>8)</sup>

또한, 이번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 체계표’ 상의 ‘핵심 개념’을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으로 상정하고, 해당 ‘영역 및 성취기준 그룹’의 설정 이유를 <표 6>과 같이 제시하였다.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b). 18면 참조.



<표 6>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별 설정 이유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	중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 I	고등학교 한문 II
한자와 어휘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높은 형상성과 강력한 의미 전달력, 풍부한 조어력을 지닌 문자이다. <b>따라서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를 중심으로</b> 한자와 한자 어휘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문장 학습과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따라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중심으로 .....	..... 따라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학습 성과의 바탕 위에 보다 확장된 한자를 중심으로 .....
한문의 독해	한문은 고전 문언문으로 한자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던 국제적 표기 수단의 하나로서, 우리 조상들 역시 수천 년 동안 한문을 사용하여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 왔다. 따라서 문장의 구조와 유형 등 문법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한문 전적에 담긴 조상들의 사상과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좌동	좌동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어휘는 상당 부분 한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뜻을 지닌 성어를 이용해 표현하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다른 교과에서 사용하는 학습 용어의 상당수도 한자 어휘로 이루어져 있다. <b>따라서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를 중심으로</b> , 한자에 바탕을 둔 일상용어와 학습 용어, 성어를 익혀 언어생활을 원활히 하고 다른 교과에서 사용하는 학습 용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따라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중심으로, .....	..... 따라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바탕 위에 보다 확장된 한자를 중심으로, .....
한문과 인성	한문 기록 속에는 현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예컨대 인간의 존엄성 상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 물질 만능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의 만연 등에 대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 따라서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고 실천 가능한 내용을 정선하여 학습함으로써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좌동	좌동
한문과 문화	우리 생활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전통문화는 대부분 한자를 주된 기록 수단으로 하여 보존·전승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우리만의 민족 문화와 별도로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과 일정 부분 공유하는 정신문화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 및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익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좌동	좌동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는 ‘12한문 I 01 - 01’과 같이 각 성취기준마다 고유한 코드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교과 간, 교과 내 성취기준의 연계 파악을 통한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실 수업의 개선 기제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성취기준의 코드를 부여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학년군의 마지막 숫자, 교과목명, 영역번호(성취기준 그룹 번호)를 기재한 후 ‘-’ 후에 성취기준 번

호를 순서대로 기재함.

- 중학교는 한글자로 교과목명을 표현하고, 고등학교의 교과목을 두 글자로 기재하되, 로마자로 번호를 부여하는 과목명은 세 자리로 표현 가능함.<sup>9)</sup>

이러한 성취기준 코드 부여 원칙에 따라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코드 부여 방식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코딩 체계

구분	학년군의 마지막 숫자	교과목명	영역번호(성취기준 그룹 번호)	성취기준 번호
중학교 한문	9	한	·한자와 어휘 : 01	각 ‘영역 및 성취기준 그룹’ 내의 성취기준 번호 (내림차순)
고등학교 한문 I	12	한문 I	·한문의 독해 : 02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 03	
고등학교 한문 II	12	한문 II	·한문과 인성 : 04	
			·한문과 문화 : 05	

특히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자 했다. 즉, 2009 개정 교육과정 당시 하위 학교급의 내용이 상위 학교급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하위 학교급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 요소를 상위 학교급에서 제시하지 않았었는데,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하위 학교급의 내용과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상위 학교급에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요소를 상위 학교급에서도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면 ‘한자의 부수’와 ‘자전 찾기’에 관한 성취기준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한문에만 제시되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한문과 고등학교 한문 I에 모두 제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다루기 힘든 성취기준을 삭제하거나 통합하여 학습량의 적정화를 제고하고자 했다. 고등학교 한문 I의 경우를 예시하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유가 경전과 제자백가의 글을 읽고 사상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사리를 밝히거나 시비를 가리는 글을 읽고 주장의 근거를 판단할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는 글을 읽고 사건이나 인물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사실이나 사물을 기술하는 글을 읽고 지은이가 강조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실용문을 읽고 글의 내용을 글의 목적과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등과 같이 한문 문체의 특징과 이에 따른 서술 방식을 상세하게 성취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시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체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고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만을 통합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상의 방식에 따라 개발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제시하면 <표 8>과 같으며, 이를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수치상으로 비교해보면 <표 9>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8>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9)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c). 35면 참조.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	중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 I	고등학교 한문 II
한자와 어휘	<p>[9한01-01]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p> <p>[9한01-02]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p> <p>[9한01-03]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p> <p>[9한01-04]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구별한다.</p> <p>[9한01-05]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p> <p>[9한01-06]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p>	<p>[12한문 I 01-01]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p> <p>[12한문 I 01-02]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p> <p>[12한문 I 01-03]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p> <p>[12한문 I 01-04] 한자의 짜임을 구별한다.</p> <p>[12한문 I 01-05]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p> <p>[12한문 I 01-06]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p> <p>[12한문 I 01-07]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뀌는 ‘품사의 활용’을 구별한다.</p>	<p>[12한문 II 01-01]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p> <p>[12한문 II 01-02]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p> <p>[12한문 II 01-03]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p> <p>[12한문 II 01-04]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뀌는 ‘품사의 활용’을 구별한다.</p>
한문의 독해	<p>[9한02-01]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p> <p>[9한02-02] 문장의 유형을 구별한다.</p> <p>[9한02-03]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p> <p>[9한02-04] 토가 달려 있는 글을 토의 역할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p> <p>[9한02-05]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p> <p>[9한02-06] 한문 산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p> <p>[9한02-07]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p>	<p>[12한문 I 02-01]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p> <p>[12한문 I 02-02] 문장에서 생략되거나 도치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p> <p>[12한문 I 02-03] 문장의 유형을 구별한다.</p> <p>[12한문 I 02-04]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p> <p>[12한문 I 02-05] 토나 문장 부호가 달려 있는 글을 토나 문장 부호의 역할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p> <p>[12한문 I 02-06]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p> <p>[12한문 I 02-07]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p> <p>[12한문 I 02-08] 한시의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p>	<p>[12한문 II 02-01]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p> <p>[12한문 II 02-02] 문장에서 생략되거나 도치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p> <p>[12한문 II 02-03]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p> <p>[12한문 II 02-04] 토나 문장 부호가 달려 있는 글을 토나 문장 부호의 역할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p> <p>[12한문 II 02-05]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p> <p>[12한문 II 02-06] 한문 산문의 다양한 문체와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p> <p>[12한문 II 02-07] 한시의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p>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p>[9한03-01]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p> <p>[9한03-02]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p> <p>[9한03-03]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p>	<p>[12한문 I 03-01]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p> <p>[12한문 I 03-02]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p> <p>[12한문 I 03-03]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p>	<p>[12한문 II 03-01]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p> <p>[12한문 II 03-02]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p> <p>[12한문 II 03-03]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p>
한문과 인성	<p>[9한04-01] 한문 기록에 담긴</p>	<p>[12한문 I 04-01] 한문 기록에</p>	<p>[12한문 II 04-01] 한문 기록에</p>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	중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 I	고등학교 한문 II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담긴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담긴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한문과 문화	<p>[9한05-01]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형성한다.</p> <p>[9한05-02]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려는 태도를 형성한다.</p>	<p>[12한문 I 05-01]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형성한다.</p> <p>[12한문 I 05-02]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려는 태도를 형성한다.</p>	<p>[12한문 II 05-01]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형성한다.</p> <p>[12한문 II 05-02]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려는 태도를 형성한다.</p>

<표 9> 2009 개정 교육과정 대비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비교

영역별 성취기준 수					
2009 개정	영역	내용	중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 I	고등학교 한문 II
	독해	읽기	3	2	1
		이해	6	9	7
	문화	한자 문화	2	2	2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1	1	1
		한문학의 이해	0	0	2
	한문 지식	한자	6	5	1
		어휘	3	4	1
		문장	2	3	2
	계		23	26	17
2015 개정	영역	핵심 개념	중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 I	고등학교 한문 II
	한문의 이해	한자와 어휘	6	7	4
		한문의 독해	7	8	7
	한문의 활용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3	3	3
		한문과 인성	1	1	1
		한문과 문화	2	2	2
	계		19	21	17

라. 교수·학습 및 평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교수·학습 및 평가 관련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과 다르게 교수·학습 및 평가 관련 내용을 ‘영역(성취기준 그룹)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총론에서 제시한 작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sup>10)</sup>

○ ‘영역(성취기준 그룹)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작성 방법

■ 주요 성취기준 해설 및 학습 요소

- 해당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에 제시된 성취기준 중 교과서 개발 및 학교 현장에서 오해 및 혼동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거나 성취기준 특성상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술(선택적 제시 가능)
- 해당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필수 학습 요소를 핵심어(key word) 중심으로 제시하여 학습해야 할 내용을 보다 명료화함과 함께 교과서 개발이나 단위 학교 수업에서 학습내용의 양이 늘어나지 않도록 함.
- ※ 학습 요소를 전반적으로 제시하면서 성취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특별히 성취 기준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 없는 경우 개략적인 설명 후 곧바로 교수학습 전략으로 이동 가능
- 교과별 특성에 맞게 필요한 교과는 단위별, 또는 개별 성취기준을 구체화한 탐구주제 및 활동을 예시로 제시(통합사회, 통합과학은 필수로 영역별 또는 단위별 탐구 활동 제시, 기타 교과는 선택적 제시)

■ 교수·학습 방법(전략) 및 유의 사항

- 교과 영역(성취기준 그룹)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되, 영역 또는 성취 기준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예시적으로 제시
- 가급적 해당 교과의 대표적, 또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되, 학생 참여형 수업을 권장하며, 활용 가능한 자료, 자원 활용 방안, 지도상의 유의점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

■ 평가

- 해당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의 성취기준 특성에 비추어 적절하고 유용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평가 방안 등을 밝혀 둡.
- 학생의 정의적·인성 평가 및 형성·과정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등 제시
- 해당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의 성취기준의 평가 계획·실시 및 자원 활용(평가도구 등), 평가상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밝혀 둡.

○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작성 방법

■ 교수·학습 방향

- 교과의 성격이나 특성에 비추어 교과 학습의 철학, 가치 등을 제시함.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취지(융합·연계 교육, 학습자 중심 교육, 핵심역량(교과역량)의 개발 등)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시적인 교수·학습 방향을 제시
- 교과의 성격 및 특성에 비추어 요구되는 최신 교수·학습 이론 및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등을 큰 방향에서 제시

■ 평가 방향

- 교과의 성격이나 특성에 비추어 교과 평가의 철학, 가치 등을 제시함.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취지(융합·연계 교육, 학습자 중심 교육, 핵심역량(교과역량)의 개발 등)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시적인 평가 방향 제시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c). 48~49면 참조.

○ 교과와 성격 및 특성에 비추어 요구되는 최신 평가 이론 및 방법, 평가상의 유의점 등을 큰 방향에서 제시

이상의 작성 방식에 따라 작성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및 평가 관련 내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영역(성취기준 그룹)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학습 요소’는 해당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에서 학습해야 할 요소를 모두 제시하고자 하였다. ‘성취기준 해설’의 경우는 성취기준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진술이 필요한 항목에 한해 성취기준의 해설을 제시하였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 때 모든 성취기준에 해설을 부기했던 것과 형식상 차별된다고 하겠다. ‘한문의 이해-한문의 독해’ 영역의 한시 관련 성취기준을 예로 들어보면, 고등학교 한문 I 과 고등학교 한문 II 가 ‘한시의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란 동일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성취기준 해설을 보면 <표 10>과 같이 학습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표 10> 고등학교 한문 I 과 한문 II 의 한시 관련 성취기준 해설 비교

고등학교 한문 I	고등학교 한문 II
<p>한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한시의 시체(詩體), 압운(押韻), 대우(對偶),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 등 한시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 한시의 시체(詩體)는 크게 고체시(古體詩)와 근체시(近體詩)로 나뉘며, 한 구(句)의 자수(字數)에 따라 오언시, 칠언시 등으로 나뉜다. 압운법(押韻法)은 한시에서 특정한 구(句)의 끝자리를 운모(韻母)가 같은 글자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이때 압운된 글자를 운자(韻字)라고 한다. 운자는 대체로 짝수 구의 끝자리에 다는데, 첫째 구의 끝자리에도 달 수 있다. 대우법(對偶法)은 한시에서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으로도 어법상으로도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우를 이루는 두 구는 앞의 구를 출구(出句), 뒤의 구를 대구(對句)라고 부른다. 한시(漢詩)의 시상(詩想) 전개 방식은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네 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곧, 네 구(句)로 된 한시인 절구(絶句)의 경우, 기구(起句)에서 시상을 불러일으키고, 승구(承句)에서 시상을 이어받아 확대·발전시키며, 전구(轉句)에서 시상에 변화를 주어 장면이나 분위기를 비약·전환시켰다가, 결구(結句)에서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한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려면 시상 전개 과정을 잘 살펴서 시 전체의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p>	<p>한시의 시체(詩體)는 크게 고체시(古體詩)와 근체시(近體詩)로 나눌 수 있다. 고체시는 고시(古詩)라고도 하는 데, 당(唐)나라 때 근체시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지어진 시체로서, 구수(句數), 자수(字數), 운율(韻律) 등에 대한 규칙이 비교적 자유롭다. 한 구(句)의 자수가 5자로 이루어진 오언고시(五言古詩)와 7자로 이루어진 칠언고시(七言古詩)가 있다. 이외에도 한 구의 자수가 4자로 된 사언시(四言詩), 각 구의 자수가 일정하지 않은 잡언시(雜言詩) 등이 있다. 또한 한(漢)나라 때 민간의 가요(歌謠)를 채집하는 기관인 악부(樂府)에서 수집·정리한 민간의 가요 및 이를 모방하여 지은 후대 시인들의 작품을 아울러 이르는 악부시(樂府詩)도 고체시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근체시는 당나라 때 성립된 시체로서, 구수(句數), 자수(字數), 운율(韻律) 등에 대한 규칙이 엄격하다. 근체시는 작품 한 수(首)의 구수가 4구로 된 절구(絶句)와 8구로 된 율시(律詩), 그리고 10구 이상으로 된 배율(排律)이 있다. 평측법(平仄法)은 한시를 지을 때 구(句)를 이루는 각 글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평성에 해당하는 한자와 측성에 해당하는 한자를 일정하게 배치하는 규칙을 말한다. 한자는 글자마다 성조(聲調)를 가지고 있다. 한자의 성조는 평성(平聲), 상성(上聲), 거성(去聲), 입성(入聲)의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사성(四聲)이라고 한다. 또한 사성 중에서 낮고 평평한 소리인 평성을 제외한 나머지, 곧 올라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소리인 상성, 거성, 입성을 포괄하여 측성(仄聲)이라고 한다.</p>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의 ‘교수·학습 방법’에는 선행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중 해당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의 내용 요소를 학습하는 데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망라하고자 하였다. 진술문은 “‘한자의 모양·음·뜻’, ‘한자의 부수’, ‘한자의 필순’을 학습할 때에는 자전(사전, 옥편) 활용하기, 자원(字源) 활용하기, 부수(部首) 활용하기, 필순대로 따라 쓰기, 한자 카드 활용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와 같이 “A 내용 요소는 B, C, D, E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진술 방식을 취하여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유의 사항’에는 ‘교수·학습 방법’에 제시된 ‘자전(사전, 옥편) 활용하기’, ‘자원(字源) 활용하기’, ‘부수(部首) 활용하기’, ‘필순대로 따라 쓰기’, ‘한자 카드 활용하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해당 교수·학습 방법을 실행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은 해당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의 내용 요소를 평가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당초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방법의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하였으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이를 제시할 경우 평가의 획일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 평가의 중점만을 간략히 기술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지면 관계상 2015 개정 중학교 한문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만을 제시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중학교 한문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	중학교 한문
한자와 어휘	<p>■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p> <p>① 교수학습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자의 모양·음·뜻’, ‘한자의 부수’, ‘한자의 필순’을 학습할 때에는 자전(사전, 옥편) 활용하기, 자원(字源) 활용하기, 부수(部首) 활용하기, 필순대로 따라 쓰기, 한자 카드 활용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li> <li>• ‘한자의 짜임’을 학습할 때에는 한자 구조 분석하기, 한자의 구성 성분 활용하기, 한자 카드 활용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li> <li>• ‘단어의 짜임’을 학습할 때에는 단어 구조 분석하기, 비교·분석하기, 어휘 만들기, 한자 카드 활용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li> <li>• ‘실사와 허사’를 학습할 때에는 비교·분석하기, 허사 쓰임 유추하기, 한자 카드 활용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li> </ul> <p>②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사전, 옥편) 활용하기 : 자전(사전, 옥편)을 찾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부수(部首) 색인, 자음(字音) 색인, 총획(總畫) 색인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나 워드프로세서 또는 모바일 등의 필기 인식 기능을 이용해 전자사전에서 한자를 찾을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되, 단순히 모르는 한자를 찾는 것뿐 아니라 자전(사전, 옥편)에 수록된 한자의 모양·음·뜻 및 한자의 짜임과 용례 등 한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자원(字源) 활용하기 : 한자의 변천 과정을 통해 한자의 모양과 뜻을 익히도록 한다. 자원(字源)이 분명한 한자를 중심으로 지도하되, 자원 학습 자체에 목표를 두지 말고 한자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li> <li>• 부수(部首) 활용하기 : 학습자에게 부수에 대해 설명을 해 준 후 제시된 한자의 부수를 찾도록 하는 방법, 부수의 의미를 통해 그 한자의 뜻을 유추해 보도록 하는 방법, 해당 부수가 들어가는 여러 한자를 찾아보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한자의 부수를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말고, 한자의 모양을 보고 부수를 유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li>• 필순대로 따라 쓰기 : 한자의 필순을 보여주고 학습자가 그대로 따라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필순을 보여주는 방법으로는 교사의 판서나 활동지 및 플래시(flash)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필순의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한자를 중심으로 지도한다.</li> </ul>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	중학교 한문
한자와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자 구조 분석하기 : 한자의 짜임을 분석하여 한자 학습의 흥미와 효과를 높이도록 하되 학습 성과의 전이성(轉移性)을 높일 수 있는 한자를 중심으로 지도한다.</li> <li>• 한자의 구성 성분 활용하기 : 특정 부분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한자, 예를 들어 ‘每’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侮’, ‘梅’, ‘悔’, ‘敏’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하나의 구성 성분을 통해 여러 개의 한자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li>• 단어 구조 분석하기 : 단어를 형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의 결합 관계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한자 어휘의 조어(造語) 방법을 이해하고 한문 독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li>• 비교·분석하기 : 둘 이상의 어휘를 제시하고 그 어휘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익히도록 한다. 또 짧은 문장을 활용하여 문장 속에서 실사와 허사를 구분하고 그 쓰임을 비교할 수도 있다. 교사는 지침만 제시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li> <li>• 어휘 만들기 : 제시된 한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짜임의 어휘를 만들고 풀이해 보도록 한다. 교사는 지침만 제시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어휘를 만드는 과정에서 단어의 짜임을 바르게 이해하고 풀이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허사 쓰임 유추하기 : 허사가 사용된 문장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허사를 찾아보도록 한다. 찾은 허사의 여러 가지 쓰임을 알려주고 제시문에서 가장 적절한 쓰임을 유추해 보도록 한다. 단순 암기보다는 허사가 활용된 예시를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허사의 특징을 익히도록 지도한다.</li> <li>• 한자 카드 활용하기 : 교구(教具)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자 또는 단어가 적혀 있는 카드를 보여주는 방법, 카드를 순서에 맞게 배열하도록 하는 방법, 한자의 구성 성분이 적혀 있는 카드를 결합하여 한자를 완성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자의 모양·음·뜻’을 학습할 때에는 한자가 적힌 카드를 보여 주고 음과 뜻을 말하거나 써 보도록 하고, 반대로 한자의 음과 뜻이 적힌 카드를 보여주고 해당하는 한자를 찾아보거나 써 보도록 할 수 있다. 또는 한자 카드 여러 장을 일정 시간 보여주고 나서 뒤집은 후에 같은 한자를 찾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다.</li> <li>– ‘한자의 짜임’을 학습할 때에는 하나의 한자를 구성 성분에 따라 두 조각으로 나누어 만들어 사용한다. 즉 회의(會意)의 원리로 만들어진 한자는 두 개의 ‘뜻 부분’, 형성(形聲)의 원리로 만들어진 한자는 ‘음 부분’과 ‘뜻 부분’으로 나누어 조각을 만든 후 학습자가 조각을 맞추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한자의 짜임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여러 장의 다른 한자 카드를 보여주고 짜임이 같은 한자끼리 연결해보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li> <li>– ‘단어의 짜임’을 학습할 때에는 한자가 적힌 한자 카드를 배열하여 짜임에 맞는 단어를 만들어 보게 하거나 단어가 적혀 있는 카드를 보여 주고 단어의 짜임을 물어 보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li> </ul> </li> </ul> <p>■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자는 그와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의 성취와 활용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li> <li>• 단순히 한자를 쓰는 순서를 묻기보다는 한자를 정확하고 바르게 쓰는 것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li> <li>• 단순히 한자의 짜임이 무엇인지를 묻기보다는 한자의 짜임을 이해하고 한자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li> <li>• 단순히 단어의 짜임이 무엇인지를 묻기보다는 단어의 짜임을 이해하고 한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li> <li>• 단순히 실사와 허사가 무엇인지를 묻기보다는 그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li> <li>• 텍스트만 제시하기보다는 삽화나 사진, 신문, 광고 등 실생활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다양화한다.</li> </ul>
한자와 어휘	<p>■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p> <p>① 교수학습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의 구조’를 학습할 때에는 문장 구조 분석하기, 어순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허사의 쓰임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비교·분석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li> <li>• ‘문장의 유형’을 학습할 때에는 비교·분석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li> <li>• ‘소리 내어 읽기’를 학습할 때에는 낭송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li> <li>• ‘끊어 읽기’를 학습할 때에는 토 달아 읽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li> <li>• ‘내용과 주제’를 학습할 때에는 토의·토론하기, 역할 놀이 학습, 그림·만화 활용하기, 연구·방송 대본 만들기, 역사 신문 만들기, 가상 인터뷰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li> </ul>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	중학교 한문
한문의 독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와 감상’을 학습할 때에는 토의·토론하기, 역할 놀이 학습, 그림·만화 활용하기, 연구·방송 대본 만들기, 역사 신문 만들기, 가상 인터뷰하기,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기, 감상문 쓰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li> <li>②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 구조 분석하기 : 문장을 이루는 성분들 사이의 일정한 결합 방식을 분석하고, 문장을 이루는 주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 문장의 구조를 구별하고 문장의 독해에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학습자가 흥미를 잃지 않도록 문법적인 내용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않도록 한다.</li> <li>• 어순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 문장 성분의 배열에 나타나는 일정한 순서를 분석하고 우리말 어순과 비교하여 문장의 독해에 활용하도록 지도하되 한문의 어순과 우리말 어순의 차이점을 인식하도록 한다.</li> <li>• 허사의 쓰임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 허사의 쓰임에 유의하여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문장 독해에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허사는 문장 안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문장에서의 쓰임과 관련하여 이해하도록 한다.</li> <li>• 비교분석하기 : 문장의 구조, 문장의 유형 등을 분석하고 각각의 구조와 유형을 비교하거나 우리말의 구조와 비교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문장의 구조나 유형을 지나치게 분석하기보다는 문장에는 여러 가지 구조와 유형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낭송하기 : 교사가 먼저 소리 내어 읽으면 학습자가 함께 소리 내어 읽는 방법, 모둠별로 선창자(先唱者)를 정해 낭송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소리 내어 읽는 데 치중하지 말고 글의 내용을 떠올리고 음미하며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토 달아 읽기 : 이미 토가 달려 있는 문장을 교사가 먼저 소리 내어 읽으면 학습자가 함께 읽는 방법, 모둠별로 선창자(先唱者)를 정해 낭독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토는 종류가 매우 많고 현대 국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조사나 어미가 토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장에 사용된 토를 중심으로 그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토의·토론하기 : 교사가 토의·토론에 적합한 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모둠별로 토의·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모둠 간 상호 이해하는 활동을 경험해 보도록 한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되 토의·토론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한다.</li> <li>• 역할 놀이 학습 : 학습자에게 글의 내용과 연관된 특수한 상황이나 장면에서 처해보도록 하거나 글에 등장하는 인물의 역할을 실행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이나 타인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 혹은 신념을 깊이 있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그림·만화 활용하기 : 글의 내용과 주제, 이해와 감상 등과 관련하여 그림이나 만화를 그려보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되 그림이나 만화 자체의 완성도에 치중하지 않도록 한다.</li> <li>• 연구·방송 대본 만들기 : 글의 내용과 주제, 이해와 감상 등과 관련하여 연극이나 방송 대본을 만들어보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하되 대본 자체의 완성도에 치중하지 않도록 한다.</li> <li>• 역사 신문 만들기, 가상 인터뷰하기 : 글의 내용과 주제, 이해와 감상 등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에서 상상 일기나 편지, 논설문이나 신문 기사, 가상 인터뷰 기사 등을 써보게 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한다.</li> <li>•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기 : 글의 내용과 관련 있는 사소설·수필 또는 대중가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찾아보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한다.</li> </ul> </li> </ul>
한문의 독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의 구조나 문장 성분 찾기, 문장의 유형을 구별하도록 하되, 학습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 형태가 되도록 하고 문법적 내용보다는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li> <li>• 학습의 경험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집중하며 학습의 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li> <li>• 지필 평가, 관찰, 면담, 점검표, 논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지필 평가의 결과, 토의 및 토론의 참여도와 결과물 등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다양한 산출물 및 참여 태도를 종합하여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li> </ul> </li> </ul>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교수학습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용어’, ‘학습 용어’를 학습할 때에는 나만의 학습 노트 만들기, 짧은 글 짓기, 의미망 만들</li> </ul> </li> </ul> </li> </ul>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	중학교 한문
	<p>기, 신문이나 방송 영상 활용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어’를 학습할 때에는 나만의 학습 노트 만들기, 짧은 글 짓기, 의미망 만들기, 신문이나 방송 영상 활용하기, 성어의 유래 조사하여 발표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li> </ul> <p>②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만의 학습 노트 만들기 : 학습한 일상용어, 학습 용어, 성어를 조사하여 그 뜻과 쓰임을 정리 하도록 한다. 특히 고사성어는 겉뜻, 속뜻, 유래 등을 아울러 조사하게 한다. 교사는 지침만 제시하고 학습자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노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li> <li>• 짧은 글 짓기 : 학습한 일상용어, 학습 용어, 성어 등을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짓게 함으로써 그 단어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의미망 만들기 : 제시된 단어와 관련하여 의미망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의미망은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도식이다. 유의(類義) 또는 반의(反義)의 뜻을 갖는 단어를 조사하는 것도 그 중 한 방법이다. 교사는 지침만 제시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망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상용어, 학습 용어, 성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어휘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li> <li>• 신문이나 방송 영상 활용하기 : 학습한 일상용어, 학습 용어, 성어와 관련된 신문이나 방송 내용 찾기 또는 신문이나 방송 내용과 관련된 일상용어, 학습 용어, 성어 찾기 등을 통하여 그 단어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지침만 제시하고 학습자가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스스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성어의 유래 조사하여 발표하기 : 개인별 또는 모둠별로 고사성어의 유래, 속뜻 등을 조사한 후 그림, 스토리텔링, 역할 놀이, 영상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표하게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성어의 유래와 속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p>■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용어는 단순한 암기보다는 그 지시적·문맥적·비유적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li> <li>• 학습 용어는 단순한 암기보다는 해당 교과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li> <li>• 성어는 겉뜻 뿐만 아니라 속뜻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활용하는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li> </ul>
한문과 인성	<p>■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p> <p>① 교수학습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학습할 때에는 명언명구 속에서 핵심 사상 찾기, 영상 매체를 활용한 토의·토론하기, 명언·명구 암송하기, 자경문(自警文) 만들기, 성찰 일지 쓰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li> </ul> <p>②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언명구 속에서 핵심 사상 찾기 : 학습한 문장을 바탕으로 그 속에 담긴 핵심 사상(주제 의식)을 찾아봄으로써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주제에 대한 개별 또는 모둠별 발표를 통해 학습자 상호 간 가치관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선인들의 인간관, 학문관, 자연관, 역사관 등의 다면적 가치관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i> <li>• 영상 매체를 활용한 토의·토론하기 :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토의·토론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문제 상황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을 선정하되 학습 내용의 바탕에서 해결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의·토론의 과정에서 논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객관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명언명구 암송하기 : 널리 알려졌거나 삶의 교훈으로 삼을 만한 감명 깊은 명언명구를 골라 암송하여 적절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활동은 암송을 통해 한문 문장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우며,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내면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암송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되새기고 삶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지시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자경문(自警文) 만들기 : 선인들이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 지은 글을 학습한 후,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맞게 재구성하는 활동으로, 선인들의 생각 속에서 현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이 있다. 학습자의 입장과 상황에 맞는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을 기록, 검토, 발표하는 과정에 의미를 두도록 한다.</li> </ul>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	중학교 한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찰 일지 쓰기 : 학습한 명언·명구 중 한 문장을 골라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는 성찰 일지를 쓰는 활동이다. 개인 생활에 대한 반성의 기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회적인 수업보다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는 학습자의 변화를 관찰하고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li> </ul> <p>■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문과 인성은 개념적 원리나 지식보다는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일상생활에 실천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형성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이 담긴 글 가운데 현재적 가치를 지닌 문장을 정선하되 학습자가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세울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이를 위해 양적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를, 선택형 평가보다는 서답형 평가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습자의 변화와 성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관찰법이나 면접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li> <li>• 인성 영역의 평가는 정의적 평가가 중심이 되므로 교사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학습자 상호 평가나 자기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토의·토론의 과정이나 발표와 공감의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청, 배려, 협동, 공감 능력 등도 인성 역량 학습의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 행동 변화와 인성 함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li> </ul>
한문과 문화	<p>■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p> <p>① 교수·학습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학습할 때에는 토의·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 전통문화 그림으로 표현하기, 문화유산 답사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li> <li>•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학습할 때에는 토의·토론을 통한 한자문화권 이해하기, 한자문화권 언어·문화 사전 만들기, 한자문화권의 상호 교류 사례 찾아보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li> </ul> <p>②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의·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 : ‘전통문화가 갖는 현재적 의미, 창조적 계승·발전 방안’ 등의 주제에 대하여 모듈별로 토의·토론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주제를 제시하되 토의·토론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전통문화 그림으로 표현하기 : 명절·세시 풍속 등 전통문화와 관련한 글을 올바른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습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도록 한다. 전통문화를 실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친숙하게 여기게 하고 애정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li> <li>• 문화유산 답사하기 :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답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문화유산 답사를 통하여 활동지를 작성하고, 답사 후 활동으로 동영상이나 프레젠테이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탐구하는 활동을 통하여 전통문화의 심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계승·발전을 위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토의·토론을 통한 한자문화권 이해하기 : ‘한자문화권의 개념과 범위, 공통적 특징과 차이점, 상호 이해와 교류 방안’ 등의 주제에 대하여 모듈별로 토의·토론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주제를 제시하되 토의·토론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한다.</li> <li>• 한자문화권 언어·문화 사전 만들기 : 사전, 서적,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한자문화권 국가의 언어와 문화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한자문화권 언어·문화사전을 만든다. 모듈별 또는 학급별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활용하여 장기적 수행과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제 수행의 목표와 개개인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며 교사는 정기적으로 활동을 관찰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한다.</li> <li>• 한자문화권의 상호 교류 사례 찾아보기 :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한자문화권 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방식의 교류 사례를 찾아보고 이를 정리하여 발표해보도록 한다. 일회성 활동으로도 가능하나 중장기 수행과제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며 개인 또는 모듈별로 진행할 수도 있다. 과제 수행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여 과도하게 흥미 위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한다.</li> </ul> <p>■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태도 형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한다.</li> </ul>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	중학교 한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문화가 갖는 현재적 의미, 창조적 계승발전 방안, 한자문화권의 개념과 범위, 공통적 특징과 차이점, 상호 이해와 교류 방안’ 등의 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논술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li> <li>• 한자문화권의 문화(의복[衣], 음식[食], 주거[住] 등)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서적,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작성한 포트폴리오 등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li> </ul>

## (2)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은 미시적 차원의 교수·학습 및 평가를 제시한 ‘영역(성취기준 그룹)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와 달리 한문과의 성격과 특성에 비추어 한문과 교수·학습 및 평가가 추구해야 할 철학, 가치 등과 함께 교과 역량의 계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시적 차원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은 중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 I, 고등학교 한문 II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 가. 교수·학습 방향

- (1) 미래 사회에서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창의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 정보처리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인성 역량, 심미적 감성의 교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2)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하게 운영하되,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창의적인 학습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3) 학습자의 발달 수준 및 교육 목표와 내용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 (4) 학습자의 학습 준비 정도나 성취기준 도달 정도를 파악하고, 개인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계획한다.
- (5) 학습자, 가정, 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학습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학교급 간 및 다른 교과와의 융합·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 (6) 학습자가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한다.
  -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되, 교사와 학습자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수·학습 자료는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 ‘한문의 이해’, ‘한문의 활용’ 영역의 학습이 유기적·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나. 평가 방향

- (1) 의사소통 능력, 정보처리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인성 역량, 심미적 감성의 교과 역량을 바탕으로 성취기준별로 적합한 평가 방법을 모색하여 학습자의 학습 성취 정도를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2) 융합·연계 교육, 학습자 중심 교육, 핵심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하여 학습자의 성장과 수업 개선을 도모한다.
- (3) 평가의 목적, 주제, 대상, 기준, 시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필 평가와 수행평가,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 (4) 다양한 평가 방법과 기법 및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한 평가를 실시한다.
  - ‘한문의 이해’, ‘한문의 활용’ 영역의 평가 목표와 평가 내용에 적합한 선택형·서술형·논술형 지필 평가와 토론, 관찰, 면접(면담), 점검표, 구술시험, 연구 보고서, 포트폴리오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지필 평가의 결과, 토의 및 토론의 참여도와 결과물 등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다양한 산출물 및 참여 태도를 종합하여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 교사 중심의 평가 이외에 학습자의 자기 평가, 상호 평가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5)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되,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한문의 이해’, ‘한문의 활용’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자의 지식, 이해, 적용 능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되, 평가 내용이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한문 학습의 결과로 측정 가능한 지식이나 행동의 변화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기능과 태도 측면을 함께 평가하도록 한다.
  - 평가의 목적, 방법, 기준, 내용, 시기 등을 학습자에게 안내하여 평가를 통한 학습자의 한문 학습 능력 제고를 도모한다.
- (6) 학습자 중심 수업의 과정에 중점을 두는 실질적 평가를 구현함으로써 평가 결과가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7) 영역별 특성 및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 (8) 정적적, 과정적 요소가 평가에서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회적 평가가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 중의 수시 평가와 단계별 평가가 필요하다.
  - (9) 평가 결과는 학습자의 한문 학습 능력의 정도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하여 학습자의 한문 학습 능력 및 교과 핵심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며, 교사의 수업 방법 및 평가 방법 개선의 자료로 활용한다.
  - (10) 학습자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반성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 I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은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일관성 유지와 대영역 설정의 타당성 제고, 학교급별 학습내용의 위계화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내용 체계’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지식과 기능을 합쳐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문화를 비롯한 인성 및 한자 어휘 활용과 같은 내용 요소를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 ‘학년별·학교급별 학습시간과 학습발달상황을 고려하여 중학교 학습 내용 감축’,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교수·학습 및 평가 관련 내용 강화’를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때 ‘성격’과 ‘목표’를 통합하여 진술했던 것을 다시 ‘성격’과 ‘목표’로 분리해서 진술하였다. ‘성격’의 경우 과거에 비해 한문 교과를 왜 배워야 하며 한문 교과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했으며, 한문 문장의 독해력과 함께 한자 어휘 학습, 인성 및 문화 소양 함양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정보처리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인성 역량, 심미적 감성 등의 5가지를 한문과 교과 역량으로 설정하여 성격에 함께 제시한 것도 주목된다. ‘목표’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교육과정의 ‘성격’을 분리 서술하여 편폭이 다소 좁아졌는데, <중학교 한문>과 <고등학교 한문 I>에 ‘언어생활의 활용 능력’을 별도의 세부 목표로 설정한 것과 2007 개정 교육과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때 <고등학교 한문 II>의 세부 목표였던 ‘한국 한문학’ 관련 내용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삭제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내용 체계’는 교과 역량을 반영하기 위해 ‘영역’, ‘핵심 개념’, ‘내용(일반화된 지식)’, ‘학교급별 주요 내용요소’, ‘기능’으로 구성된 매트릭스표를 사용하였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없던 ‘핵심 개념’, ‘내용(일반화된 지식)’, ‘기능’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영역도 ‘독해’, ‘문화’, ‘한문 지식’에서 ‘한문의 이해’, ‘한문의 활용’으

로 변화되었다. ‘핵심 개념’을 기준으로 영역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문의 이해’ 영역은 교육과정 내용 중 기능적 요소를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하고자 ‘한자와 어휘’, ‘한문의 독해’를 두었으며, ‘한문의 활용’ 영역에는 한문과 수업에서 실질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를 두었다. 그리고 ‘기능’은 ‘읽기’, ‘풀이하기’, ‘이해하기’, ‘조사하기’, ‘활용/적용하기’를 기본으로 하되, 각 핵심 개념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하여 ‘표현하기’, ‘분석하기’, ‘토의·토론하기’ 등을 가감하였다.

‘성취기준’은 ‘내용 체계표’ 상의 ‘학년(군)별 내용 요소’와 ‘기능’을 정합한 문장 형태로 진술하고자 했다. 또한, 성취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 체계표’ 상의 ‘핵심 개념’을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으로 상정하고 해당 ‘영역 및 성취기준 그룹’의 설정 이유를 제시하였으며, 교과 간, 교과 내 성취기준의 연계 파악을 통한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실 수업의 개선 기제로 활용하기 위해 각 성취기준마다 고유한 코드를 부여하였다. 특히 이번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다루기 힘든 성취기준은 삭제하거나 통합함으로써 학습량의 적정화를 제고하고자 했다.

‘교수·학습 및 평가’는 기존과 달리 ‘영역(성취기준 그룹)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다. 먼저 ‘영역(성취기준 그룹)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는 각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에서 학습해야 할 요소를 모두 제시한 ‘학습 요소’와 성취기준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진술이 필요한 항목에 한해 작성한 ‘성취기준 해설’, 선행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중 해당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의 내용 요소를 학습하는 데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의 내용 요소를 평가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서술한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은 미시적 차원의 교수·학습 및 평가를 제시한 ‘영역(성취기준 그룹)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와 달리 한문과의 성격과 특성에 비추어 한문과 교수·학습 및 평가가 추구해야 할 철학, 가치 등과 함께 교과 역량의 계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시적 차원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을 기술하였다.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 「교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거대한 공통 밑에 종속변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교육과정에 관한 기초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을 맞이해야만 하는 군소 교과의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 교과의 위상을 제고해 보려고 교육과정 개발진은 如履薄氷의 심정으로 勞心焦思, 戰戰兢兢하면서 나름 독립변수가 되려고 무단히 애를 써보지만 결국은 ‘시간 배당’에서 그 한계를 절감하곤 한다. 수레바퀴를 막아서던 사마귀의 심정을 떠올려 볼 수밖에 없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에서 문·이과 계열의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학습하는 공통 과목을 만들고 그것만을 수능 대상 과목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논의에서 출발한 것이다.<sup>11)</sup>

禍不單行이라고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출발점에 대한 위 언급은 우리 漢文科에 지금보다 혹독한 시련의 시절이 다가올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현실을 타개할 묘책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悲憤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d). 7면 참조.

慷慨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온실 속의 화초보다는 들판의 야생화가 생명력이 길다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한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17].
- 교육부(2014), [보도자료]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사항 발표(2014.9).
- 교육부(2015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 교육부(2015b),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7].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a),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연구책임자 1차 워크숍 자료집.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b),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진 합동 워크숍 (4차) 자료집.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c),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진 5차 합동 워크숍 자료집.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d), 2015KICE이슈페이퍼, 수능 체제 개편의 쟁점 및 현황 - 2021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5-50-15.
- 김영춘·김길수·손민정·윤영순·윤지훈·이미영·이용백·장호성(2013), 미래 사회 대비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방향 탐색 -제2외국어·한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3-27.
- 장호성·윤지훈·윤재민·송병렬·김왕규·이군선·김은경·김지선·최현선·한은수(2015a),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 한문과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5-13.
- 장호성·윤지훈·윤재민·김왕규·이군선·김우정·김은경·이승현·최현선·정효영·배희정(2015b),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한문과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5-25-15.





# ‘한문의 이해-한자와 어휘’ 영역의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 분석

이군선(원광대학교)

## 1. 서론

교육부는 2015년 9월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 교육과정의 특징은 교과에서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길러주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내용체계에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문과의 내용도 2015 교육 과정에 맞추어 재조직되는 과정에서 2007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및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학습 내용 요소와 학습 내용 성취기준에 다소의 출입이 있게 되었다. 본고는 ‘한문의 이해 - 한자와 어휘’ 영역을 중심으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과 2007,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하여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한문의 이해 - 한자와 어휘’ 영역을 이해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2007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과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 성취기준을 인용하여 내용요소와 학습내용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먼저 ‘한문의 이해 - 한자와 어휘’ 영역의 내용체계와 내용 요소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학습내용 성취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2. ‘한문의 이해 - 한자와 어휘’ 영역의 내용 체계와 내용 요소

‘한문의 이해 - 한자와 어휘’ 영역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내용요소에서의 변화만 감지되는데 고등학교 ‘한문 I’의 경우 중학교 ‘한문’의 내용에 ‘품사의 활용’이 추가되었고 고등학교 ‘한문 II’는 중학교 ‘한문’에서 ‘한자의 부수’, ‘한자의 필순’, ‘한자의 짜임’이 빠졌고 ‘품사의 활용’이 추가되었으며 고등학교 ‘한문 I’에서 ‘한자의 부수’, ‘한자의 필순’, ‘한자의 짜임’이 빠졌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한문	한문의 이해	한자와 어휘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음·뜻을 지니고 있다.	한자의 모양·음·뜻	읽기
				한자의 부수	풀이하기
			단어를 구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에는 일정한 결합 관계가 있다.	한자의 필순	이해하기
				한자의 짜임	표현하기
한문 I	한문의 이해	한자와 어휘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음·뜻을 지니고 있다.	단어의 짜임	탐구하기 조사하기
				한문의 품사에는 단독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실사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허사가 있다.	분석하기 발표하기 활용하기
				실사와 허사	
				한자의 모양·음·뜻	읽기
한문 I	한문의 이해	한자와 어휘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음·뜻을 지니고 있다.	한자의 부수	풀이하기
				한자의 필순	이해하기
				한자의 짜임	표현하기

한문 II	한문의 이해	한자와 어휘	단어를 구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에는 일정한 결합 관계가 있다.	단어의 짜임	탐구하기 조사하기
			한문의 품사에는 단독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실사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허사가 있다.	실사와 허사	분석하기
				품사의 활용	발표하기 활용하기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음·뜻을 지니고 있다.	한자의 모양·음·뜻	읽기
			단어를 구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에는 일정한 결합 관계가 있다.	단어의 짜임	풀이하기 이해하기 표현하기
			한문의 품사에는 단독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실사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허사가 있다.	실사와 허사	탐구하기 조사하기
				품사의 활용	분석하기 발표하기 활용하기

‘한문의 이해 - 한자와 어휘’의 주요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보면 ‘한자와 어휘’에서 학급별 위계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라고 할 수 있다.

한문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높은 형상성과 강력한 의미전달력, 풍부한 조어력을 지닌 문자이다. 따라서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를 중심으로 한자와 한자 어휘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문장 학습과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문 I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높은 형상성과 강력한 의미전달력, 풍부한 조어력을 지닌 문자이다. 따라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중심으로 한자와 한자 어휘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문장 학습과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문 II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높은 형상성과 강력한 의미전달력, 풍부한 조어력을 지닌 문자이다. 따라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학습 성과의 바탕 위에 보다 확장된 한자를 중심으로 한자와 한자 어휘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문장 학습과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문과에서 학습해야 할 학습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한문	한자의 모양·음·뜻, 부수, 자전 찾기, 필순, 한자의 짜임(상형, 지사, 회의, 형성), 단어의 짜임(주술 관계, 술목 관계, 술보 관계, 수식 관계, 병렬 관계), 품사, 실사(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허사(개사, 접속사, 어조사, 감탄사)
한문 I	한자의 모양·음·뜻, 부수, 자전 찾기, 필순, 한자의 짜임(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단어의 짜임(주술 관계, 술목 관계, 술보 관계, 수식 관계, 병렬 관계), 품사, 실사(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허사(개사, 접속사, 어조사, 감탄사), 품사의 활용
한문 II	한자의 모양·음·뜻, 단어의 짜임(주술 관계, 술목 관계, 술보 관계, 수식 관계, 병렬 관계), 품사, 실사(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허사(개사, 접속사, 어조사, 감탄사), 품사의 활용

제시한 학습 요소를 살펴보면 중학교 ‘한문’보다 고등학교 ‘한문 I’에서는 ‘한자의 짜임’에 ‘전주’와 ‘가차’가 추가되었고 품사에서 ‘품사의 활용’이 더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문 II’는 중학교 ‘한문’에서 ‘부수’ ‘자전 찾기’ ‘필순’ ‘한자의 짜임(상형, 지사, 회의, 형성)’이 빠졌고 ‘한문 I’에서는 ‘부수’ ‘자전 찾기’ ‘필순’ ‘한자의 짜임(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이 빠졌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및 2009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한문의 이해 - 한자와 어휘’ 영역의 내용요소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2007	2009	2015
한문	한자의 형·음·의, 여러 가지 음과 뜻을 지닌 한자, 부수, 자전 찾기, 필순, 한자의 짜임(상형, 지사, 회의, 형성), 한자의 형성 과정, 자체의 변천 과정, 단어의 종류, 단어의 짜임(주술 관계, 술목 관계, 술보 관계, 수식 관계, 병렬 관계), 품사, 실사(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허사(개사, 접속사, 어조사, 감탄사), 어휘의 유형(유의어, 반의어), 성어	한자의 형·음·의, 여러 가지 음과 뜻을 지닌 한자, 부수, 자전 찾기, 필순, 한자의 짜임(상형, 지사, 회의, 형성), 한자의 형성 과정, 단어의 짜임(주술 관계, 술목 관계, 술보 관계, 수식 관계, 병렬 관계), 품사, 실사(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허사(개사, 접속사, 어조사, 감탄사), 성어	한자의 모양·음·뜻, 부수, 자전 찾기, 필순, 한자의 짜임(상형, 지사, 회의, 형성), 단어의 짜임(주술 관계, 술목 관계, 술보 관계, 수식 관계, 병렬 관계), 품사, 실사(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허사(개사, 접속사, 어조사, 감탄사)
한문 I	한자의 형·음·의, 여러 가지 음과 뜻을 지닌 한자, 필순, 한자의 짜임(상형, 지사, 회의, 형성), 한자의 형성 과정, 자체의 변천 과정, 단어의 종류, 단어의 짜임(주술 관계, 술목 관계, 술보 관계, 수식 관계, 병렬 관계), 품사, 실사(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허사(개사, 접속사, 어조사, 감탄사), 어휘의 유형(유의어, 반의어), 성어	한자의 형·음·의, 여러 가지 음과 뜻을 지닌 한자, 필순, 한자의 짜임(상형, 지사, 회의, 형성), 자체의 변천 과정, 단어의 짜임(주술 관계, 술목 관계, 술보 관계, 수식 관계, 병렬 관계), 품사의 활용(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허사(개사, 접속사, 어조사, 감탄사)의 쓰임, 성어	한자의 모양·음·뜻, 부수, 자전 찾기, 필순, 한자의 짜임(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단어의 짜임(주술 관계, 술목 관계, 술보 관계, 수식 관계, 병렬 관계), 품사, 실사(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허사(개사, 접속사, 어조사, 감탄사), 품사의 활용
한문 II	여러 가지 음과 뜻을 지닌 한자, 필순, 단어의 종류, 단어의 짜임, 품사의 활용, 허사, 어휘의 유형, 성어	여러 가지 음과 뜻을 지닌 한자, 유의어	한자의 모양·음·뜻, 단어의 짜임(주술 관계, 술목 관계, 술보 관계, 수식 관계, 병렬 관계), 품사, 실사(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허사(개사, 접속사, 어조사, 감탄사), 품사의 활용

중학교 ‘한문’의 경우 2007에서 2009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체의 변천과정’과 ‘어휘의 유형(유의어, 반의어)’가 빠졌고, 2015에서 ‘여러 가지 음과 뜻을 지닌 한자’와 ‘한자의 형성 과정’이 빠졌으며 ‘성어’가 ‘한문의 활용 -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로 넘어갔다.

고등학교 ‘한문 I’은 2007에서 2009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자의 형성과정’ ‘단어의 종류’ ‘어휘의 유형’이 빠졌고, 2015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음과 뜻을 지닌 한자’ ‘자체의 변천 과정’이 빠졌고, ‘한자의 짜임’에 ‘전주’와 ‘가차’가 추가되었으며 ‘성어’가 ‘한문의 활용 -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로

넘어갔다.

고등학교 ‘한문Ⅱ’는 2007에서 2009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필순’ ‘단어의 종류’ ‘단어의 짜임’ ‘품사의 활용’ ‘허사’ ‘어휘의 유형’ 중 ‘반의어’ ‘성어’가 빠졌다가 2015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단어의 짜임(주술 관계, 술목 관계, 술보 관계, 수식 관계, 병렬 관계)’ ‘품사의 활용’ ‘허사’는 다시 회복되었고, ‘한자의 모양·음·뜻’이 추가되었다.

### 3. ‘한문의 이해 - 한자와 어휘’ 영역의 성취 기준 해설

이어서 다룰 내용은 학습 내용 성취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에서 다루는 주된 설명은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을 원용하고 추가적으로 서술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추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학습내용 성취기준의 변화이다.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학습내용 성취기준과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 성취기준 변화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2009	2015
한문	(1) 한자의 형(形)·음(音)·의(義)를 알 수 있다. <b>(2)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알 수 있다.</b> (3) 한자의 부수(部首)를 알고, 사전에서 한자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 (4) 필순(筆順)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한자를 쓸 수 있다. (5) 한자의 짜임을 알 수 있다. <b>(6) 한자의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b> (7) 단어의 짜임을 알 수 있다. (8)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알 수 있다. <b>(9) 성어의 겉뜻과 속뜻을 이해할 수 있다.</b>	9한01-01.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9한01-02. 한자의 부수를 알고 사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 9한01-03.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9한01-04.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구별한다. 9한01-05.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9한01-06.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
한문 I	(1) 한자의 형(形)·음(音)·의(義)를 알 수 있다. <b>(2)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알 수 있다.</b> (3) 바른 모양과 순서를 고려하여 한자를 쓸 수 있다. (4) 상형·지사회의·형성자의 짜임을 알 수 있다. <b>(5) 한자 자체(字體)의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b> (6) 단어의 짜임을 알고 문장 독해에 활용할 수 있다. (7) 품사의 활용을 알 수 있다. (8) 허사의 쓰임을 알 수 있다. <b>(9) 성어의 유래를 알 수 있다.</b>	한문 I 01-01.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b>한문 I 01-02. 한자의 부수를 알고 사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b> 한문 I 01-03.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한문 I 01-04. 한자의 짜임을 구별한다. 한문 I 01-05.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한문 I 01-06.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 한문 I 01-07.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뀌는 ‘품사의 활용’을 구별한다.
한문	(1)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알 수	한문 II 01-01.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II	있다. (2) 유의어를 이해하여 문장 독해에 활용할 수 있다.	한문 II01-02.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한문 II01-03.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 한문 II01-04.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뀌는 ‘품사의 활용’을 구별한다.
----	---------------------------------------	--

학습내용 성취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한문’ ‘한문 I’ ‘한문 II’ 순으로 한다.

## 1) 한문

### 9한01-01.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이 학습내용 성취기준은 한자를 이루는 모양·음·뜻을 통하여 한자의 특징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음·뜻의 세 요소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문자이다. 곧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단지 어떤 음의 단위만을 나타내는 表音文字와 달리, 하나의 글자가 어떤 뜻의 단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뜻에 해당하는 소리까지도 아울러 나타내는 表意文字이다. 따라서 한자를 학습할 때에는 해당 글자의 모양과 소리와 뜻을 동시에 익혀 그 모양·음·뜻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형	木	天	水
음	목	천	수
의	나무	하늘	물

### 9한01-02.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

이 학습내용 성취기준은 자전에서 한자를 스스로 찾아 한자를 학습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한자의 부수를 안다.’란 자전에서 한자를 찾기 전에 부수가 되는 글자를 아는 것이다.

‘부수’란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필요한 기본 글자로 자전에서 자형을 중심으로 한자를 정리·분류·배열할 때 뜻을 나타내는 부분의 공통된 한자를 말한다. 자전에서는 이를 색인의 대표로 삼는다.

‘字典’이란, 한자의 부수 214자에 따라 분류한 한자를 획수의 차례로 배열하여 글자마다 우리말로 음과 뜻을 써 놓은 책으로, 이를 옥편이라고도 한다.

‘자전을 찾는데 활용한다.’는 부수를 이용하여 한자의 ‘모양, 음, 뜻’을 자전에서 찾는 것이다. 이를 ‘부수색인 이용법’이라고 하는데 자전의 ‘부수색인’을 통해 부수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찾고 부수 외의 획수를 이용하여 한자를 찾는 것이다.

이외에도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방법으로 ‘총획색인 이용법’, ‘자음색인 이용법’ 등이 있다.

### 9한01-03.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이 학습내용 성취기준은 한자를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한자를 필순에 맞게 쓰면 바르고 맵시 있게 쓰는 데 편리하므로 한자를 익힐 때 필순에 맞게 바른 모양으로 한자를 쓰도록 한다. 단, 한자를 바르게 쓰는 것은 중요하나, 한자의 필순 원칙에서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며, 나라마다 필순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학습자에게 글자를 쓰는 순서나 획수 지도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

필순의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 ② 위에서 아래로 쓴다.
- ③ 가로획과 세로획이 교차될 때에는 가로획을 먼저 쓴다.
- ④ 빼침과 파임이 만날 때에는 빼침을 먼저 쓴다.
- ⑤ 좌우의 모양이 같을 때에는 가운데를 먼저 쓴다.
- ⑥ 안쪽과 바깥쪽이 있을 때에는 바깥쪽을 먼저 쓴다.
- ⑦ 꿰뚫는 획은 나중에 쓴다.
- ⑧ 오른쪽 위의 점은 나중에 찍는다.
- ⑨ 받침은 나중에 쓴다.

#### 9한01-04.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구별한다.

이 학습내용 성취기준은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익혀 한자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정하였다.

○ 9한01-04 :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이해하면 한자의 모양과 음과 뜻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는 ‘상형(象形)’,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으로 나눌 수 있다. ‘상형’은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원리이다. ‘지사’는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점이나 선으로 나타내는 원리이다. ‘회의’는 이미 만들어진 둘 이상의 글자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되, 그 글자들이 지닌 뜻을 합쳐서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원리이다. ‘형성’은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결합하여 새로운 뜻을 만들되, 일부는 뜻을 나타내고 일부는 음을 나타내는 원리이다.

한자는 애초에는 생활 주변에 있는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러나 생활의 영역이 확대되고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수많은 사물과 다양한 생각을 나타내기 위한 많은 수의 글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는 ‘象形’, ‘指事’, ‘會意’, ‘形聲’으로 나눌 수 있다.

‘象形’은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드는 원리이다.

예를 들면 ‘日’은 ‘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였는데, 글자의 모양이 바뀌어 오늘날에는 ‘日’과 같은 글자로 된 것이다.

日(일) : ☉ → 日 → 日[해]

月(월) : 月 → 月 → 月[달]

‘상형’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는 위의 보기처럼 시각적인 형태 자체에서 그 문자가 가리키는 사물을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그 한자가 가리키는 뜻까지도 알 수 있다.

‘지사’는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점이나 선으로 나타내어 글자를 만드는 원리이다.

예를 들면 ‘上’은 ‘위’라는 뜻을 점과 선으로 나타낸 글자인데, 기준선[一] 위에 어떤 물체[●]가 있음

을 나타낸 글자[上]에서 ‘上’과 같은 글자의 모양으로 바뀌었다.

上(상) : 𠀤 → 上 → 上[위]

本(본) : 𣎵 → 本 → 本[근본]

‘지사’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는 위의 보기처럼 시각적인 형태 자체에서 그 문자가 가리키는 개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상형과 지사에 해당하는 한자는 모든 한자의 기본이 되는 글자로서, 한자의 部首 글자는 거의 이에 속하기 때문에 ‘회의자’와 ‘형성자’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글자로 쓰인다.

‘회의’는 이미 만들어진 둘 이상의 글자들을 결합하되, 그 글자들이 지닌 뜻을 합쳐서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글자를 만드는 원리이다.

예를 들면 ‘男’은 이미 만들어 놓은 ‘田’자와 ‘力’자를 결합하여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글자로, 밭[田]에 나가 쟁기[力]를 사용하여 일하는 사람이 남자[男]라는 뜻을 나타낸다.

田[밭] + 力[쟁기] → 男[(남) 남자]

亻[사람] + 木[나무] → 休[(휴) 쉬다]

‘회의’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는 결합된 외형 형태에 있어 기성 문자가 상하, 좌우, 내외 등으로 결합되며, 글자들의 결합된 뜻으로 새로운 뜻을 나타낸다.

‘형성’은 이미 만들어진 둘 이상의 글자를 결합하되, 일부는 뜻[形]을 나타내고 일부는 음[聲]을 나타내는 글자를 결합하여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글자를 만드는 원리이다.

예를 들면 ‘洋’은 이미 만들어진 ‘水(氵)’와 ‘羊’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水’는 ‘물’과 관련된 뜻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羊’은 ‘양’이라는 음을 나타내어, 결국 ‘洋’은 ‘바다’라는 뜻과 ‘양’이라는 음을 지닌 새로운 글자가 된 것이다.

豆[(두) 콩] + 頁[(혈) 머리] → 頭[(두) 머리] — { 豆 : ‘두’라는 음을 취함  
頁 : ‘머리’라는 뜻을 취함

門[(문) 문] + 耳[(이) 귀] → 聞[(문) 듣다] — { 門 : ‘문’이라는 음을 취함  
耳 : ‘귀’라는 뜻을 취함

‘형성’의 원리에 의하여 한자를 만드는 방법은 사물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상형’, 점이나 선으로 추상적인 뜻을 나타내 보인 ‘지사’와는 달리 기존의 한자를 가지고 소리와 뜻을 나타낼 수 있는 한자를 자유롭게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언어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수많은 글자가 ‘형성’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전체 한자의 70% 이상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형성’의 원리는 形과 音의 짜임 학습을 통하여 한자 자체의 음을 짐작할 수 있고, 뜻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한자 학습의 흥미와 효과를 기할 수 있다.

#### 9한01-05.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이 학습 내용 성취기준은 단어의 짜임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 9한01-05 : ‘단어의 짜임’은 단어를 형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의 결합 관계를 말한다. 단어의 짜임은 문법적 기능에 따라 주술 관계(主述關係), 술목 관계(述目關係), 술보 관계(述補關係), 수식 관계(修飾關係), 병렬 관계(並列關係)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술 관계는 주어(主語)와 서술어(敍述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서술어는 주어에 대해 진술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주어는 서술어의 진술을 받는 대상이 된다. 주어를 먼저 새기고, 서술어는 나중에 새긴다. 술목 관계는 서술어와 목적어(目的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서술어는 동작이나 행위 또는 소유(예: 有, 無)를 나타내고, 목적어는 그 대상이 된다. 목적어를 먼저 새기고, 서술어를 나중에 새긴다. 술목 관계의 단어는 어순(語順)이 우리말과 다르다. 술보 관계는 서술어와 보어(補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서술어는 동작, 행위, 상태 등을 나타내고,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하여 부족한 뜻을 완전하게 해 준다. 보어를 먼저 새기고, 서술어를 나중에 새긴다. 술보 관계의 단어도 어순이 우리말과는 다르다. 수식 관계는 수식어(修飾語)와 피수식어(被修飾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수식어는 피수식어의 성격에 따라 명사류를 수식하는 것과 동사류를 수식하는 것이 있다. 병렬 관계는 성분이 같은 말들이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이에는 서로 상대되는 의미를 가진 한자가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경우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한자가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두 개 이상의 의미 요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이룰 때에는 반드시 어떤 기능상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단어의 짜임을 문법적 기능 관계에 따라 이해하게 되면, 단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여 어휘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는 데에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단어의 짜임을 학습할 때에는 용어나 상호 관계를 도식적으로 강조하는 식의 문법 중심 학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용례를 통하여 단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풀이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 주술 관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서술어는 주어에 대해 진술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주어는 서술어의 진술을 받는 대상이 된다. 주어를 먼저 새기고, 서술어는 나중에 새긴다.

年少 [나이가 어림]

人和 [사람들이 화목함]

#### 술목 관계

서술어와 목적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서술어는 동작이나 행위 또는 소유를 나타내고, 목적어는 그 대상이 된다. 목적어를 먼저 새기고, 서술어를 나중에 새긴다. ‘술목 관계’의 단어는 어순이 우리말과 다르다. 목적어를 먼저 새기고 서술어는 나중에 새긴다.

立志 [뜻을 세움]

有罪 [죄가 있음]



無情 [정이 없음]

### 술보 관계

서술어와 보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서술어는 동작, 행위, 존재, 상태 등을 나타내고,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하여 부족한 뜻을 완전하게 해 준다. ‘술보 관계’의 단어도 그 어순이 우리말과는 다르다. 보어를 먼저 새기고, 서술어를 나중에 새긴다.

難解 [풀기가 어려움]

多感 [느낌이 많음]

下山 [산에서 내려옴]

登山 [산에 오름]

入學 [학교에 들어감]

### 수식 관계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수식어는 피수식어의 성격에 따라 명사류를 수식하는 것과 동사류를 수식하는 것이 있다.

友情 [친구 사이의 정] (명사류 수식)

靑山 [푸른 산] (명사류 수식)

廣告 [널리 알림] (동사류 수식)

이 외에도 ‘極甚 [매우 심함]’의 경우처럼 형용사류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 병렬 관계

성분이 같은 말들이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이에는 서로 상대되는 의미를 가진 한자가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경우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한자가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大小 [크고 작음] (서로 상대되는 의미)

男女 [남자와 여자] (서로 상대되는 의미)

海洋 [바다] (서로 비슷한 의미)

運動 [움직임] (서로 비슷한 의미)

## 9한01-06.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

이 학습 내용 성취기준은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의 종류와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 9한01-06 : ‘품사(品詞)’는 어휘를 의미와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모아 놓은 단어들의 갈래를 말한다. 한문의 품사에는 단독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실사(實辭)’와 단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고 단독으로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허사(虛辭)’가 있다. ‘실사’에 속하는 품사로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다. ‘허사’에 속하는 품사로는 개사, 접속사, 어조사, 감탄사가 있다.

## (1) 실사

문장에서 실사에 해당하는 품사 중 무슨 품사에 해당하는지 구별하도록 한다.

### 名詞

‘山’ ‘顔淵’ ‘仁’ ‘義’ ‘正路’ 등 사물이나 개념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에 해당한다.

仁者, 樂山.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顔淵, 問仁. [안연이 인을 묻다.]

義, 人之正路也.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

### 代名詞

‘我’ ‘是’ ‘誰’ ‘其’ ‘之’ 등 사람이나 사물, 장소 및 상태나 동작 등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에 해당한다.

人皆有兄弟, 我獨亡. [남들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나만 홀로 없다.]

是, 誰之過與?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樂民之樂者, 民亦樂其樂. [백성의 즐거움을 즐기는 자는 백성이 또한 그의 즐거움을 즐긴다.]

吾將問之. [제가 장차 그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 數詞

‘十有五’ ‘第三’ 등 사물의 수량이나 차례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에 해당한다.

吾十有五而志于學. [나는 열다섯 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

宣祖, 德興君第三子也. [선조 임금은 덕흥군의 셋 째 아드님이다.]

### 動詞

‘坐’ ‘敬’ ‘愛’ ‘無’ ‘有’ ‘爲’ 등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 행위, 심리 활동, 소유, 존재 등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에 해당한다.

坐於堂上. [당 위에 앉다.]

敬天愛人. [하늘을 공경하고 사라움을 사랑하다.]

無恒產而有恒心者, 惟士爲能.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서도 몇몇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능할 수 있다.]

### 形容詞

‘明’ ‘大’ 등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에 해당한다.

月明. [달이 밝다.]

天下之水, 莫大於海. [천하의 물은 바다보다 큰 것이 없다.]

### 副詞

‘益’ ‘皆’ ‘不’ ‘將’ 등 동사나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여 정도, 범위, 시간, 부정 등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에 해당한다.

水益深. [물이 더욱 깊어지다.]

志之立, 知之明, 行之篤, 皆在我耳. [뜻이 섬, 앎이 밝음, 행실이 도타움은 모두 나에게 달려 있을 따름이다.]

不知老之將至. [늙음이 장차 이르는 것을 알지 못한다.]

## (2) 허사

문장에서 허사에 해당하는 품사 중 무슨 품사에 해당하는지 구별하도록 한다.

### 介詞

‘於’ ‘以’ ‘自’ 등 일반적으로 명사나 대명사 등 名詞類 앞에 놓여 그 명사류를 서술어와 연결해주면서 처소, 대상, 도구, 시간, 원인, 비교 등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에 해당한다.

月出於東天. [달은 동쪽 하늘에서 뜬다.]

弟以其一與兄. [아우가 그 중의 하나를 형에게 주다.]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 接續詞

‘與’ ‘而’ ‘且’ ‘則’ 등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문장과 문장 등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가 이에 해당한다.

富與貴, 人之所欲也. [부와 귀는 사람이 바라는 바이다.]

任重而道遠. [소임은 무겁고 길은 멀다.]

重且大. [중하고도 크다.]

水至清, 則無魚.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

### 語助詞

‘夫’ ‘之’ ‘也’ ‘矣’ ‘者’ ‘所’ 등 단어나 어구 또는 문장의 앞, 가운데나 뒤에 와서 문법적인 의미나 語氣 등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에 해당한다.

夫死生有命, 富貴在天. [무릇 죽고 사는 것은 명이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

子不談父之過.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仁, 人心也. [인은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이다.]

朝聞道, 夕死可矣.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汝何不受乎? [너는 어찌서 받지 않느냐?]

仁者, 不憂.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다.]

子之所言, 世俗之言也. [그대가 말하는 것은 세속의 말이다.]

### 感歎詞

‘嗚呼’ ‘惡’ ‘諾’ 등 문장의 밖에 독립적으로 놓여 話者의 부름, 느낌, 놀람이나 응답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에 해당한다.

嗚呼! 哀哉! [아! 슬프도다!]

惡! 是何言也? [아! 이 무슨 말이고?]

諾! 吾將問之. [예! 제가 장차 그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 2) 고등학교 한문 I

### 한문 I 01-01.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이 학습 내용 성취기준은 중학교 ‘한문’의 ‘9한01 - 01.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와 연계된다. ‘한문 I’에서는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자의 모양·음·뜻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한문 I 01-02.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

이 학습 내용 성취기준은 중학교 ‘한문’의 ‘9한01 - 02.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와 연계된다. ‘한문 I’에서는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한문 I 01-03.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이 학습 내용 성취기준은 중학교 ‘한문’의 ‘9한01 - 03.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와 연계된다. ‘한문 I’에서는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한자의 필순을 알고 바르게 쓸 수 있어야 한다.

### 한문 I 01-04. 한자의 짜임을 구별한다.

○ 한문 I 01-04 : 한자의 짜임은 일정한 구성 원리와 응용 원리에 따라 크게 ‘상형(象形)’,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 ‘전주(轉注)’, ‘가차(假借)’ 등 6가지로 나뉜다. 이를 육서(六書)라고 한다. 이 중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은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원리이고, ‘전주’와 ‘가차’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응용하는 원리이다. ‘전주’와 ‘가차’는 **학설이 다양하여 학습에 혼동을 주므로,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을 위주로 학습한다.**

이 학습 내용 성취기준은 중학교 ‘한문’의 ‘9한01 - 04.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구별한다.’와 연계된다. ‘한문 I’에서는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상형자’ ‘지사자’ ‘회의자’ ‘형성자’의 짜임 원리를 익혀 한자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한문 I 01-05.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 한문 I 01-05 : ‘단어의 짜임’은 단어를 형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의 결합 관계를 말한다. 단어의 짜임을 문법적 기능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주술 관계(主述關係)는 주어(主語)와 서술어(敍述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며, 술목 관계(述目關係)는 서술어(敍述語)와 목적어(目的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술보 관계(述補關係)는 서술어와 보어(補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수식 관계(修飾關係)는 수식어(修飾語)와 피수식어(被修飾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병렬 관계(並列關係)는 성분이 같은 말들이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그러나 한문의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 완전한 의미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단어의 짜임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는 단어가 문장 속에 위치하여 다른 어휘들과의 관계 아래에서 자신의 의미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파악할 때에는 문맥을 고려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이 학습 내용 성취기준은 중학교 ‘한문’의 ‘9한01 - 05.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와 연계된다. ‘한문 I’에서는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단어의 짜임을 이해하고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달라지는 단어의 짜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술·수식 관계

형태상으로 주술구조이지만 앞에 주어가 있고 명사+동사의 형식을 지니는 단어일 경우 명사가 부사로 쓰여 수식어가 되어 수식 관계의 단어가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商人願賣者 雲集館門之外[팔기를 원하는 상인들이 관문밖에 운집하였다.]

이 문장은 ‘雲集’이 ‘명사+동사’의 형태로 ‘주술 관계’가 되어야 하지만 주어인 ‘商人願賣者’가 앞에 있어 명사인 ‘雲’이 주어가 되지 못하고 동사인 ‘集’을 꾸며주는 부사로 쓰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식 관계’의 단어가 된다.

아래 문장의 경우는 ‘蠶食’이 단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蠶食葉’이라는 ‘주술목 구조’의 문장으로 쓰여 ‘누에가 잎을 먹다’로 풀이된다.

雙管聲飛蠶食葉 一爐香焚鴨生煙 [쌍대쪽에 소리가 나니 누에 잎을 먹는 듯하고 한 화로에 향기 났으니  
오리 연기를 뿜어 내더라.]

하지만 다음 문장의 경우 ‘잠식’은 ‘수식 관계’의 단어로 쓰였다. 이는 ‘蠶食’이 ‘명사+동사’의 형태로 ‘주술 관계’가 되어야 하지만 문장 앞에 주어 ‘秦’이 생략되어 명사인 ‘蠶’이 주어가 되지 못하고 동사인 ‘食’을 꾸며주는 부사로 쓰였다.

自穆公以來稍蠶食諸侯[목공 때부터 제후를 잠식하였다.]

다음 문장의 ‘雲集’과 ‘蜂起’ ‘山積’ ‘雲屯’ ‘電擊’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

目今六路勤王之師 幾盡雲集 鄉兵義旅 處處蜂起[지금 六路의 勤王兵이 거의 다 집결하였고, 鄉兵과  
義旅가 곳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共說壚頭新釀厚 千金山積李層樓 [술상 머리서 새로 빚은 술 좋다고들 말하니 천금이 이층루에 산처럼  
쌓인다.]

雲屯千井肅 電擊一隅空 [구름 같은 주둔군에 천 마을이 숙연하고 번개 같은 공격에 한 방면이 텅 비겠  
지.]

#### 술목, 술보 관계

술목 관계의 단어와 술보 관계의 단어도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에 따라 ‘단어의 짜임’이 달라진다. ‘爲人’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爲人’의 사전적 풀이는 ‘사람됨’ 혹은 ‘남을 위하다.’이다.

有子曰 其爲人也孝弟 [유자가 말하였다. “그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공손하다.”]

古之學者 爲己 今之學者 爲人 [옛날의 학자는 자기를 위하여었는데 지금의 학자는 남을 위한다.]

앞 문장에서 ‘爲人’은 ‘사람됨’이란 뜻으로 쓰여 ‘술보 관계’의 단어이지만 아래 문장의 ‘爲人’은 ‘남을 위하다’라는 뜻으로 쓰여 단어의 짜임은 ‘술목 관계’에 속한다.

#### 술목, 수식 관계

또한 같은 형태의 단어라도 ‘술목 관계’와 ‘수식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문장에서 사용된 성분이 바뀌면 단어의 짜임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子曰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남을 알지 못함을 근심하  
라.]

이 문장에서 ‘知人’은 ‘남에 대하여 알다’ ‘남을 알다’는 의미로 ‘술목 관계’의 단어이다. 그러나 다음 문장에 나오는 ‘知人’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夫既登而求降階者 知人也 [이미 높은 자리에 올라서 관계를 낮추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기에서 ‘知人’은 ‘지혜로운 사람’의 의미로 쓰여 ‘수식 관계’를 이루고 있다.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生水’는 ‘샘에서 나오는 맑은 물’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수식관계가 되지만 다음 문장에서는 ‘물을 낳다’는 의미로 쓰여 술목 관계가 된다.

易曰 天一生水 地六成之 [天이 1로써 水를 낳으면 地가 6으로써 이를 완성한다.]

그리고 ‘監試’도 ‘시험을 감독함’이라는 의미로 쓰이면 ‘술목 관계’의 단어가 되고 ‘국자감시’ 혹은 ‘생원 진사를 뽑던 시험’이라는 의미로 쓰이면 ‘수식 관계’의 단어가 된다.

이처럼 단어는 문장 밖에서의 쓰임과 문장 안에서의 쓰임이 달라지는 경우 ‘단어의 짜임’ 역시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달라지는 단어의 짜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한문 I 01-06.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

○ 한문 I 01-06 : ‘품사(品詞)’는 어휘를 의미와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모아 놓은 단어들의 갈래를 말한다. 한문의 품사에는 단독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실사’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허사’가 있다. 실사에 속하는 품사로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다. **명사(名詞)**는 사물이나 개념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며, **대명사(代名詞)**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및 상태나 동작 등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수사(數詞)**는 사물의 수량(數量)이나 차례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동사(動詞)**는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 행위, 심리 활동, 소유, 존재 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형용사(形容詞)**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며, **부사(副詞)**는 동사나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여 정도, 범위, 시간, 부정 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허사에 속하는 품사로는 개사, 접속사, 어조사, 감탄사가 있다. **개사(介詞)**는 일반적으로 명사나 대명사 등 명사류(名詞類) 앞에 놓여 그 명사류를 서술어와 연결 해주면서 처소, 대상, 도구, 시간, 원인, 비교 등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접속사(接續詞)**는 단어와 단어, 어구(語句)와 어구, 문장과 문장 등을 서로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이고, **어조사(語助詞)**는 단어나 어구 또는 문장의 앞, 가운데나 뒤에 와서 문법적인 의미나 어기(語氣) 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감탄사(感歎詞)**는 문장의 밖에 독립적으로 놓여 화자(話者)의 부름, 느낌, 놀람이나 응답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다만 허사의 경우 같은 품사에 속하는 허사들 간에도 문법적 기능과 의미 차이가 있으므로 각 허사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여 정확하게 문장을 독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학습 내용 성취기준은 중학교 ‘한문’의 ‘9한01 - 06.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와 연계된다. ‘한문 I’에서는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범위의 한자가 활용된 문장에서 실사에 해당하는 품사가 어떻게 쓰였는가와 허사에 해당하는 품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적인 쓰임에 대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1) 실사

## 명사

사물이나 개념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天帝使我長百獸. [하느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였다.]

許生居墨積洞. [허생이 묵적동에 살았다.]

出乎心, 發乎口. [마음에서 우러나 입으로 나온다.]

## 대명사

사람이나 사물, 장소 및 상태나 동작 등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吾爲子先行. [내가 그대를 위해서 앞서 가겠다.]

誰怨誰咎.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리오?]

樂民之樂者, 民亦樂其樂. [백성의 즐거움을 즐기는 자는 백성이 또한 그의 즐거움을 즐긴다.]

이 외에서 다음과 같이 특수하게 쓰이는 대명사도 있다.

或爲大人, 或爲小人.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된다.]

養心, 莫善於寡欲. [마음을 기르는 데에는 욕심을 적게 가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某之所爲[아무개가 한 것입니다.]

‘或’은 명확하게 가리키는 대상이 없이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되, 긍정의 뜻을 담아 ‘어떤 사람’의 뜻을 나타낸다. ‘莫’은 부정의 뜻을 담아 ‘어떤 것도 없음’의 뜻을 나타낸다. ‘某’는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의 이름을 피하려는 뜻을 담아 ‘아무개’라는 말로 쓰인다.

## 수사

사물의 數量이나 차례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四十而不惑. [마흔 살에 미혹되지 않았다.]

宣祖, 德興君第三子也. [선조 임금의 덕흥군의 셋째 아드님이다.]

## 동사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 행위, 심리 활동, 소유, 존재 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坐於堂上. [당 위에 앉다.]

敬天愛人.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다.]

無恒產而有恒心者, 惟士爲能.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서도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능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동사가 있다.



① 能, 可, 得

可能을 나타내는 助動詞이다. 조동사는 일반적으로 동사 또는 動詞類 앞에 위치하여 그 동사 또는 동사류의 작용을 보조해 주는 특수한 동사이다.

能行大事乎? [큰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豈可是己而非人? [어찌 자기만을 옳다고 하고 남을 그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不得<sub>不</sub>讀之. [그것을 읽지 않을 수 없었다.]

② 欲, 願

원망(願望)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다.

樹欲靜而風不止.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는다.]

願聞子之志. [그대의 뜻을 듣고 싶다.]

③ 當

당연(當然)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다.

汝當見金如石. [너는 마땅히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여야 한다.]

④ 被, 見

피동(被動)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다.

被虜於百濟. [백제 군사에게 사로잡혔다.]

今我若入彼見害. [지금 내가 만약 저 고구려 땅에 들어가서 해를 당한다면]

⑤ 使, 令, 教, 遣, 俾

使動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다.

使人守之. [사람을 시켜서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賢婦令夫貴. [어진 아내는 남편으로 하여금 귀하게 한다.]

誰教其人作此詩乎? [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시를 짓게 하였는가?]

王遣庾信率步騎一萬据之. [왕이 유신을 시켜 보병과 기병 일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것을 막게 하였다.]

無俾民憂. [백성들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라.]

형용사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余家貧無馬. [우리 집이 가난하여 말이 없었다.]

季氏富于周公. [계씨가 주공보다 부자다.]

## 부사

동사나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여 정도·범위·시간·부정 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水益深. [물이 더욱 깊어지다.]

志之立, 知之明, 行之篤, 皆在我耳. [뜻이 섬, 앎이 밝음, 행실이 도타운은 모두 나에게 달려 있을 따름이다.]

不知老之將至. [늙음이 장차 이르는 것을 알지 못한다.]

## (2) 허사

### 개사

일반적으로 명사나 대명사 등 명사류 앞에 놓여 그 명사류를 서술어와 연결해주면서 처소, 대상, 도구, 시간, 원인, 비교 등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명사류와 어울려 ‘개사 + 목적어’의 구조를 이루어, 보통 서술어의 뒤에서 서술어를 보충하거나 서술어의 앞에서 서술어를 수식·한정하는 구실을 한다.

#### ① 於(于, 乎)

명사류 앞에 위치하여 처소, 대상, 시간, 비교, 피동 등의 뜻을 나타낸다.

齊侯盟諸侯于葵丘. [제나라 임금이 제후들과 규구에서 맹약을 했다.]

一年之計, 在於春. [일 년의 계획은 봄에 달려 있다.]

才小者, 治於人. [재주가 작은 사람은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 ② 以

주로 명사류 앞에 위치하여 도구, 수단, 자격, 대상, 원인, 시간 등의 뜻을 나타낸다.

以大事小者, 樂天者也. [큰 나라를 가지고 작은 나라를 섬기는 것은 천리를 즐거워하는 자이다.]

王待吾以國土. [왕이 나를 국사로 대우하다.]

弟以其一與兄. [아우가 그 중의 하나를 형에게 주다.]

不以成功自滿. [성공으로 인하여 자만하지 말라.]

以十月祭天. [시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다.]

#### ③ 自, 由, 從

명사류 앞에 위치하여 동작의 기점을 나타낸다.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禮義由賢者出. [예의(禮義)는 현자로부터 나온다.]

病從口入, 禍從口出. [병(病)은 입으로부터 들어가고, 화(禍)는 입으로부터 나온다.]

### 접속사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문장과 문장 등을 서로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

#### ① 以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등을 서로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

子路行以告. [자로가 가서 아뢰었다.]

#### ② 而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문장과 문장 등을 서로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

登高山而望四海. [높은 산에 올라서 사해를 바라본다.]

子欲養而親不待.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아버지는 기다리지 않는다.]

#### ③ 且, 與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문장과 문장 등을 서로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

重且大. [중하고도 크다.]

不改父之臣與父之政. [아버지의 신하와 아버지의 정치를 고치지 아니하다.]

#### ④ 則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문장과 문장 등을 서로 이어주는 구실을 하되, 주로 조건을 나타낸다.

水至清, 則無魚.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

仁則榮, 不仁則辱. [어질면 영화롭게 되고, 어질지 않으면 욕되게 된다.]

### 어조사

단어나 어구 또는 문장의 앞, 가운데나 뒤에 와서 문법적인 의미나 語氣 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① 也, 矣

주로 문장의 끝에 쓰여 판단이나 확인의 어기를 나타낸다.

此三韓基業之根本也. [이것은 삼한 基業의 근본이다.]

朝聞道, 夕死可矣.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 ② 耳, 已, 而已

주로 문장의 끝에 쓰여 한정이나 강조의 어기를 나타낸다.

若雖長大, 好帶刀劍, 中情怯耳. [비록 장대한 사람이라도 칼 차는 것을 좋아한다면 속마음은 겁쟁  
이일 것이다.]

王之所大欲, 可知已. [왕이 크게 하고자 하는 바를 알겠습니다.]  
夫子之道, 忠恕而已. [부자의 도는 충서일 뿐이다.]

③ 乎, 哉

주로 문장의 끝에 쓰여 의문이나 反語의 어기를 나타낸다.

汝何不受乎? [너는 어찌서 받지 않느냐?]  
豈不難哉?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④ 哉, 矣

주로 문장의 끝에 쓰여 감탄의 어기를 나타낸다.

君子哉! [군자로구나!]  
甚矣! 吾衰也! [심하구나! 나의 쇠함이여!]

⑤ 焉

‘於此’ 혹은 ‘於之’의 의미가 있는 곳에 사용된다.

莫强焉 = 莫强於此 [이보다 강한 것은 없다.]

⑥ 之

동사나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어조사로 쓰일 때는 주로 ‘수식어 + 之 + 피수식어’, ‘주어 + 之 + 서술어’, ‘목적어 + 之 + 서술어’의 구조로 쓰여 문장 성분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無羞惡之心, 非人也.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仁之勝不仁也, 猶水勝火也. [인이 불인을 이기는 것은 물이 불을 이기는 것과 같다.]  
何罪之有? [무슨 죄가 있는가?]

⑦ 者

‘수식어 + 者’의 구조로 쓰여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거나, ‘명사 + 者’의 구조로 쓰여 제시·정돈 등의 어기를 나타내는 어조사이다.

仁者, 不憂.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다.]  
愛人者, 人恒愛之.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도 항상 그를 사랑한다.]  
大人者, 不失其赤子之心者也. [대인은 그의 갓난아이 때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古者, 易子而教之. [옛날에는 자식을 바꾸어서 가르쳤다.]

⑧ 所

‘所 + 수식어’의 구조로 쓰여 ‘~하는 바, ~하는 것’의 뜻을 나타내는 어조사이다.

子之所言, 世俗之言也. [그대가 말하는 것은 세속의 말이다.]

有司未知所之. [유사가 갈 곳을 알지 못하다.]

## 감탄사

문장의 밖에 독립적으로 놓여 話者의 부름, 느낌, 놀람이나 응답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嗚呼! 哀哉! [아! 슬프도다!]

惡! 是何言也? [아! 이 무슨 말이고?]

謹! 吾將問之. [예! 제가 장차 그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 한문 I 01-07.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뀌는 ‘품사의 활용’을 구별한다.

○ 한문 I 01-07 : 한문의 단어는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뀌고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명사는 동사처럼 쓰여 문장에서 그 자체로 술어가 되기도 하고, 동사 앞에서 부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수사도 동사 앞에서 부사처럼 쓰이기도 하며 동사는 명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형용사는 그 뒤에 명사나 대명사 등이 올 때 ‘~라고 여기다’는 뜻을 갖기도 하며 명사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한문의 품사는 본래 지니고 있는 의미 뿐만 아니라 문장에서의 쓰임인 활용까지도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명사

한문에서 명사는 동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① 范增數目項王. [범증이 여러 차례 항왕에게 눈짓을 했다.]

② 子謂公冶長, 可妻也. [공자께서 공야장에 대해 말씀하시길 “사위 삼을 만하다.”라고 하셨다.]

③ 母友不如己者. [자기만 같지 못한 자를 벗어나지 말라.] (명사의 동사적 활용)

①의 ‘目’은 명사인 ‘항왕’이라는 목적어 앞에서 놓여서 ‘눈’이라는 명사가 ‘눈짓하다’는 동사처럼 쓰였다. ②의 ‘妻’는 앞에 가능 조동사 ‘可’가 와서, ‘아내’란 명사가 ‘사위 삼다’는 동사처럼 쓰였다. ③의 ‘友’는 ‘벗’이라는 명사가 ‘벗을 삼다.’라는 동사로 쓰인 경우이다.

또한 한문에서 명사는 동사 앞에서 부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① 吾得兄事之. [나는 그를 형처럼 섬길 수 있다.]

② 庶民子來. [백성들이 자식처럼 왔다.]

③ 學者, 雲集. [배우는 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명사의 부사적 활용)

①의 ‘兄’은 ‘事’라는 동사 앞에서 부사어로 활용되어 ‘형처럼’이라고 쓰였으며, ②의 ‘子’는 ‘來’라는 동사 앞에서 부사어로 활용되어 ‘자식처럼’이라고 쓰였다. 그리고 ③의 ‘雲’은 ‘集’이라는 동사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 수사

한문에서 수사는 동사 앞에서 부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二戰卽勝. [한번 싸우면 곧 이긴다.]

수사인 ‘一’이 ‘戰’이라는 동사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 동사

한문에서 동사는 명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 [뜻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삶을 탐하여 인을 해치지 아니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룬다.]

‘生’은 ‘살다’는 뜻의 동사이나 ‘求’라는 동사 뒤에서 ‘삶’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 형용사

한문에서 형용사는 뒤에 명사나 대명사 등의 목적어가 올 때 ‘~라고 생각하다(여기다, 삼다)’는 뜻을 가진다.

① 國人美之. [나라 사람들이 그를 훌륭하게 여겼다.]

② 金蛙異之. [금와왕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③ 孔子, 登東山而小魯. [공자는 동산에 오르고서 노나라를 작게 여겼다.] (형용사의 동사적 활용)

①의 ‘美’는 본디 ‘아름답다’란 뜻의 형용사이나, 뒤에 대명사 ‘之’가 와서 ‘훌륭하게 여기다’는 뜻을 가진다. ②의 ‘異’는 ‘이상하다’는 뜻의 형용사이나, 뒤에 대명사 ‘之’가 와서 ‘이상하게 여기다’는 뜻을 가진다. ③의 ‘小’은 ‘작다’는 뜻의 형용사이나 뒤에 ‘魯’라는 명사가 와서 ‘작게 여기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한문에서 형용사는 자주 명사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勤爲無價之寶. [부지런함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보배이다.]

‘勤’은 ‘부지런하다’는 뜻의 형용사인데 여기에서는 주어로 쓰여 ‘부지런함’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명사로 사용되었다.

## 3) 고등학교 한문 II

### 한문 II01-01.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이 학습 내용 성취기준은 중학교 ‘한문’의 ‘9한01 - 01.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및 ‘한문 I’의

‘01-01.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와 연계된다. ‘한문Ⅱ’에서는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의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한자가 활용된 한자의 모양·음·뜻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한문Ⅱ01-02.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이 학습 내용 성취기준은 중학교 ‘한문’의 ‘9한01 - 05.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및 ‘한문Ⅰ’의 ‘01-05.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와 연계된다. ‘한문Ⅱ’에서는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의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한자가 활용된 단어의 짜임을 이해하고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달라지는 단어의 짜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한문Ⅱ01-03.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

이 학습 내용 성취기준은 중학교 ‘한문’의 ‘9한01 - 06.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 및 ‘한문Ⅰ’의 ‘01-06.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와 연계된다. ‘한문Ⅱ’에서는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의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한자가 활용된 문장에서 실사에 해당하는 품사가 어떻게 쓰였는지와 허사에 해당하는 품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적인 쓰임에 대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한문Ⅱ01-04.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뀌는 ‘품사의 활용’을 구별한다.**

이 학습 내용 성취기준은 고등학교 ‘한문Ⅰ’의 ‘01-07.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뀌는 ‘품사의 활용’을 구별한다.’와 연계된다. ‘한문Ⅱ’에서는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의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한자가 활용된 문장 안에서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뀌는 ‘품사의 활용’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4. 결론**





# ‘漢文의 理解 - 漢文의 讀解’ 領域의 內容 要素와 成就基準 分析

윤재민(고려대학교)<sup>1)</sup>

## 目次

- I. 머리말
- II. 2015 改定 漢文科 教育課程 ‘漢文의 理解 - 漢文의 讀解’ 領域 內容 要素 概觀
- III. 2015 改定 漢文科 教育課程 ‘漢文의 理解 - 漢文의 讀解’ 領域 成就基準 分析
  - 1. ‘문장’ 分野의 成就基準 分析
  - 2. ‘읽기’ 分野의 成就基準 分析
  - 3. ‘이해’ 分野의 成就基準 分析
- IV. 맺음말

## I. 머리말

2009 改定 漢文科 教育課程은 領域을 ‘讀解’, ‘文化’, ‘漢文知識’의 셋으로 나누었다. 이는 2007 改定 教育課程의 ‘漢文’, ‘漢文知識’ 領域 중 ‘漢文’ 領域을 ‘讀解’와 ‘文化’로 다시 나눈 것이다. 그런데 2015年 9月 23日자로 告示된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sup>2)</sup>은 領域을 다시 ‘漢文의 理解’, ‘漢文의 活用’의 둘로 나누었다. 이는 대체로 2009 改定 教育課程의 ‘讀解’, ‘漢文知識’ 領域을 하나로 묶어서 ‘漢文의 理解’ 領域으로 하고, ‘文化’ 領域의 명칭을 ‘漢文의 活用’으로 바꾸어 제시하되, 각기 그 내용을 일부 재배치 재조정한 것이다. 곧 2015 改定 漢文科 教育課程은 ‘漢文의 理解’ 領域의 核心 概念으로 ‘漢字와 語彙’, ‘漢文의 讀解’를 제시하고, ‘漢文의 活用’ 領域의 核心 概念으로 ‘漢字 語彙와 言語生活’, ‘漢文과 人性’, ‘漢文과 文化’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核心 概念은 “빅 아이디어(big idea) 혹은 큰 개념(big concept)이라고 칭해지는 것으로서 교과 내용들 간의 관계를 구조화하여 개별 사실들을 묶어서 바라보게 해주는 전이가가 높은 상위 개념을 의미”<sup>3)</sup>하는 것으로서, 以前 教育課程에서는 보통 中領域으로 제시되던 것들이다. 곧 ‘漢文의 理解’ 領域의 ‘漢字와 語彙’는 2009 改定 教育課程 ‘漢文知識’ 領域의 ‘漢字’, ‘語彙’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며, ‘漢文의 讀解’는 2009 改定 教育課程 ‘漢文知識’ 領域의 ‘文章’과 ‘讀解’ 領域의 ‘읽기’, ‘理解’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다. ‘漢文의 活用’ 領域의 ‘漢字 語彙와 言語生活’은 2009 改定 教育課程 ‘文化’ 領域의 ‘言語生活과 漢字文化’의 내용과 일정하게 조응하는 것이며, ‘漢文과 人性’ 및 ‘漢文과 文化’는 2009 改定 教育課程 ‘文化’ 領域의 ‘漢字 文化’를 다시 이 둘로 나누고 그 내용을 일정하게 재구성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하 먼저 2015 改定 漢文科 教育課程 ‘漢文의 理解’ 영역의 핵심 개념 ‘漢文의 讀解’의 內容 要素를 概觀하고, 이어서 ‘漢文의 讀解’의 成就基準을 이전 교육과정 성취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yoonjm@korea.ac.kr](mailto:yoonjm@korea.ac.kr)

2) 교육부(2015), 장호성 외(2015b) 참조. 이하 이 漢文科 教育課程의 명칭을 ‘2015 改定 漢文科 教育課程’으로 부른다.

3) 장호성 외(2015b), 40면.

## II. 2015 改定 漢文科 教育課程 ‘漢文의 理解 - 漢文의 讀解’ 領域 內容 要素 概觀

2015 改定 漢文科 教育課程은 내용 체계를 ‘領域’, ‘核心 概念’, ‘一般化된 知識’, ‘內容 要素’, ‘機能’으로 구성된 매트릭스 표를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漢文의 理解’ 領域의 핵심 개념 ‘漢文의 讀解’의 내용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2015 改定 漢文科 教育課程 ‘漢文의 讀解’의 內容 體系<sup>4)</sup>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漢文’	‘漢文Ⅰ’	‘漢文Ⅱ’	
한 문 의 이해	한 자 와 어휘	(생략)				
	한 문 의 독해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에는 일정한 결합 방식이 있다.	문장의 구조	문장의 구조	문장의 구조	읽기 풀이하기 이해하기 표현하기 비평하기 감상하기 탐구하기 조사하기 분석하기 토의·토론하기 (‘한문Ⅰ’, ‘한문Ⅱ’) 활용하기(‘한문Ⅰ’, ‘한문Ⅱ’)
		화자(話者)가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문장의 유형	문장의 유형		
		글을 이루는 단어, 구절, 문장은 뜻이 있는 단위들이면서 읽을 때 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소리 내어 읽기 끊어 읽기	소리 내어 읽기 끊어 읽기	소리 내어 읽기 끊어 읽기	
		한문은 글의 내용과 형식에 유의하여 읽어야 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내용과 주제 이해와 감상	내용과 주제 이해와 감상	내용과 주제 이해와 감상	

‘漢文의 讀解’ 아래에 2009 改定 教育課程 ‘讀解’ 領域의 ‘읽기’, ‘理解’의 내용과 함께 ‘漢文知識’ 領域의 ‘文章’의 내용이 아울러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學習 內容은 이전 教育課程에서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제시되던 것이었다.

<표 2> 2007 漢文科 教育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읽기’·‘이해’·‘문장’의 내용 체계

2007 教育과정					2009 개정 教育과정			
영역	내용				영역	내용		
	(중영역)	‘漢文’	‘漢文Ⅰ’	‘漢文Ⅱ’		(중영역)	‘漢文’	‘漢文Ⅰ’ ‘漢文Ⅱ’
한문	읽기	단문의 읽기와 풀이	좌동	좌동	독해	읽기	소리 내어 읽기	좌동 소리 내어 읽기
		산문의 읽기와 풀이	좌동	좌동			끊어 읽기	
		한시의 읽기와 풀이	좌동	좌동		이해	풀이하기	좌동
	이해	단문의 이해와 감상	좌동	좌동			이해하기	좌동
		산문의 이해와 감상	좌동	좌동			감상하기	좌동
		한시의 이해와 감상	좌동	좌동				
한 문 지식	문화	(생략)			문화	(생략)		
	한자 어휘	(생략)			한자 어휘	(생략)		
	문장	문장의 구조	좌동	좌동	문장	문장의 구조	좌동	좌동

4) 이하 표의 내용은 교육부(2015) 5~6면, 25~26면, 47면에 제시된 중학교 ‘漢文’, 고등학교 ‘한문Ⅰ’, ‘한문Ⅱ’의 내용 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문장의 유형	좌동	좌동			문장의 유형		
		문장의 수사	좌동	좌동				문장의 수사	좌동

앞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핵심 개념이 以前 教育課程에서 보통 中領域으로 제시되던 것들이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둘의 개념적 위상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영역과 내용 요소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하더라도, 이전 교육과정에서 중영역이 단독으로 있었던 것과 달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개념과 함께 ‘일반화된 지식’<sup>5)</sup>이 영역과 내용 요소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내용 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으로 볼 때,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은 이전의 중영역에 해당하는 위상을 하나의 큰 개념[핵심 개념]으로 묶어 새롭게 제시하면서 이를 구체화할 하위 개념[일반화된 지식]들을 명제적 진술문의 형태로 아울러 함께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 ‘漢文의 理解’ 領域의 하위 두 개 핵심 개념 중 하나인 ‘漢文의 讀解’는 그 범위가 2009 改定 教育課程의 ‘讀解’ 領域보다도 더 넓다. ‘漢文의 讀解’는 그 범위가 2009 改定 教育課程의 ‘讀解’ 領域을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 ‘漢文知識’ 領域의 중영역 ‘文章’까지도 아울러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영역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던 내용이 이번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제시한 일반화된 지식의 내용으로 거의 그대로 다시 제시된 것들도 있다. 곧 2009 개정 교육과정 ‘독해’ 영역의 중영역 ‘읽기’와 ‘이해’는 각기 이번 교육과정에서 ‘일반화된 지식’으로 제시한 ‘글을 이루는 단어, 구절, 문장은 뜻이 있는 단위들이면서 읽을 때 음의 변화가 일어난다.’와 ‘한문은 글의 내용과 형식에 유의하여 읽어야 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에 조응하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내용 요소는 일반화된 지식 가운데 학년(군)에서 배워야 할 필수 학습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가령, 이번 교육과정에서 ‘일반화된 지식’으로 제시한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에는 일정한 결합 방식이 있다.’는 내용 요소로 중학교 ‘한문’에서는 ‘문장의 구조’를, 고등학교 ‘한문 I’과 ‘한문 II’에서는 ‘문장의 구조’와 ‘문장 성분의 생략과 도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 ‘한문지식’ 영역의 중영역 ‘문장’의 내용 요소 ‘문장의 구조’(중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 I’, ‘한문 II’ 공통)와 일정하게 조응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화자(話者)가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내용 요소로 중학교 ‘한문’ 및 고등학교 ‘한문 I’에서(‘한문 II’에는 없음) 공히 ‘문장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 ‘한문지식’ 영역의 중영역 ‘문장’의 내용 요소 ‘문장의 유형’(중학교 ‘한문’에만 있음)과 조응하는 것이다. ‘글을 이루는 단어, 구절, 문장은 뜻이 있는 단위들이면서 읽을 때 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내용 요소로 중학교 ‘한문’ 및 고등학교 ‘한문 I’, ‘한문 II’에서 공히 ‘소리 내어 읽기’와 ‘끊어 읽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독해’ 영역의 중영역 ‘읽기’의 내용 요소와(단, ‘한문 II’에는 ‘끊어 읽기’가 없음) 일정하게 조응하는 것이다. ‘한문은 글의 내용과 형식에 유의하여 읽어야 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는 내용 요소로 중학교 ‘한문’ 및 고등학교 ‘한문 I’, ‘한문 II’에서 공히 ‘내용과 주제’와 ‘이해와 감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독해’ 영역의 중영역 ‘이해’의 내용 요소 ‘풀이하기’, ‘이해하기’, ‘감상하기’(중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 I’, ‘한문 II’ 공통)와 일정하게 조응하는 것이다.

5) ‘일반화된 지식’은 학습자들이 교과에서 영역별로 해당 학년 혹은 학년군에서 반드시 습득해야 할 내용을 일반화 혹은 원리의 형식을 취해 명제적 진술문 형태로 제시한 것으로서 핵심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장호성 외(2015a), 34면. 참조.

### III. 2015 改定 漢文科 教育課程 ‘漢文의 理解 - 漢文의 讀解’ 領域 成就基準 分析

2015 改定 漢文科 教育課程은 핵심 개념을 ‘성취기준 그룹’으로 상정하여 성취 기준을 그룹별로 제시하되, 성취기준 그룹 설정 이유 및 그룹별 성취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해당 성취기준 그룹의 ‘학습 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이어서 함께 제시하고 있다.<sup>6)</sup>

다음의 표는 2015 改定 漢文科 教育課程 ‘漢文의 理解’ 영역의 핵심 개념 ‘漢文의 讀解’의 성취기준 그룹 설정 이유와 성취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 2015 改定 漢文科 教育課程 ‘漢文의 讀解’의 성취 기준<sup>7)</sup>

구분	한문	한문 I	한문 II
설정 이유	한문은 고전 문헌문으로 한자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던 국제적 표기 수단인 한자로서, 우리 조상들 역시 수 천 년 동안 한문을 사용하여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 왔다. 따라서 문장의 구조와 유형 등 문법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한문 전적에 담긴 조상들의 사상과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성취 기준	<p>[9한02 - 01]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p> <p>[9한02 - 02] 문장의 유형을 구별한다.</p> <p>[9한02 - 03]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p> <p>[9한02 - 04] 토가 달려 있는 글을 토의 구실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p> <p>[9한02 - 05]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p> <p>[9한02 - 06] 한문 산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p> <p>[9한02 - 07]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p>	<p>[12한문 I 02 - 01]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p> <p>[12한문 I 02 - 02] 문장에서 생략되거나 도치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p> <p>[12한문 I 02 - 03] 문장의 유형을 구별한다.</p> <p>[12한문 I 02 - 04]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p> <p>[12한문 I 02 - 05] 토나 문장 부호가 달려 있는 글을 토나 문장 부호의 구실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p> <p>[12한문 I 02 - 06]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p> <p>[12한문 I 02 - 07]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p> <p>[12한문 I 02 - 08] 한시의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p>	<p>[12한문 II 02 - 01]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p> <p>[12한문 II 02 - 02] 문장에서 생략되거나 도치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p> <p>[12한문 II 02 - 03]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p> <p>[12한문 II 02 - 04] 토나 문장 부호가 달려 있는 글을 토나 문장 부호의 구실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p> <p>[12한문 II 02 - 05]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p> <p>[12한문 II 02 - 06] 한문 산문의 다양한 문체와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p> <p>[12한문 II 02 - 07] 한시의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p>

성취기준은 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지식 및 이 지식을 통해 할 수 있어야 하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sup>8)</sup> 교육과정에서 이는 ‘내용 체계’ 상의 ‘내용 요소’와 ‘기능’의 결합으로서 표현된다. 2015 改定 漢文科 教育課程의 성취기준은 ‘내용 체계’ 상의 ‘내용 요소’와 ‘기능’을 하나의 문장 형태로 결합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용 요소는 일반화된 지식 가운데 해당 과목(학년군)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학습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漢文의 讀解’는 ‘일반화된 지식’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에는 일정한 결합 방식이 있다.’, ‘화자(話者)가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漢文 II’에는 없음), ‘글을 이루는 단어, 구절, 문장은 뜻이 있는 단위들이면서 읽을 때 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한문은 글의 내용과 형식에 유의하여 읽어야 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6) 장호성 외(2015b), 43~51면 참조.

7) 이하 표의 내용은 교육부(2015) 10면, 30~31면, 50면에 제시된 중학교 ‘漢文’, 고등학교 ‘한문 I’, ‘한문 II’의 성취 기준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8) 장호성 외(2015b), 43면 참조.

감상할 수 있다.’의 네 개(‘漢文Ⅱ’는 세 개)가 제시되어 있다. 이중 앞의 두 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문 지식’ 영역의 ‘문장’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뒤의 두 개는 각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해’ 영역의 ‘읽기’와 ‘이해’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하 편의상 이들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로 ‘문장’ 및 ‘읽기’와 ‘이해’를 사용하여 그 성취기준의 주요 특징을 ‘성취기준 해설’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 1. ‘문장’ 分野의 成就基準 分析

漢文科에서 ‘문장’은 통상 ‘한자’, ‘어휘’, ‘문장’으로 구분되는 문법 관련 지식의 한 범주를 가리킨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장’ 관련 문법 지식으로 ‘문장의 구조’, ‘문장의 유형’, ‘문장의 수사’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장의 수사’를 제외한 두 가지만을 제시하였다. ‘일반화된 지식’으로 제시한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에는 일정한 결합 방식이 있다.’, ‘화자(話者)가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漢文Ⅱ’에는 없음)가 바로 그것이다.

‘일반화된 지식’으로 제시된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에는 일정한 결합 방식이 있다.’에서는 내용 요소로 中學校 ‘漢文’에서는 ‘문장의 구조’ 하나만을 제시하고, 高等學校 ‘漢文Ⅰ’, ‘漢文Ⅱ’에서는 공히 ‘문장의 구조’와 ‘문장 성분의 생략과 도치’를 제시하였다. ‘화자(話者)가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에서는 내용 요소로 中學校 ‘漢文’과 高等學校 ‘漢文Ⅰ’ 공히 ‘문장의 유형’ 하나만을 제시하였다.

이들 내용 요소에 대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곧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는 中學校 ‘漢文’, 高等學校 ‘漢文Ⅰ’, ‘漢文Ⅱ’ 공히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를 성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 성취기준에 대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성취기준 해설은 다음과 같다. ‘漢文Ⅱ’에서는 성취기준 해설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9한02-01] 문장의 구조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의 일정한 결합 방식을 말한다. 문장 성분에는 주성분과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있다. 문장의 구조는 주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주술 구조, 주술목 구조, 주술보 구조, 주술목보 구조 등이 있다. 주술 구조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로 주어가 앞에 놓이고 서술어가 뒤에 놓인다. 주술목 구조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로 서술어가 앞에 놓이고 목적어가 뒤에 놓인다. 주술보 구조는 주어, 서술어, 보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로 서술어가 앞에 놓이고 보어가 뒤에 놓인다. 주술목보 구조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12한문Ⅰ02-01] 문장 성분에는 주성분과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있다. 문장 성분은 하나의 단어뿐만 아니라 몇 개의 단어가 결합한 어구나 그 자체로 주어와 서술어를 포함하고 있는 절(節)일 수 있다. 문장의 구조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의 일정한 결합 방식을 말한다. 주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주술 구조, 주술목 구조, 주술보 구조, 주술목보 구조 등이 있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한문지식’ 영역 ‘문장’의 내용 요소 ‘문장의 구조’의 학습내용 성취 기준으로 제시된 “문장의 기본 구조를 알 수 있다.”(중학교 ‘漢文’), “문장의 구조를 알고 문장의 풀이에 활용할 수 있다.”(고등학교 ‘漢文Ⅰ’)와 조응하는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 아래에 바로 성취기준 해설을 부기하고 있는바, 성취기준 해설의 내용 또한 2015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서로

조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高等學校 ‘漢文Ⅰ’, ‘漢文Ⅱ’의 ‘문장 성분의 생략과 도치’에 대해서는 “문장에서 생략되거나 도치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를 성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 성취기준에 대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성취기준 해설은 다음과 같다. ‘漢文Ⅱ’에서는 성취기준 해설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12한문Ⅰ 02-02] 한문의 문장 구조를 살펴볼 때는 제일 먼저 어순(語順)을 보고, 그 다음에 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어순이 바뀌면 비문(非文)이 되거나 문장의 성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 한문의 문장은 특정한 환경 아래에서 어순이 도치되어도 문장의 성분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령, 술목 구조의 기본 어순은 서술어가 앞에 놓이고 목적어가 뒤에 놓인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놓이기도 한다. 곧, 의문(疑問)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構文)에서 의문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 또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에는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온다. 또 한문은 문장 안에서 중복을 피하거나 표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 있다. 문장 성분의 생략은 앞 뒤 문장을 살펴보고 생략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한문지식’ 영역 ‘문장’의 내용 요소 ‘문장의 구조’의 학습내용 성취 기준으로 제시된 “문장 성분의 도치(倒置)를 알 수 있다.”(‘漢文Ⅰ’), “생략된 문장 성분을 알 수 있다.”(‘漢文Ⅱ’)를 하나의 성취기준으로 통합하여 제시한 것이다.

중학교 ‘漢文’, 高等學校 ‘漢文Ⅰ’의 ‘문장의 유형’에 대해서는 “문장의 유형을 구별한다.”를 성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 성취기준에 대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성취기준 해설은 다음과 같다.

[9한02-02] 문장의 유형은 문장을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한 것이다. 문장의 유형을 화자(話者)가 나타내는 어기(語氣)를 기준으로 나누면 평서문(平敘文), 의문문(疑問文), 명령문(命令文), 감탄문(感歎文)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평서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이다.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문장이다. 감탄문은 사물이나 사실에 느낌을 받아 슬픔, 기쁨, 놀라움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12한문Ⅰ 02-03] 문장의 유형은 문장을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한 것이다. 문장의 유형을 화자(話者)가 나타내는 어기(語氣)를 기준으로 나누면 평서문(平敘文), 의문문(疑問文), 명령문(命令文), 감탄문(感歎文)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평서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이다. 긍정의 평서문과 부정의 평서문이 있다.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의문문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실제 대답을 요구하는 일반 의문문 외에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대답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의식적으로 물어보는 반어 유형이 있다.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문장이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종의 행동을 금지하게 하는 어조를 표현하는 유형과 원망이나 청유의 어조를 표현하는 유형이 있다. 감탄문은 사물이나 사실에 느낌을 받아 슬픔, 기쁨, 놀라움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漢文’ ‘한문지식’ 영역 ‘문장’의 내용 요소 ‘문장의 유형’의 학습내용 성취 기준으로 제시된 “평서문·의문문·명령문·감탄문의 특징을 알고 구별할 수 있다.”를 표현을 바꿔 다시 제시한 것이다. 단, 중학교 성취기준 해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고등학교 성취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가하여 제시됨에 따라 일부 내용에 대한 보다 심

화된 해설을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읽기’ 分野의 成就基準 分析

‘일반화된 지식’으로 제시된 “글을 이루는 단어, 구절, 문장은 뜻이 있는 단위들이면서 읽을 때 음의 변화가 일어난다.”에서는 내용 요소로 中學校 ‘漢文’과 高等學校 ‘漢文Ⅰ’, ‘漢文Ⅱ’ 공히 ‘소리 내어 읽기’와 ‘끊어 읽기’를 제시하였다.

이들 내용 요소에 대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곧 ‘소리 내어 읽기’에 대해서는 中學校 ‘漢文’, 高等學校 ‘漢文Ⅰ’, ‘漢文Ⅱ’ 공히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를 성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독해’ 영역 ‘읽기’의 내용 요소 ‘소리 내어 읽기’의 학습내용 성취 기준으로 제시된 “단어, 구절, 문장을 바르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글을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알맞게 띄어 읽을 수 있다.”(이상 중학교 ‘漢文’), “글을 화자의 어조에 맞게 읽을 수 있다.”(高等學校 ‘漢文Ⅰ’), “글의 분위기를 살려 유창하게 낭독할 수 있다.”(‘漢文Ⅱ’)를 하나의 성취기준으로 통합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성취기준에 대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 해설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바, 이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당 성취기준 해설을 적절하게 준용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끊어 읽기’에 대해서는 중학교 ‘漢文’에서는 “토가 달려 있는 글을 토의 구실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를 성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漢文’ ‘독해’ 영역 ‘읽기’의 내용 요소 ‘끊어 읽기’의 학습내용 성취 기준으로 제시된 “토의 구실에 유의하여 글을 끊어 읽을 수 있다.”를 일부 표현만 바꿔 다시 제시한 것이다. 高等學校 ‘漢文Ⅰ’, ‘漢文Ⅱ’에서는 “토나 문장 부호가 달려 있는 글을 토나 문장 부호의 구실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를 성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高等學校 ‘漢文Ⅰ’ ‘독해’ 영역 ‘읽기’의 내용 요소 ‘끊어 읽기’의 학습내용 성취 기준으로 제시된 “글을 이루는 구절과 문장을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를 역시 일부 표현을 바꿔 다시 제시한 것이며, 高等學校 ‘漢文Ⅱ’의 경우에는 이전에 없던 내용 요소를 이번에 새로 추가한 것이다. 이들 성취기준에 대해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 해설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바, 이 역시 이전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당 성취기준 해설을 적절하게 준용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 3. ‘이해’ 分野의 成就基準 分析

‘일반화된 지식’으로 제시된 “한문은 글의 내용과 형식에 유의하여 읽어야 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에서는 내용 요소로 中學校 ‘漢文’, 高等學校 ‘漢文Ⅰ’, ‘漢文Ⅱ’ 공히 ‘내용과 주제’와 ‘이해와 감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내용 요소에 대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곧 ‘내용과 주제’에 대해서는 中學校 ‘漢文’, 高等學校 ‘漢文Ⅰ’, ‘漢文Ⅱ’ 공히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를 성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 성취기준에 대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성취기준 해설은 다음과 같다. ‘漢文Ⅱ’에서는 성취기준 해설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9한02-05] 글을 바르게 풀이하기 위해서는 단문, 산문, 한시 등에 사용된 단어나 구절의 뜻, 문장이나 문단의 의미,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 그리고 문체와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풀이할 수 있도록 한다.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을 구성하는 단어, 구절, 문장, 그리고 시구의 의미를 먼저 알도록 한다. 글의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문, 산문, 한시 등 글의 내용 가운데 중심이 되는 내용이나 핵심이 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2한문 I 02-06] 글을 바르게 풀이하기 위해서는 단문, 산문, 한시 등에 사용된 단어나 구절의 뜻, 문장이나 문단의 의미,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 그리고 문체와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풀이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을 구성하는 단어, 구절, 문장, 그리고 시구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한다. 글의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문, 산문, 한시 등 글의 내용 가운데 중심이 되는 내용이나 핵심이 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의 주제가 표면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글의 내용으로부터 주제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파악할 수 있지만, 글의 주제가 글의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거나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글의 전체적 내용으로부터 그 이면에 함축되어 있는 주제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파악하거나, 글의 제목, 핵심어, 지은이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독해’ 영역 ‘이해’의 내용 요소 ‘풀이하기’, ‘이해하기’의 학습내용 성취기준으로 제시된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 구절,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글을 읽고 지은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이상 중학교 ‘漢文’), “글을 읽고 풀이할 수 있다.”, “유가 경전과 제자백가의 글을 읽고 사상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사리를 밝히거나 시비를 가리는 글을 읽고 주장의 근거를 판단할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는 글을 읽고 사건이나 인물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사실이나 사물을 기술하는 글을 읽고 지은이가 강조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실용문을 읽고 글의 내용을 글의 목적과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다.”(이상 高等學校 ‘漢文 I’), “유가 경전과 제자백가의 글을 읽고 사상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사리를 밝히거나 시비를 가리는 글을 읽고 지은이의 창작 의도를 평가할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는 글을 읽고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사실이나 사물을 기술하는 글을 읽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실용문을 읽고 문체의 특징을 글의 목적과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다.”(이상 ‘漢文 II’) 등 여러 성취기준들을, 특히 중학교 ‘漢文’에서 제시했던 성취기준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성취기준으로 통합하여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취기준 해설은 중학교의 경우 특히 중학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 구절,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의 해설을 주로 따랐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여기에 더하여 역시 중학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글을 읽고 지은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의 해설을 주로 따라서 작성되었다.

‘이해와 감상’에 대해서는 한문 산문과 한시의 경우를 구분하여 두 개의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곧 한문 산문의 경우 中學校 ‘漢文’에서는 “한문 산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를, 高等學校 ‘漢文 I’에서는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를, ‘漢文 II’에서는 “한문 산문의 다양한 문체와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를 성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 성취기준에 대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성취기준 해설은 다음과 같다.

[9한02-06] 한문 산문은 문학적인 글은 물론 역사적·철학적인 글이나 심지어 실용적인 글조차도 각기 감상



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작품이기도 하다. 여기서 감상(鑑賞)은 작품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의 가치를 평가·감정(鑑定)하고 아름다움과 재미를 느끼는 심미적(審美的) 활동이다.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감정할 때에는 작품의 내용이 가지는 의미를 자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작품의 아름다움과 재미를 느낄 때에는 작품에서 자신이 느끼기에 특별히 멋있거나 재미있는 부분이 왜, 그리고 어떻게 멋있거나 재미있는지를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2한문 I 02-07] 한문 산문은 글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가령, 인물의 언행이나 사건의 경과를 서술하는 글들은 주로 서사적(敘事的)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사물의 이치를 따지거나 자신의 사상을 천명함으로써 남을 설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들은 주로 의론적(議論的)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산천(山川)의 경물(景物)이나 지리(地理) 또는 사회의 풍속(風俗)이나 인정(人情)을 기술하는 글들은 주로 묘사적(描寫的)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사람이나 사물, 사건에 대해 느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글들은 주로 서정적(抒情的)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한문 산문은 문학적인 글은 물론 역사적·철학적인 글이나 심지어 실용적인 글조차도 각기 감상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작품이기도 하다. 여기서 감상(鑑賞)은 작품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의 가치를 평가·감정(鑑定)하고 아름다움과 재미를 느끼는 심미적(審美的) 활동이다.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감정할 때에는 작품의 내용이 가지는 의미를 자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작품의 아름다움과 재미를 느낄 때에는 작품에서 자신이 느끼기에 특별히 멋있거나 재미있는 부분이 왜, 그리고 어떻게 멋있거나 재미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한문 산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글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서술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서술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표현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등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12한문 II 02-06] 한문의 문체(文體)는 언어의 형식적 특징에 따라 크게 산문(散文), 운문(韻文), 변문(駢文)으로 나눌 수 있다. 변문(駢文)은 운문(韻文)처럼 압운(押韻)을 하지는 않지만 산문(散文)과 달리 성률(聲律)과 대우(對偶)를 강구하는 문체를 말한다. 단,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한시(漢詩)에 포함시켜 다루기 곤란한 일부 운문(韻文)이나 변문(駢文) 또한 한문 산문의 문체에 포함시켜 다룰 수 있다. 한문 산문의 문체는 글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크게 설리문(說理文), 사전문(史傳文), 잡기문(雜記文), 실용문(實用文)으로 나눌 수 있다. 설리문(說理文)은 사리(事理)를 밝히거나 시비(是非)를 가리는 문체를 말한다. 사전문(史傳文)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는 문체를 말한다. 잡기문(雜記文)은 설리문·사전문이나 실용문에 속하지 않는 기타 문체들 중 사실이나 사물을 기술하는 문체를 말한다. 실용문(實用文)은 전 근대 사회 전장 제도(典章 制度) 및 일상생활의 필요에 부응하여 만들어진 문체로서, 특히 그 실용적 목적이 직접적으로 두드러지는 문체를 말한다. 이외에 주목해야 할 문체로 사부(辭賦)와 소설(小說)이 있다.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이 사부와 소설 또한 한문 산문의 문체에 포함시켜 다룰 수 있다. 한편, 한문 산문은 글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가령, 인물의 언행이나 사건의 경과를 서술하는 글들은 주로 서사적(敘事的)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사물의 이치를 따지거나 자신의 사상을 천명함으로써 남을 설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들은 주로 의론적(議論的)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산천(山川)의 경물(景物)이나 지리(地理) 또는 사회의 풍속(風俗)이나 인정(人情)을 기술하는 글들은 주로 묘사적(描寫的)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사람이나 사물, 사건에 대해 느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글들은 주로 서정적(抒情的)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한문 산문은 문학적인 글은 물론 역사적·철학적인 글이나 심지어 실용적인 글조차도 각기 감상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작품이기도 하다. 여기서 감상(鑑賞)은 작품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의 가치를 평가·감정(鑑定)하고 아름다움과 재미를 느끼는 심미적(審美的) 활동이다.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감정할 때에는 작품의 내용이 가지는 의미를 자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작품의 아름다움과 재미를 느낄 때에는 작품에서 자신이 느끼기에 특별히 멋있거나 재미있는 부분이 왜, 그리고 어떻게 멋있거나 재미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한문 산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글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서술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서술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표현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등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독해’ 영역 ‘이해’의 내용 요소 ‘이해하기’, ‘감상하기’의 학습내용 성취 기준으로 제시된, 중학교 ‘漢文’의 “글에 나타난 표현의 효과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高等學校 ‘漢文Ⅰ’의 “유가 경전과 제자백가의 글을 읽고 사상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사리를 밝히거나 시비를 가리는 글을 읽고 주장의 근거를 판단할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는 글을 읽고 사건이나 인물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사실이나 사물을 기술하는 글을 읽고 지은이가 강조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실용문을 읽고 글의 내용을 글의 목적과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漢文Ⅱ’의 “유가 경전과 제자백가의 글을 읽고 사상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사리를 밝히거나 시비를 가리는 글을 읽고 지은이의 창작 의도를 평가할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는 글을 읽고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사실이나 사물을 기술하는 글을 읽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실용문을 읽고 문체의 특징을 글의 목적과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다.”, “서사적인 글을 읽고 말하는 이와 인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등을 하나의 성취기준으로 통합하여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취기준 해설은 중학교의 경우 鑑賞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한문Ⅰ’은 鑑賞 활동에 대한 내용에 더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漢文’의 “글에 나타난 표현의 효과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의 해설에서 제시한 한문 산문의 서술방식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한문Ⅱ’는 鑑賞 활동 및 한문 산문의 서술방식에 대한 내용에 더하여 한문 산문의 文體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바, 문체에 대한 내용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위에 제시한 바 여러 종류의 글에 대한 성취기준 해설 및 특히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한문 산문의 문체와 특징을 이해한다.’에 대한 해설서의 내용을 주로 따라서 작성된 것이다.

한시의 경우 中學校 ‘漢文’에서는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를, 高等學校 ‘漢文Ⅰ’, ‘漢文Ⅱ’에서는 “한시의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를 성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 성취기준에 대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성취기준 해설은 다음과 같다.

[9한02-07] 한시(漢詩)의 시상(詩想) 전개 방식은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네 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곧, 네 구(句)로 된 한시인 절구(絶句)의 경우, 기구(起句)에서 시상을 불러일으키고, 승구(承句)에서 시상을 이어받아 확대·발전시키며, 전구(轉句)에서 시상에 변화를 주어 장면이나 분위기를 비약·전환시켰다가, 결구(結句)에서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한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려면 시상 전개 과정을 잘 살펴서 시 전체의 분위기를 읽어내고 제목, 작가와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한시에 사용된 시어나 시구의 의미와 이미지, 비유 대상 등을 통해 시의 내용과 연결하여 시가 지닌 참다운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2한문Ⅰ 02-08] 한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한시의 시체(詩體), 압운(押韻), 대우(對偶),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 등 한시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 한시의 시체(詩體)는 크게 고체시(古體詩)와 근체시(近體詩)로 나뉘며, 한 구(句)의 자수(字數)에 따라 오언시, 칠언시 등으로 나뉜다. 압운법(押韻法)은 한시에서 특정한 구(句)의 끝자리를 운모(韻母)가 같은 글자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이때 압운된 글자를 운자(韻字)라고 한다. 운자는 대체로 짝수 구의 끝자리에 있는데, 첫째 구의 끝자리에도 달 수 있다. 대우법(對偶法)은 한시에서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이나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우를 이루는 두 구는 앞의 구를 출구(出句), 뒤의 구를 대구(對句)라고 부른다. 한시(漢詩)의 시상(詩想) 전개 방식은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네 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곧, 네 구(句)로 된 한시인 절구(絶句)의 경우, 기구(起句)에서 시상을 불러일으키고, 승구(承句)에서 시상을 이어받아 확대·발전시키며, 전구(轉句)에서 시상에 변화를 주어 장면이나 분위기를 비약·전환시켰다가, 결구(結句)에서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한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려면 시상 전개 과정을 잘 살펴서 시 전체의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2한문Ⅱ02-07] 한시의 시체(詩體)는 크게 고체시(古體詩)와 근체시(近體詩)로 나눌 수 있다. 고체시는 고시(古詩)라고도 하는 데, 당(唐)나라 때 근체시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지어진 시체로서, 구수(句數), 자수(字數), 운율(韻律) 등에 대한 규칙이 비교적 자유롭다. 한 구(句)의 자수가 5자로 이루어진 오언 고시(五言古詩)와 7자로 이루어진 칠언 고시(七言古詩)가 있다. 이외에도 한 구의 자수가 4자로 된 사언시(四言詩), 각 구의 자수가 일정하지 않은 잡언시(雜言詩) 등이 있다. 또한 한(漢)나라 때 민간의 가요(歌謠)를 채집하는 기관인 악부(樂府)에서 수집·정리한 민간의 가요 및 이를 모방하여 지은 후대 시인들의 작품을 아울러 이르는 악부시(樂府詩)도 고체시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근체시는 당나라 때 성립된 시체로서, 구수(句數), 자수(字數), 운율(韻律) 등에 대한 규칙이 엄격하다. 근체시는 작품 한 수(首)의 구수가 4구로 된 절구(絶句)와 8구로 된 율시(律詩), 그리고 10구 이상으로 된 배율(排律)이 있다. 평측법(平仄法)은 한시를 지을 때 구(句)를 이루는 각 글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평성에 해당하는 한자와 측성에 해당하는 한자를 일정하게 배치하는 규칙을 말한다. 한자는 글자마다 성조(聲調)를 가지고 있다. 한자의 성조는 평성(平聲), 상성(上聲), 거성(去聲), 입성(入聲)의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사성(四聲)이라고 한다. 또한 사성 중에서 낮고 평평한 소리인 평성을 제외한 나머지, 곧 올라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소리인 상성, 거성, 입성을 포괄하여 측성(仄聲)이라고 한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독해’ 영역 ‘이해’의 내용 요소 ‘이해하기’, ‘감상하기’의 학습내용 성취기준으로 제시된, 중학교 ‘漢文’의 “한시의 형식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한시를 읽고 시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高等學校 ‘漢文Ⅰ’의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전적인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한시의 내용과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漢文Ⅱ’의 “한시를 읽고 말하는 이와 작품 내용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등을 하나의 성취기준으로 통합하여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취기준 해설은 중학교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漢文’의 “한시를 읽고 시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의 해설을 주로 따라서 작성되었다. 고등학교 ‘한문Ⅰ’은 중학교의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내용에 더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漢文Ⅰ’의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의 해설에서 제시한 한시의 詩體, 押韻法, 平仄法, 對偶法에 대한 내용 중 平仄法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주로 따라서 작성하되 그 내용을 대폭 줄여서 제시하였다. 고등학교 ‘한문Ⅱ’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漢文Ⅰ’의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의 해설에서 제시한 한시의 詩體, 押韻法, 平仄法, 對偶法에 대한 내용 중 押韻法과 對偶法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주로 따라서 작성하되 그 내용을 대폭 줄여서 제시하였다.

#### IV. 맺음말: 생략

## 參考文獻

### <자료류>

- 교육과학기술부(2008a),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V) - 외국어(영어), 재량 활동,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8b),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⑬ 한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1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한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1998), 『교육부 고시 제 1997 - 15호 [별책 16] 중학교 재량활동의 선택 과목 교육과정 -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 외국어』,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0a),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V)-외국어(영어), 재량 활동,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 외국어』,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0b), 『초·중·고등학교 국어과·한문과 교육과정 기준』, 교육부.
- 교육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⑬ 한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1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2006), 『한문과 교육과정 개정안 토론회』,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a),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 - 79호 [별책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b), 「11. 한문」,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 - 79호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1~11면.
- 교육인적자원부(2007c),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 - 79호 [별책 17] 한문 및 교양 선택 과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 문교부(1988), 『문교부 고시 제87-7호(1987.3.31) 중학교 한문과 교육 과정 해설』, 문교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2011 한문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2015 한문과 교육과정 시안 검토를 위한 공개 토론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논저류>

- 문영진·장호성·김왕규·박영호·송병렬·안재철·윤재민·이군선(2006), 『중·고등학교 한문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尹在敏(2007), 「2007년 개정 漢文科 教育課程의 구체적 내용 분석」, 『漢文教育研究』 제29호, 韓國漢文教育學會. 7~47면.
- 尹在敏(2009), 「韓國 初中·高等學校의 漢字·漢文 教育 現況」, 『漢文教育研究』 제33호, 한국한문교육학회. 51~74면.
- 尹在敏(2011a), 「韓國의 漢文科 教育課程」, 『漢字漢文教育』 26,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219~260면.
- 尹在敏(2011b), 「漢文科 教育에서의 텍스트의 水準과 範圍」, 『漢文教育研究』 36, 韓國漢文教育學會. 5~20면.
- 尹在敏(2012a), 「韓國의 2011年 改定 漢文科 教育課程의 具體的 內容 分析」, 『漢字漢文教育』 28,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397~446면.
- 尹在敏(2012b), 「2009 改定 漢文科 教育課程의 내용 분석과 향후 과제 - '이해 영역의 내용 분석과

향후 과제'를 포함하여」, 『漢文教育研究』 39, 한국한문교육학회, 5~70면.

尹在敏(2012c), 「理解'領域' 成就基準 및 成就水準 内容 分析」, 『漢字漢文教育』 29,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235~290면.

장호성·윤재민·송병렬·김왕규·이군선·김성중·김경익(2011), 『2011 한문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호성·김왕규·김은경·김지선·송병렬·이군선·윤재민·윤지훈·최현선·한은수(2015), 『한문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호성·윤지훈·윤재민·송병렬·김왕규·이군선·김은경·최현선·한은수·김지선(2015a),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호성·윤지훈·윤재민·김왕규·이군선·김우정·김은경·이승현·최현선·정효영·배희정(2015b),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한문의 활용’ 영역 중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분석

김우정(단국대학교)

## 1.引言 —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설정의 의미

이 글은 2018년부터 적용될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한문의 활용’ 영역 중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에서는 2015년 9월 핵심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내용의 적정화, 학생 중심 교실수업 개선 등을 주된 방향으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을 확정·발표하였다.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은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목표’에서 ‘언어생활의 활용 능력’을 별도의 세부 목표로 설정한 데서도 드러나듯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과 크게 달라진 부분 가운데 하나다. 알다시피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휘와 독해 영역을 통합하여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로 진술하였다. 이는 어휘 교육이 강조되다보니 어휘 교육과 독해 교육이 유리되고 이로 인해 도구교과적 성격이 지나치게 부각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에서 어휘와 문장을 분리하여 “한자 어휘를 익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와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로 진술한 것은 일견 “한자어를 빠르게 읽고 쓰며 언어생활에 활용한다”고 했던 7차 교육과정 시기로 환원한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5차 교육과정 이래 7차 교육과정까지 한문과는 어학적 측면에서 ‘한자’—‘한자어’—‘한문’으로 영역을 구분하고 ‘언어생활’, ‘전통문화’, ‘삶과 지혜’ 등 실체적인 언어생활과 인문소양, 가치관과 태도 형성 등과 관련된 목표들을 각각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택해왔다. 이러한 방식은 형식적인 면에서 간결한 장점은 있지만 독해 못지않게 중요한 인문교양적 특성들을 부차적인 목표로 취급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문제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문’—‘한문 지식’의 2개 영역으로 나누는 한편 ‘한문’에는 ‘읽기’, ‘이해’, ‘문화’를, ‘한문 지식’에는 ‘한자’, ‘어휘’, ‘문장’을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로 인해 ‘문화’의 성격이 모호해졌으며, ‘언어생활’은 ‘어휘’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문’에 속했던 ‘문화’를 분리하여 3개 영역으로 만들어 독립적 성격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한자 문화’와 더불어 ‘언어생활’을 ‘문화’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어휘 교육의 제한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때문에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편찬된 교과서 대신 어휘나 성어를 위주로 구성한 별도의 교재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은 이런 일련의 문제 인식 아래 설정된 것이다. 한자 및 독해와 관련되는 내용 요소를 ‘한문의 이해’ 영역으로 묶고, ‘언어생활’, ‘문화’, ‘인성’을 ‘한문의 활용’ 영역으로 묶음으로써 세부 목표의 혼재로 인한 위계성 문제가 해소되었으며, 그 개념과 범주 또한 더욱 명확해지게 되었다. ‘독해’ 또는 ‘문화’의 하위 영역으로 취급되었던 ‘언어생활’이 독립됨으로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에도 한결 용이해졌다.

물론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이 평지돌출한 것은 아니다. 언어생활에의 활용은 독립 교과로서 교육과정의 처음 마련된 3차 때 이래 줄곧 중요한 학습 목표 가운데 하나였으며, 표현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빠짐없이 언급되어 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전의 교육과정에 견주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그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 2.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내용 요소에 대한 이해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은 ‘한문의 활용’에 속해 있으며, 진술 내용은 영역 및 성취기준 그룹 설정 이유에서만 약간 다를 뿐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성취기준’, ‘기능’ 등 그 밖의 다른 내용들은 중학교 ‘한문’과 고등학교 ‘한문Ⅰ’, ‘한문Ⅱ’가 모두 같다.

[표 1]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중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부분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성취기준	기능
한문의 활용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한자 어휘에는 일상 생활에서 널리 사용하는 말도 있고, 다른 교과에서 학습 용어로 사용하는 말도 있다.	일상용어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읽기 풀이하기 이해하기
			학습 용어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표현하기 탐구하기
			성어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조사하기 분석하기 활용하기

‘내용 요소’는 ‘일상용어’, ‘학습 용어’, ‘성어’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포괄하는 진술이라 할 수 있는 ‘일반화된 지식’에는 성어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성어는 다른 어휘와 달리 통사적 구조를 띠는 경우가 많고, 한문 문장 속에서 축약되거나 변형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성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공히 통사에 관한 것으로, ‘한문의 독해’에서 다뤄질 수 있다.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은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어의 체계에서 볼 때 성어는 어휘의 형태로 사용되므로 ‘일반화된 지식’에서는 별도의 언급 없이 ‘어휘’에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중학교 ‘한문’의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의 ‘영역 및 성취기준 그룹’ 설정 이유는 다음과 같이 진술되어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어휘는 상당 부분 한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뜻을 지닌 성어를 이용해 표현하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다른 교과에서 사용하는 학습 용어의 상당수도 한자 어휘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를 중심으로, 한자에 바탕을 둔 일상용어와 학습 용어, 성어를 익혀 언어 생활을 원활히 하고 다른 교과에서 사용하는 학습 용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고등학교 ‘한문Ⅰ’과 ‘한문Ⅱ’의 경우 학년에 맞춰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를 중심으로”라는 문구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중심으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바탕 위에 보다 확장된 한자를 중심으로”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을 뿐 다른 내용은 중학교 ‘한문’과 동일하다.

[표 2]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어휘 및 언어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대조한 것이다.

[표 2]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어휘 및 언어생활 부분

구분	2015 개정 교육과정			비고	2009 개정 교육과정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영역	내용
중학교 한문	한문의 활용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일상용어	변형	문화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언어생활 속의 한자 어휘 알고 활용하기
			학습 용어	신설		
			성어	유지/변형	한문지식	(어휘) 성어의 의미
고등학교 한문Ⅰ	한문의 활용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일상용어	변형	문화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언어생활 속의 한자 어휘 알고 활용하기
			학습 용어	신설		
			성어	유지/변형	한문지식	(어휘) 성어의 의미
고등학교 한문Ⅱ	한문의 활용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일상용어	변형	문화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언어생활 속의 한자 어휘 알고 활용하기
			학습 용어	신설		
			—	삭제	한문지식	(어휘) 단어의 갈래 - 유의어
			성어	신설	—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화’ 영역에 속했던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를 ‘한문 어휘와 언어생활’로 독립시키는 한편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진 바 없던 ‘학습 용어’를 별도의 내용 요소로 설정한 점이 눈에 띈다. 성어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문 지식’ 영역에 속해 있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문 어휘와 언어생활’에 포함되었다. 아울러 2009 개정 교육과정고등학교 한문Ⅱ ‘한문 지식’ 영역 ‘어휘’ ‘단어의 갈래’에 있었던 ‘유의어’와 관련한 내용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유의어에 대한 학습이 불요하다고 여겨서가 아니라 굳이 특기하여 제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휘는 의미관계 측면에서 볼 때 유의어 외에도 동의어, 반의어 및 상하의어, 동음어 등이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2009 교육과정에서는, 학습량 또는 학습의 용이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의어만 제시함으로써 일부분만 중시한 듯한 인상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이유로 유의어를 학습 내용 요소나 성취기준에 따로 진술하지 않은 것이므로, 교과서를 편찬할 때나 실제 학습 과정에서는 유의어뿐만 아니라 동의어, 반의어, 상하의어, 동음어 등이 고루 학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3.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성취기준에 대한 이해

성취기준의 경우, [표 1]에서 보듯이 중학교 ‘한문’과 고등학교 ‘한문Ⅰ’, ‘한문Ⅱ’가 모두 동일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상용어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학습 용어 :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성어 :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성취기준에서 “한자로 이루어진”이라고 진술한 것은 국어 어휘의 일종인 ‘한자어’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자의 형·음·의, 필순, 용례, 짜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문 교과의 성격에 맞는 학습이 되어야 함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또 “맥락에 맞게”란 사전적 지식 못지않게 실제적인 쓰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어휘를 구성하는 한자의 자원, 형태, 독음, 의미는 물론 어감의 차이, 문장에서의 쓰임 등도 빠르게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상용어’는 ‘보통으로 늘 쓰는 말’을 가리키나 학력이나 직업 또는 언어 환경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그 범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흔히 쓰이는 말로는 ‘전문 용어’와 ‘학습 용어’가 있다. ‘전문 용어’는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쓰는 용어’로, 기존의 어휘가 빈번하게 사용되어 해당 분야의 전문어처럼 인식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말을 가리킨다.<sup>1)</sup> 때로 ‘학술 용어’와 통해 쓰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그 의미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함축적이며 관점에 따라서는 상이하게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학습 용어’는 ‘특정 분야의 학습에 쓰는 용어’로, 학습의 대상이 특정한 전문 분야일 경우 전문 용어와 같은 뜻으로 쓸 수도 있지만 전문적 성격이 약한 분야에서도 쓸 수 있는 만큼 전문 용어와 구별된다. 또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기반이 되는 전문 용어와 차이를 보인다. 즉, 전문 용어가 ‘법률 용어’ ‘경제 용어’ ‘문학 용어’ ‘철학 용어’와 같이 어떤 분야의 용어인지를 바로 드러냄에 비해 학습 용어는 ‘수학 학습 용어’ ‘과학 학습 용어’ ‘도덕 학습 용어’처럼 어떤 분야의 ‘학습’ 과정에 필요한 것인지를 나타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상용어’와 함께 ‘학습 용어’라는 표현을 채택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여러 교과에서 특정적으로 쓰이는 어휘 중에는 한자어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인데, 한자 지식에 기반하여 학습할 경우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후의 학습과정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해당 교과의 수업을 통해서만 한자 어휘 학습까지 함께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것 또한 사실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의 어휘 교육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교과 학습에 필요한 어휘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는 것은 어휘 학습이 어휘의 사전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쓸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발화자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수신자의 입장도 포함한다. 어휘의 의미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결정되어 나타난다. 어휘의 체계 안에서 다른 단어들과 가지는 관계 아래에서만 자신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의 흐름과 분위기, 화자의 상황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은 어휘 수준과 밀접하게 관계된다. 이

1) 『국어국문학자료사전』, 1998, 한국사전연구사

런 점에서 어휘를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것은 문장의 이해에도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취기준 해설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매우 간략하며, 학교급에 따라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로 이루어진”,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로 이루어진”,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바탕 위에 보다 확장된 한자로 이루어진”이라는 내용만 다를 뿐 그 밖의 내용은 동일하다. 다음은 중학교 한문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의 성취기준 해설이다.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 중에는 개념적, 추상적 의미를 표현하거나 심오한 사상이나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한자 어휘가 많다. ‘학습 용어’는 다른 교과에서 사용되는 어휘 중 해당 학문이나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한자 어휘를 말한다. 중학교 한문에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로 이루어진 한자 어휘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고, 다른 교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해당하는 내용인 밑줄 친 ㉠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의 성취기준 해설과 거의 유사하며, ‘학습 용어’에 해당하는 나머지 내용은 새롭게 추가된 것들이다. ‘일반화된 지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어에 관한 해설은 생략되어 있다. 여기에서 “개념적, 추상적 의미를 표현하거나 심오한 사상이나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이라는 해설을 어휘 학습의 내용과 범주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수업시수의 제한, 다른 학습 내용과의 배분 등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한 어휘보다는 교과의 성격에 부합하는 개념적이고 추상적이며 심오한 사상이나 문화가 담겨진 어휘를 위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한자 어휘 가운데는 역사 속의 특수한 사건, 인물, 이야기나 한문 전적에서 유래한 어휘가 많다. 이러한 한자 어휘는 한자의 음, 뜻과 함께 그 내력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건, 이야기, 경전, 고문헌 등 한자 문화에서 유래한 한자 어휘의 뜻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개인적 차원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언어생활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이제 성취수준과 성취수준 해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어휘’다. 어휘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집합’을 가리키는 말이나 ‘어휘 의미(lexical meaning)’, ‘어휘 구조(lexical structure)’ 등의 표현에서와 같이 때로는 개별 단어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휘는 어종, 품사, 의미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어종은 기원과 관계되는 것으로 국어에서는 고유어와 차용어로 분류하며, 한자어는 외래어와 함께 차용어에 속한다. 이외에 서로 다른 이종의 언어 요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인 혼종어가 있다. 한자어는 음운론적으로 국어 체계에 완벽하게 동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유어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용이하다[1].

ㄱ. 밥상(-床), 발판(-板), 뒷문(-門), 달력(-曆), 약밥(藥-), 명란젓(明卵-), 월담(越-)

‘성어’는 예로부터 관용적으로 널리 쓰여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숙어를 말한다. 한문의 체계 안에서는 어구에 해당하지만 국어의 체계 안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어휘의 범주에 든다. 즉, 한문의 체계에서 ‘東奔西走’, ‘錦衣還鄉’, ‘無所不知’ 등은 어구이지만 국어의 체계 안에서는 단지

하나의 명사로 구실할 뿐이다. 성어 가운데 특히, 옛이야기에서 유래한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를 ‘故事成語’라고 한다. 성어가 이루어진 내력과 속뜻을 품고 있어 한문 학습에 폭넓게 활용된다.

『우리말 큰사전』(1957, 한글학회)과 『국어대사전』(1961, 이희승 편)은 고유어가 45.46%와 24.4%이고, 한자어가 52.11%와 69.32%로 편차가 큰 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 고유어 25.2%, 한자어 57.3%, 외래어 5.6%이며, 한자어+고유어 형태의 혼종어가 8.3%로 조사되었다.<sup>2)</sup> 한편 단어의 종수로 보면 고유어의 비율이 문학, 대본, 구어 자료에서 높고 한자어의 비율은 교양(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에 관한 글)과 신문에서 높으며, 출현 빈도 면에서는 고빈도어일수록 고유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sup>3)</sup> 요컨대 국어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수는 한자어가 더 많지만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고유어이며, 사용 빈도가 높은 기본어휘에서는 고유어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저빈도어일수록 한자어의 비율이 높다.

품사에 따른 분류는 어휘소들의 문법적 기능, 의미, 형태 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한자어의 경우, 한문의 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개사, 접속사, 어조사, 감탄사로 나뉘지만 국어의 체계에서는 주로 명사, 또는 ‘-하다’와 결합하는 동사, 형용사의 어근으로 쓰인다. 또 한문의 체계에 따르면 어구로 해석되지만 국어의 체계 안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기능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급기야(及其也)’는 국어의 체계에서는 하나의 단어이자 품사상으로는 부사로 취급된다. 하지만 한문 문법에 따르면 “드디어”가 아니라 “그에 이르다”로 풀이된다. 이러한 현상은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에서 흔히 나타난다. 예컨대 국어의 체계에서 ‘독서(讀書)’, ‘견탈(見奪)’, ‘비리(非理)’는 명사지만 한문 문법에서는 각각 목적, 피동, 부정의 통사 구조에 따라 풀이된다. 이렇게 볼 때 한자어는 음절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단어 또는 명사 어근으로 취급되지만, 내면적으로는 한자 고유의 특성인 단음절 표의 문자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자가 다른 외래어와 달리 국어 어휘 체계 안에서 일종의 단음절 형태소로 기능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觀光’, ‘亡命’처럼 문법적 지식만으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어휘도 있다. ‘觀光’은 오늘날 주로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경, 풍습, 문물 따위를 구경함”의 뜻으로 쓰이지만 원래는 『易』 觀卦의 “觀國之光, 利用賓于王.”에서 유래한 말로, ‘나라의 盛德과 光輝를 보다’는 뜻이 변한 것이다. ‘亡命’은 ‘削除名籍而逃’ 곧, ‘호적을 지우고 다른 곳으로 달아나다’는 뜻이므로,<sup>4)</sup> ‘목숨을 망하게 함’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어휘는 한문 학습을 통해서야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품사에 대한 학습은 ‘한문의 이해’ 영역 ‘한자와 어휘’에서 수행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한문의 체계에 한정되는 것으로, 언어생활에 있어서의 한자어 학습에서는 국어 체계와 상충하는 면은 없는지 살펴 필요할 경우 상호간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미에 따른 분류는 어휘소들의 의미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部首’에 따라 분류한 『說文解字』, 『玉篇』부터 아동용 학습서인 『訓蒙字會』, 『通學經編』, 역관 양성을 위한 교재인 『譯語類解』, 『倭語類解』 등 전통적인 어휘집들도 대부분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면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어휘가 정연한 체계 속에 배치되므로 어휘의 정리와 활용에는 물론 어휘 학습에도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의어, 동의어, 반의어, 동음어, 그

2) 심재기 외(2011:56)

3) 조남호(2002:481)

4) 『史記』「張耳陳餘列傳」에 “張耳嘗亡命遊外黃.”이란 구절이 있는데, 司馬貞은 索隱에서 “晉灼曰: ‘命者, 名也. 謂脫名籍而逃.’ 崔浩曰: ‘亡, 無也. 命, 名也. 逃匿則削除名籍, 故以逃爲亡命.’”이라고 하였다.

리고 상하의어 등이 그것이다 [ㄴ].

ㄴ. 유의 관계 : 世界 ≍ 天地 ≍ 乾坤 ≍ 天下 ≍ 宇宙

동의 관계 : 基礎 = 土臺, 暮色 = 晚景, 人主 = 主君

반의 관계 : 加熱 ↔ 冷却, 集合 ↔ 解散, 原因 ↔ 結果

동음 관계 : 辭典 - 事典 - 事前 - 史前 - 史傳 - 私田 - 私錢

상하 관계 : 生物 > 動物 > 人間 > 男性 > 父親

유의어는 공시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만 정도성에서나 상태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단어들을 말한다. 동의어는 의미가 완전히 같은 둘 이상의 어휘를 일컫는다. 그러나 발화된 단어의 총체적 의미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만 결정되어 나타나므로 완전한 동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sup>5)</sup> 반의어는 서로 대립되는 의미를 한 쌍의 단어를 말한다. 어떻게 상반되느냐에 따라 상대어·반대어·대립어 등으로 나뉜다. 동음어는 소리만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두 개 이상의 단어를 말한다. 또 상이한 단어들이 지니는 일련의 의미들이 상호 포함 관계에 놓이기도 하는데, 이때 넓은 의미를 지니는 단어를 상의어라고 하고 좁은 의미를 지니는 단어를 하의어라고 한다.

한자는 중국에서 탄생하여 주변으로 전파된 것인 만큼 한자어 역시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 가장 많은데, 이는 또 고전 한문에 뿌리를 둔 것[ㄷ]과 백화문의 수용 과정에서 단어로 정착한 것이 있다[ㄷ].

ㄷ. 孤獨, 農事, 德望, 滅亡, 叛亂, 私淑, 言語, 遵守, 參考, 痛快, 婚姻

ㄷ. 家長, 當直, 社會, 活路; 句讀, 大紅, 白菜; 寶貝, 上頭

국어 중에는 ‘과녁(貫革)’, ‘설매(雪馬)’, ‘가계(假家)’와 같이 고유어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한자어에 기원을 둔 것도 있다. 특히 백화문에서 기원한 어휘 중에는 수용 당시 중국음의 영향이 남아 있는 사례도 있는데, 위의 예 가운데 ‘句讀(구두)’, ‘大紅(다홍), 白菜(배추)’가 이에 해당한다. 또 ‘寶貝(보배)’나 ‘上頭(상투)’는 고문에도 용례가 보이지만 백화문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어휘로, 이 또한 백화문의 영향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어 어휘 중에는 한자어에서 기원했지만 원래의 발음과 멀어져 고유어처럼 인식되는 어휘가 있다. 이런 어휘는 국어 어휘에 한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하기 위해 곧잘 제시되곤 하는데, 되도록 보수적인 태도로 기원이 명확한 것을 골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유어가 주로 일상적인 생활 어휘 또는 기초어휘를 담당하고 있음에 비해 한자어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를 담당한다. 19세기 말까지 독보적인 지위를 누렸던 한자어는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개념어나 제도어 쪽을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상어휘에까지 침투하여 고유어와 동어어군을 이루었다. 그 결과 고유어가 驅逐되어 오늘날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났으며[ㄱ], 함께 쓰이고 있다 할지라도 한자어는 점잖고 고상하며 고유어는 상스럽고 천박한 표현이라는 통념이 형성되었다[ㄴ].

ㄱ. 구실 : 税金, 도첩 : 變化, 妖術, 죽사리 : 生死, 즘은 : 千

5) 김광해(1993:200)

ㄷ. 春秋・年歲 : 나이, 老人 : 늙은이, 僧 : 중, 藥酒 : 술

한문을 眞書라고 했던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격식을 갖춰야 하는 문언문에서는 전통적인 고문의 어법과 어휘 체계를 유지했지만 吏文이나 簡札 등 실생활과 밀접한 글에는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자어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이런 어휘는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사].

ㄸ. 感氣, 道令, 四柱, 八字, 身熱, 寒心

이처럼 한자어는 역사적 기원이 오랜 만큼 시대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국가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사].

ㅇ. 發明

- ① ‘前人이 생각해내지 못한 이치를 새롭게 냄’ : “程子之箴, 發明親切, 學者尤宜深玩.” 『論語集註・顏淵篇』
- ② ‘죄인이 자신의 무죄를 밝힘’ : “前日辨論, 我等發明, 上乃減罪.” 『太宗實錄・태종13년8월21일』
- ③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 냄’ : “근세의 과학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명이 되어 공업이 일어남을 따라 사람들은 기술을 꼭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함석헌, 『역사와 민족』

ㅈ. 操心 / 小心

- ① 한국 : 操心 - ‘실수가 없도록 마음을 씬’ ≡ 留意, 注意  
小心 - ‘소심하다(대답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다)’의 어근 ≡ 操心
- ② 중국 : 操心 - 1. ‘마음을 씬’ ‘걱정함’ ‘애태움’ ≡ 膽心 2. ‘실수가 없도록 마음을 씬’ ≡ 小心  
小心 - 1. ‘삼가함’ 2. ‘공손함’ 3. ‘대답하지 못함’ 4. ‘도량이 좁음’
- ③ 일본 : 操心 - 해당 어휘 없음. ‘실수가 없도록 마음을 씬’의 뜻일 경우 ‘用心’, ‘要心’, ‘注意’로 씬  
小心 - ‘대답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음’

한편 오늘날 통용되는 한자어 중에는 일본에서 유입된 것도 있다. 서구의 과학 문명을 앞서 받아들이던 일본에서 건너온 어휘들은 새로운 문명 사조와 관련된 것이 많다. 때문에 해당하는 어휘가 없던 주변국에도 손쉽게 이식되어 한국은 물론 한자의 발상지인 중국에서도 통용되고 있다[차].

ㅊ. 觀念, 演繹, 歸納, 客觀, 主觀, 哲學, 神經, 市場, 入口

하지만 어떤 어휘는 기존의 어휘와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휘가 있거나 앞에서 살펴보았던 표기는 같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어휘가 존재하는 데서 비롯한다. 이런 단어들은 대부분 순화해야 할 대상에 속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ㅋ. 일 - 한 : 脚光 - 注目, 先佛 - 先支給, 食傷 - 陳腐, 俱樂部 - 團體・同好會

일 - 중 : 組立 - 裝配, 割引 - 打折・減價, 放送 - 廣播・播送

일 - 한·중 : 取調 - 問招・訊問・審問, 十八番 - 愛唱歌

일 - 한 - 중 : 口座 - 計座 - 賬戶, 貸切 - 專賃 - 包租, 賣上 - 販賣 - 銷售

見積 - 推算 - 估計, 見習 - 修習 - 實習・見習

위에 예시한 단어 중에 ‘食傷’은 ‘陳腐’로 바뀌 쓸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지나치게 먹어서 생긴 병’의 뜻으로 쓰인다. ‘放送’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죄인을 석방하다’는 뜻이었으며, 중국에서는 ‘(물건을 살 때 주는) 덤’ 또는 ‘값을 깎아 주다’는 뜻으로 쓰였다. 그러나 일본에서 ‘음성이나 영상을 전파로 내보내는 일’을 뜻하는 어휘로 사용한 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뜻으로 쓰고 있고 대만에서도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전문적인 학술 용어나 학습 용어는 고전 문언문에서 유래한 어휘도 있고 근대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어휘도 있다. 다음은 문학·역사·수리·과학·사회·경제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휘들이다. 편의상 분야별로 나누어 제시하였지만 여러 분야에 두루 쓰이는 용어도 적지 않다[티].

티. 문학 : 主題, 素材, 神話, 傳說, 說話, 原型, 變奏, 典型, 比喻, 譬喻, 飛躍, 體驗, 演劇, 批評, 逆說, 執筆, 客體, 敘事, 抒情, 時調, 韻律, 不條理, 形象化

역사 : 宗廟, 陵寢, 年號, 官僚, 圖鑑, 都監, 三司, 勳舊, 兩班, 農奴, 實錄, 反正, 山林, 士林, 館閣, 專橫, 易姓, 參政, 免役, 舌禍, 士禍, 叛亂, 國是, 中人, 埋藏, 州縣, 郡縣, 制度, 儀禮, 體制, 革命, 議政府, 事大主義

수리·과학 : 數列, 行列, 銳角, 代數, 分母, 分子, 定數, 常數, 小數, 角度, 符號, 幾何, 圖形, 誤差, 分布, 等號, 不等號, 餘集合, 方程式, 加減乘除, 推論, 解析, 試料, 冰點, 蒸發, 波動, 屈折, 表皮, 自轉, 空轉, 凝固, 觸媒, 有機, 無機, 手術, 注射, 皮下, 環境, 元素, 回歸線, 頭蓋骨, 新陳代謝

사회·경제 : 經濟, 經營, 所得, 法人, 貨幣, 資本, 株式, 換率, 信用, 和議, 價值, 效用, 會計, 倒産, 契約, 管理, 選舉, 提議, 提請, 却下, 訴願, 請求, 禁治産

근대 이후 만들어진 학습 어휘 중에는 축자적인 분석으로는 그 의미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단어도 있다. 이는 속성상 개념어, 제도어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 ‘浪漫’과 같은 음역어가 이런 예라 할 수 있다. 고문에서 ‘浪漫’은 ‘방탕함’ ‘방종함’ ‘게으름’의 뜻으로 쓰였다.<sup>6)</sup> 그런데 일본에서 이 단어를 빌려 프랑스어 ‘roman’을 나타낸 이후 지금은 원래의 뜻보다 ‘정서적이고 이상적인 심리 상태나 분위기’를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음역어는 대부분 인명이나 지명, 또는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표기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으로, 학습의 효용성은 그리 크지 않다.

교과교육용 한자 어휘를 선정할 때에는 교과 학습에 얼마나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느냐를 위주로 하여 축자적 풀이로 의미 파악이 가능하며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되는 어휘를 위주로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빈도가 높고 조어력이 뛰어나며, 의미 투명도가 우수한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sup>7)</sup> 이런 기준에 따라

6) 蘇軾, 「與孟震同遊常州僧舍詩」, “年來轉覺此生浮, 又作三吳浪漫遊.”

7) 이와 관련하여서는 장호성 외(2015b)가 참고할 만하다. 초등학교 한자교육 방안을 주제로 한 이 연구에는 초등학교용 교재들에 나타난 방대한 양의 한자어들을 대상으로 빈도, 조어력, 어휘 투명도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선정한 어휘는 해당 교과를 학습하는 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어휘 능력 자체를 신장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어휘의 의미를 알도록 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자원, 자형, 독음 및 관련 어휘, 활용례 등을 함께 설명해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성어는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 많지만 ‘理判事判’, ‘咸興差使’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유래한 것도 있으며, 중국이나 일본과 다르게 쓰는 성어도 있다[교].

교. 玉石同架 - 玉石混淆, 賢母良妻 - 良母賢妻, 前無後無 - 空前絶後

성어 가운데 옛이야기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는 내용이 흥미롭고 풍부할 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비유적이고 함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서 일상 언어생활에서도 널리 쓰인다. 2~4자로 이루어진 것이 많지만 그 이상으로 이루어진 성어도 있으며 ‘人生七十古來稀’와 같은 시구도 관용적으로 사용되므로 성어라고 할 수 있다[하].

#### 하. 2자 성어

綠林 : 산 이름. 西漢 말, 王匡과 王鳳 등이 綠林山에서 起義한 데서 유래한 말로, 무리를 지어 정부에 대항함. 또는 부유한 자의 물건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줌. 또는 도둑의 소굴을 이르는 말. 출전 『漢書』

破鏡 : 깨어진 거울. 부부의 금실이 좋지 않아 이혼하게 되는 일. 출전 『史記』

#### 3자 성어

一字師 : 詩文 가운데 한두 글자 정도를 고쳐 주는 사람. 齊己가 「早梅」라는 시를 지었는데 이를 본 鄭穀이 “前村深雪裏 昨夜數枝開”라는 구 가운데 ‘數’를 ‘一’로 고쳐 一字師의 칭호를 얻은 데서 유래함. 출전 『五代史補·僧齊己傳』, 『詩人玉屑』

忘年交 : 나이를 잊은 사귀. 范雲何遜이 스무 살에 쓴 글을 본 范雲이 나이 차를 잊고 허물없이 서로 사귀었다는 데서 유래함. 출전 『南史·何遜傳』

#### 4자 성어

讀書尙友 : 책을 읽음으로써 옛 賢人과 벗함. 출전 『孟子·萬章章句下』 “以友天下之善士爲未足, 又尙論古之人. 頌其詩, 讀其書, 不知其人, 可乎? 是以論其世也. 是尙友也.”

孔席墨突 : 孔子의 자리와 墨子의 굴뚝. 공자와 묵자는 천하를 周遊하며 유세하느라 바빠 집에 머무를 여유가 없었다는 뜻으로, 세상일에 분주함으로 이르는 말. 출전 『淮南子·修務訓』 “孔子無黔突, 墨子無暖席.” 班固, 「答賓戲」 “是以聖哲之治, 棲棲遑遑, 孔席不暖, 墨突不黔.”

고사성어의 학습은 축자적인 풀이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 고사의 유래나 문헌 속에 인용된 사례를 익혀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 지식 전달을 위한 수업보다는 스토리

---

한자교육용 한자를 목록화하여 제시하였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중등과정의 교과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텔링, 토론수업 등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結言

한때 한자 어휘는 누구라도 손쉽게 가르칠 수 있는 분야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있어왔다. 대개 음과 뜻, 그리고 사전적 풀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다. 상치교사들이 흔히 맡는 과목이기도 했다. 어휘 영역은 한문 교육의 미래와 직결된다. 어휘 교육은 곧 언어생활의 문제이며, 언어생활은 결국 국어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다른 교과와 섞이지 않는 고유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지닌 다른 교과와 달리 한문에게 있어서 국어는 숙명적 동반자다. 따라서 한문 교육의 활성화를 한글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한자 어휘 교육이 과거와 같이 다루어져서는 곤란하다. 교과서 집필자들은 어휘를 미처 소화하지 못한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를 채워 넣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교수자들은 한자와 한문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어 어휘 교육의 질과 내용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국어의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어휘 교육이 아전인수 격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효과적인 어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 참고문헌 >

- 교육인적자원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교육인적자원부(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3-한문」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교육과학기술부(2011),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17  
 교육과학기술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  
 교육과학기술부(2015), 「한문과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7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심재기·조항범·문금현·조남호·노명희·이선영(2011), 『국어 어휘론 개설』, 지식과교양  
 장호성·윤지훈·윤재민·김왕규·이군선·김우정·김은경·이승현·최현선·정효영·배희정(2015a),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Ⅱ-한문과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5-25-15  
 장호성·윤지훈·김대희·양원석·조성덕·진철용·허철(2015b), 「초등학교 한자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5-1-1  
 조남호(2002), 국어 어휘의 분야별 분포 양상, 『관악어문연구』2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漢文의 活用 - 漢文과 人性, 漢文과 文化’ 영역의 內容 要素와 成就基準 분석

金王奎(韓國敎員大學校)

## 目 次

- I. 序言
- II. ‘漢文과 人性’, ‘漢文과 文化’의 內容 要素
- III. ‘漢文과 人性’, ‘漢文과 文化’의 成就基準
- IV. 餘言

## I. 序言

2015년 9월 23일, 교육부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했다. 늘 그랬듯이,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개발자들은 이전의 교육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의 교육과정을 개발한 것은 그들이었지만, 그 문제점은 운영의 주체인 학교의 교사와 적용의 대상인 학생에게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시 새로운 작업을 준비했다. 그리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出市했다.

그들은 몇 가지 새로운 용어를 강조했다. 핵심 역량, 문·이과 공통 과목, 기초 소양 교육, 핵심 개념과 원리, 학생 활동 중심 등이 그것이다. 뒤이어, 총론 개발진들의 감독과 지휘 아래, 교과 교육과정 연구진들은 교과와 핵심 개념 중심의 교육과정, 핵심 역량 및 교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교과 간, 교과 내 융합·연계가 가능한 교육과정 개발을 수행했다. 한문과 구성원 또한 정해진 구획과 절차에 따라 ‘한문과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협의·검토·수정·보완했지만, 연구 수행의 과정은 짧았고, 연구 환경은 열악했다. 게다가 교육부의 전령과 지침은躁急하고 模糊했는데, 그 실체는 ‘責任 回避’ 바로 그것이었다.

오늘 이 자리, 곧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적용 방안을 탐색하는 마당에 필자 또한 연구·협력진의 한 사람으로, ‘한문의 활용’ 영역 가운데, ‘漢文과 人性’, ‘漢文과 文化’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의 발표를 분담하기로 한다. 其實, 동학들은 이전에 한문과의 교과 정체성 정립의 주요因子的 하나로 ‘人性’, ‘文化’를 강조했고, 인성·문화 교육의 한문교육에로의 連繫·受容·具顯 방안을 모색했다.<sup>1)</sup> ‘漢文과 人性’, ‘漢文과 文化’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의 선정 내용, 조직, 기술 방식에 대한 문

1) 한문과에서 수행한 인성 교육 관련 성과는 백광호(2013)에서 논의했다. 한편, 2013년 한문교육학회는 창의·인성교육의 한문과 연계, 적용 방안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수행의 결과를 보고했다. 필자 또한 김왕규(2013a)에서, 한문과 창의·인성 교육 모형을 개발하고, 한문과 창의·인성 의미 자질에 따른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보고했다. 한편, 한문과 교육과정 ‘문화’ 영역에 대한 학계의 보고는 다채로운데, 예컨대 ‘문화’의 개념, 범위, 수준(송병렬, 2007a; 양원석, 2011), ‘문화’ 영역

제점과 대안은 한문교육학 연구자들의 향후 비평을 기다리기로 한다. 그리고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주안점과 특징, 개별 영역에 따른 내용 용소와 성취기준, 성취기준에 근거한 교수·학습 및 평가 사례, 교과서 수용 방안 등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先輩와 同學들의 발표에 기댄다.

## II. ‘漢文과 人性’, ‘漢文과 文化’의 內容 要素

한문과의 교육 내용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지,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는 한문과 교육과정 개발의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sup>2)</sup>는 새롭다. <표 1>를 보면서 논의를 진전해 보기로 한다.

<표 1> ‘한문과 人性’, ‘한문과 文化’의 내용 체계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한문의 활용	한문과 人性	한문 기록에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이 담겨 있다.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읽기 풀이하기 이해와 공감하기 조사하기 토의·토론하기 적용하기
	한문과 文化	우리의 전통문화는 한자를 주된 기록 수단으로 하여 보존·전승되고 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읽기 풀이하기 이해하기 조사하기 토의·토론하기 적용하기
		한자문화권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언어와 문화에는 공통적 요소가 있다.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	

무엇보다, 한문과의 학습 내용을 범주화하는 최상위의 기준 내지 원리를 究明하는 작업이 至難한데, 한문(한자, 어휘, 문장, 글)에 대한 학습을 ‘이해’로, 한문을 통한 학습을 ‘활용’으로 구분하고, 한문과를 구성하는 내용 영역으로 한문의 이해, 한문의 활용을 설정했다. 한문 학습을 통한 다양한 활용 가운데, 일상 언어생활 속에서의 한자 어휘, 한문 기록에 담겨진 인성과 문화 관련 요소에 착안하여, 한문의 활용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 개념 내지 원리로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한문과 人性’, ‘한문과 文化’를 ‘核心 概念’으로 설정했다.<sup>3)</sup> 학년(군) 및 학교 급을 통해서 한문 학습자들이 배우는 학습 내용의 일반

단원 구성의 구체적 사례 분석(송병렬, 2008; 양원석, 2011; 이동재, 2011; 김왕규, 2012b), ‘문화’ 영역 교육 목표(박노자, 2000; 한예원, 2007; 강경모, 2007; 송병렬, 2007a; 윤채근, 2007; 2009; 2012),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김용재, 2007; 윤채근, 2009), ‘문화’ 영역의 하위 범주(윤채근, 2012; 한예원, 2012; 송혁기, 2012; 김연수, 2012)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문화’ 영역의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내용 분석, 향후 과제에 관해서는 김왕규(2012a; 2012b) 참조.

2) 한문과 내용 체계의 기능과 관점, 영역 구분의 기준과 범주화 및 구조화의 원리는 김왕규(2005)에서 시론했고,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의 주요 특징은 이광우(2015)가,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의 주요 특징은 장호성 외(2015a; 2015b)에서 설명, 안내했다.

3)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특히 ‘人性’을 강조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 대영역 ‘문화’의 중영역 가운데 하나인 ‘한자 문화’를 이번 교육과정에서 ‘한문과 人性’, ‘한문과 文化’라는 핵심 개념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전 교육과정에서 ‘한자 문화’의 소영역의 하나인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을 이번 교육과정에서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전통문화의 계승과

원리가 ‘일반화된 지식’인데, 학습자들이 배워야 할 핵심적인 내용 지식인 ‘내용 요소’를 왜 학습해야 하는지의 근거로서 작용한다. 예컨대, 핵심 개념 ‘한문과 인성’의 ‘내용 요소’인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하는 근거 내지 원리는 바로 “한문 기록에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내용 요소’를 학습한 뒤,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할, 또는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이 바로 ‘技能’인데, 여타 영역과 영역에 따른 핵심 개념의 기능을 포괄하되,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의 경우, “이해와 공감하기”, “토의·토론하기”, “적용하기”를 강조했다. ‘기능’은 후론되는 ‘성취기준’ 구성의 중요 원리로 作動한다. 그리고, ‘한문의 활용’ 영역의 핵심 개념인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은 학교 급별로 다르지 않다.

### Ⅲ. ‘漢文과 人性’, ‘漢文과 文化’의 성취기준

내용 체계에 제시된 교과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라는 과제는 교과교육학 연구자들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名稱, 概念, 記述 方式, 機能 등이 그 핵심인데, <표 2>를 보면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표 2>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의 성취기준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성취기준
한문의 활용	한문과 인성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한문과 문화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이전 교육과정에서 ‘영역별 내용’으로 명명했는데, 2009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서 ‘학습내용 성취 기준’이란 용어를 도입했고,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서 ‘成就基準’이란 명칭을 다시 사용했다.<sup>4)</sup> 총론 개발진들의 연구를 준용<sup>5)</sup>하면, 한문과 성취기준은 한문과를 통해 학생이 배워야 할 지식과 기능을 의

발전’이라는 내용 요소로 구분했다. ‘한문의 활용’ 영역의 핵심 개념의 하나로 설정된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과 관련된 심층적 논의는 동학들의 발표로 미룬다.

4) ‘성취기준’이란 용어는 기실 제7차 교육과정부터 사용했다. 단, 이 용어를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나 내용 체계에 따른 학습 내용 진술의 한 방식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준거 지향 평가 곧, 절대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의 준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과 교육과정의 후속 연구 과정에 도입했다. 한문과 또한 영역별 내용을 근거로 성취기준을 개발하고, 평가 기준 및 도구를 개발했다. 이명준·김왕규(1999). 참조.

5) 이광우(2015)가 소개한, ‘성취기준’의 개념, 기능에 대한 총론 개발진의 논의를 한문과에 적용하여 진술했다.

미하여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할, 또는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성취기준의 기술 및 구성 방식은 ‘내용 요소 + 기능’인데, 예컨대 내용 요소인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과 ‘이해와 공감하기’, ‘적용하기’ 등의 기능을 결합하여,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라는 ‘한문과 인성’의 성취기준을 진술했다. 또한, ‘한문과 문화’의 성취기준에서 “~태도를 형성한다.”라는 진술은 기능 가운데 하나인 ‘적용하기’와의 連繫·變容이라고 볼 수 있다.<sup>6)</sup> 그리고 성취기준은 한문과 교수·학습의 방향을 안내하고 한문과 평가 방향 및 기준 설정의 근거로서 작용한다.

한편,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 체계의 핵심 개념을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으로 상정하고, 해당 ‘영역 및 성취기준 그룹’의 설정 이유를 제시하였는데,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표 3>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의 영역 및 성취기준 그룹 설정 이유<sup>7)</sup>

영역 및 성취기준 그룹	영역 및 성취기준 그룹 설정 이유
한문과 인성	한문 기록 속에는 현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예컨대 인간의 존엄성 상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 물질 만능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의 만연 등에 대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 따라서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고 실천 가능한 내용을 정선하여 학습함으로써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한문과 문화	우리 생활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전통문화는 대부분 한자를 주된 기록 수단으로 하여 보존·전승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우리만의 민족 문화와 별도로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과 일정 부분 공유하는 정신문화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 및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익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끝으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경우,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sup>8)</sup>의 교과 연계·수용 방안의 하나로, 한문과 교과 역량을 개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내용 체계상의 핵심 개념 ‘한문과 인성’ 및 ‘한문과 문화’를 ‘인성 역량’으로 통합·수용하여 제시하였고, ‘인성 역량’의 하위 요소는 ‘성취기준’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6)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태도를 형성한다.”라는 성취기준에 대한 同學의 이전의 문제 제기는 여전히 한문교육학 연구자에게 유효한 과제인데, ‘교수 단위’를 활용한 그의 대안은 이번 교육과정의 구성에 일정 부분 실현되었다. 백광호(2012). 참조.

7) 장호성 외(2015b). 참조.

8)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다. 교육부(2015), 2면. 참조.

<표 4> 한문과 교과 역량 중 ‘인성 역량’의 의미와 하위 요소<sup>9)</sup>

역량 요소	의미	하위 요소
인성 역량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 및 자질을 지속적으로 개발·관리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아정체성 확립, 자기 절제 기초학습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기본 생활 습관, 진로개발 능력
	한문 기록에 담긴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수용·실천함으로써,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능력	윤리 의식, 봉사정신, 환경 의식, 규범 및 질서 의식, 협동, 배려, 신의, 참여와 해임, 가치 다양성의 이해와 존중, 타 문화와 다 문화 이해

#### IV. 餘言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과제를 생성해 보도록 한다. 필자 개인의 숙제이고, 동학들의 공통 연구 과제이기도 하다. 거듭되는 문제 제기이지만, ‘인성’과 ‘문화’ 영역의 성취기준은 한문과의 교과 正體性 정립의 주요 因子로 기능하지만, 이른바 ‘정의적 태도, 능력’과 관련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교수·학습 및 평가와의 연계·수용 事例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청된다. 그리고 인성, 문화 역량을 교과서에서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소재 개발과 단원 구성이 핵심 과제일 것이다.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지만, 국가 수준 교육과정 총론 編制에서 한문과의 位相<sup>10)</sup>을 提高하는 방안은, 오늘 이 자리의 우리 모두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허나, 그 출발점은 한문 교육학에 대한 愛情과 工夫임을 필자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 <參考 文獻>

-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
- 교육부(2015),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7].
- 강경모(2007), 「한문과 교과 내용으로서 문화에 대한 단상」,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의미와 한문 교과의 미래』, 한국한문교육학회 2007년 하계 학술 대회, 영남대학교 국제관, 한국한문교육학회, 별지.
- 김연수(2012), 「2009 개정 고등학교 한문Ⅱ 교육과정의 한문학의 이해 영역에 대하여」,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문화 영역의 내용 분석과 향후 과제』, 2012년 한국한문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한국한문교육학회.
- 김용재(2007), 「동아시아 고전 교육과 문화콘텐츠 개발」, 『한문교육연구』28, 한국한문교육학회.
- 김왕규(2004), 「한문교육과정 개정·변천의 양상과 한문과의 位相-編制와 時間(單位) 配當 基準을 중심으로」

9) 장호성 외(2015a), 56면. 참조.

10) 김왕규(2004; 2013b). 참조.

- 으로」, 『한문교육연구』 22, 한국한문교육학회.
- 김왕규(2007),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그 위상」, 『청람어문교육』 36집, 청람어문교육학회.
- 김왕규(2012a), 「문화 영역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내용 분석」, 『한자한문교육연구』 29,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김왕규(2012b),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문화 영역의 내용 분석과 향후 과제」, 『한문교육연구』 39, 한국한문교육학회.
- 김왕규(2013a), 「한문과 창의·인성 학습 내용 선정 및 조직」, 『한문교육연구』 40, 한국한문교육학회.
- 김왕규(2013b), 「漢文, 국가 語文 政策에 길을 묻다」, 『東洋漢文學研究』 13, 東洋漢文學會.
- 박노자(2000), 「한국 문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어 교육』 제11권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백광호(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취수준 개발을 위한 일고」, 『한문교육연구』 38, 한국한문교육학회.
- 윤채근(2007), 「동아시아의 문화정체성과 한자·한문교육」, 『한문교육연구』 28호.
- 윤채근(2009), 「한문소설의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문화교육의 이론적 실천을 위하여」, 『한문교육연구』 32, 한국한문교육학회.
- 윤채근(2012), 「한국의 중등교육 환경과 한자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 분석과 향후 과제』, 2012년 한국한문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한문교육학회.
- 이동재(2011),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한문1 교과서의 다문화 수용 양상 연구」, 『한자한문교육』 26,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송병렬(2007a),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 교과의 문화교육 가능성」, 『한문교육연구』 29, 한국한문교육학회.
- 송병렬(2007b), 「韓國의 漢文文化와 漢文教育」, 『東方漢文學』 33, 동방한문학회.
- 송병렬(2008), 「漢文文化 教育의 現況과 課題」, 『民族文化論叢』 4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송혁기(2012),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중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에 대하여」, 『한문교육연구』 38, 한국한문교육학회.
- 이광우(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교육광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명준·김왕규(1999),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한 평가 기준 및 도구 개발 연구-고등학교 한문 I·I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장호성·윤지훈·윤재민·송병렬·김왕규·이군선·김은경·최현선·한은수·김지선(2015a),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 한문과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장호성·윤지훈·윤재민·김왕규·이군선·김우정·김은경·이승현·최현선·배희정·정효영(2015b),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한문과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장호성·윤지훈·김대희·양원식·조성덕·진철용·허철(2015c), 「초등학교 한자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예원(2007), 「2007년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른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의 방향」, 『한문교육연구』 29, 한국한문교육학회.
- 한예원(2012), 「‘한자문화’의 지식 형성과 지식 실천 : 전통의 이해와 계승을 위한 교육교재 개발」, 『한자한문교육연구』 28,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한문의 이해-한자와 어휘’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 분석

배희정(대부중학교)

## 目次

- I. 서론
- II. ‘한자와 어휘’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변화
- III. ‘한자와 어휘’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 실제
- IV. 결론

## I. 서론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이 고시되었고, 그 체계는 이전 교육과정들과는 다른 많은 변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것은 이전에 영역별로 제시했던 교수·학습 방법을 영역의 내용 요소별로 제시하고,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에 해설과 유의 사항을 함께 기술한 것이다. 평가 방법과 방향도 교육과정 4장에서 예전 교육과정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각 영역별로도 다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의 종류도 그 어떤 교육과정 시기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어, 학교 현장의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서 실질적이고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

교육과정 상의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중에서 ‘한문의 이해-한자와 어휘’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 ‘한자의 모양·음·뜻’, ‘한자의 부수’, ‘한자의 필순’을 학습할 때에는 자전(사전, 옥편) 활용하기, 자원(字源) 활용하기, 부수(部首) 활용하기, 필순대로 따라 쓰기, 한자 카드 활용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한자의 짜임’을 학습할 때에는 한자 구조 분석하기, 한자의 구성 성분 활용하기, 한자 카드 활용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단어의 짜임’을 학습할 때에는 단어 구조 분석하기, 비교·분석하기, 어휘 만들기, 한자 카드 활용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실사와 허사’를 학습할 때에는 비교·분석하기, 허사 쓰임 유추하기, 한자 카드 활용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sup>1)</sup>

- 한자는 그와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의 성취와 활용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 단순히 한자를 쓰는 순서를 묻기보다는 한자를 정확하고 바르게 쓰는 것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 단순히 한자의 짜임이 무엇인지를 묻기보다는 한자의 짜임을 이해하고 한자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1) 장호성 외(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Ⅱ 한문과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4면에서 인용.

- 단순히 단어의 짜임이 무엇인지를 묻기보다는 단어의 짜임을 이해하고 한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 단순히 실사와 허사가 무엇인지를 묻기보다는 그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 텍스트만 제시하기보다는 삽화나 사진, 신문, 광고 등 실생활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다양화한다.<sup>2)</sup>

‘한문의 이해-한자와 어휘’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역시 영역의 내용 요소별로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의 경우 이전 교육과정의 궤를 유지하면서 바꿨지만, 그 용어와 해설면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

본고에서는 ‘한문의 이해-한자와 어휘’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의 변천과 또 2015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각 교수·학습 방법의 실질적인 사례를 절차와 유의사항을 제시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실제적 운용에 도움을 주고, 그에 따른 평가 기준안도 함께 작성하도록 한다.

## II. ‘한자와 어휘’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변화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두 개 영역, 다섯 가지 핵심 개념의 각각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방법 중에서 ‘한문의 이해-한자와 어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은 연구논문이나 현장연구보고서 및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방법이 대거 소개가 되었다. 반면 ‘한문의 이해-한자와 어휘’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은 이미 시행되었던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의 유지 또는 이를 토대로 한 약간의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소개된 교수·학습 방법 중 한자 및 어휘 학습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다양성, 구체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진다.<sup>3)</sup> 또 다른 영역들과 달리 ‘한자와 어휘’ 영역은 한문 학습에 있어서 시작이 되는 점임과 동시에 다른 영역의 성취기준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 및 보고서가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시작되었으면 한동안 꾸준히 이루어졌다는 점도 그 이유 것이다.<sup>4)</sup>

이렇게 다른 영역들과 차이가 있다는 면에서 ‘한문의 이해-한자와 어휘’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분석에 앞서 해당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이 이전 교육과정과 어떤 공통점 및 차이점을 지니고 변화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2) 앞의 책, 96면.

3) 교육과정 문건 상에서 독해, 문화 등의 교수·학습 방법에 비해 한자와 어휘(언어생활 어휘 포함) 교수·학습 방법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다. 또 제7차와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해설(설명)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포함하여 기술한 것의 대부분이 ‘한자와 어휘’ 관련 교수·학습 방법이다.

4) 송병렬(2011), 한문과 교수·학습 방법의 성과와 방향, 한문교육연구 37, 한국한문교육학회.

이 논문을 참고하면 한자와 어휘의 교수·학습은 타 영역이나 교수·학습방법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이루어졌으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반의 연구일수록 한자, 어휘 및 그에 대한 지식 학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최근 연구로 올수록 언어생활, 문화 등 교육과정의 다른 영역과 연계한 교수·학습 방법 연구로 변천되고 있다.

다음의 <표 1><sup>5)</sup>을 바탕으로 그 변화를 살피고자 한다. <표 1>은 제7차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 문건(해설서)에 기술된 '한자와 어휘'영역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방법의 해설을 정리하여 만든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교수·학습 방법 해설이 전혀 없는데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앞선 두 교육과정과 달리 해설서가 없기 때문이다.

<표 1>제7차~2009 개정 교육과정 상의 교수·학습 방법 해설

교수·학습 방법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부수 중심 지도법	부수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자를 쉽고 재미있게 익힌다.	부수의 의미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한자로 확장하는 학습법이다.	-
구조 분석법	한자의 짜임 등의 분석을 통해 한자를 흥미롭게 익힌다.	한자의 짜임을 분석하여 지도하는 학습법이다.	-
자원 활용법			-
사전 활용 학습법			-
이미지컷 활용 학습법			-
한자 카드 활용법			-
도형화된 노트 활용 한자 쓰기			-
웹기반 중심 학습법			-
조어 분석법	한자를 서로 결합하여 의미를 점차 넓혀 가는 학습법이다.	어휘의 짜임을 풀이하여 지도하는 학습법이다.	-
언어 활용법	한자를 실제 언어생활이나 학습 내용에 적용하게 하는 학습법이다.	어휘를 실제 언어생활이나 학습 내용에 적용하게 하는 학습법이다.	-
색출법	신문, 서적, 표지판 등에서 학습한 한자를 찾아보게 하는 방법으로 과제학습으로 적절하다.	신문, 서적, 표지판, 광고 등을 제시하여 학습하거나, 학습한 어휘를 찾아보는 학습법이다.	-
비교 학습법	모양이 비슷한 한자, 또는 뜻이 비슷한 경우와 반대되는 경우의 한자를 알아보는 학습법이다.	둘 이상의 학습 내용이나 또는 같은 내용이라도 달리 적용되는 학습 내용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하여 학습의 수준을 넓혀 가는 학습법이다.	-
반복 학습법	-		

부수 중심 지도법, 구조 분석법, 조어 분석법, 언어 활용법, 색출법, 비교 학습법은 제7차 ~ 2009개정 교육과정 모두에 걸쳐 나오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이 중에서 조어 분석법과 비교 학습법을 제외한 나머지 교수·학습 방법은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그 내용이 동일하거나,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기본 틀을 유지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부수 중심 지도법은 하나의 부수를 중심으로 다른 구성 성분이 더해진 새로운 한자를 학습 하는 방법으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설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7차와 2007개정에서 서술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해설서의 예시를 보면 같은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6)</sup>

5) 제7차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 문건 상에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 명칭이 기술되기 때문에 범위를 제7차 교육과정부터 시작하였다. 표의 음영 부분은 교육과정에 해당 교수·학습 방법이 등장하지 않음을 표시한 것이고, 줄표시(-)는 교육과정에 해당 교수·학습 방법이 등장하지만 그에 대한 해설이 없음을 표시한 것이다.

6) 박삼서 외(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3 한문-』, 교육인적자원부, 57면. 송인발 외(2008), 『고등학교 교과서 해설13』, 교육과학기술부, 70~71면 참고. 이하의 교수·학습 방법 비교도 같은 책, 동일 지면 참고.

구조 분석법도 부수 중심 지도법과 마찬가지로 제7차와 2007개정에서 서술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해설서의 예시를 보면 같은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내용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언어 활용법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해설서 상의 서술에는 제7차에서는 '한자를', 2007 개정에서는 '어휘를'이라고 되어 있지만, 해설서 상의 예시(또는 보기)를 보면 동일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색출법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매체들에 쓰인 한자를 토대로 학습하는 것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서술은 과제로 매체들에 쓰인 한자를 찾아보게 하는 것에서 그쳤다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찾아보는 활동 외에 신문, 서적, 표지판, 광고 등이 수업에서 교수·학습 자료로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한자 교수·학습 방법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휘 교수·학습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이들 교수·학습 방법과 달리 조어 분석법과 비교 학습법 제7차와 2007 개정에서 용어는 같지만 그 내용에 많은 차이점이 있다.

비교 학습법의 경우 어떠한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대로 학습을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제7차에서는 한자와 한자어(어휘) 학습의 응용으로 보면서도 교수·학습 방법 서술로 볼 때 주로 한자를 학습하는 방법을 인식된다. 그러나 2007 개정에서는 '둘 이상의 학습 내용'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는 영역별로 분류한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sup>7)</sup>

조어 분석법 역시 교수·학습 방법의 설명을 살펴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제7차에서 조어 분석법은 '조어'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하나의 한자를 토대로 앞뒤에 다른 한자나 어휘를 더하여 새로운 어휘를 학습하는 한자의 조어력에 기반을 둔 학습법이다. 그러나 2007 개정에서는 어휘의 짜임을 토대로 그 풀이를 지도하는 법으로 '분석'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진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sup>8)</sup>

한편 반복학습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만 제시되고 그 후로는 삭제되었다. 또 자원 활용법, 이미지 컷 활용 학습법, 한자카드 활용법, 도형화된 노트 활용 한자 쓰기, 웹기반 중심 학습법 등은 2009 교육과정에서 모두 새롭게 추가된 교수·학습 방법이다.

반복학습법은 한자와 어휘 학습만은 위해서만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도 아니고 단순히 같은 내용을 반복해나가며 학습하는 방법이기에도 삭제된 듯하다.<sup>9)</sup>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다섯 개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설명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볼 수가 없는데, 이는 해설서가 발행되지 않아서이다. 여러 연구<sup>10)</sup>들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제7차에서는 한자, 한자어의 교수·학습 방법을 비교 학습법을 제시했지만, 2007 개정과 2009 개정에서는 어휘 영역과 문화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다.

8) 제7차와 2007 개정 각 교육과정 해설서의 교수·학습 방법 예시 참고.

9) 한자와 어휘 교수·학습에서 반복학습법의 구체적인 예시는 배원룡(1997)의 연구 18~19면에서 볼 수 있다.

10) 고인숙(2011), 한은수(2006), 한연석(2006), 송병렬(2001), 백광호(2005).

<표 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등장하는 교수·학습 방법

자원 활용법	한자의 자원(字源)을 활용하여 한자의 요소 및 한자의 짜임을 학습하는 방법
자전 활용 학습법	자전(字典)에서 한자를 찾아서 한자의 요소 및 한자의 짜임, 어휘 등을 학습하는 방법
이미지컷 활용 학습법	이미지컷 <sup>11)</sup> 을 활용하여 한자의 짜임을 학습하는 방법
한자 카드 활용법	한자 카드를 활용하여 한자와 어휘를 학습하는 방법
도형화된 노트 활용 한자 쓰기	미리 도형화된 노트 <sup>12)</sup> 를 통해서 한자의 정서법을 학습하는 방법
웹기반 중심 학습법	인터넷 및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이를 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최근의 연구 결과와 교수·학습 현장의 상황을 많이 받아들여서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에 반영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해설서가 없는 관계로 교수·학습 방법 용어만을 통해서서는 그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이 아쉽다.

이제 새롭게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자와 어휘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은 또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 표 3> 2009 개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자와 어휘 관련 교수·학습 방법 비교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변경	부수 중심 지도법	→ 부수 활용하기	→ 한자 구성 성분 활용하기
	구조 분석법	→ 한자 구조 분석하기	
	자원 활용법	→ 자원 활용하기	
	자전 활용 학습법	→ 자전 활용하기	
	한자 카드 활용법	→ 한자카드 이용하기	
	비교 학습법	→ 비교 분석하기	
	조어 분석법	→ 단어 구조 분석하기	
추가	필순대로 따라 쓰기, 어휘 만들기, 허사의 쓰임 유추하기		
삭제	언어 활용법, 색출법, 이미지컷 활용 학습법, 웹기반 중심 학습법, 도형화된 노트 활용 한자 쓰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의 (다) 항 중에서 유의 사항을 보면 각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 사항과 더불어 해당 교수·학습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비교하여 교수 학습 방법의 명칭이 변경된 것과, 새롭게 추가된 것, 그리고 삭제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것 중 첫 번째는 교수·학습 방법의 '~ 학습법'이라는 명칭이 '~하기'로 변화된 것이다. 한문과 교수·학습 방법의 상당 부분은 '방법'보다는 '기법'에 편중되어 있다.<sup>13)</sup> 이러한 면은

11) 이미지컷이란 문자의 이미지화 즉, 사물을 문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의 개념을 나타내는 과정을 따른 이미지를 말한다. 송병렬(2001), 176면.

12) 도형화된 노트는 한자를 쓸 때 어려운 모양을 한자를 쉽게 익혀 한자를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노트에 글자의 모양들을 추가로 넣은 것을 말한다. 백광호(2005), 188면.

13) 김왕규(2006), 22면. 송병렬(2011), 71면.

교육과정 상의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과 절차를 지니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측면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리하여 교수·학습 방법 명칭을 '~하기'로 수정하였다.

두 번째는 자료 및 도구를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 중에서 두루 많이 활용되는 것만 남기도 다른 것을 삭제하였다. 교육과정 문건 상의 교수·학습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실제로 학습자들이 활동을 하며 학습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자료와 도구를 활용이 그 명칭에 들어가 있는 방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전 활용하기와 한자 카드 활용하기는 후자라고 할 수 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 이미지컷 활용 학습법, 웹기반 중심 학습법, 도형화된 노트 활용 한자 쓰기 역시 자료와 도구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이다. 그러나 웹기반 중심 학습법의 교수·학습 방법보다는 매체 활용에 더 가깝다. 이미지컷 활용 학습법, 도형화된 노트 활용 한자 쓰기의 이미지컷과 도형화된 노트는 특정 성취기준을 성취하는 데만 해당된다. 반면 한자카드는 한자와 어휘 영역의 여러 내용 요소 학습에 두루 사용되며, 사전 역시 한자와 어휘 영역의 여러 내용 요소 학습과 다른 영역의 학습에서도 두루 사용될 수 있는 교수·학습 도구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추가 및 삭제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교수·학습 방법을 보다 명료하게 정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전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을 살피는 과정에서 조어 분석하기의 경우 그 내용이 변화된 경우를 보았다. 이러한 경우 그 해설과 예시를 살피지 않고 명칭만 보았을 때는 변화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구조 분석법과 조어 분석법의 명칭을 각각 한자 구조 분석하기와 단어의 구조 분석하기로 명확하게 하여 해당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직관적이고 명료하게 알기 쉽게 하였다. 그리고 언어 활용법, 색출법의 경우는 한자와 어휘의 활용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자와 어휘 영역의 성취기준들은 그 활용보다는 한문 지식을 이해하는데 기본을 두고 있는데, 이들 교수·학습 방법을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지금까지 제7차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한자와 어휘와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살폈다. 동시에 교수·학습 방법의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경우도 함께 언급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 상의 교수·학습 방법의 경우 교육과정을 읽으면 해당 교수·학습 방법의 내용을 알 수 있어 본고에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의 구체적인 절차를 살피고자 한다.

### III. ‘한자와 어휘’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 실제

III장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의 구체적인 사례와 그 평가까지 살피려고 한다. 한자와 어휘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은 기존의 연구 결과가 많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상에서도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교수·학습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 편이다. 또 기법 차원의 교수·학습 방법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절차와 평가를 소개하도록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2가지 이상의 교수·학습 방법이 혼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평가는 지필 평가 문항의 경우 이전의 연구<sup>14)</sup>들에서 성취기준 분석과 문항 분석을 통해서 작성 예시를 보여준 것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업 사례 속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행평가의 평가 기

14) 김동규(2011), 안동규(2011).

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 1. 사전 활용하기

사전 활용하기는 사전 활용법을 통해서 한자의 모양·음·뜻, 한자의 짜임, 필순, 부수 등을 학습할 수 있는 도구적인 측면이 강한 교수·학습 방법이다. 그러나 사전을 활용하여 이러한 내용 요소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성취기준[9한01-02] 한자의 부수를 알고 사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의 성취를 위해서는 부수를 이해와 동시에 사전에서 한자를 찾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사전 활용하기의 교수·학습 방법 사례 소개에서는 사전의 실제적인 활용보다는 사전 활용법을 익히는 수업에 중점을 두고, 수업 사례를 소개한다.

### 1) 교수·학습 과정 절차

#### (1) 사전에 대한 기본 지식 학습하기

사전이 무엇인지와 사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자에 대한 정보가 무엇인지 등을 학습한다.

이름:

**- 모르는 한자를 찾아봅시다. -**

1. '사전(字典)'은 무엇일까요?  
 - 한자를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고 그 읽는 법·의미 등을 해설한 책.  
 - 사전의 다른 이름 : 옥편(玉篇) - 중국 양(梁)나라 배 고야왕(裴高野王)이라는 사람이 만든 사전.

2. 사전 보는 법

표제자      글자의 뜻      글자의 준

부수는 제외한 획수 — 7      ① 방울 신

부수를 포함한 — ⑧      ② 열 신

유획수

**【信】**

자해    1. 믿다  
         2. 퍼다

15)

사전에 대한 기초 지식 학습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나 자체 제작한 학습지를 활용하여 먼저 학습을 한 후에 사전의 실제 페이지를 확인하면서 학습자가 익히도록 한다. 학교에 같은 사전이 학습자의 수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사전의 같은 쪽수를 펴도록 하여 사전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상황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가 미리 스캔해 사전 자료를 ppt 또는 화면 미러링 기능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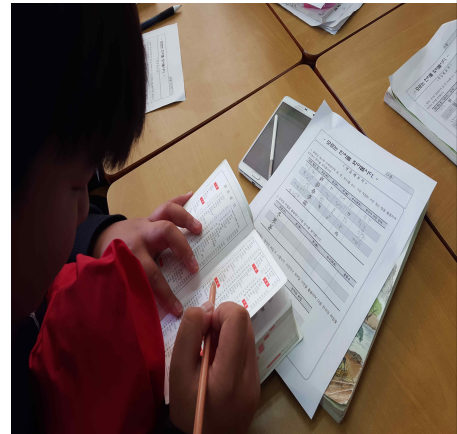
#### (2) 사전 찾는 법 학습하고 실습하기

사전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학습한 다음에는 사전에서 한자를 찾는 방법 3가지 즉, 부수 색인·자음 색인·총획 색인을 이용한 방법을 학습한다. 학생들이 사전에서 한자를 찾는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습을 한 후에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활동을 제시한다.

15) 본고에서 사용된 학습지(활동지)와 수업 사례의 사진은 연구자가 근무하는 경기도 D중학교 사례를 활용하며, 그 이외의 경우를 활용한 경우에는 따로 각주처리 하도록 한다.

### 3. 자전 찾는 법

- ① **부수색인** 이용하기 → 주로 한자의 음을 모를 경우 사용한다.
- ㉠ 찾으려는 한자의 부수를 알아본다.
  - ㉡ 부수의 획을 센다.
  - ㉢ 부수색인에서 그 부수를 찾는다.
  - ㉣ 그 부수에 있는 쪽수를 펴고 부수를 땀 나머지 획수를 센다.
  - ㉤ 나머지 획수 부분에 해당하는 곳을 펼쳐 한자의 뜻과 음을 확인한다.
- ② **총획색인** 이용하기 → 주로 부수도 모르고 음도 모를 경우 사용한다.
- ㉠ 한자의 총획을 센다.
  - ㉡ 총획 부분에 나온 쪽수를 보고 찾는다.
- ③ **자음 색인** 이용하기 → 주로 한자의 음을 알고 있는 경우 사용한다.
- ㉠ 한자의 음을 찾는다.
  - ㉡ 음 부분에 나온 쪽수를 보고 찾는다.



자전에서 한자 찾는 법 안내(학습지)

연습 및 활동

### - 모르는 한자를 찾아봅시다. -

#### < 연습 해 보자 >

1. 표에서 제시된 정보(한자의 음, 뜻, 부수)를 보고, 가장 적절한 자전 찾는 법을 활용하여 자전에서 한자를 찾아봅시다.

자전 찾는 법	모양[形]	음[音]	뜻[義]	부수[部首]	한자가 쓰인 단어
자음색인	新	신	새로	斤	신간, 신록, 신명, 경신
부수색인	節	절	마디	竹	갈대, 갈매, 갈대, 갈대
총획색인	春	춘	봄	日	춘경, 춘용
자음색인	季	계	떨	子	계절, 계절, 계절
부수색인	霜	상	서리	雨	상국, 상상, 상상

### - 모르는 한자를 찾아봅시다. -

#### < 연습 해 보자 >

1. 표에서 제시된 정보(한자의 음, 뜻, 부수)를 보고, 가장 적절한 자전 찾는 법을 활용하여 자전에서 한자를 찾아봅시다.

자전 찾는 법	모양[形]	음[音]	뜻[義]	부수[部首]	한자가 쓰인 단어
자음색인	新	신	새	斤	신간
부수색인	節	절	마디	竹	갈대
총획색인	春	춘	봄	日	춘경
자음색인	季	계	떨	子	계절
부수색인	霜	상	서리	雨	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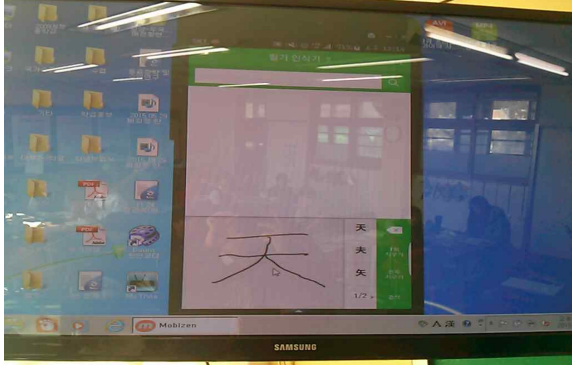
자전에서 한자 찾기 활동 결과물

학습자가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법을 익히고 활동을 할 때에 자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확인 할 수 있도록 학습지에 활동을 제시하여 앞선 절차에서 학습한 자전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도 함께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3) 다른 매체를 활용한 자전 찾는 법 학습하고 실습하기

오늘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방법은 공구서로써의 자전 뿐아니라 다양하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과 모바일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들 방법은 학습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유용하게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들 방법 역시 앞서 자전을 활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충분히 이해하고 연습을 한 후에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활동을 제시한다.



<p>4. 그 외 한자 찾는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 프로그램에서 찾고 입력 : ① 찾고 싶은 한자의 음을 쓴다. ② ㄱ 또는 ㅋ 키를 누른다.</li> <li>③ 또는 [입력]-[한자 입력]에서 한자를 찾아서 입력한다.</li> <li>- 모바일 어플에서 한자 찾아보기 : ① 한자사전 어플을 받거나 검색 어플로 한자사전에 들어간다.</li> <li>② 찾으려는 한자의 음을 입력하거나 필기 입력 기능으로 찾으려는 한자의 모양을 쓴다.</li> <li>③ 검색 버튼을 눌러서 한자를 검색한다.</li> </ul>	
다른 매체를 활용한 한자 찾는 법 안내	스마트폰 미러링을 활용하여 방법 안내

활동 모습

활동 결과물

## 2) 유의 사항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법을 익히는 것은 이것 자체가 성취기준은 아니지만 성취기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자전을 찾는 방법을 익히면서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지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익히도록 한다. 자전을 활용하는 절차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을 활용하여 한자의 모양·음·뜻, 한자의 짜임, 필순, 부수 등을 학습할 수 있는지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 모바일 어플을 이용한 방법은 필기 인식으로 인해 이용자가 더욱 편하게 접근하도록 되어있으나 한자를 정확하게 쓰지 못하면 필기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지도시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 3) 평가

본 평가 기준<sup>16)</sup>은 위에 활동 결과물 예시에서 제시된 학습지의 1번과 2번 활동을 평가한다는 전제로 작성되었다.

16) 평가 기준은 수업 사례를 토대로 한 평가 기준안 예시이다.

성취기준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분한다.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데 활용한다.	
평가요소 및 채점기준		배점	채점
부수를 활용한 자전 찾기	자전과 모바일 자전을 활용하는 법을 익혀 8개의 한자의 부수를 바르게 적었다.	4점	
	자전과 모바일 자전을 활용하는 법을 익혀 6개 이상의 한자의 부수를 바르게 적었다.	3점	
	자전과 모바일 자전을 활용하는 법을 익혀 4개 이상의 한자의 부수를 바르게 적었다.	2점	
	자전과 모바일 자전을 활용하는 법을 익혀 2개 이상의 한자의 부수를 바르게 적었다.	1점	
	1개 이하의 한자의 부수를 바르게 적었다.	0점	
한자의 모양·음·뜻	자전에서 한자의 모양·음·뜻을 찾아 8개를 바르게 적었다.	4점	
	자전에서 한자의 모양·음·뜻을 찾아 6 개 이상 바르게 적었다.	3점	
	자전에서 한자의 모양·음·뜻을 찾아 4 개 이상 바르게 적었다.	2점	
	자전에서 한자의 모양·음·뜻을 찾아 2 개 이상 바르게 적었다.	1점	
	1개 이하 바르게 적었다.	0점	
• A: 8-7점    • B: 6-5점    • C: 4-3점    • D: 2점 이하			

## 2. 한자카드를 활용하여 단어 구조 분석하기와 어휘 만들기

이번 교수·학습 방법의 수업 사례는 단어 구조 분석하기와 어휘 만들기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된 경우이다. 또 이 과정에서 한자 카드를 활용하고 있어 한자 카드 활용하기까지 여러 가지 교수·학습 방법이 복합적으로 수업에 사용되었다.

### 1) 교수·학습 과정 절차

#### (1) 단어의 짜임 학습하기

교과서 및 자체 제작한 학습지 등을 활용하여 먼저 단어의 짜임을 학습하도록 한다. 단어의 짜임의 주술 관계, 술목 관계, 술보 관계, 수식 관계, 병렬 관계로 한자 어휘를 예시로 들어서 학습자들이 익히기 쉽도록 한다. 단어의 짜임별로 그 특징은 활동을 위해 한번 설명을 해 주되 지나치게 암기하도록 하여 학습자에게 학습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단어의 짜임별특징은 학습자가 이후에 이어지는 활동을 통해서 발견한 후에 교사가 정리하고 수정해주면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고 자료를 정리 및 분석하는 능

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 (2) 한자카드를 이용하여 어휘 만들기

조합하여 2자짜리 단어를 만들 수 있는 한자 카드를 제시한다. 한자 카드로 제시하는 한자는 학습자가 이미 학습한 한자로 구성하도록 하며, 학습하지 않은 한자가 있는 경우는 활동 전에 한자를 미리 익히는 시간을 가진다. 교수·학습 활동은 개별 또는 조별로 진행할 수 있으며, 평가 역시 동일하다.

이름: 홍지민

**- 활동지 ③ -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 활동1. 나뉜 한자 카드를 이용하여 단어를 만들고, 아래 표에 붙여보세요.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나요? (단, 2자로 된 단어를 만드세요.)

1	弱	風	天	高
2	出	入	大	人
3	愛	國	白	雪
4	登	山	日	出
5	多	情	養	魚
6	海	深		
7	讀	書		

이름: 김지은

**- 활동지 ③ -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 활동1. 나뉜 한자 카드를 이용하여 단어를 만들고, 아래 표에 붙여보세요.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나요? (단, 2자로 된 단어를 만드세요.)

1	愛	情	讀	書
2	登	山	大	人
3	深	海	天	高
4	強	弱	養	魚
5	出	入	白	雪
6	出	國		
7	春	風		

이름: 정지은

**- 활동지 ③ -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 활동1. 나뉜 한자 카드를 이용하여 단어를 만들고, 아래 표에 붙여보세요.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나요? (단, 2자로 된 단어를 만드세요.)

1	愛	國	多	情
2	出	入	深	夜
3	讀	書	登	山
4	海	洋	養	人
5	大	雪	天	高
6	強	弱	日	出
7	春	風	白	魚

한자카드를 이용하여 단어 만들기 활동 결과물

### (3) 어휘 풀이하기

앞선 활동에서 한자 카드를 조합하여 만든 어휘를 먼저 어순에 맞추어 풀이해 보도록 한다. 단어의 짜임을 먼저 분류해 보고 풀이를 할 수도 있지만, 풀이를 하고나면 그 결과가 단어의 짜임을 분류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직접 만든 어휘를 풀이해 보는 것은 앞으로 한문 문장 풀이의 학습의 기초 학습이 될 수 있다.

이름: 홍지민

**- 활동지 ③ -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 활동2. '활동1'에서 만든 단어의 뜻을 풀이해 보시오.

1) 弱風	8) 天高
2) 出入	9) 大人
3) 愛國	10) 白雪
4) 登山	11) 日出
5) 多情	12) 養魚
6) 海深	
7) 讀書	

이름: 김지은

**- 활동지 ③ -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 활동2. '활동1'에서 만든 단어의 뜻을 풀이해 보시오.

1) 사랑하는 점	8) 군을 안다
2) 산에 오다	9) 큰 사람
3) 깊은 바다	10) 높은 하늘
4) 아끼고 경건	11) 물고기를 잡아
5) 나가고 들어오다	12) 환난
6) 나라를 나가다	
7) 봄 바람	

이름: 정지은

**- 활동지 ③ -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 활동2. '활동1'에서 만든 단어의 뜻을 풀이해 보시오.

1) 애국. 나라를 존경	8) 다정. 정이 많다
2) 출입. 들어와 나감	9) 심야. 깊은 밤
3) 동산. 정을 읽다	10) 등산. 산을 오다
4) 해양. 바다를 건너다	11) 양식. 사람을 길러다
5) 대설. 많이 내리는 눈	12) 천. 하늘. 높다
6) 강속. 강에 좌초하다	13) 율. 해를 내다
7) 풍속. 풍을 읽다	14) 복식. 배를 물고

어휘 풀이하기 활동 결과물

#### (4) 단어의 짜임 분류하고 특징 쓰기

다음으로는 만든 어휘를 단어의 짜임에 맞게 분류하고, 공통된 짜임을 가진 단어들에서 확인할수 있는 공통된 특징을 학습자가 직접 적어보도록 한다.

♡ 활동3. 단어의 짜임에 맞추어 분류해보고, 단어들의 공통된 특징을 써 봅시다.		
단어의 짜임	해당하는 단어	특징
주술 관계	①자, ②아름, ③아름다워	아름다워는 자어
술목 관계	④아름, ⑤아름다, ⑥아름, ⑦아름	원인이 된다.
술보 관계	⑧아름	두개짜짜어 해어.
수식 관계	⑨아름, ⑩아름다워, ⑪아름	앞에 짜어 짜어있다.
병렬 관계	⑫아름	뜻이 바뀌었다.

♡ 활동3. 단어의 짜임에 맞추어 분류해보고, 단어들의 공통된 특징을 써 봅시다.		
단어의 짜임	해당하는 단어	특징
주술 관계	10장도	대어짜짜어 해어한다.
술목 관계	11장, 12장, 13장, 14장	2은 2들이분다. 세로 + 2짜어
술보 관계	15장, 2등한	사물 + 2짜어 네가 분다
수식 관계	16장, 3선해 9대인	2은 2들이분다. 구어한다.
병렬 관계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사물 + 2짜어 네가 분다

♡ 활동3. 단어의 짜임에 맞추어 분류해보고, 단어들의 공통된 특징을 써 봅시다.		
단어의 짜임	해당하는 단어	특징
주술 관계	①아름, ②아름다워	아름다워는 자어
술목 관계	③아름, ④아름다, ⑤아름, ⑥아름	원인이 된다.
술보 관계	⑦아름	두개짜짜어 해어.
수식 관계	⑧아름, ⑨아름다워, ⑩아름	앞에 짜어 짜어있다.
병렬 관계	⑪아름	뜻이 바뀌었다.

단어의 짜임 분류하고 특징 쓰기 활동 결과물

#### (5) 발표하고 의견 말하기

마지막으로 활동한 결과를 발표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같은 자신과 타인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深海’와 ‘海深’처럼 같은 한자를 가지고 다른 어휘를 만들었을 때와 같은 경우를 통해 그 풀이와 단어의 짜임을 비교함으로써 주술 관계와 수식 관계의 차이점 등을 학생들이 발견할 수 있다.

### 2) 유의 사항

교수·학습 과정 절차 (2)에서 어휘를 만들 때에는 되도록 일상 생활에서 들어왔거나 쓰는 어휘를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 같은 수의 같은 한자를 가지고 어휘를 만들더라도 어떤 어휘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한자 카드가 남을 수 있다. 이 때 학습자가 모든 한자를 사용해서 정해진 어휘 수를 채워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박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자연스러운 일임을 인지시켜 주도록 한다.

절차 (3)에서는 교사는 적극적인 개입은 자제하고, 지침을 일러주고 질문에 응답하고 도와주되 되도록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조별활동으로 진행할 경우는 조원들의 토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앞서 말한 바 서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같은 한자를 가지고 다른 어휘를 만든 경우를 통해서 수식 관계와 주술 관계를 비교 학습할 수 있는데, 학습자가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는 교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서 학습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 3) 평가

본 평가 기준은 위에 활동 결과물 예시에서 제시된 학습지의 1번 ~ 3번 활동을 평가한다는 전제로

작성되었다.

성취기준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평가요소 및 채점기준		배점	채점
한자를 조합하여 어휘 만들기	제시된 한자 카드를 조합하여 12개 이상의 어휘를 만들었다.	5점	
	제시된 한자 카드를 조합하여 10개 이상의 어휘를 만들었다.	4점	
	제시된 한자 카드를 조합하여 8개 이상의 어휘를 만들었다.	3점	
	제시된 한자 카드를 조합하여 6개 이상의 어휘를 만들었다.	2점	
	제시된 한자 카드를 조합하여 4개 이상의 어휘를 만들었다.	1점	
	3개 이하의 어휘를 만들었다.	0점	
어휘 뜻 풀이하기	만들 어휘의 뜻을 10개 이상 바르게 풀이하였다.	5점	
	만들 어휘의 뜻을 8개 이상 바르게 풀이하였다.	4점	
	만들 어휘의 뜻을 6개 이상 바르게 풀이하였다.	3점	
	만들 어휘의 뜻을 4개 이상 바르게 풀이하였다.	2점	
	만들 어휘의 뜻을 2개 이상 바르게 풀이하였다.	1점	
	1개 이하의 어휘를 바르게 풀이하였다.	0점	
단어의 짜임 구분하기	10개 이상의 단어의 짜임 바르게 썼다.	5점	
	8개 이상의 단어의 짜임 바르게 썼다.	4점	
	6개 이상의 단어의 짜임 바르게 썼다.	3점	
	4개 이상의 단어의 짜임 바르게 썼다.	2점	
	2개 이상의 단어의 짜임 바르게 썼다.	1점	
	1개 이하의 단어의 짜임을 바르게 썼다.	0점	
• A: 15-13점    • B: 12-10점    • C: 9-7점    • D: 6점 이하			

### 3. 한자 카드 활용하여 한자 구조 분석하기

이번 교수·학습 방법의 사례는 한자 구조 분석하기를 통해서 회의(會意)와 형성(形聲)을 학습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자 카드를 활용한다.

#### 1) 교수·학습 과정 절차

##### (1) 한자 카드 제시하기

결합하여 새로운 한자를 만들 수 있는 한자를 카드로 제시한다. 제시된 한자는 이미 학습한 한자로 하는 것이 학습에 용이하지만 만약에 아직 배우지 않은 한자라면 먼저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또 한자 카드는 일괄적인 모양도 상관없지만 결합할 때 모양을 생각하여 제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한자 카드를 제작하면 학생들이 한자를 합칠 때 용이하고, 한편으로 결합하는 과정의 힌트가 되기도 한다.

##### (2) 한자 카드를 결합하여 새로운 한자 만들기

개별 또는 조별로 한자 카드를 상하, 좌우, 내외 등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 한자 카드를 결합하여 새로운 한자 만든 다음에는 결합하여 만들어진 한자의 음과 뜻을 학습한다.



활동 모습

##### (3) 회의(會意)와 형성(形聲)의 원리 학습하기

결합하여 만든 한자를 예시로 하여 회의(會意)와 형성(形聲)의 원리를 학습하도록 한다.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자 카드를 다시 분리하여 음부분+음부분, 음부분+뜻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지막에는 회의(會意)와 형성(形聲) 원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 2) 유의 사항

한자를 결합하고 분리하는 활동 속에서 교사가 일일이 한자의 짜임을 설명하기 보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 활동 마지막에 회의(會意)와 형성(形聲)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도 교사가 직접 지도하기 보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정리하고 발표하도록 하여 탐구, 분석,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를 평가를 할 때에는 한 글자 한글자의 한자가 어떤 원리도 만들었는지는 기계적으로 평가하



기 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한자의 짜임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

#### 4. 부수 활용하기

이번 교수·학습 방법의 사례는 부수 활용하기인데 이를 통해 자전을 활용하는 것은 앞서 자전 활용하기 사례의 과정 중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부수를 학습하고 한자에서 부수를 찾아내고 그 부수가 한자에서 가지는 의미 등의 학습을 통해서 부수의 특성과 한자의 뜻 등을 학습하는 것을 중점으로 둔다. 또 교수·학습 과정 중에 자전을 활용 할 수 있다.

##### 1) 교수·학습 과정 절차

###### (1) 부수에 대해서 알아보기

부수가 무엇인지, 부수는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 또는 자주 사용하는 부수의 변형 등을 부수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학습한다. 부수의 위치나 변형은 무조건 암기하기 보다는 부수에 대한 이해를 위한 방법의 일종으로 학습 부담 없이 눈으로 익혀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부수는 노래<sup>17)</sup> 등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평소에 수업 전 또는 후 활동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부수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어름:**

**- 부수(部首)를 알아봅시다. -**

1. '부수(部首)'는 무엇일까요?  
- 자전에서 '글자'를 찾는 것같이 역할을 하는 공통되는 글자의 한 부분  
- 한자 부수는 총 몇 개일까요? ( )개

2. 부수의 위치 : (예를 하나의 찾아서 적어봅시다.)

① ☐ **좌부수** : 글자 자체가 부수인 경우 / (예)

② ☐ **변** : 글자의 왼쪽에 있는 경우 / (예)

③ ☐ **방** : 글자의 오른쪽에 있는 경우 / (예)

④ ☐ **머리** : 글자의 위쪽에 있는 경우 / (예)

⑤ ☐ **발** : 글자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 / (예)

⑥ ☐ **왼** : 글자의 위쪽과 왼쪽에 걸쳐 있는 경우 / (예)

⑦ ☐ **방울** : 글자의 왼쪽과 아래쪽에 걸쳐 있는 경우 / (예)

⑧ ☐ **예문단** : 글자를 둘러싸고 있는 경우 / (예)

3. 부수의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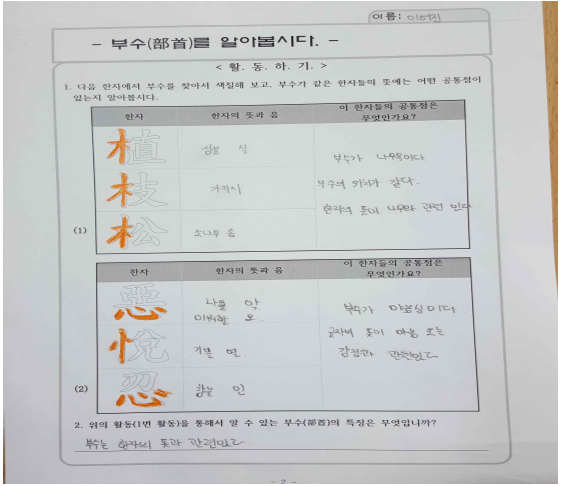
원 부수	변형 부수	원 부수	변형 부수	원 부수	변형 부수
人		心		火	
刀		水		肉	
手		衣		竹	
火		艸			

학습 자료 예시

###### (2) 한자에서 부수 찾아보기

공통된 부수가 들어가는 한자를 몇 제시 하고 자전을 활용해서 한자의 음과 뜻을 찾아 쓰고 부수도 찾아서 표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는 한자의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하며 부수의 특징을 유추해 내도록 지도한다.

17) 유튜브에 '부수 노래'를 검색하면 동영상상이 나오는데 이를 참고 할 수도 있고, [www.openhanmoon.pe.kr](http://www.openhanmoon.pe.kr)에는 '독도는 우리 땅'에 부수 가사를 붙인 자료가 있다.

	
활동 모습	활동 결과물 예시

## 2) 유의 사항

부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한자를 학습할 때나 부수를 익혀 자전을 활용할 때 보다 쉽게 한자를 이해하고 부수를 찾기 위한 것이지 부수에 대한 지식 자체가 학습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위치에 따른 명칭 등은 암기하지 않도록 하여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한자에서 부수를 찾는 활동을 할 때에는 ‘憶’과 같이 부수로 쓰이는 한자가 두 개 들어가는 경우는 학습자를 헷갈리게 하여 학습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학습 자료로 제시하는 한자의 선택에 있어서도 주의를 요한다.

## 3) 평가

성취기준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분한다.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데 활용한다.		
	평가요소 및 채점기준	배점	채점
부수의 이해 1	한자의 부수를 찾아서 5개 이상 바르게 색칠하였다.	3점	
	한자의 부수를 찾아서 3개 이상 바르게 색칠하였다.	2점	
	한자의 부수를 찾아서 1개 이상 바르게 색칠하였다.	1점	
	한자의 부수를 하나도 찾지 못 하였다.	0점	
부수의 이해 2	같은 부수를 지닌 한자들의 공통점을 3개 이상 찾아서 썼다.	3점	
	같은 부수를 지닌 한자들의 공통점을 2개 찾아서 썼다.	2점	
	같은 부수를 지닌 한자들의 공통점을 1개 찾아서	1점	



한자의 모양·음·뜻	썼다.	0점	
	같은 부수를 지닌 한자들의 공통점을 하나도 쓰지 못 하였다.		
	자전에서 한자의 모양·음·뜻을 찾아 6개를 바르게 적었다.	3점	
	자전에서 한자의 모양·음·뜻을 찾아 4 개 이상 바르게 적었다.	2점	
	자전에서 한자의 모양·음·뜻을 찾아 2 개 이상 바르게 적었다.	1점	
	자전에서 한자의 모양·음·뜻을 찾아 1 개 이하 바르게 적었다.	0점	
• A: 9-8점    • B: 7-6점    • C: 5-4점    • D: 3점 이하			

#### IV. 결론

본고에서는 한자와 어휘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의 교육과정 상의 변천을 통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상에서는 해당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수록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 해당 영역의 교수·학습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교수·학습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 조금 이나마 교수·학습 방법 적용 사례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평가의 경우는 교수·학습 방법 적용 사례에 해당하는 평가 기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지필 평가 문항의 경우 이미 선행 연구에서 잘 정리 되어 있으며, ‘한자와 어휘’ 영역은 한문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으로 이미 많은 수행 평가도 교과연구회 연구보고서나 전국한문교사모임의 회지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다. 보통 수행 평가의 경우 한자와 어휘의 활용의 부분과 많이 접목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2015 교육과정의 ‘한자와 어휘’의 특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러한 공유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의 현장 적용에 교수·학습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 교육과정 및 보고서

박삼서 외(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3 한문-』, 교육인적자원부.

송인발 외(2008), 『고등학교 교과서 해설13』,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201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한문』, 교육과학기술부.

장호성 외(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 한문과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호성 외(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한문과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논문

강덕희(1991), 기초조어표의 활용을 통한 조어표의 효과적인 지도방안, 한문교육연구5, 49-113면, 한

국한문교육학회.

- 고인숙(2011), 자원을 활용한 한자연상학습방법 구안-중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동규(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자 영역의 평가 방향과 실제, 한자한문교육27, 93-128면,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김왕규(2006), 한자 교육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자한문교육17, 15-52면,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김우용(1994), 특활을 통한 한문과의 학습지도가 학습자의 학력신장에 미치는 영향, 한자한문교육1, 107-125면,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배원룡(1997), 한문과 교수·학습 지도 방법-시청각 자료 활용을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3, 11-29면.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백광호(2005), 미리 도형화된 노트에서 한자 쓰기가 한자 정서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문교육연구24, 181-224면, 한국한문교육학회.
- 송병렬(2001), 한문교과교육에서 ‘한자의 짜임’ 지도의 일고찰-상형자·지사자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16, 165-189면, 한국한문교육학회.
- 송병렬(2011), 한문과 교수·학습 방법의 성과와 방향, 한문교육연구 37, 55-84면, 한국한문교육학회.
- 안동규(2011), 한문과 어휘 영역의 평가 방향과 실제, 한자한문교육27, 129-158면,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이권홍(2010), 한자 교수방법의 실제, 한자한문교육24, 377-405면,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이승현(2009), 한문교사의 한자 자원 활용 수업, 한자한문교육22, 55-87면,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한연석(2006), 자원을 활용한 한자교수학습방법 연구-고등학교 한문교과서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17, 121-172면,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한은수(2006), 자원을 활용한 한자 교수·학습 방법 연구-초등학교 한자 교재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17, 174-216면,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한문의 이해 - 한문의 독해’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 분석

李昇炫(수원 고색고등학교)

## 目次

- I. 들어가며
- II. ‘한문의 독해’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의 실제
- III. 나가며

## I. 들어가며

교육부는 2014년 9월 24일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 관한 주요사항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개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5년 9월 23일에 최종 고시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에 따라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였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방법 개발과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하여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문서를 완성하였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 및 평가’는 기존과 달리 ‘영역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다. 먼저 ‘영역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는 각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에서 학습해야 할 요소를 모두 제시한 ‘학습 요소’와 성취기준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진술이 필요한 항목에 한해 작성한 ‘성취기준 해설’,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의 내용 요소에 적합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은 한문과의 성격과 특성에 비추어 한문과 교수·학습 및 평가가 추구해야 할 철학, 가치 등과 함께 교과역량의 계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시적 차원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을 기술하였다.<sup>1)</sup>

본 논문은 ‘영역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단계의 ‘한문의 독해’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핵심 개념인 ‘한문의 독해’와 관련하여 내용 요소별 교수·학습 방법<sup>2)</sup>은 다음과 같다.

- ‘문장의 구조’를 학습할 때에는 문장 구조 분석하기, 어순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허사의 쓰임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비교·분석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문장의 유형’을 학습할 때에는 비교·분석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소리 내어 읽기’를 학습할 때에는 낭송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끊어 읽기’를 학습할 때에는 토 달아 읽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한국교육과정 연구보고서(2015), 3~4면

2) 한문과 교육과정(2015), 12면

· ‘내용과 주제’를 학습할 때에는 토의·토론하기, 역할 놀이 학습, 그림·만화 활용하기, 연극·방송 대본 만들기, 역사 신문 만들기, 가상 인터뷰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이해와 감상’을 학습할 때에는 토의·토론하기, 역할 놀이 학습, 그림·만화 활용하기, 연극·방송 대본 만들기, 역사 신문 만들기, 가상 인터뷰하기,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기, 감상문 쓰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한문의 독해’ 영역의 내용 요소별로 제시한 교수·학습 방법은 새롭고 참신한 방법이기보다는 기존의 단위학교 한문 수업시간에 활용해 오던 방법들을 정리한 수준이다. 위에서 제시한 방법 이외에도 내용 요소별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수·학습 방법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2015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 대한 해설과 적용 사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비교·분석하기’, ‘토의·토론하기’, ‘역할놀이 하기’, ‘연극·방송 대본 만들기’ 등의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들은 ‘한문의 독해’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단위학교에서는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하나의 영역이나 하나의 내용요소에 제한하여 활용하지 말고 다양하게 적용하여 활용할 수도 있겠다.

## II. ‘한문의 독해’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의 실제

### 1. 문장 구조 분석하기

문장의 구조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의 일정한 결합 방식을 말한다. 문장 성분에는 주성분과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있다. 문장의 구조는 주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주술 구조, 주술목 구조, 주술보 구조, 주술목보 구조 등이 있다. 주술 구조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로 주어가 앞에 놓이고 서술어가 뒤에 놓인다. 주술목 구조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로 서술어가 앞에 놓이고 목적어가 뒤에 놓인다. 주술보 구조는 주어, 서술어, 보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로 서술어가 앞에 놓이고 보어가 뒤에 놓인다. 주술목보 구조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이다.<sup>3)</sup>

‘문장의 구조’를 가르칠 때에는 ‘문장 구조 분석하기’, ‘어순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허사의 쓰임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비교·분석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교수·학습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바로 ‘문장 구조 분석하기’이다. ‘문장 구조 분석하기’는 문장을 이루는 성분들 사이의 일정한 결합 방식을 분석하고, 문장을 이루는 주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 문장의 구조를 구별하고 문장의 독해에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학습자가 흥미를 잃지 않도록 문법적인 내용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장 구조 분석하기’와 관련하여 제7차 한문과 교육과정과 2007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문장의 구조’로 제시하였고,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어순 구조를 통한 독해 지도법’으로 제시하였다.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과 2015 교육과정의 ‘문장 구조 분석하기’는 교수·학습의 방법적 측면에서 유사하다.

3) 한문과 교육과정(2015), 10면

‘문장 구조 분석하기’의 학생활동 예시 자료를 소개해보겠다. <활동1>과 <활동2>는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기초적인 활동으로, 문장 구조와 관계된 성분끼리 선으로 연결하거나, 기호로 표시하여 문장을 이루는 성분을 구분하는 단순한 활동이다.

<활동 1> 그림의 주어와 서술어를 각각 바르게 연결해 보자.

주어	서술어
吾鼻	固美
去語	三尺
來語	方好

<활동 2> <보기>와 같이 아래 문장을 풀이하고, ‘~은(는, 이, 가)’으로 풀이되면 ○, ‘~하다(이다)’로 풀이되면 □, ‘을(를)’로 풀이되면 △ 표시를 해 보자.<sup>4)</sup>

<보기>	人 ○	不知 □	道 △
	사람이	알지 못하다	도리를

(1) 兒 讀 書

(2) 男 兒 須 讀 五 車 書

‘문장 구조 분석하기’와 연계하여 서술형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문항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평가 1> <보기>에서 주어진 한자들을 활용하여 문장 (1), (2)에 맞게 배열하여 한문문장으로 바꾸시오.<sup>5)</sup>

<보기> 讀 兒 男 書 五 車 須

(1) 아이가 책을 읽다. \_\_\_\_\_ [2점]

(2) 사나이는 모름지기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 \_\_\_\_\_ [2점]

<평가1>은 <활동 2>의 학습활동과 연계한 평가 문항으로 주술목 구조의 단순구조 이해 여부를 파악하는 문항과 주술목 확장구조의 이해 여부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주술구조와 주술목 구조를 비교하며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문항은 <평가2> 같다.

<평가 2> 다음 두 문장의 구조를 설명하고 우리말 어순과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sup>6)</sup> [5점]

4) 박성규·윤재민·정동운·장진아(2012), 55면 참조

5) 허연구(2011), 239면.

6) 허연구(2011), 247면.

<보기> ① 天高 ② 仁者樂山

<조건> 문장을 풀이할 것

<평가 3>은 한문수업시간 사용했던 학생 학습지 중에서 학생활동 과제로 제시했던 것을 그대로 평가와 연계하여 제작한 서술형 문항이다. 수업과 평가를 연계하려는 의도로 작성한 문항이다.

<평가 3> 다음은 어느 학생의 문장 풀이 단계이다. ㉠ ~ ㉡에 알맞은 풀이를 쓰시오.<sup>7)</sup> [총 6점]

문장	學	者	所	患	惟	在	立	志	不	誠
1단계	배우다	사람	바(것)	근심	오직	있다	세우다	뜻	아니다	정성
2단계	배우는 사람		㉠_____		오직	있다	㉡_____		정성스럽지 못하다.	
3단계	㉢_____				오직 ㉣_____ 있다.					

## 2. 어순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어순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는 문장 성분의 배열에 나타나는 일정한 순서를 분석하고 우리말 어순과 비교하여 문장의 독해에 활용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이다. 한문의 어순과 우리말 어순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순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와 관련하여 제7차 한문과 교육과정과 2007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고,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한문 지식 영역의 ‘문장’의 지도법으로 제시한 ‘어순 구조를 통한 독해지도법’으로 제시하였다. 방법과 내용은 ‘어순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와 유사하다.

‘어순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의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수업사례를 소개해 보겠다.<sup>8)</sup>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1> 공감 수업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계의 일화 소개</li> <li>○밑줄 친 빈칸에 퇴계의 대답을 우리말로 유추하게 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자를 제시, 자전을 이용 한자의 3요소 조사</li> <li>○한자를 조합한 단문 풀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자카드 제시</li> <li>○우리말로 적었던 퇴계의 대답을 한문 문장으로 어순에 맞게 배열</li> <li>○한문 문장 완성</li> </ul>

수업 절차에 따라 학생들에게 단계별로 제시된 활동지와 학생활동은 아래와 같다.

<1단계> 퇴계 선생의 대답으로 (가)에 알맞은 말을 넣어 봅시다.

7) 한문과 창의 서술형 평가 문항(2012), 경기도교육청, 108면.

8) 경기도중등한문교육연구에서 제작한 「한문과 교육과정 재구성 자료집」(2014)에 실려 있는 오예승 교사의 ‘공감’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퇴계선생이 8살 때의 일이다. 둘째 형이 칼날에 손을 다치니 선생이 (형을) 끌어 안고 울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네 형은 곧 손을 다쳤어도 울지 않거늘, 네가 어찌 우느냐?”  
 이 때 선생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 \_\_\_\_\_ (가) \_\_\_\_\_ ”  
 『퇴계집』

<2단계> 자전을 이용하여 한자를 조사하고 풀이를 적어 봅시다.

泣	雖	兄	不
---	---	---	---

뜻음 ○ ○ ○ ○

풀이 :

不	痛	豈	手	乎
---	---	---	---	---

뜻음 ○ ○ ○ ○ 어조사호 ~인가

풀이 :

<3단계> 다음 한자카드를 조합하여 (가)의 내용을 한문 문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泣	雖	兄	不
---	---	---	---

不	痛	豈	手
---	---	---	---

<4단계> 동생이 울었던 이유를 적어 봅시다.

--

<학생 활동 자료>



우리말 어순과 한문의 어순의 차이를 활동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다. 위의 활동과 연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면 <평가1>과 같은 선다형 문항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평가1> ㉠을 한문 문장으로 나타낸 것은?

퇴계선생이 8살 때의 일이다. 둘째 형이 칼날에 손을 다치니 선생이 (형을) 끌어 안고 울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네 형은 곧 손을 다쳤어도 울지 않거늘, 네가 어찌 우느냐?”  
 이 때 선생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 ㉠어찌 손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  
 『퇴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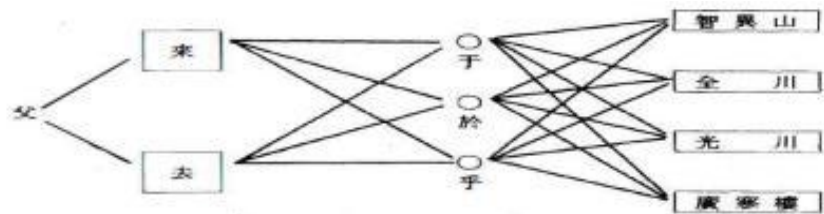
- ① 不痛豈乎手                      ② 豈手不痛乎                      ③ 豈手痛不乎  
④ 手豈不痛乎                      ⑤ 手不痛乎豈

### 3. 허사의 쓰임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허사의 쓰임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는 허사의 쓰임에 유의하여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문장 독해에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허사는 문장 안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문장에서의 쓰임과 관련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제7차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허자의 쓰임’이 제시되었으며, 2007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고,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한문 지식 영역의 ‘문장’ 영역에서 ‘허사 지도를 통한 독해지도법’으로 제시하였다. 기존 허사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과 2015 교육과정의 ‘허사의 쓰임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는 교수·학습의 방법적 측면에서 유사하다.

‘허사의 쓰임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의 교수·학습의 방법으로, 허사의 용법을 색출하여 반복, 색출, 창작 학습을 하여 한문 독해 실력을 높이하고자 했던 교수·학습 방법<sup>9)</sup>을 소개해 보겠다. 1단계 반복 학습 방법은 <도표 1>과 같이 허사를 중심으로 반복 대체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방법이다. 父來于智異山, 父來於智異山, 父來乎智異山, 父來于全州, 父來於全州, 父來乎全州 등 허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도표 1> 허사 반복 대체 문장 완성도

2단계 색출 방법은 문장 중에서 허사를 찾아내는 활동이다. 예를 들면 ‘良藥苦於口’에서 허사인 ‘於’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3단계 창작 학습법은 이미 학습한 허사를 이용하여 문장을 짓는 방법으로 교사가 ‘좋은 약은 입에 쓰다’를 제시하면 학생들은 ‘良藥苦於口’로 답하는 것이다. 이는 문법적 지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단순한 활동이다.

다음은 비교적 학습자 수준을 고려해서 한문 문장을 만드는 창의적 활동<sup>10)</sup>이다. ‘문장의 구조 분석하기’ 교수·학습 방법과 ‘허사의 쓰임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교수·학습 방법을 융합하여 적용한 활동으로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겠다.

9) 장복희(1998), 178면

10) 이병주 외(2012), 118면



<표-2> 한문 문장 만들기

<p>&lt;보기&gt;의 한자를 이용하여 한문 문장 만들기를 해보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보기&gt;</p> <p style="text-align: center;">犬 高 國 難 多 登 妹 無 福 不 山 心 室 我 愛 也 於 有 易 而 人 入 姊 者 在 弟 走 之 地 知 天 出 下 解 兄</p> </div>	글자 수	예
	① 3자 문장을 만들어 보자.	我愛犬
	② 4자 문장을 만들어 보자.	汝愛我兄
	③ 5자 문장을 만들어 보자. 단 허사는 한 글자 이상 넣어야 한다.	我知汝之心
	④ 6자 문장을 만들어 보자. 단 허사는 한 글자 이상 넣어야 한다.	弟出於運動場
	⑤ 7자 문장을 만들어 보자. 단 허사는 한 글자 이상 넣어야 한다.	兄下山而弟登山

‘허사의 쓰임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와 관련한 서술형 문항과 예시답안은 <평가1>과 같이 제작할 수 있다.

<평가1> 제시한 한문 문장을 유의 사항을 숙지하여 학습 일지를 작성하시오.<sup>11)</sup>

富與貴는 是人之所欲也나 不以其道得之면 不處也라. 『論語』

<유의 사항>

1. 학습 일지<sup>12)</sup>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창의적으로 작성한다.
2. 학습 일지에 ‘한문 문장 풀이’에 초점을 맞춘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한다.
3. 설명이 필요한 한자의 쓰임을 밝힌다.
4. 풀이가 나오는 과정을 논리 정연하게 작성한다.

<모범 답안>

1. 목표: 문맥의 의미를 고려한 한자의 쓰임과 허사의 쓰임을 알아 한문문장을 바르게 풀이한다.
2. 학습 과정 : 富與貴는 是人之所欲也나 不以其道得之면 不處也라. 이 문장에는 ‘與, 是, 之, 所, 也, 以’에 대한 쓰임을 정확히 알아야 풀이를 정확히 할 수 있다. 또한 전체의 주어와 서술어에 해당하는 것을 잘 찾아야 한다. 우선, 한자의 쓰임을 조사해보았다.  
‘與’는 ‘주다, 참여하다, ~와 함께(더불어)’ 등의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여 ‘~와’로 풀이해야 옳다. ‘以’는 개사로 ‘~로써, ~로서, ~

11) 심재경(2011), 43면 내용 재구성. ‘자기평가 보고서법’의 평가 형식을 활용하여 한문 문장 풀이를 평가하고자 했다. 한문 문장 풀이를 위해서 ‘허사의 쓰임’을 강조하고 있다.

12) 학습 일지는 학습하는 동안 생각과 개념들을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다. 자기 평가 자체가 결과나 성과물보다는 학습의 과정 그 자체를 강조하며 자신의 수행에 대한 정확성과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심재경 42면 재인용)

때문에' 등으로 사용한다. 여기에서는'~로써'의 뜻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중략>

3. 학습 결과 : 한문 문장을 정확히 풀이하려면 문맥의 의미를 고려한 한자의 쓰임, 허사의 쓰임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것을 알더라도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는 더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 이라고 생각한다.

#### 4. 낭송하기

‘소리 내어 읽기’를 학습할 때에는 ‘낭송하기’을 활용할 수 있다. ‘낭송하기’는 교사가 먼저 소리 내어 읽으면 학습자가 함께 소리 내어 읽는 방법, 모둠별로 선창자(先唱者)를 정해 낭송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소리 내어 읽는 데 치중하지 말고 글의 내용을 떠올리고 음미하며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차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읽기와 관련한 교수·학습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문 영역의 ‘읽기’ 영역이 신설되고, ‘낭독법’을 읽기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독해영역의 ‘읽기’ 영역에서 ‘낭독법’으로 계속 제시하였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낭송하기’로 명칭을 조금 달리했다. ‘낭송(朗誦)’은 ‘크게 소리를 내어 글을 읽거나 외운다’는 의미이다. 부연하면 ‘낭송하기’는 기존의 ‘낭독(朗讀) 활동’과 ‘송독(誦讀) 활동’을 병합한 활동이다. 기존의 ‘낭독(朗讀)활동’ 즉 글을 소리 내어 읽는 활동과 더불어 ‘송독(誦讀) 활동’ 즉 소리를 내어 글을 읽거나 외워서 글을 읽는 활동을 병합한 것이다. 명언·명구나 명시는 낭독 활동과 더불어 송독 활동도 학습에 중요 방법임을 염두해 둔 것이다.

‘낭송하기’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문장의 고저장단을 맞춰가며 읽기보다는 한자의 음에 유의하여 큰 소리로 평범하게 읽는 것이 보통이다. 수업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활동이라 정형화하여 제시하기가 어려워서 ‘문제 해결 중심 단문 독해 모형<sup>13)</sup>’의 절차 예시를 통해 ‘낭송하기’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표 3> 문제 해결 중심 단문 독해 모형



13) 김재영(2009), 91면

낭송하기 활동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학생활동이 있어 소개해 보겠다.<sup>14)</sup> 일명 ‘노래에 맞춰 송독해 보기’ 활동으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문 중에서 가사로 붙일 글감을 선택한다. 둘째, 선택한 글감을 부르고 싶은 노래에 맞춰 가사를 붙여 본다. 셋째, 완성한 노래를 음에 맞게 성독해 본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默吾遺稿』에 실린 獨島<sup>15)</sup>와 관련된 글을 배우고 ‘독도는 우리 땅’의 가요에 맞춰 성독하는 활동이다.

[illegible]

## <낭송하기 학생 수행평가 안내 자료>

1. 범위 : 한 학기 정기고사 분량(보통 소단원 4과 정도)
2. 방법 :
  - ① 본인 목소리를 저장 매체에 저장한다.
  - ② 문장당 10번씩 소리 내어 읽은 것을 녹음한다.
  - ③ 음운론적 규칙과 문맥의 의미를 고려하여 읽는다.
  - ④ 1과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에 녹음한다.
  - ⑤ 저장한 것은 1부 담당 선생님 메일로 제출한다.
3. 제출 : 정기고사 1주일 전까지 제출한다.

16) 심재경(2011), 33면

### <낭송하기 평가 기준>

- 음운론적 규칙과 문맥의 의미를 고려하여 소리내어 읽을 수 있는가?
- ① 소단원 4과를 모두 소리 내어 읽기
- ② 본인의 목소리로 소리 내어 읽기
- ③ 10번을 반복하여 소리 내어 읽기
- ④ 음운론적 규칙에 준하여 소리 내어 읽기
- ⑤ 문맥의 의미를 고려하여 소리 내어 읽기
- ⑥ 제출일을 준수하기

‘낭송하기’와 관련한 지필평가 예시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 ‘낭송하기’에 대한 평가를 지필평가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 대부분은 수업 중 이루어지는 형성평가나 수행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 5. 토 달아 읽기

‘토 달아 읽기’는 이미 토가 달려 있는 문장을 교사가 먼저 소리 내어 읽으면 학습자가 함께 읽는 방법, 모둠별로 선창자(先唱者)를 정해 낭독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토는 종류가 매우 많고 현대 국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조사나 어미가 토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장에 사용된 토를 중심으로 그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 달아 읽기’와 관련하여 제7차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제시하지 않았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문 영역의 ‘읽기’ 영역이 신설되고, ‘낭독법 등’을 읽기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독해영역의 ‘읽기’ 영역에서 ‘현토활용법’으로 제시하였다.

‘토 달아 읽기’의 활용의 예로 끊어 읽기와 현토에 대해 초학자들을 위해 단계적으로 설명한 교과서 사례<sup>17)</sup>를 소개해 보겠다. 우선 유물의 명칭을 읽는 방법을 교사와 학생의 대화로 꾸며서 제시한 학습 자료이다.

교사 : 다정아! 여기 유물 사진 세 개가 있다. 내가 유물에 대한 설명을 하면 너는 유물 명칭을 띄어 읽어 보렴  
 학생 : 예!  
 교사 : 몽유도원도(夢遊桃園圖)는 ‘꿈 속에 무릉도원(武陵桃源)에서 놀 때의 경관을 그린 그림이다  
 학생 : ‘몽유도원(夢遊)도’입니다.  
 교사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金銅彌勒菩薩半伽思惟像)은 ‘재질은 금동이고, 미륵보살이 반가부좌 자세로 생각하는 형상의 불상’으로, 높이는 80cm이며 국보 제78호이다.  
 학생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金銅彌勒菩薩半伽思惟)상’입니다.

어휘의 의미 단위에 따라서 띄어 읽어야 된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 알 수 있게 한다. 다음 단계로 교과서 본문의 단문 읽기 활동을 통해 현토 학습에 대해 이해한 후 심화활동 단계를 진행했다.

17) 이병주 외(2012), 117면

### < 읽기 심화활동 >

교사 : 한문으로 된 옛글들은 대부분 단어, 구절, 문장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붙여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지. 그러나 글을 읽을 때는 문장과 문장, 문장 내의 구절과 구절 사이를 적당하게 끊어서 읽는단다. 그래야만 뜻을 분명히 할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직접 해보자. <보기>를 참고하여 알맞은 위치에 ‘토’를 넣어 보아라.

<보기> 위에는 큰 못이 있는데 둘레가 팔십 리다. 서쪽으로 흘러 압록강이 되고, 동쪽으로 흘러 두만강이 되는데, 두만강과 압록강의 안쪽이 곧 우리나라다.

上有夫澤周回八十里西流爲鴨綠江東流爲豆滿江豆滿鴨綠之內卽我國也

우리말을 먼저 제시하여 읽기 활동을 한 후에 한문 문장의 끊어 읽기 활동 즉 ‘토 달아 읽기’ 활동을 연계하여 비교학습이 가능하도록 활동을 구성한 좋은 예이다. 2015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끊어 읽기’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토 달아 읽기’만을 제시하였다. 띄어 읽기나 구두법 활용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교과 학습량 적정화와 현장 적합성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일지라도,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위의 내용을 재구성한다면 ‘토 달아 읽기’의 방법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토 달아 읽기’의 평가는 대부분 수업 중에 학생들과 낭독하는 활동을 통해서 형성평가나 수행평가를 활용한다. 지필평가로 ‘토 달아 읽기’ 완성형 문항을 제작<sup>18)</sup>한다면 <토달아 읽기 평가>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토달아 읽기 평가>

끊어 읽기에 적합하도록 ( )에 현토하시오.

松下問童子( ) 言師採藥去( ) 只在此山中( ) 雲深不知處( )

( 답 : , , , )

순수하게 ‘토 달아 읽기’와 관련한 문항보다 ‘끊어 읽기’, ‘풀이하기’ 등 한문 지식을 묻는 평가와 연계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문항이 대부분이다. ‘토 달아 읽기’가 한문을 풀이할 수 있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 6. 토의·토론하기

‘내용과 주제’를 학습할 때에는 토의·토론하기, 역할 놀이 학습, 그림·만화 활용하기, 연극·방송 대본 만들기, 역사 신문 만들기, 가상 인터뷰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다.

‘토의·토론하기’는 교사가 토의·토론에 적합한 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모둠별로 토의·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모둠 간 상호 이해하는 활동을 경험해 보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되 토의·토론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토의·토론하기’ 교수·학습 방법은 제7차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토의 학습법’

18) 심재경(2011), 39면

으로 제시되었으며, 2007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토의 학습법’은 한문 영역의 ‘이해’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되었고, ‘토론 학습’은 ‘문화’ 영역에 제시되었다.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독해 영역의 ‘이해’ 영역에서 ‘토의 학습법’, ‘토론 학습법’을 적용하여 한문 단문, 한문 산문, 한시를 바르게 풀이하여 글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토의 학습’과 ‘토론 학습’을 병합하여 ‘토의·토론학습’으로 제시하였으며 방법적으로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과 유사하다.

토의·토론 교수·학습 방법은 교수·학습 모형이나 학습제재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한 사례가 있겠으나, 단위학교에서 적용한 한 가지 수업 사례를 소개<sup>19)</sup>해 보겠다. 교수·학습의 절차는 <표 4>와 같다.

<표 4> 善行 토의·토론 학습 절차

도입		전개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善行 관련 동영상을 통한 동기 유발</li> <li>○플래시 카드게임이용 새로 익힐 한자 학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둠 활동지 이용 본문 학습</li> <li>○두 마음 토의를 통한 ‘於我 善者 我亦善之’ 문장과 ‘以直報怨 以德報德’ 비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 내용 정리</li> <li>○자신이 할 수 있는 선행 실천 약속 정리</li> </ul>

도입 부분에서 善行에 대한 동영상을 보면서 학습 동기를 유발시킨 후 플래시 카드게임을 통하여 새로 익힐 한자를 학습한다. 그 후 모둠 활동지를 배부하여 본문의 내용을 학습한다. 본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4> 본문 텍스트

見善如渴. 因果應報. 仁人之安宅也, 義人之正路也, 於我善者我亦善之, 於我惡者我亦惡之. 以直報怨, 以德報德
---

1차 활동으로 모둠 활동지를 통해 본문의 한자를 조사하고 본문의 내용을 풀이 한다. 2차 활동으로 짝과 모둠을 만들어 짝 활동을 한다. 상호 질문을 주고 받으며 본문 풀이를 이해하고 단문의 내용을 심화한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오개념(誤概念)이나 난개념(難概念)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을 짝 활동의 자료로 제시해준다. 예를 들면 ‘仁人之安宅也,’의 풀이를 할 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之’의 여러 가지 쓰임을 짝과 함께 찾아보도록 제시해준다. 각자의 단문 풀이가 끝나면 짝과 함께 풀이를 점검하며, 서로 질문을 통해 풀이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 풀이한 내용에 대해 짝과 토의를 진행한다. 짝 활동 학습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 한문과 창의 서술형 평가 문항(2012), 경기도교육청, 100~108면의 내용 재구성.

<작 활동 학습지>

《한문 개인-작학습지①》  
3학년 \_\_\_\_반 이름: \_\_\_\_\_

번(호): 이름:	仁 人 之 安 宅 也.
번(호):	/ / / / /
이름:	

작과 정답해설서자, 작과 정답해 설 문장이 정답해설서자. \*조각: 仁(인), 人(인), 之(지), 安(안), 宅(택), 也(야). \*조각: 仁(인), 人(인), 之(지), 安(안), 宅(택), 也(야). \*조각: 仁(인), 人(인), 之(지), 安(안), 宅(택), 也(야).

仁 人 之 安 宅 也.

- 풀이 :
- “조각”은 어떻게 풀이했나요?

《한문 개인-작학습지②》  
3학년 \_\_\_\_반 이름: \_\_\_\_\_

번(호): 이름:	義 人 之 正 路 也.
번(호):	/ / / / /
이름:	

작과 정답해설서자, 작과 정답해 설 문장이 정답해설서자. \*조각: 義(의), 人(인), 之(지), 正(정), 路(로), 也(야). \*조각: 義(의), 人(인), 之(지), 正(정), 路(로), 也(야). \*조각: 義(의), 人(인), 之(지), 正(정), 路(로), 也(야).

義 人 之 正 路 也.

- 풀이 :
- “조각”은 어떻게 풀이했나요?

《한문 개인-작학습지③》  
3학년 \_\_\_\_반 이름: \_\_\_\_\_

번(호): 이름:	於 我 善 者 我 亦 善 之 也.
번(호):	/ / / / /
이름:	

작과 정답해설서자, 작과 정답해 설 문장이 정답해설서자. \*조각: 於(어), 我(가), 善(선), 者(자), 我(가), 亦(역), 善(선), 之(지), 也(야). \*조각: 於(어), 我(가), 善(선), 者(자), 我(가), 亦(역), 善(선), 之(지), 也(야). \*조각: 於(어), 我(가), 善(선), 者(자), 我(가), 亦(역), 善(선), 之(지), 也(야).

於 我 善 者 我 亦 善 之 也.

- 풀이 :
- “조각”은 어떻게 풀이했나요?

《한문 개인-작학습지④》  
3학년 \_\_\_\_반 이름: \_\_\_\_\_

번(호): 이름:	於 我 惡 者 我 亦 善 之 也.
번(호):	/ / / / /
이름:	

작과 정답해설서자, 작과 정답해 설 문장이 정답해설서자. \*조각: 於(어), 我(가), 惡(악), 者(자), 我(가), 亦(역), 善(선), 之(지), 也(야). \*조각: 於(어), 我(가), 惡(악), 者(자), 我(가), 亦(역), 善(선), 之(지), 也(야). \*조각: 於(어), 我(가), 惡(악), 者(자), 我(가), 亦(역), 善(선), 之(지), 也(야).

於 我 惡 者 我 亦 善 之 也.

- 풀이 :
- “조각”은 어떻게 풀이했나요?

3차 활동으로 2~4명으로 모둠을 구성하여 모둠 토의를 진행한다. 토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토의 주제>

- ‘於我善者, 我亦善之와 以直報怨, 以德報德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달라요.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생각할 거리>

- ‘학생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선행과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을 생각해봅시다.’

단문 풀이의 내용1을 근거로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모둠원들과 상호 토의한다. 토의가 완료되면 모둠별 발표의 시간을 통해 모둠원의 의견을 공유하고 나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학습한 내용이 학습자

에게 내면화되고 자신의 의견도 정돈된다.

위의 활동을 통해 ‘於我善者, 我亦善之, 以直報怨, 以德報德.’을 익히고, 짝활동과 모둠 토론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따라서 문장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는지를 <평가1> 서술형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뉴스 기사 글과 비교하여 자신의 생각을 진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2> 논술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서술형·논술형 평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於我善者, 我亦善之, 於我惡者, 我亦善之. 『명심보감』

以直報怨, 以德報德. 『논어』

(나) 지난 달 2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A(18)군. A군은 화가 나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B(44)씨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1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훔쳤다. A군은 “친구와 찜질방에 놀러 갔는데 누군가 내 스마트폰을 훔쳐가 핫김에 다른 사람의 전화를 훔치게 됐다”고 진술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A군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OO뉴스」

<평가1> (가)를 바르게 풀이하시오. [5점]

<평가2> (가)의 『논어』 문장을 근거로, (나)의 A군 행동을 비판하는 글을 쓰시오. [10점]

#### <조건>

- 자신의 견해는 (가)와 (나)를 활용하여 쓰시오.
- 150자(±50자) 내외로 쓰시오.

## 7. 역할놀이 학습

‘역할놀이 학습’은 학습자에게 글의 내용과 연관된 특수한 상황이나 장면에 처해보도록 하거나 글에 등장하는 인물의 역할을 실행해보도록 하는 학습 방법이다. 이를 통해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이나 타인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 혹은 신념을 깊이 있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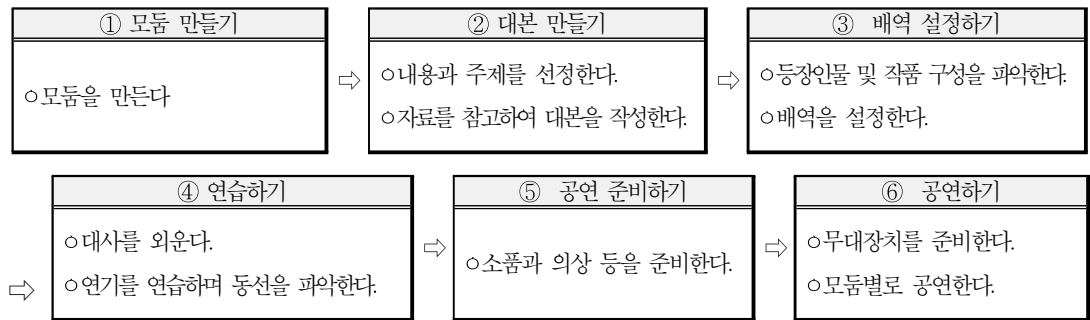
‘역할놀이 학습’ 교수·학습 방법은 제7차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고사성어, 격언·속담, 명언·명구의 학습법으로 ‘역할놀이 학습법’을 제시하였으며, 2007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서도 ‘역할놀이 학습법’은 한문 영역의 ‘이해’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되었고, ‘토론 학습’은 ‘문화’ 영역에 제시되었다.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독해 영역의 ‘이해’ 영역에서 ‘역할놀이 학습법’을 적용하여 한문 단문, 한문 산문, 한시를 바르게 풀이하여 글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문 이해의 한문의 독해 영역에 ‘역할놀이 학습법’으로 제시하여 그 층위와 교수·학습 방법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근자에 교육과정 재구성과 더불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교과와 교과 간의 연계로 다양



한 수업방법들이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역할놀이 학습’은 1~2시간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대개는 학기말에 집중적으로 수업시간을 할애하여 이루어지는데, 국어과나 타과와 협력하여 협력수업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sup>20)</sup> ‘역할놀이 학습’은 역할놀이를 통해서 극중 인물의 성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글에서 함축된 내용이나 생략되어 있는 사건들을 재구성할 수 있어서 글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21)</sup> 역할놀이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5> 역할놀이 학습 절차



‘역할놀이 학습’의 교수·학습 방법의 대본 만들기와 관련하여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수록된 형가(荊軻)의 이야기를 배우고 만든 역할극 대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22)</sup>

### <역할극 대본>

<p style="text-align: center;"><b>제목: 자객은 돌아오지 못하리</b></p>	
<p>&lt;등장인물&gt; 형가, 진왕, 태자 단, 진무알, 허무처, 신하1, 신하2</p>	
<p>&lt;배경설명&gt; 기원전 227년, 연나라 태자 단은 자객 형가에게 진왕 형을 죽이라는 특명을 내린다. 형가는 진나라에서 도망해 온 장수 번오거의 책과 연나라에서 가장 비범한 망인 복함의 지도를 가지고 쓸쓸히 역수를 건넌다.</p>	
<p><b>Scene #1</b> <i>알밤 아래 역수를 건내는 형가, 태자 단이 나와 배웅한다.</i></p>	
형 가:	(비장한 음악에 맞춰 서를 읊조린다.) 바람은 소슬하고 역수는 차갑구나, 자객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
태자 단:	부디 큰 뜻을 이루고 돌아오시오.
<p><b>Scene #2</b> <i>형가가 번오거의 머리가 든 상자를 들고 진무알이 복함의 지도가 든 상자를 들고 진왕 앞으로 나아간다.</i></p>	
진무알:	(밀봉 밀어) 복함의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신 하 1:	(신하2에게 귓속말로) 진무알 저놈 좀 이상하지 않나?
형 가:	(차분하게 진무알을 돌아보고 웃으며) 복함의 호랑이 놀이라 진왕께나 볼시다. 대왕께서는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십시오.
진 왕:	(발발맞은 표정으로 준엄하게) 복함의 지도나 가져오라.
형 가:	(두루마리 지도를 펼쳐자 안쪽에서 숨겨 놓은 비수가 드러난다. 재빨리 왼손으로 진왕의 소매를 붙잡고 오른손에 비수를 들고 진왕을 찌르려고 시도한다.) 어릿!

역할극의 평가는 학생 활동 중심의 참여수업이 이루어지고 그 연계성을 살리기 위해 과정평가를 실

20) 정효영(2015), 105면.

21) 심경호 외(2014) 234면

22) 심경호 외(2014) 235면

시하는 경우가 많다. 과정평가의 하나로 동료 간의 상호평가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역할놀이 학습의 평가로 동료 간 상호 평가 채점기준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sup>23)</sup>

<역할극 채점 기준 항목>

- 대본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구성되었는가?
- 모둠원의 배역 설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배우들의 연기가 자연스럽고 진지한가?
-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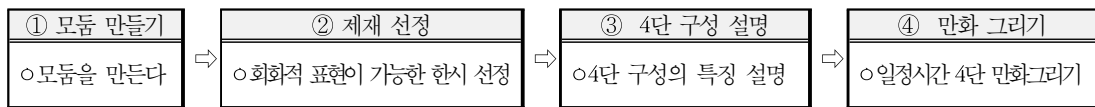
## 8. 그림·만화 활용하기

‘그림·만화 활용하기’는 글의 내용과 주제, 이해와 감상 등과 관련하여 그림이나 만화를 그려보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되 그림이나 만화 자체의 완성도에 치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림·만화 활용하기’ 교수·학습 방법은 제7차 한문과 교육과정, 2007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이 2007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부터 언급되었던 바, 그림이나 만화가 매체 자료에 범주에 속함을 인지<sup>24)</sup>한다면, 그림이나 만화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도 수업에 사용된 것은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한시영역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림이나 만화를 이용하여 한시의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고, 한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1997년에 소개된 「근체시의 4단 구성과 그림으로 하는 한시 수업」<sup>25)</sup>이 ‘그림·만화 활용하기’ 수업의 초창기 사례이다. 「근체시의 4단 구성과 그림으로 하는 한시 수업」은 신문의 4단 컷 구성이 전형적인 기승전결의 구성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근체시의 4단 구성을 잘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특히 만화라는 양식이 이미지 전달에 효과적이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그림으로 하는 한시 수업 학습 절차



위의 한시 교수·학습 방법은 지도과정이 치밀하게 짜여 있지는 않으나 활용가치는 높다 하겠다.<sup>26)</sup> 실제로 지금까지도 한시 감상의 방법으로 단위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빈번히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다. 한시 학습 후 학습자가 창의적으로 한시를 짓고 만화(漫畵)나 시화(詩畵)로 표현하는 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23) 심경호 외(2014) 23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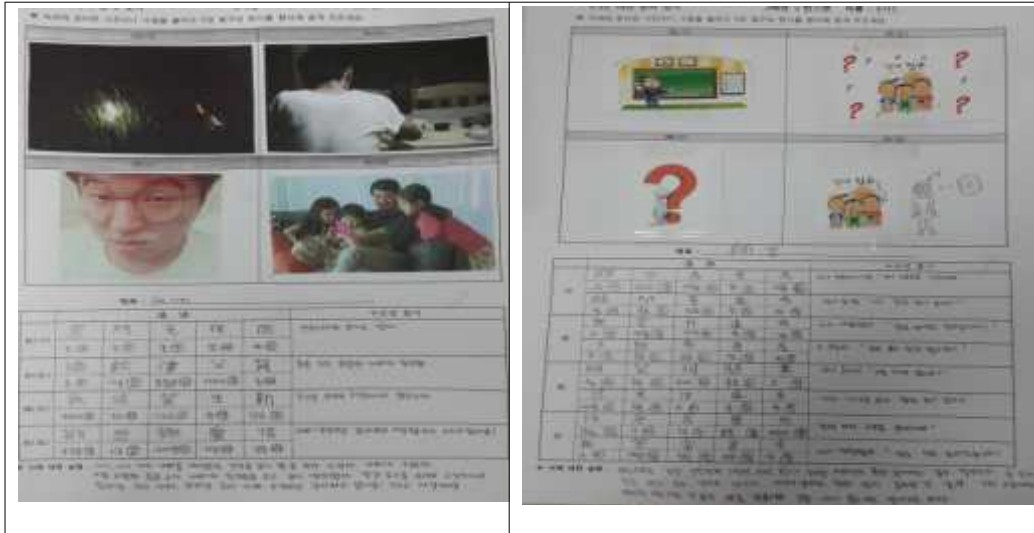
24) 이승현(2008), 100면

25) 이태희(1997), 10면

26) 안동규(2014), 31면

<도표 2>는 학생들이 ‘자신의 일화나 사건, 가치관, 자신만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5인 절구의 한시를 창작하고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도표 2> 한시 학생활동 자료



한시 영역 뿐만 아니라 단문이나 산문 영역에서도 글의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고, 글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수단으로 ‘그림·만화 활용하기’ 교수·학습 방법이 활용된다. <표 7>은 指鹿爲馬의 고사(故事) 수업 절차와 만화 활용의 예이다.<sup>27)</sup>

<표 7> 고사성어 수업 절차



## 8. 연극·방송 대본 만들기

‘연극·방송 대본 만들기’는 글의 내용과 주제, 이해와 감상 등과 관련하여 연극이나 방송 대본을 만

27) 경기도교육청(2013), 109면

들어보게 하는 활동이다.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하되 대본 자체의 완성도에 치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극·방송 대본 만들기’도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7차 한문과 교육과정, 2007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직접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산문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수업 현장 연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sup>28)</sup>

다음은 이사(李斯)의 글 중에서 ‘泰山不讓土壤, 河海不擇細流’의 단문을 배우고 ‘연극·방송 대본 만들기’ 활동을 한 사례이다. 한문 단문과 관련하여 제작된 광고 개요를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모둠별로 ‘방송 광고 대본 쓰기’를 실행한 것이다.<sup>29)</sup> 우선 학생활동 안내 자료로 방송 광고 개요와 대본을 <도표 3>과 같이 제시한다.

<도표 3> 방송 광고 개요와 대본

- DIAL (dialogue) : 대화, 지문 등 (text) - ACT (action) : 행동의 연기, - DIV (division) : 연속 장면			
No. 1			No. 2
DIAL			DIAL
ACT	황하강을 건너서 가다		ACT
DIV	대단한 힘을 입장		DIV
No. 3			No. 4
DIAL			DIAL
ACT			ACT
DIV	대단한 힘을 입장		DIV
No. 5			No. 6
DIAL	대단한 힘을 입장		DIAL
ACT	대단한 힘을 입장		ACT
DIV			DIV

활동 예시 자료를 안내한 후에는 <표 8>과 같이 광고 대본 쓰기 활동과 아울러 상호평가를 통한 과 정평가까지 진행할 수 있다.

<표 8> 광고 대본 만들기 수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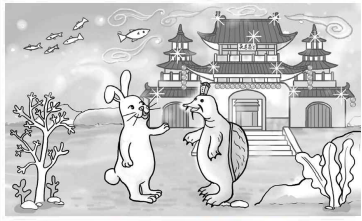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학생 4~5명을 모둠으로 구성한다.	⇒	○본문에서 배운 내용 중, 광고 문 구로 활용할 부분을 선택한다.	⇒	○이야기 전개를 알 수 있도록 스토 리보드를 작성하고, 그에 맞게 스케 치한다.
4 단 계		5 단 계		6 단 계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글 로 표현하거나 광고 문구로 표현한다.	⇒	○최종적인 배경 음악을 제시 한다.	⇒	○모둠별로 각자 발표하고 상호 평 가한다.

‘광고 대본 만들기’ 활동과 같이 학생활동 중심 수업은 대개 수업 과정 중 평가를 동시에 이루어지 는 경우가 많다. 반면 선다형 문항을 활용한 지필평가로도 활용이 가능한데, 근자에 대학 수학능력시험

28) 김재영(2009), 61면.  
29) 안대회 외(2012), 294면

과 전국연합모의학력평가에 방송 대본 시나리오를 활용한 문항이 출제되어 소개해 본다.<sup>30)</sup>

**15. 시나리오의 내용으로 보아 ㉠에 들어갈 시구로 알맞은 것은?**



**S#12. 용궁 앞**

자라는 돌에 찰박  
붙어 있던 토끼를  
내려놓는다.

자라: 여보게! 여기가 남해 용궁이라네.  
토끼: (사방을 살펴봐) 이보게, 자라! 오색구름 속에 진주며  
자개로 만든 궁궐이 우뚝하고, 산호 기둥에 백옥  
난간을 순금으로 꾸며 놓은 것이 과연 자네에게 들던  
대로 ㉠ (이)구먼. 구경 좀 시켜 주게나!  
자라: 잠시 기다리시게. 대 들어가 용왕님께 보고하리다.

① 白雲飛下暮山青


② 秋陰漠漠四山空

③ 別有天地非人間

④ 落花時節又逢君

⑤ 長夏江村事事幽

**14. 시나리오의 ㉡에 들어갈 시구로 가장 알맞은 것은?**



**S#15. 흥노의 궁궐 안**

분난 황량한 사막에 지어진 궁궐을  
시름에 잠겨 거닐고 있는 왕소군.  
길을 따르는 시녀, 그런 왕소군을  
안쓰럽게 바라본다.

왕소군: 이곳으로 시집은 게 엇그제 같은데 새봄이 되었구나.  
고향에 있는 가족들은 무탈한지…….  
시녀: (울먹이며) 마마, 몸이 무척 아위셨어요. 돌아갈 수  
없는 고향 생각일랑 그만 하세요!  
왕소군: (한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온갖 꽃들이 만발한  
고향 동산에서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 (이)라더니, 이곳엔 꽃과  
풀조차 없어. 봄이 왔는데도…….

① 春眠不覺曉

② 山青花欲然

③ 春水滿四澤

④ 花落今朝風

⑤ 春來不似春

## 9. 역사 신문 만들기, 가상 인터뷰하기

‘역사 신문 만들기’, ‘가상 인터뷰하기’는 글의 내용과 주제, 이해와 감상 등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에서 상상 일기나 편지, 논설문이나 신문 기사, 가상 인터뷰 기사 등을 써보게 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역사 신문 만들기’, ‘가상 인터뷰하기’도 기존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방법으로 용어를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단위학교에서 활용되어 왔음을 현장 수업 연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sup>31)</sup>

다음은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단군신화를 배우고 학생들이 역사신문 만들기 수업을 한 사례를 소개해 보겠다.<sup>32)</sup> 수업자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유산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시켜주고자 수업을 설계하였다. 신문 기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기에 직간접적인 역사체험의 방법으로 적당한 형식이어서 수업과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수업은 총 3차시 수업으로 설계하였다. 1차시는 檀君神話의 산문 내용 학습이며, 2차시는 역사신문 만들기 수업이다. 간단하게 절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모둠별로 B4 용지 준비를 하고 ‘역사탐방 단군 조선’을 주제로 모둠별 토론 시간을 갖는다. 인터넷이나 참고도서를 준비하면 효과적이다. 모둠별 협의를 통해 역사 신문을 제작한다. 3차시에는 모둠별로 작품을 발표하고 평가를 받는다. 학생들이 만든 신문 제목을 보면 ‘特報 드디어 桓雄 내려오다.’, ‘00부족, 100인이 들어도 모자랄 고인돌 안성’, ‘긴급 速報 桓雄님과 熊女 열애’ 등 다채롭다.

30)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문 I 15번 문항

31) 김재영(2009), 6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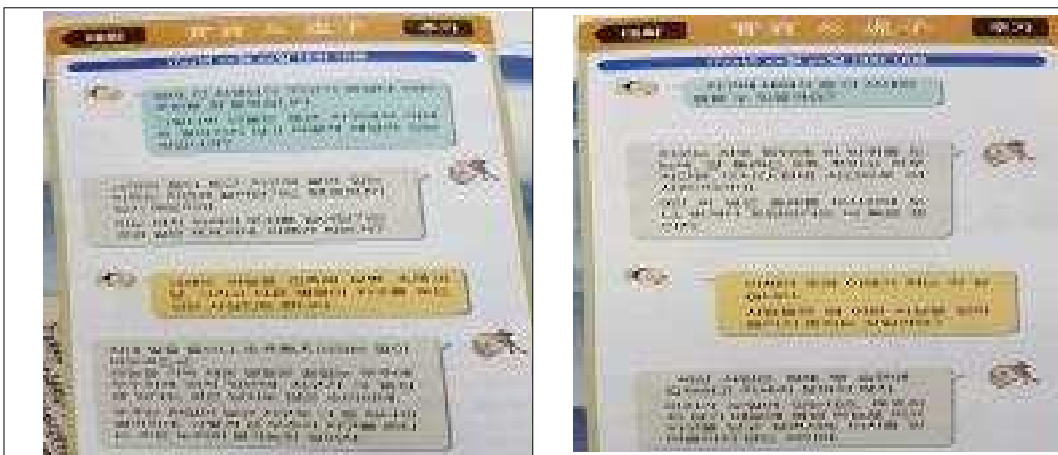
32) 구본철(2002), 『고등학교 한문 교사용지도서』, 대학서림 271~274면 내용 재구성

### <단군신화 역사 신문>



‘가상 인터뷰하기’도 내용과 형식 및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겠다. 홍대용이 북경 여행을 마치고 저술한 “의산문답(醫山問答)”의 과학적 사실을 담은 글을 배우고, 글의 등장인물인 ‘실옹(實翁)’과 ‘허자(虛子)’를 가상 인물로 설정하고, 휴대폰의 대화방에서 두 사람과 인터뷰하는 내용의 ‘가상 인터뷰하기’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학생들은 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통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우주 무한설 등 과학적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대화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시간을 17\*\*년 \*월 \*일로 설정한 것도 인상적이다.

### <핸드폰 대화방을 이용한 가상 인터뷰하기>



‘역사 신문 만들기’, ‘가상 인터뷰하기’와 관련한 평가는 학생활동 결과물에 대한 발표평가와 수행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수행평가 영역의 평가 기준을 예로 <표 9>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9> 수행평가 채점 기준안

평가 영역	채점 기준		배점
수행 평가 (15)	1. 주제 파악의 정확성	7개 항목을 만족시킴	15
	2. 한문 풀이의 정확성	6개 항목을 만족시킴	13
	3. 교과서 본문 내용의 반영도	5개 항목을 만족시킴	11
	4. 중심단어의 한자 사용 정도	4개 항목을 만족시킴	9
	5. 구성의 적절성	3개 이하 항목을 만족시킴	7
	6. 내용의 적절성	2개 이하 항목을 만족시킴	5
	7. 표현의 창의성	미제출자	3

아울러 모둠활동 과정에 대한 자기평가나 모둠원 간 상호 평가를 통해 정의적 능력을 평가하기도 한다. 정의적 평가에 활용하는 평가 기준안<sup>33)</sup>은 다음과 같다.

<표 10> 자기 평가

정의적 능력 범주	관찰 항목	평정 척도
성실성	나는 모둠에 부과된 공통 미션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1. 2. 3. 4. 5.
책임성	나는 자신이 수행한 과제의 과정과 결과를 반성해보고 잘못된 부분의 책임을 느껴 수정한다.	1. 2. 3. 4. 5.
책임	나는 짝미션, 모둠 과제 등을 수행할 때 내가 맡은 부분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1. 2. 3. 4. 5.
과제집착력	나는 모둠 과제가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고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전하고 노력한다.	1. 2. 3. 4. 5.
1. 매우 미흡 2.미흡 3.보통 4.우수 5.매우 우수		
__학년 __반 __번 __모둠 성명 :		

<표 11> 모둠 상호 평가

정의적 능력 범주	관찰 항목	학생명
참여	모둠에서 모둠과제 활동을 적극 참여한 사람은?	
책임감	모둠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사람은?	
상호작용	모둠 활동에서 모둠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은?	
가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내면화하여 일상생활에서 가장 잘 실천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은?	
__학년 __반 __번 __모둠 성명 :		

33) 경기도교육청 장학자료(2014)

## 10.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기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기’는 글의 내용과 관련 있는 시·소설·수필 또는 대중가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찾아보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방법으로 직접 제시하지 않았지만 단위학교 수업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해 왔던 교수·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의 활용은 재구성을 통하여 보다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최근, 교육과정 재구성이 교과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와 연계하여 이루어지거나 타교과와 연계하여 교과간 교육과정 재구성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면 한문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선 한시 영역에서 동기유발과 색다른 한시 감상을 위해 고안된 수업방식인 ‘현대시와 비교를 통한 한시 감상’<sup>34)</sup>을 소개해 보겠다. 수업 절차는 <표 12>와 같다.

<표 12> 한시 감상 수업 절차

1차시	2차시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시 개관 설명</li> <li>○과제 부여 : 시창작 또는 배운 한시를 자신의 입장에서 시답게 번역해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품 소개 : 비슷한 정서나 내용을 담은 작품을 골라 읽어주기</li> <li>○과제 부여 : 한시의 느낌과 비슷한 현대시를 찾아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들의 과제 수행물 발표와 평가</li> <li>○한시 비교 설명 : 학생 작품 또는 찾아온 현대시 중 몇 편 선정. 한시와 비교하여 설명 및 정리</li> </ul>

林梯의 ‘無語別’<sup>35)</sup> 작품 수업과 관련하여 강록춘의 ‘달맞이 꽃’이나 이폴잎의 ‘첫사랑’이나 이정하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와 같은 현대시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또는李玉峯의 ‘夢魂’<sup>36)</sup> 작품 수업과 관련하여 고은별의 ‘사랑하면서도 헤어져야 하는 것은’이나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과 같은 현대시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혹은 학생 창작시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위의 방법은 다양한 창작물과 비교를 통한 교수·학습방법을 이용하여 교과내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된 수업방법이었다면, 다음은 교과와 교과간의 활동을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중학교 수업 사례<sup>37)</sup>를 소개해 보겠다.

‘幸福한 家庭’이란 공통 주제로 한문교과, 도덕교과와 미술교과가 융합 수업을 진행한 것이다. 한문교과 ‘家族’ 단원 수업 후 도덕교과와 미술교과가 ‘행복한 가정’과 관련하여 수업진행을 한다. 수업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표 13>과 같다.

34) 송병렬(2000), 400~412면 내용 재구성

35) 十五越溪女, 羞人無語別, 歸來掩重門, 泣向梨花月.

36) 近來安否問如何, 月到紗窓妾恨多. 若使夢魂行有跡, 門前石路半成沙.

37) 정원경(2013), 14~21면 내용 재구성



<표 13> 가족관련 한문, 도덕, 미술 융합 수업


한문		도덕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家庭과 관련된 한자 단어, 성어, 문장 학습</li> <li>○ ‘우리집 가훈 만들기’ 또는 ‘나의 좌우명 만들기’ 실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론 : ‘가족’의 의미와 바람직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노력</li> <li>○실습: 가족간 비폭력대화 방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습: ‘가훈’ 또는 ‘좌우명’ 아이디어 그리기.</li> <li>○실습: 부조 작품 만들기</li> </ul>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기’는 교과외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고 비교하며 교과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다. 위의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 유형<sup>38)</sup>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평가 자료>

**13. 시의 내용과 가장 관계있는 것은?**

자고 켤 때마다 혹 어떠하심지?  
비가 내리면 바람이 차면  
혹 건강은?  
먹음직스러운 음식 보면  
사들게 되고  
시식때때 관심, 또 관심의 연속  
실천하는 행동되어  
사랑을 빚는다  
<하락>



-전덕기-

① 自強不息
② 昏定晨省
③ 附和雷同

④ 發憤忘食
⑤ 雪上加霜

다음 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sup>39)</sup>

難 得 者 兄 弟, 易 求 者 田 地.

『推句(추구)』

<조건>

‘형제’가 들어가는 완성된 문장 형식으로 쓴다.

더불어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기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시 감상문 쓰기를 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우선, 학생들의 한시에 대한 감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요나 문학작품 등 관련하여 한시를 풀이하고 내용을 설명한다. 학생들은 감상문을 쓴다. 학생들이 직접 감상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그 감상 의견에 대해 학생과 학생 간, 교사와 학생 간에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시 감상문 쓰기의 경우 개인별 창작 행위에 그치지 않고 감상문을 돌려 읽고 토의를 통해 모둠별로 한 작품씩 선정하는 활동을 한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한시 작품을 보다 폭 넓고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감상문을 텍스트로만 표현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sup>40)</sup>를 시도해도 좋다. 가령 한시의 내용과 감상을 그림이나 만화로 표현하기, 한시에 어울리는 가요 찾기, 음악으로 연주하기, 한시의 배경이 될 만한 이야기 만들기, 한시와 비슷한 현대시 찾고 주제와 연결하여 감상문 쓰기, 감상내용을 UCC로 만들기 등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다.

38)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3번 문항. 선택지가 성어로 이루어졌지만 단문으로 제시하면 한문 영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39) 원희연(2014), 49면

40) 김선화(2014), 95면

<다양한 방법의 한시 감상 학생 작품>

한시 감상계획서	夢魂감상 UCC	松下問童子 감상 그림	燕巖憶先兄 감상 연주

### III. 나가며

이상으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인 ‘한문의 독해’ 영역의 내용 요소와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것을 다시 ‘한문의 독해’ 영역의 성취 기준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sup>41)</sup>

<표 14> 성취기준 관련 교수·학습 방법

순	내용 요소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방법
1	문장의 구조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문장 구조 분석하기 / 어순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 허사의 쓰임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 비교·분석하기
2	문장 성분의 생략과 도치	문장에서 생략되거나 도치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문장 구조 분석하기 / 어순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 허사의 쓰임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 비교·분석하기
3	문장의 유형	문장의 유형을 구별한다.	비교·분석하기
4	소리 내어 읽기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낭송하기
5	끊어 읽기	тона 문장 부호가 달려 있는 글을 톤나 문장 부호의 역할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	낭송하기 / 톤 달아 읽기
6	내용과 주제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토의·토론하기 / 역할 놀이 학습 / 그림·만화 활용하기 / 연극·방송대본 만들기 / 역사 신문 만들기 / 가상 인터뷰하기
7	이해와 감상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토의·토론하기 / 역할 놀이 학습 / 그림·만화 활용하기 / 연극·방송대본 만들기 / 역사 신문 만들기 / 가상 인터뷰하기 /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기 / 감상문 쓰기
8		한시의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토의·토론하기 / 역할 놀이 학습 / 그림·만화 활용하기 / 연극·방송대본 만들기 / 역사 신문 만들기 / 가상 인터뷰하기 /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기 / 감상문 쓰기

41) 고등학교 한문 I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정리한 표이다.

필자는 ‘한문의 독해’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소개하고, 교수·학습 방법과 연계된 평가의 예를 제시하였다. 필자가 제시한 교수·학습 방법은 평이하고 일상적인 사례가 많다. ‘한문의 독해’는 ‘한문의 이해’ 영역에 해당한다. ‘한문의 이해’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은 ‘한문의 활용’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과 비교하면 기존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교수·방법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소개 사례가 더욱 평이하고 일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단위학교에서 활용되었던 교수·학습 방법을 정리하고 유목화시키고자 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는 위에서 소개된 교수·학습 방법의 사례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가 소개되기를 바란다.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별로 더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공유되고 일반화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단위학교 교사와 한문 교수·학습 방법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에게 제공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한문과 교육과정(2015),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2015), CRC 2015-25-13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2015), CRC 2015-25-15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심경호 외(2014), 『고등학교 한문 I』, ㈜미래엔  
 안대회 외(2012), 『중학교 한문』, 천재교육  
 이병주 외(2012), 『중학교 한문』, 대학서림
- 경기도교육청(2013), 「참된 학력을 키우는 한문과 수업·평가 방안」, 『2013학년도 중등 논술형 평가 자료』, 경기도교육청  
 김선희(2014), 「다양한 한시 감상」, 『경기도한문교과연구회 한문교육과정재구성 수업』, 경기도중등한문교과교육연구회  
 김재영(2009), 『한문과 교수-학습 모형』, 전통문화연구회  
 송병렬(2006), 『새로운 한문 교육의 지평』, 문자향  
 심재경(2011), 「읽기 영역의 평가 방향과 실제」, 『한자한문교육』,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안동규(2014), 「한자 한문교육 현장실천 지향적 교수-학습 방법 연구의 현황과 성과」, 『한자한문교육』,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오예승(2014), 「공감」, 『경기도한문교과연구회 한문교육과정재구성 수업』, 경기도중등한문교과교육연구회  
 원희연(2014), 「독도 바로알기」, 『경기도한문교과연구회 한문교육과정재구성 수업』, 경기도중등한문교과교육연구회  
 이승현(2008), 「제7차 중학교 한문 교육에서의 매체 활용 실태」, 『한자한문교육』,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이태희(1997), 「근체시의 4단 구성과 그림으로 하는 한시 수업」, 『한문교육연구』, 한국한문교육학회  
 장복희(1998) 「허자 지도를 통한 한문 독해력에 관한 연구」, 『한자한문교육』,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정원경(2014), 「행복한 가정을 위해」, 『경기도한문교과연구회 한문교육과정재구성 수업』, 경기도중등

한문교과교육연구회

정효영(2015),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한문과 교수·학습방법 변화 연구」, 『한문교육연구회』, 한국한문교육학회

허연구(2011), 「한문과 서술형 평가의 이론과 실제 - 한문 지식 영역을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한문의 활용 -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 분석

최현선(서울 창일중학교)<sup>1)</sup>

## 目次

- I. 서론
- II.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영역별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 III. 결론

## I. 서론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1정과 달리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새롭게 추가된 것은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방법 개발과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영역(성취기준 그룹)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는 각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에서 학습해야 할 요소를 모두 제시한 ‘학습 요소’와 성취기준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진술이 필요한 항목에 한해 작성한 ‘성취기준 해설’, 선행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중 해당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의 내용 요소를 학습하는 데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의 내용 요소를 평가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서술한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sup>2)</sup>

그리고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서 교수·학습의 방향으로 학습자가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방향을 제시하였다.<sup>3)</sup>

-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되, 교사와 학습자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수·학습 자료는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본 논문은 ‘한문의 활용’ 영역의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과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방향에 맞춰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교사와 학습자가 쌍방향으로 소통하여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먼저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과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sup>4)</sup>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일상용어’, ‘학습 용어’를 학습할 때에는 나만의 학습 노트 만들기, 짧은 글 짓기, 의미망 만들기, 신문이나 방송 영상 활용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wisesun74@sen.go.kr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3~4면

3) 교육부(2015). 12면

4) 교육부(2015). 17면

- ‘성어’를 학습할 때에는 나만의 학습 노트 만들기, 짧은 글 짓기, 의미망 만들기, 신문이나 방송 영상 활용하기, 성어의 유래 조사하여 발표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일상용어’는 단순한 암기보다 그 지시적·문맥적·비유적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 ‘학습 용어’는 단순한 암기보다 해당 교과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 성어는 겉뜻 뿐만 아니라 속뜻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활용하는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 II.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의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먼저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의 성취기준 설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sup>5)</sup>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휘는 상당 부분 한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뜻을 지닌 성어를 이용해 표현하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다른 교과에서 사용하는 학습 용어의 상당수도 한자 어휘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한자에 바탕을 둔 일상용어와 학습 용어, 성어를 익혀 언어생활을 원활히 하고 다른 교과에서 사용하는 학습 용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일상용어와 학습 용어, 성어는 모두 한자 어휘에 포함되어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은 통용되는 면이 있다고 하겠다.

### 1. 나만의 학습 노트 만들기

나만의 학습노트 만들기는 학습한 일상용어, 학습 용어, 성어의 쓰임 등도 조사하여 그 뜻과 쓰임을 정리하는 노트를 만드는 것이다. 고사성어의 경우 겉뜻, 속뜻, 유래 등을 아울러 정리하게 한다. 학습노트는 학습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필수도구로 뇌의 보조 기억 장치 역할을 한다. 본고에서는 수학 교과와 관련된 학습 용어를 익힌 후 학습 노트 만드는 활동과, 고사성어를 학습한 후 미니북을 만드는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 가. 수학 교과 학습 노트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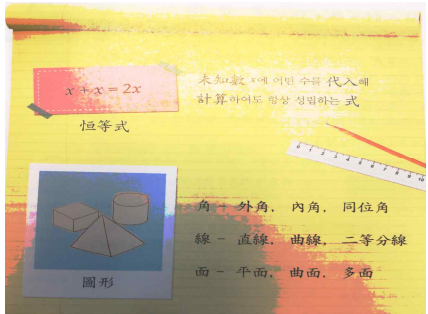
1차시에서 이미 수학 교과와 관련된 단어를 학습 한 후 2차시에서 학습 노트를 만드는데 2차시에 학습 노트를 만드는 활동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

5) 교육부(2015). 11면

도입	전개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학습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 교과와 관련된 학습 용어</li> </ul> </li> <li>○ 영상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책도둑'의 한 장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용어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용어 한문으로 쓰기</li> <li>- 한자의 뜻·음, 학습 용어의 뜻, 학습 용어를 그림으로 부연 설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학습 노트 소개하기</li> <li>○ 친구들과 비교하고 감상하기</li> </ul>

도입 부분에서 이미 배운 수학 교과와 관련된 학습 용어를 읽고 뜻을 확인한다. 수학 교과와 관련된 어휘는 다음과 같다.<sup>6)</sup>

	<p>未知數, 代入, 計算, 恒等式</p> <p>角 - 外角, 內角, 同位角</p> <p>線 - 直線, 曲線, 二等分線</p> <p>面 - 平面, 曲面, 多面</p>
---	--

교사는 학생들에게 A4종이의 절반만한 색지를 나누어 준다. 색지에 학생들은 제시된 학습 용어를 한문으로 쓰고, 한자의 음과 뜻을 정리하여 학습 용어의 뜻을 쓴다. 필요한 경우 그림으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다. 지침만 제시하고 학습자가 자발적, 능동적으로 학습 노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위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선다형 문항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뜻을 찾아 선으로 연결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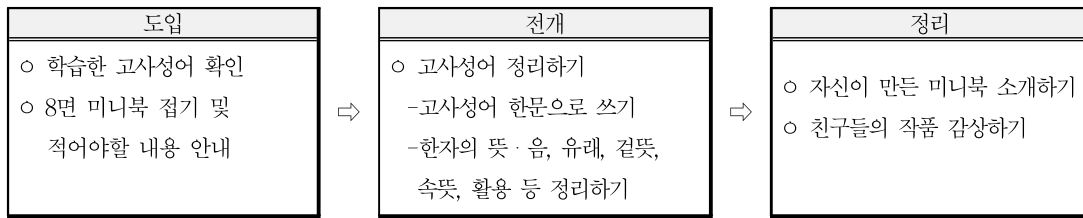
- |                        |   |                 |
|------------------------|---|-----------------|
| (1) 未知數 $x$ 의 값을 구하여라. | • | • ① 끝은 선        |
| (2) 시험의 결과는 아직 未知數이다.  | • | • ② 예측할 수 없는 앞일 |
| (3) 자를 이용해 直線의 길이를 재다. | • | • ③ 아직 알 수 없는 수 |

#### 나. 고사성어 미니북 만들기

‘성어’는 예로부터 관용적으로 널리 쓰여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속어(熟語)를 말한다. 특히 옛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故事成語)는 성어가 이루어진 내력(來歷)이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속뜻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한문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고사성어의 학습은 단순히 겉뜻만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고사의 내력이나 고문헌에서 유래된 속뜻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은 2개의 소단원에서 이미 고사성어를 학습한 후 고사성어 미니북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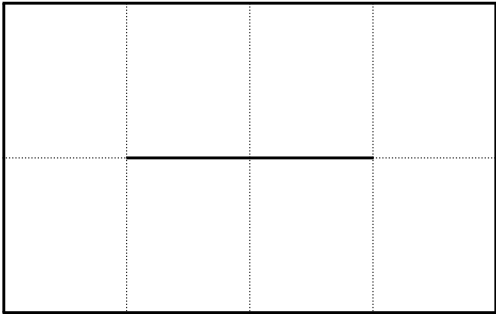
6) 김용재 외(2012) 『중학교 한문』, 73면, 천재교육



도입 부분에서 전 시간에 학습한 고사성어의 걸뜻, 속뜻 등을 확인한다. 본문㉠은 아래와 같다.

8과. 鐵面皮. 螢雪之功. 咸興差使. 結草報恩. 鷄卵有骨. 多多益善  
 9과. 助長. 守株待兔. 漁父之利. 三人成虎. 五十步百步.

교사는 8절 색상지를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미니북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교사는 지침만 제시하고 학습자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미니북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가 걸표지를 자유롭게 꾸미고, 유래를 정리할 때 그림이나 만화를 그려봄으로써 흥미를 갖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가 미니북을 만들 때 한자를 바르게 쓰고, 성어의 유래, 걸뜻, 속뜻을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p>① 8절 색상지를 옆 그림처럼 접은 후 가운데 실선부분은 칼집을 낸다.</p> <p>② 가로로 반으로 접은 후 칼집 낸 부분이 마주 보게 접으면 총 8면으로 구성된 책을 만들 수 있다.</p> <p>③ 걸표지를 꾸민다.</p> <p>④ 나머지 면에 고사성어를 한문으로 쓰고, 풀이와 속뜻, 유래, 사례 등을 적는다.</p>
---	---

완성된 학생 작품<sup>8)</sup>은 다음과 같다.



7) 안대회 외(2012) 『중학교 한문』, 70~71, 78~79면, 천재교육

8) 신방학중 2학년(2012), 창일중 1학년(2015)



완성된 고사성어 미니북을 교실에 전시하여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고사성어 미니북은 그림이나 만화 등의 완성도보다는 고사성어의 한자, 겹뜻, 속뜻, 유래, 활용 등이 바르게 기록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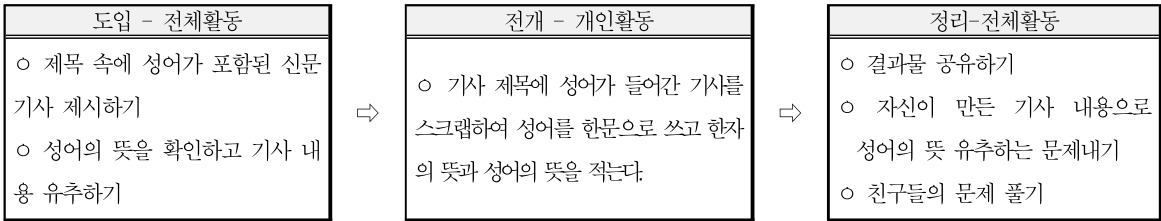
## 2. 신문이나 방송 영상 활용하기

신문이나 방송 영상 활용하기는 학습한 일상용어, 학습 용어, 성어와 관련된 신문이나 방송 내용 찾기 또는 신문이나 방송 내용과 관련된 일상용어, 학습 용어, 성어 찾기를 통하여 그 단어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가. 신문기사 활용하기<sup>9)</sup>

신문 활용 교육은 오래전부터 여러 교과에서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대중화되고 친숙한 수업 방식이다. 한문과에서도 이전부터 한자 어휘 학습에 산문의 내용을 활용하거나 신문의 형식을 빌어서 수업의 도구로 사용해 왔다.

다음은 두 가지 활동을 결합한 수업 사례이다. 하나는 교사가 제목 속에 성어가 포함된 신문 기사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기사 내용을 유추하는 활동이다. 또 하나는 학생들이 기사 제목에 한자성어가 들어간 기사를 스크랩하여 성어를 조사하고 성어와 기사 내용간의 연관성을 서술하는 활동이다.



먼저 도입 단계에서 아래 활동지처럼 기사제목만으로 내용을 유추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활동지를 완성한 후 교사는 해당 기사를 제시하여 학습자와 함께 내용을 확인한다.

2. 기사 제목을 통해 내용을 유추해서 써 보세요.

**‘떼면 또..’ 불법현수막 우후죽순**

대전 5개구 하루 1000여개 철거불구 분당·학원광고 범람

3. 기사 속의 한자성어를 찾아 그 뜻과 음을 쓰고 풀이해 보세요.

한자성어	한자	뜻/음	풀이
雨後竹筍			

1. 기사 속의 한자성어를 찾아 그 뜻과 음을 쓰고 풀이해 보세요

한자성어	한자	뜻/음	풀이
雨後竹筍	雨	비 우	비후에
	後	뒤 후	비뒤에
	竹	대나무 죽	대나무죽
	筍	죽	죽

2. 기사 제목을 통해 내용을 유추해서 써 보세요

**‘떼면 또..’ 불법현수막 우후죽순**

대전 5개구 하루 1000여개 철거불구 분당·학원광고 범람

**‘떼면 또..’ 불법현수막 우후죽순**

대전 5개구 하루 1000여개 철거불구 분당·학원광고 범람

주말 관리대행 업체도 등장  
분당·전역분당 홍보가 대부분이다.  
또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을 겨냥한 학원광고, 피트니스센터의 홍보광고도 함께 눈에 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현수막이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전 5개구 하루 1000여개 철거불구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통현수막, 분당대행업체들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무방한 것 같다”며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도 우후죽순으로 사라진다. 전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 5개구정에서 올해 안에 까지 불법현수막 철거로 과태료를 낸 것만 51건 25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전 5개구정에서 올해 안에 까지 불법현수막 철거로 과태료를 낸 것만 51건 25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학습자 활동지

[그림 4] 활동지 작성 예시

[그림 5] 중도일보 2012.6.5. 05면

9) 신방학중학교 수업 사례(2012)

전개활동으로 학습자들이 준비한 신문에서 제목에 한자 어휘가 들어간 기사를 찾는다. 찾은 기사를 오려붙인 후 자전, 국어사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한자 어휘를 조사한다. 한자 어휘를 한문으로 쓰고 한자의 뜻과 한자 어휘의 뜻 등을 정리한다. 그리고 한자 어휘와 기사 내용 연관성을 적는 활동을 한다.



[그림 6] 학생 활동 사례

신문 기사 속 성어 조사하기 수행활동을 관찰하거나 수행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다. 신문 기사 등을 활용하여 일상용어, 학습 용어, 성어 등을 평가하는 문항을 제작할 수 있다.

신문 기사를 직접 제시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논쟁거리가 된 사례와 관련지어 성어를 유추하는 수업사례<sup>10)</sup>를 소개하고자 한다. 성어를 학습한 후에 다음과 같은 내용과 형식으로 수업 활동지를 제공하여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학생 제시 과제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사회적으로 논쟁거리가 되었던 사건을 한자성어로 표현해 보고 그 이유를 적어보시오.
학생 공지사항	<p>①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발생한 사건 중에서 사회적인 이슈나 논쟁이 될 만한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것</p> <p>② 성어는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선택해도 되고 서적이나 인터넷을 참고해도 무방함</p> <p>③ 선택한 이유란에는 이슈와 논쟁거리를 선택한 이유를 간단히 적고, 자신이 선택한 성어의 어떤 부분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는지 적을 것</p> <p>④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된 활동지를 모두 완성하면 수업활동 마일리지 1개 적립</li> <li>- 선택된 성어의 의미가 연결 지은 사회적인 이슈 또는 논쟁거리와 잘 매칭 되면 수업활동 마일리지 1개 적립</li> <li>- 선택한 이유에 자신의 가치관이 담겨있거나 사고의 과정이 드러나는 경우 수업활동 마일리지 1개 적립</li> </ul>

10) 한문교육 85 (2012.10.) 25~32면

제공된 학생 활동지와 결과물은 아래와 같다.

경민고등학교 漢文

2학년 ( )반 ( )번 이름( )

한문시험  
필필필필

한문시험  
필필필필

수업활동  
필필필필

수업활동  
필필필필

<수업활동 마일리지 적립과제>

◇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사회적으로 논쟁거리가 되었던 사건을 교사성어로 표현해 보고,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선택한 사건 : \_\_\_\_\_

교 사 성 어 : \_\_\_\_\_

선택한 이유 : \_\_\_\_\_

- 14 -

경민고등학교 漢文

2학년 ( )반 ( )번 이름( )

한문시험  
필필필필

한문시험  
필필필필

수업활동  
필필필필

수업활동  
필필필필

<수업활동 마일리지 적립과제>

◇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사회적으로 논쟁거리가 되었던 사건을 교사성어로 표현해 보고,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선택한 사건 : 현대 국가가 한민족을 대대적으로 학살한 일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정치적 입장에서 정권을 잡기 위하여 한민족을 '유교' '유교' '유교'로 몰아세워 4대 14억을 분할했다.

교 사 성 어 : 甘言利說 말과 이익을 주고받는 말 말과 이익을 주고받는 말 말과 이익을 주고받는 말

선택한 이유 : 한민족을 대대적으로 학살한 일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정치적 입장에서 정권을 잡기 위하여 한민족을 '유교' '유교' '유교'로 몰아세워 4대 14억을 분할했다.

- 14 -

그밖에도 강훈구(2014)는 ‘e-NIE를 활용한 한자 어휘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종이신문보다는 웹을 통해 신문을 보거나, 휴대기기를 통해 신문 기사를 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학교에서도 종이신문보다는 인터넷을 활용한 신문 활용 교육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효과적으로 인식되면서 e-NIE의 장점을 바탕으로 한문교과에 대한 기존 인식에서 탈피하여 유익하고 흥미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e-NIE를 활용한 한자 어휘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sup>11)</sup> e-NIE를 활용한 한자 어휘 교수·학습 방법을 신문 제시의 방법과 학생 활동을 기준으로 교사 주도형과 학생 참여형으로 분류하였다. 학생 참여형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수준과 관심에 맞는 신문 기사를 선정하고 신문 기사 속에서 사자성어 및 한자어를 익히는 활동을 주로 하였다.

#### 나. 방송영상 활용하기



성어를 포함한 한자 어휘를 학습함에 있어 영상은 성어를 구사하는 맥락을 가장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는 매체이다. 학습자가 성어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교수·학습 현장에서 담화적인 맥락이 없이 성어 자체만 제시되기 때문이다.

방송 영상은 성어를 사용하는 앞뒤 상황의 맥락이 자연스럽게 제시된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성어를 접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즉 영상은 쉽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소리와 화면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일상생활과 친숙한 매체이기 때문에 교육과 접목하였을 때 공부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덜 수 있다.

다음은 올림픽 영상을 활용하여 성어를 학습하는 활동<sup>12)</sup>을 소개하고자 한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 영상에 그 선수의 사례와 연관될 수 있는 성어나 낱구 등을 한문으로 적어 자막을 넣었다. 이를 활용한 활동이다. 아래 학생 활동지를 나눠준다. 준비된 영상을 보여주며 자막 속 성어나 낱구 등을 활동지를 보며 학습하는 활동이다.

11) 강훈구(2014). e-NIE를 활용한 ‘漢字 語彙’ 교수·학습의 실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정규돈(2008), 전국한문교사모임 사이트 내 학습자료 <http://hanmun.eduhope.net>

		<h1>2008 베이징 올림픽의 감동순간</h1>			
<h2>TV 지막을 장식하던 한문 니름 알고 했나~?</h2>					
수행	國士無雙(국사무쌍)		國/士/無/雙		
	해 의				
배경고사	<p>유방이 군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갈 때, 멀리 멀고 힘하여 도망치는 군사들이 많았다. 이때, 훗날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우는 장수 한신도 그만 도망치고 달았다. 승상 소하가 이것을 알고 급히 한신을 찾아왔다. 유방은 유복된 소하마저도 도망한 줄 알고 크게 낙담하고 있었는데, 이를 뒤에 한신을 데리고 돌아오니 유방이 무고로써 다그쳤다. "대 도망쳤느냐?" "도망한 것이 아니라, 한신을 잡으러 갔었습니다." "다른 장수들이 이탈했을 때는 그렇게 잡더니 유독 한신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나?" 이때 소하가 말했다. "장수는 멀리 쉽지만, 한신 같은 이는 예나이의 인물 중에 볼도 없습니다. 피하에서 한왕(漢王)의 방한 되시려 한다면 그가 필요 없었지만 장비를 소유하고자 한다. 한 한신만이 안될 것입니다!"</p>				
	<p>올림픽의 그순간</p> <p>아시아 선수로는 첫 금메달을 따낸 것으로, 남자 자유형 4000에서 금메달을 따낸 박태환 선수. 당시는 경향도 볼도 않는 인물입니다.</p>				
한편 서박요					
역도	破天荒(파천황)		破/天/荒		
	해 의		로/자/황/간		
배경고사	<p>천황(天黃)이란 천지가 아직 열리지 않은 때의 혼돈한 상태이며, 이것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뜻. 또, 중국 당나라에 당나라의 국과 한나라가 나오기 앞서 '천황(天黃)'이라 일컬었는데, 속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합력하여 일을 깨뜨렸다고 '파천황' 이라고 하였다 함.</p>				
	<p>올림픽의 그순간</p> <p>인상과 총상 합계에서 세 번의 세계 신기록을 세운 강미란 선수, 누구도 이르지 못했던 일출 때 내었으니 이아일로 破天荒</p>				
한편 서박요					
양궁	花無十日紅 綠弓百年金 (화무십일홍 녹색백년금)				
	해 의				
배 의					

[그림 8] 학생 활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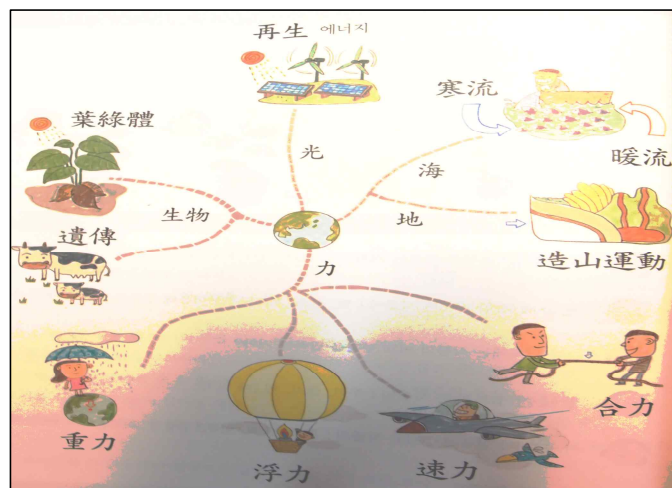
[그림 9] 베이징 올림픽 방송영상, MBC, 2008

이 외에도 개그콘서트 영상을 활용하거나 드라마 영상을 활용한 수업 사례도 소개된 적이 있다.

### 3. 의미망 만들기

학습한 단어를 활용하여 의미망을 만드는 활동이다. 의미망은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일종의 도식이다. 유의(類義) 또는 반의(反意)의 뜻을 갖는 단어를 조사하는 것도 그 중 한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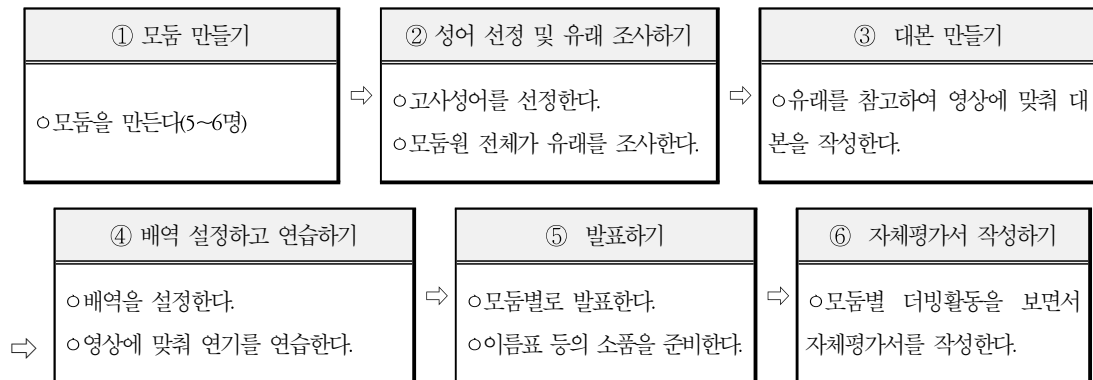
다음은 의미망을 활용해 과학 교과와 관련된 한자 어휘를 본문에 제시한 것이다.<sup>13)</sup> 이와 같이 한자 어휘를 주제별로 연결하여 의미망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한자 어휘 속 한자의 뜻과 음, 어휘의 뜻 등을 적는 활동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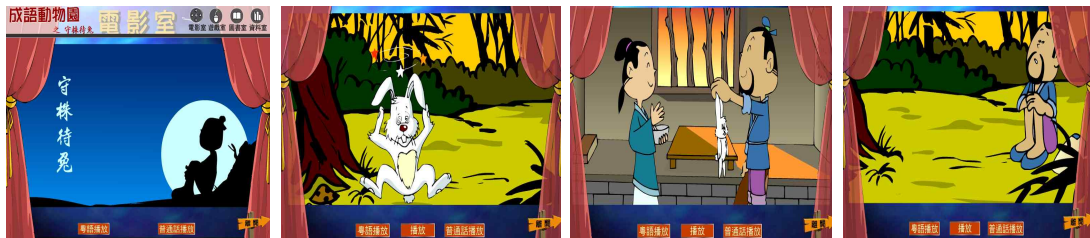
13) 김용재 외(2012) 『중학교 한문』, 78면.

#### 4. 성어의 유래 조사하여 발표하기

성어의 유래 조사하여 발표하기는 개인별 또는 모둠별로 고사성어의 유래, 속뜻 등을 조사한 후 그림, 스토리텔링, 역할 놀이, UCC 영상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성어의 유래와 속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성어의 유래 조사하여 발표하기 활동 사례는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그 중 고사성어 유래의 플래시에 더빙하는 수업 사례를 소개한다. 플래시 더빙하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한 학급의 인원 30명을 기준으로 6명씩 5모둠으로 구성한다. 더빙하기 활동에 사용된 플래시 영상은 중국의 ‘成語動物園<sup>14)</sup>’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였다. 이 사이트에서 漁父之利, 畫蛇添足, 井底之蛙, 狐假虎威, 守株待兔의 플래시를 볼 수 있다. 한 예로 守株待兔의 영상 장면은 아래와 같다.



각 모둠별로 5개 중 하나의 고사성어를 맡는다. 맡은 고사성어의 유래를 모둠원이 각각 조사하여 가장 잘 조사한 유래를 모둠원들과 공유한다. 그리고 대본 만들기 및 배역 등의 역할을 나눈다. 한 모둠이 작성한 守株待兔의 대본을 소개한다.

14) <http://chinesesidiom.ed.hkedcity.net/main.html>.





[그림 12] 학생 활동 사진

[수주대토]

해설(은숙) : 수주대토

맞(이원) : 꼬미로~~

해설(은숙) : 옛날 한 농부가 아침 일찍 밭을 갈러 길을 나섰습니다.  
그 날따라 날씨는 매우 더웠습니다.

농부(문정) : 우~

해설(은숙) : 그 때 농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토끼였습니다.

배고픈 토끼는 버섯을 발견하고 버섯을 향해 달려갔지만 멍청하게도  
나무에 머리를 박아 죽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죽은 토끼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농부(문정) : 오로라~ 황새쌔네. 이 농을 가져가야겠군.

해설(문정) : 노름이 지고 해가 저물 무렵, 농부는 토끼를 가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농부(문정) : 여보! 이 녀석이 나무에 머리 박고 죽어서 내가 가지고 있어.

오늘 멋진 저녁식사가 될거야

아내(이원) : 좋아요.

해설(은숙) : 토끼탕을 맛있게 먹었던 농부는 다음날 토끼가 또 나타나서 맛있는 식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농부는 어쩔지릴 일하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농부(문정) : 하이아~ 암~ 드~~

해설(은숙) : 어리석은 농부는 토끼만 잡이먹을 생각으로 토끼를 쫓아가고 지고, 해가 지  
평선을 넘어섰을 때 농부는 다시 와서 토끼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이 되고 농부는 다시 와서 토끼를 기다렸습니다.

어스름한 밤이 되고, 등그런 해가 나타날 때 까지도, 다음 날도, 그 다음날도 토끼는 나  
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림 13] 학생이 작성한 ‘守株待兔’ 대본

플레이시의 영상은 3~5분 정도이다. 모둠 나누기, 대본 작성하기, 더빙 발표하기 등 모든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대본을 검토하여 여러 차례 수정하기도 한다. 준비상황을 점검하여 모든 조의 발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는 계속 피드백을 해야 한다. 수행평가로 반영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였다.

평가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등급	배점
더빙하기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듬별 중국 고사성어 플레이 더빙발표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전달력</li> <li>발표 태도</li> <li>더빙 속도</li> <li>성어 내용</li> </ul> </li> </ul>	<b>&lt;모듬별 활동&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플레이 내용에 맞게 더빙할 수 있다.</li> <li>고사성어의 유래에 맞게 대본을 완성할 수 있다.</li> <li>플레이 시간과 더빙시간이 일치한다.</li> <li>유래조사, 대본작성 등을 기한 내에 할 수 있다.</li> </ul>	A	10
			B	9
			C	8
			D	7
			E	6
			F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별 동료평가지 작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어내용 메모</li> <li>발표 심사평</li> <li>발표 점수 부여</li> <li>본인활동평가 및 총평</li> </ul> </li> </ul>	<b>&lt;개인별 동료평가지 작성&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듬별 발표를 듣고 동료평가지 (성어내용, 소감, 자기평가 등)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다.</li> </ul>	매우 우수	10
			우수	9
			보통	8
			미흡	6



<평가문항>

2013학년도 경민고등학교 1학기 한문 I 논술형 평가 문제지

※ [1~2]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논술하시오. (2번 문제는 뒷면에 있음)

1. (가)와 (나)를 읽고 (나)의 관점에서 ㉠을 옹호하는 글을 <조건>에 맞추어 논술하시오. (350±50자)  
[35점]

(가) 한자성어(漢字成語)는 성어의 의미를 아는 것 뿐 만 아니라, 고사(故事) 속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그들이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하는 말과 행동은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인생의 중요한 지점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 고사에 등장하는 미생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춘추 시대 노나라의 ㉠미생이란 사람은 신의가 두터워서 한번 한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켰다. 그런 미생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하루는 그녀와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미생이 약속장소에 나가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가 잠시 내리다가 그치겠지’하고 기대했으나,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개울물은 점점 불어났다. 처음에는 종아리가 잠기더니 어느덧 무릎까지 차올랐고, 급기야 허리까지 물에 잠겨 이제 빠져 나가기도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그러나 미생은 다리 기둥을 안고 버티면서 여자를 기다렸다. 그러다 보니 물은 건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고 결국 미생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나) 약속은 불가항력적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실천되는 게 순리다. 약속 이행은 인격이 담긴 신뢰를 담고 있기에 그렇다. 그래서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言如其人)’이라고 한다. 후한시대 역사가 반고(班固)의 저서 한서(漢書)에 말의 중요성에 관해 “엮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覆水難收)”고 했듯, 약속은 성실히 지켜져야 한다.

- 『○○일보』 기사 中-

< 조 건 >

- ㄱ. 글을 작성할 때는 (가)에서 언급된 한자성어(漢字成語)를 1회 이상 한자(漢字)로 노출할 것.
- ㄴ. (나)의 관점으로 ㉠의 행동을 옹호하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나 개인적인 경험(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개인적인 경험이 없다면 실제로 일어날 만한 일을 가정해도 좋음)을 예로 들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
- ㄷ. 별도의 답안지에 작성하되 문장의 호응, 띄어쓰기 등 우리말 맞춤법 등에 유의할 것.

<학생답안>

학생답안

尾生之信의 고사 속에는 약속을 지키다 죽어버린 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약속은 지키고 안 지키고의 중요한 점도 있지만 그 속에는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태도나 행동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미생은 자신을 버려서라도 약속을 지켜야 했을 정도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던 것이다. 이런 미생을 어리석다고 비판할 수 있겠는가?

요즘 정치인들을 보라. 당선이 되면 하겠다던 국민들과의 약속에서 눈을 돌린 채 자신의 이익만 찾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서는 일반적인 것이 아닌가? 언제부터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보편화 되었나? 그것은 국민들을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증거물 중 하나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겠다는 어리석은 선전포고와 같다.



### III. 결론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은 한문 문장의 독해력과 함께 한자 어휘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 한문>과 <고등학교 한문 I>의 ‘목표’에 ‘언어생활의 활용 능력’을 세부 목표로 설정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의 내용요소로 한자 어휘를 ‘일상용어, 학습 용어, 성어’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은 학습자의 원활한 언어생활과 다른 교과에서 사용하는 학습 용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한문과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의 교수·학습은 언어생활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제시하였다. 또한 협력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한문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최신의 교수·학습 및 평가들이 있기에 이러한 사례를 모아 소개한다면 한문과 교실수업 개선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1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연구보고 CRC 2015-25-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한문과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용재 외(2012). 『중학교 한문』, (주)와이비엠
- 안대회 외(2012). 『중학교 한문』, 천재교육
- 전국한문교사모임. 『한문교육』 85호, 87호, 88호, 2012~2014.
- 정효영(2015). 「어휘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국한문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6. 한국한문교육학회
- 강훈구(2014). 「e-NIE를 활용한 ‘漢字 語彙’ 교수·학습의 실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화(2015). 「고사성어 속뜻 알기 교수·학습 방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아(2012). 「한자 어휘의 교수·학습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선(2010). 「한자 어휘 교수·학습 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문과 인성’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사례

金恩曠(경기 능곡고등학교)

## 目次

- I. 서론
- II.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사례
- III. 제언

## I. 서론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人性’이 내용체계의 핵심개념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사실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인성’에 대한 언급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여러 번의 교육과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과 의 ‘성격’과 ‘목표’에는 항상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 함양’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었고, 성취평가제의 도입과 함께 ‘인성’ 요소가 성취기준 중 하나로 제시됨으로써 ‘인성교육’은 한문교과의 구체적인 학습요소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특히 2010년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창의·인성교육의 강화’ 정책은 한문교과에도 영향을 주어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연구<sup>1)</sup>를 촉발하였고, 이러한 교육부 정책은 수정의 과정을 거쳐 2013년 인성교육 강화기본계획(안)의 발표,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 그리고 2015년 인성교육강화계획 확정 발표로 이어지며 교과교육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인성’의 전면적 등장은 이러한 한문교육 안팎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문교과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인성교육’은 어떤 것인가?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문과 인성’의 성취기준 설정 방향, 성취기준, 학습요소, 교수·학습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한문 기록 속에는 현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예컨대 인간의 존엄성 상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 물질 만능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의 만연 등에 대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 따라서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고 실천 가능한 내용을 정선하여 학습함으로써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에 대한 이해와 공감, 현재적 의미와 가치 발견, 생활 적용, 가치관 정립, 인성 함양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학습할 때에는 명언·명구 속에서 핵심 사상 찾기, 영상 매체를 활용한 토의·토론 하기, 명언·명구 암송하기, 자경문(自警文) 만들기, 성찰 일지 쓰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2013년 한국한문교육학회에서는 동계학술대회의 주제를 [한문교육과 창의·인성 교육]으로 정하고 7편의 기획주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경기도 한문교사로 구성된 NTTP 경기도중등한문교과연구회에서는 「고전을 넘어 새로운 나를 찾는 창의인성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본 논문은 ‘한문과 인성’의 교실수업 구현 방법에 집중하여,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은 현장 한문교사들이 이미 활용해오던 것들에 기초를 두고, ‘인성교육’의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례별로 인성교육요소를 제시하였으며, 목표-내용-방법[교수·학습 단계]-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수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II.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사례

### 1. 名言名句를 활용한 수업 [핵심 사상 찾기와 암송하기]

교육과정 영역	핵심 개념	내용요소	성취기준
한문의 이해	한문의 독해	내용과 주제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한문의 활용	한문과 인성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 1) 학습 목표

- 명구를 바르게 읽고 풀이할 수 있다.
- 명구 속 선인들의 사상을 이해하고 핵심 사상을 찾을 수 있다.
- 긍정적인 자의식과 성찰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

#### 2) 내용 - 名句

인성교육요소: 자존감, 성찰
-自悔然後에 人悔之라. -天不生無祿之人하고 地不長無名之草라. -人雖至愚라도 責人則明하고 雖有聰明이라도 恕己則昏이라.

#### 3) 교수학습 과정

단계1. 목표 제시 및 문장 풀이 단계2. 핵심사상 찾기 및 생각 기록하기 단계3. 생각 나누기 및 실천 방안 모색하기 단계4. 암송하기
---

(1) 단계1 : 목표 제시 및 풀이

한자의 음·뜻을 기본으로 문장의 의미를 바르게 풀이한다. 학습지 활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통해 문장의 풀이와 함께 문장 속 의미 찾기와 자기생각 기록하기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2) 단계2 : 핵심 사상 찾기 및 생각 기록하기

명구의 풀이와 자기 생각 기록하기는 동시에 진행해도 좋고, 전체 풀이와 생각 기록을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해도 좋다. 이 때, 풀이만으로 기초로 핵심 사상을 찾고 자기 생각을 기록하는 과정을 어렵게 느끼는 학습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사가 주제 파악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질문[화두] 또는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그 질문에 대한 자신의 대답을 기록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수업의 과정에서 개별학습과 모둠학습이 병행하여 활용될 수 있는데, 문장의 의미를 자기 생각으로 기록하는 과정은 사색과 성찰을 필요로 하는 개별학습을, 생각을 공유·소통하면서 실천 방안을 모색해나가는 과정은 협업이 필요한 모둠학습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운용의 방법은 해당 주제 및 학습자 구성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원명	名句 1										학년	반	번	[문장의 의미를 나의 언어로 옮겨 쓰기 - 핵심 사상 찾기] 왼쪽에 제시된 명구 속에 담긴 선인들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 찾아서,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서 써보자! 쓰기 어렵다면 선생님이 ppt에 제시한 '생각해볼 문제'를 참고하는 것도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을 쓰는 것!!!
학습 목표	✓ 명구를 바르게 읽고 풀이할 수 있다. ✓ 명구 속 선인들의 지혜를 이해하고 핵심 사상을 찾을 수 있다. ✓ 선인들의 자아관을 통해 나의 태도를 성찰할 수 있다.										이	름		
1.	自	悔	然	後		人	悔	之						▶ 해석 :
					에							다		
2.	天	不	生		無	祿	之	人					하	▶ 해석
	地	不	長		無	名	之	草				다		
3.	人	雖	至	愚		責	人	則	明				하	▶ 해석
	雖	有	聰	明	라도					하			고	
					이	恕	己	則	昏				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태도는 어떤가? 나의 생각은 어떤가? 나의 행위는 어떤가?														

[명구 수업 학습지 예시]



[생각해 볼 문제 · 읽기자료 ppt]

### (3) 단계3 : 생각 나누기 및 실천 방안 모색하기

이 단계는 성취기준에 제시된 ‘내면화’와 ‘인성 함양’의 구현을 위해, 생각을 공유하고 확산하며 심화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마음 깊이 자리 잡는 것’이나 ‘인성 함양’ 모두 지속적인 실천과 고민 그리고 성찰의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것들이므로, 단발적인 토의나 즉흥적 결심의 발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기록된 자기 생각을 나누고 타인의 생각에 비추어보며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곱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의 특성에 따라 나눔이나 토의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학생의 기록에 대해 교사가 개별적인 피드백을 할 수도 있다. 생각 나누기의 대상은 학생 개인-학급 전체, 학생 개인-모둠, 학생 개인-학생 개인, 학생-교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p>내게 있어서 자원은 <u>타인의 도움</u>이다. 나의 삶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되고 싶은 것이 타인의 도움이 나의 삶이다.</p> <p>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p>	<p>나는 평소에 자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나의 모자란 점 때문에 남들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것은 열등감과 자기혐오에 의한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내가 생각하게 되었다. 이 문장을 통해 나 자신이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다.</p>
교사 피드백의 예시	학생의 자기생각 기록 예시

[학생 기록 및 교사 피드백 예시]

### (4) 단계4 : 암송하기

암송하기는 ‘내면화’와 ‘인성 함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암송을 통해 기억된 문장(또는 의미)은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적용과 성찰을 통해 개인의 행동 양식으로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학습자의 인지적 · 정의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암송의 내용과 양을 결정해야 하며, ‘암기’ 자체보다는 ‘깊이 있게 되새겨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4) 평가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계획</li> <li>· 지필평가: 명언 명구의 올바른 의미 파악과 실천 방안에 대해 점검하는 문항 출제</li> <li>· 수행평가: 명언 명구 중 한 문장을 골라 외워 쓰고, 그 문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 쓰기</li> <li>· 정의적 능력 평가: 생각 나누기의 과정에 대한 자기평가 또는 학생 상호 평가 실시</li> </ul>
--

##### (1) 수행평가 예시 문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한문과 -학기 수행평가 문제지</b></p> <p style="text-align: center;">-학년 (    )반 (    )번 이름 : (    )</p> </div> <p>[문제1] &lt;보기&gt; ①~⑤ 중 한 문장을 골라 한문 문장으로 구성하여 쓰시오.]</p> <p>[문제2] 선택한 문장의 <u>결 뜻을</u> 기본으로          ④ <u>문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u> 쓰고,          ⑤ <u>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u> 기술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조건】</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④와 ⑤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li> <li>2. ④의 경우, 문장의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li> <li>3. ⑤의 경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기술할 것</li> </ol>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idth: 50%;">채점</th> <th style="width: 50%;">점</th>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lt;보기&gt;</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①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라 [*점]</p> <p>② 옥은 쪼지 않으면 그릇을 만들 수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점]</p> <p>③ 땅은 이름 없는 풀은 기르지 않는다. [*점]</p> <p>④ 그것을 아는 자는 그것을 좋아하는 자만 같지 못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자는 그것을 즐기는 자만 같지 못하다. [*점]</p> <p>⑤ 태산은 흙을 사양하지 않고 바다는 가는 물줄기를 가리지 않는다. [*점]</p> </div>	채점	점
채점	점		

<p>[문제1] <span style="float: right;">문제번호</span></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100px;">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p>※ 띄어쓰기 없이 앞 칸부터 차례로 답안을 작성하되, 모르는 글자의 칸은 비워두시오</p> <p>[문제2]</p>																			<p>[문제1] <span style="float: right;">문제번호</span></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100px;">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p>※ 띄어쓰기 없이 앞 칸부터 차례로 답안을 작성하되, 모르는 글자의 칸은 비워두시오</p> <p>[문제2]</p>																		

(2) 예시답안

[문제1]	문제번호				
泰	山	不	讓	土	壤
河	海	不	擇	細	流
※ 띄어쓰기 없이 앞 칸부터 차례로 답안을 작성하되, 모르는 글자의 칸은 비워두시오.					

[문제1]	문제번호				
知	之	者	不	如	好
之	者	好	之	者	不
如	樂	之	者		
※ 띄어쓰기 없이 앞 칸부터 차례로 답안을 작성하되, 모르는 글자의 칸은 비워두시오.					

[문제2] 작은 것을 포용하지 않으면 위대한 것을 이룰 수 없다. 작은 흙 알갱이들이 모여 태산을 만들고, 산 속의 작은 시냇물이 모여 거대한 바다가 되듯이, 처음부터 큰 것일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사소하다고 무시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후에 큰 일을 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작은 일, 사소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발판이 되어 큰일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

[문제2] 우리는 흔히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한다고 한다. 그리고 무작정 모든 내용을 공부하려고 스스로를 강요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얻어진 지식은 이 문장에서 설명하는 '지지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얕이 목적이면서 전부인 사람, 그보다는 과정을 즐기고 과정을 통해 행복을 얻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생활 속에서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하며 살아야겠다.
--

(3) 채점기준

① 문제1 [6점]

채점 영역	배점	채점 기준
한자	5	◦ 한자 전체가 정확하게 기재됨.
	4	◦ 전체 한자의 80% 이상이 정확하게 기재됨.
	3	◦ 전체 한자의 80% 미만 ~ 50% 이상이 정확하게 기재됨.
	2	◦ 전체 한자의 50% 미만 ~ 30% 이상이 정확하게 기재됨.
	1	◦ 전체 한자의 30% 미만만 정확하게 기재됨.
문장구성	3	◦ 문장 순서의 오류 없이 완성함.
	2	◦ 문장 순서의 오류가 2곳 이하로 완성함.
	1	◦ 문장 순서의 오류가 3곳 이상임.

② 문제2 [8점]

채점 영역		배점	채점 기준
내용	조	3	◦ 문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기술한 경우
	건	2	◦ 문장을 올바르게 이해하였으나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지 못한 경우
	㉠	1	◦ 문장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며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지 못한 경우
	조	3	◦ 자신의 의견에 근거하여 실천 방안을 타당하게 제시한 경우
	건	2	◦ 의견의 근거와 실천 방안 제시가 합치되지 못한 경우
	㉡	1	◦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표현	2	◦ 논리적 일관성이 있으며 잘 정리된 경우	
	1	◦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표현이 정확하지 못한 경우	



## 2. 영상 매체를 활용한 토의·토론하기

교육과정 영역	핵심 개념	내용요소	성취기준
한문의 이해	한문의 독해	이해와 감상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한문의 활용	한문과 인성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 1) 학습 목표

- 한시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 선인들의 사회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
- 사회구성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 2) 내용

인성교육요소: 존중, 배려, 소통	
代農夫吟 1    李奎報  帶雨鋤禾伏畝中 形容醜黑豈人容 王孫公子休輕侮 富貴豪奢出自儂	憫農    李紳  鋤禾日當午 汗滴禾下土 誰知盤中飧 粒粒皆辛苦

### 3) 교수학습 과정

단계1. 한시의 풀이와 이해 단계2. 영상 시청 후 모둠별 토의 단계3. 생각 나누기 단계4. 자기 생각 쓰기 및 평가하기
---

#### (1) 단계1 : 한시의 풀이와 이해

학습 목표 제시 후 두 편의 한시를 풀이하고 이해한다.

#### (2) 단계2 : 영상 시청 및 모둠별 토의

이 단계는 두 가지 영상 시청 후 모둠별로 해당 주제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는 단계이다. 동영상 시청에서 모둠별 토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교사는 동영상 시청의 목적, 유의사항, 중점 사항 및 토의의 방향과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안내를 효과적으로 병행하여야 한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토의를 위해 학습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습지 기록 내용을 생각 나누기 활동시 발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도록 안내한다. 교사는 모듈별 구성원의 특성에 유의하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 ▷ 동영상 시청 [지식채널 - 쌀]



#### ▶ 음악 영상 시청 [홍순관 - 쌀 한 톨의 무게]

	<p>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있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p>
--	--

#### (3) 단계3 : 생각 나누기

이 단계는 모듈별 토의 내용을 나누며 공유하는 단계이다. 학습자들은 개별 감상이나 결심이 토의와 논의의 단계를 거치며 다듬어지고 구체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모듈별 내용을 전체적으로 나누는 과정을 통해, 경청하는 태도,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은 물론 자신과 무관할 것 같았던 옛글 속에 들어있는 현재적 가치,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한 고민과 지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4) 단계4 : 자기 생각 쓰기 및 평가하기

한문교과에서 이루고자하는 ‘인성교육’은 ‘교훈적 당위성을 가르치는 일’은 아닐 것이다. 고전 속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거울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자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그리하여 자기 생각을 삶에 적용하고 변화하는 것이리라 생각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자기 생각을 기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 4) 평가 방안

- 평가 계획
- 지필평가: 한시의 올바른 풀이 또는 한시 속 선인들의 사회관을 점검하는 문항 출제
- 수행평가: 음악 영상의 주제와 일치도가 가장 높은 시구(詩句)를 고르고 이유 기술하기
- 정의적 능력 평가: 토의·토론 과정에 대한 자기평가 또는 학생 상호 평가 실시

(1) 평가 문항 - 정의적 능력 평가<sup>2)</sup>

정의적 능력의 평가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므로 학생에 대한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수업 활동 전반에 걸친 관찰과 기록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격려해야 한다. 또한, 정의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문항의 개발과 더불어 수업시간의 확보 및 평가 결과의 피드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자기 평가[체크리스트법] : 토의 토론 태도 평가

( )학년 ( )반 ( )번 이름 : ( ) ( )모듬 ( )월 ( )일			
정의적 능력 범주	관찰 항목	평정 척도	계
성실성	나는 모듬에 부과된 공통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1,2,3	
책임성	나는 자신이 수행한 과제의 과정과 결과를 반성해보고, 잘못된 부분을 책임을 가지고 수행한다.	1,2,3	
책임	나는 모듬 과제 등을 수행할 때 내가 맡은 부분을 책임을 가지고 수행한다.	1,2,3	
과제집착력	나는 모듬 과제가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고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재도전하려고 노력한다.	1,2,3	
합계			

② 자기 평가[자유반응형] : 주제에 대한 가치, 태도 평가

( )학년 ( )반 ( )번 이름 : ( ) ( )모듬 ( )월 ( )일	
1. 내가 농부의 삶에 대해 알고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 ]이기(하기) 때문이다.	
2. 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선인들은 사회를 바라볼 때 [ ]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3. 내가 오늘날 사회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를 쓴다면 그 대상은 [ ]일 것이다. 왜냐하면 [ ] 때문이다.	
4. 내가 현재 나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방법은 [ ]이라고 생각한다.	

③ 학생 상호 평가[추인법] : 토의 토론 태도 평가

( )학년 ( )반 ( )번 이름 : ( ) ( )모듬 ( )월 ( )일		
정의적 능력 범주	관찰 항목	학생명
참여	모듬에서 토의를 적극 참여한 사람은?	
책임감	모듬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사람은?	
상호작용	모듬 토의에서 모듬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은?	
가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내면화하여 일상생활에서 가장 잘 실천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은?	

2)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실천중심 장학자료(2016), 84~86면 재구성.

④ 교사 평가[관찰법] : 토의 토론 태도 평가

평가대상 ( )학년 ( )반 ( )번 이름 : ( ) ( )월 ( )일					
정의적 능력 범주	관찰항목	1회	.....	n회	평균
흥미와 호기심	토론(토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2,3	.....	1,2,3	
자신감	자신의 생각을 적절한 근거를 통해 자신 있게 제시한다.	1,2,3	.....	1,2,3	
가치인식	토론(토의)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함을 알고 있다.	1,2,3	.....	1,2,3	
상호작용	상대의 발언을 존중하며, 토론(토의)의 규칙을 준수하여 말하는 태도를 갖는다.	1,2,3	.....	1,2,3	
합계					

(2) 평가 결과 활용

수업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는 여러 번의 평가 결과를 축적하여 학생 발달의 성장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기 평가, 학생상호 평가, 교사 평가 등의 다양하고 다각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특히 정의적 능력 평가는 계량화 또는 등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평정 점수를 부여하기보다 성장 과정을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기록하고 평가의 결과를 담임교사와 공유하여 학생의 이해와 상담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자경문 만들기<sup>3)</sup>

교육과정 영역	핵심 개념	내용요소	성취기준
한문의 이해	한문의 독해	내용과 주제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한문의 활용	한문과 인성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1) 학습 목표

- 율곡 [자경문]의 내용과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
- 율곡 [자경문]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와 원칙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 나만의 [자경문]을 만들어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3) NTPP경기중등한문과교육연구회(2013), 47~50면 재구성.

## 2) 내용

인성교육요소: 성찰, 정직, 책임, 언행, 근검
율곡 [自警文] <sup>4)</sup> 先須大其志。以聖人爲準則 <중략> 心定者言寡。定心。自寡言始 <중략> 常以戒懼謹獨意思。存諸胸中。萬惡。皆從不謹獨生 <하략>

[스스로 경계하는 글]<sup>5)</sup>

- 먼저 뜻을 크게 가져야 한다. 성인을 본보기로 삼아서 조금이라도 성인에 미치지 못하면 끝난 것이 아니다.
- 마음이 안정된 자는 말이 적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말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 어지러운 생각이 넘칠 때마다 정신을 수렴하여 자신을 살피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 혼자 있는 순간에도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니, 모든 악은 혼자 있을 때 나온다.
- 매일, 다음 순간 혹은 다음 날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합당한 처리 방법을 미리 생각한다.      공부는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 이익만을 탐하는 마음과 편한 것만을 좇는 마음을 경계하며 정성을 다한다.
- 해야 하는 일이라면 정성을 다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일절 끊어버려야 한다.
- 불의를 저지르고 사람을 해치는 일이라면, 그것이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일이라도 하지 않는다.
- 누군가 내게 못되게 굴거나 나의 의도대로 변하지 않는다면 나의 진심과 정성을 돌아보아야 한다.
- 밤에 잠잘 때나 질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눕거나 비스듬히 기대지 않는다.
- 공부는 효과를 빨리 얻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늦추지도 서두르지도 말고 평생 꾸준히 하는 것이다.

## 3) 교수학습 과정

- 단계1. 율곡 [자경문] 이해하기
- 단계2. 나만의 [자경문] 만들기
- 단계3. 생각 나누기

4) 『栗谷先生全書』卷之十四 「雜著 一」 [自警文] “先須大其志。以聖人爲準則。一毫不及聖人。則吾事未了。心定者言寡。定心。自寡言始。時然後言。則言不得不簡。久放之心。一朝收之。得力豈可容易。心是活物。定力未成。則搖動難安。若思慮紛擾時。作意厭惡。欲絕之則愈覺紛擾。倏起忽滅。似不由我。假使斷絕。只此斷絕之念。橫在胸中。此亦妄念也。當於紛擾時。收斂精神。輕輕照管。勿與之俱往。用功之久。必有凝定之時。執事專一。此亦定心功夫。常以戒懼謹獨意思。存諸胸中。念念不忘。則一切邪念。自然不起。萬惡。皆從不謹獨生。謹獨然後。可知浴沂詠歸之意味。曉起。思朝之所爲之事。食後。思晝之所爲之事。就寢時。思明日所爲之事。無事則放下。有事則必思。得處置合宜之道。然後讀書。讀書者。求辨是非。施之行事也。若不省事。兀然讀書。則爲無用之學。財利榮利。雖得埽除其念。若處事時。有一毫擇便宜之念。則此亦利心也。尤可省察。凡遇事至。若可爲之事。則盡誠爲之。不可有厭倦之心。不可爲之事。則一切截斷。不可使是非交戰於胸中。常以行一不義。殺一不辜。得天下不爲底意思。存諸胸中。橫逆之來。自反而深省。以感化爲期。一家之人不化。只是誠意未盡。非夜眠及疾病。則不可偃臥。不可跛倚。雖中夜。無睡思則不臥。但不可拘迫。晝有睡思。當喚醒此心。十分猛醒。眼皮若重。起而周步。使之惺惺。用功不緩不急。死而後已。若求速其效。則此亦利心。若不如此。戮辱遺體。便非人子”

5) 율곡 [자경문] 재구성.

(1) 단계1 : 율곡 [자경문] 이해하기

이 단계는 율곡 [자경문]의 원문 일부와 [자경문] 전체 요약문을 텍스트로, [자경문] 속에 담긴 율곡 선생의 삶의 철학과 실천 원칙 그리고 가치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이해·분석하는 단계이다. 교사 중심의 해석과 설명보다는 [자경문] 내용을 학습자 스스로 분석·요약하고, 항목별로 현재적 가치와 비교하기, 가장 인상적인 항목 뽑기, 우선순위 바꾸어 보기 등의 활동을 통해 다각적인 이해를 시도하여 [자경문] 안에 담긴 선인들의 삶을 자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b>[自警文] 제대로 읽기!</b>					
<p>▲ <b>[자경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b>  율곡 선생은 어머니를 여의고 금강산으로 들어갔다가 20세 되던 해 봄 오죽헌으로 돌아와, 인생의 뜻을 세우고 원칙을 정해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 경계하는 글을 지었다. 이 속에는 율곡 인생의 우선 순위와 원칙 그리고 자신의 삶에 냉엄하고 치열했던 선비정신이 담겨있다.</p>					
<p>▲ <b>내 마음대로 [핵심 내용] 찾기!</b></p> <div style="display: fle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text-align: center;">뜻 세우 기!</div> <div style="margin-left: 10px;"> <p>① 먼저 뜻을 크게 가져야 한다. 성인을 본보기로 삼아서 조금이라도 성인에 미치지 못하면 끝난 것이 아니다.</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right: 10px;"></div> <div> <p>② 마음이 안정된 자는 말이 적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말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right: 10px;"></div> <div> <p>③ 어지러운 생각이 넘칠 때마다 정신을 수렴하여 자신을 살피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right: 10px;"></div> <div> <p>④ 혼자 있는 순간에도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니, 모든 악은 혼자 있을 때 나온다.</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right: 10px;"></div> <div> <p>⑤ 매일, 다음 순간 혹은 다음 날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합당한 처리 방법을 미리 생각한다. 공부는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right: 10px;"></div> <div> <p>⑥ 이익만을 탐하는 마음과 편한 것만을 좇는 마음을 경계하며 정성을 다한다.</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right: 10px;"></div> <div> <p>⑦ 해야 하는 일이라면 정성을 다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일절 끊어버려야 한다.</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right: 10px;"></div> <div> <p>⑧ 불의를 저지르고 사람을 해치는 일이라면, 그것이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일이라도 하지 않는다.</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right: 10px;"></div> <div> <p>⑨ 누군가 내게 못되게 굴거나 나의 의도대로 변하지 않는다면 나의 진심과 정성이 부족한 것이니 나부터 돌아보아야 한다.</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right: 10px;"></div> <div> <p>⑩ 밤에 잠잘 때나 질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눕거나 비스듬히 기대지 않는다.</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right: 10px;"></div> <div> <p>⑪ 공부는 효과를 빨리 얻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늦추지도 서두르지도 말고 평생 꾸준히 하는 것이다.</p> </div> </div>					
<p>▲ <b>Best 항목 뽑기!</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padding: 5px;">최고 항목</td> <td style="height: 30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선정 이유</td> <td style="height: 40px;"></td> </tr> </table>		최고 항목		선정 이유	
최고 항목					
선정 이유					

▲ 순서 바꾸어 보기!

바꾼 순서	
이유	

▲ 나는 [자경문]을 통해 울곡 선생이 이런 분이라고 느꼈다!!!

울곡은 이런 분!	
이유	

(2) 단계2 : 나만의 [자경문] 만들기

나만의 [自 警 文] 만들기!

▲ 내게도 꼭 필요해!!! 다섯 가지!!!

※ 울곡 [자경문] 중에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다섯 가지 항목을 뽑아주세요~

1	
2	
3	
4	
5	

▲ 나만의 [자경문]을 만들어 봅시다!

예시)	1	한 줄 요약하기	졸지 말자, 눕지 말자, 자지 말자!
		내용 쓰기	밤에 잘 때나 아플 때가 아니면 눕거나 15분 이상 엎드리지 않는다.

1	
2	
3	
4	
5	

### (3) 단계3 : 생각 나누기

이 단계는 학습자들이 ‘자신만의 [자경문]’을 발표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결심을 선언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단계이다.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자신만의 [자경문]’을 적당한 크기의 종이에 옮겨 적고 코팅하여 휴대용으로 만드는 활동까지 할 수 있다.

### 4) 평가 방안

- 평가 계획
- 지필평가: 월곡 [자경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점검하는 문항 출제
- 수행평가: 한 학기 동안 「성찰일지」 기록 태도와 성장 과정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평가
- 정의적 능력 평가: 「자경문」 만들기 및 생각 나누기 과정에 대한 자기평가 또는 학생 상호 평가 실시

#### (1) 평가 방법: 「성찰일지」 쓰기를 활용한 수행평가

공부가 삶으로 이어지는 생활을 위한 점검표 - 성찰일지					
[ ]월의 성찰 나만의 [자경문] 실천하기		1. 밤에 잘 때나 아플 때가 아니면 늘거나 15분 이상 엎드리지 않는다. 2. 마음의 빈곤이 드러난다, 입을 다물자! 3. 기상 후 15분 하루 할 일 생각하고, 잠들기 전 15분 내일 할 일 생각한다. 4. 하지 말아야 할 일 앞에서 갈등하지 말라. 당장 덕질을 끊어라! 5. 잘 되면 남 덕 잘못 되면 내 탓, 남 탓하지 말자!			
주	금주 실천 항목	실천 내용	금주를 돌아보며!		
1주			칭찬		○
			반성		△ x
2주			칭찬		○
			반성		△ x
3주			칭찬		○
			반성		△ x
4주			칭찬		○
			반성		△ x
5주			칭찬		○
			반성		△ x
今月 總評					

#### (2) 평가 척도안

##### ① 평가 영역 및 비율

평가 종류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 비율	60%				40%		
횟수/영역	1차		2차		한문의 독해 한문과 문화	한자 어휘와 언어 생활	한문과 인성
	선택형	서술형	선택형	서술형 논술형	논술형	서술형	체크리스트
만점 (반영 비율)	80점 (24%)	20점 (6%)	80점 (24%)	20점 (6%)	15점 (15%)	15점 (15%)	10점 (10%)
	100점 (30%)		100점 (30%)				
서·논술형 평가 반영비율	6%		6%		15%	15%	.
평가 시기	4월 5주		7월 1주		5월 2주	6월 2주	학기중



② 수행평가 세부 기준안 (한문과 인성 - 성찰일지 쓰기 부분만)

평가 영역	성취 기준	등급	평가척도		배점
한 문 과 인 성 (10점)	한 문 기록에 담지 긴 선인들의 사상을 이해하고 현재가 적 의미에서 있을 치가 있는 것을 건 내 면화하여 건과 전한 가치관과 인 성바람직한 인성 을 함양한다.	평 가 기 준	㉞ 성실성 [기록 횟수]	성찰일지 90%이상 기록	5
				성찰일지 70%이상 ~ 90%미만 기록	4
				성찰일지 50%이상 ~ 70%미만 기록	3
				성찰일지 20%이상 ~ 50%미만 기록	2
				성찰일지 20%미만 기록	1
			㉟ 실천 내용 [성장 변화]	성찰일지의 취지를 이해하고 충실하게 기록한 경우	1
				실천내용을 정확하고 진정성 있게 기록한 경우	1
				칭찬과 반성을 정확하게 체크한 경우	1
				생활을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표현된 경우	1
				변화와 성장의 과정이 드러난 경우	1
		점수 부여 방법	㉞ 항목은 5단계 중 해당되는 단계 택 1 ㉟ 항목은 해당 되는 항목의 점수 합산		
		배 점	㉞ 항목의 점수 + ㉟ 항목의 점수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2 ~ 10
			A		10
			B		9
			C		8
			D		7
			E		6
			F		5
			G		4
			H		3
			I		2

(3) 유의사항

점수를 부여해야 하는 수행 평가의 특성상 기록한 결과물이 중심 평가 대상이 되겠으나, 기록의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절하게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과정 중심 평가, 성장 중심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4. ‘성찰일지 쓰기’의 활용

1) 성찰일지 쓰기 안내 수업 :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 「성찰일지」

누가 논어를 제대로 읽은 사람인가?

讀聖賢書 爲其進德修行 增益其所不足也 如讀論語一部 一則 盡誦如己言 而遇事不曾思到 卷中 考其所爲 一反其所讀 一則不能誦其一二章 有念懷 輒猛省曰 論語中有一句 語不能詳記 其語 而想是忿而任情 後必有難等說 遂忍而平之 臨不意之貨 又猛省曰 論語中有一句 語不能 詳記其語 而想是臨財 須較量其合義與否之意 遂却而不敢 這兩人究竟誰是會讀<sup>6)</sup> 洪吉周 『睡 餘放筆』

## 2) 명언·명구 수업에 활용하기

공부가 삶으로 이어지는 생활을 위한 점검표 - 성찰일지					
今週の名言		① 己所不欲 勿施於人 ②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 ③ 泰山不讓土壤 河海不擇細流			
날짜	오늘 실천한 명언	오늘의 실천 내용	오늘을 돌아보며!		
요일 (月)			정찰		◎ △ ×
요일 (火)			정찰		◎ △ ×
요일 (水)			정찰		◎ △ ×
요일 (木)			정찰		◎ △ ×
요일 (金)			정찰		◎ △ ×
今週 總評					

수업을 통해 배운 ‘명언·명구’ 중 스스로 생활에 적용하고 싶은 문장을 골라 성찰일지의 실천 내용 기록하고 매일의 실천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한 문장만 적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문장을 실천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또 ‘매일’이라는 점검 주기를 바꿀 수도 있다. 다만 ‘일지(日誌)’가 ‘매일의 기록’이라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성찰일지’의 장점을 취하되, 상황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목을 ‘성찰 기록장’ 정도로 바꾸고, 주제의 특성이나 성격에 따라 기록의 주기, 실천 항목의 양, 내용의 난이도 등을 유연하게 조절하여 활용할 수 있다.

## 5.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동안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들이 발표되었다. 여기에서는 그 연구들 중 비교적 명확하게 교수·학습 방법이 제시된 것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통해 현장의 교사들이 아이디어를 얻고, 보다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개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 창의·인성교육방법이 함께 제시된 경우, 창의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은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 6) 정민 외(2006), 50-51면 457-458면.

“성현의 글을 읽는 것은 덕을 진보시키고 행실을 닦아 부족한 부분을 더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논어』를 읽는다고 하자. 한 사람은 제 말처럼 줄줄 외워도 막상 어떤 일이 닥치면 생각이 책 속에 미치지 못하고 한 행동을 보면 한결같이 읽은 것과 반대로 한다. 한 사람은 한 두 장도 못 외우지만 화나는 일이 있으면 문득 매섭게 반성하여 『논어』 속에 한 구절이 있긴 한데 내가 그 말이 잘 기억나진 않는다. 생각건대 분하다 하여 제멋대로 행동하면 뒤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같다’고 하며 마침내 참아 분을 가라앉힌다. 생각지 않은 재물을 보면 또 깊이 반성하여 『논어』 속에 한 구절이 있긴 한데 내가 그 말이 잘 기억나진 않는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재물에 임하거든 의리에 합당한지를 꼭 따져보라는 뜻인 듯하다’고 하며 마침내 물리치고 감히 행하지 않았다. 이 두 사람 중 결국은 어떤 사람이 온전히 이해한 사람인가?”

#### 1) 이야기 수업모형을 활용한 인성수업<sup>7)</sup>

연번	인성교육요소	학습 제재	교수학습 방법 및 활동
1	효	효행에 관한 명언·명구 효행 일화 원문 - 閔損單衣	<이야기 수업모형> 도덕적 문제상황 및 사례 제시 → 도덕적 주제 확인 → 느낀점 이야기하기 → 자신의 경험 발 표하기 → 도덕적 이야기 만들기

#### 2) 고전을 활용한 인성 글쓰기<sup>8)</sup>

연번	인성교육요소	학습 제재	교수학습 방법 및 활동
1	自我,孝	참된 자아: 伯俞之孝, 曾子之孝, 小學 문장	<인성 글쓰기> 고전의 문장을 현재적 관점 에서 自省의으로 읽고 요약 하기 텍스트를 기초로 자신의 미 래행동의 변화를 예상하고 글쓰기
	篤,勤,知,行	학문의 자세: 김득신 동영상, 論語 문장	
	義	학문의 이유: 讀書, 季札之劍, 論語 문장	
	誠	사회와 나: 趙光一, 金萬德, 張保皋	
	實踐	실천하는 나: 明心寶鑑 문장	
	自省	설문	

#### 3) 중등교육에서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한문교육<sup>9)</sup>

연번	인성교육요소	학습 제재	교수학습 방법 및 활동
1	효	논어: 猛毅子問孝, 孟武伯問孝, 子游問孝, 子夏問孝	역할극을 활용한 수업
2	인간존중	논어: 廢焚子退	토론을 활용한 수업
3	정치의 의미·가치	논어: 民可使由之	

#### 4) 집중이수제 기반의 창의·인성 한문 수업 사례<sup>10)</sup>

연번	인성교육요소	학습 제재	교수학습 방법 및 활동
1	우정,경청,배려,예절	우정 단원	한자를 활용한 우정 포스터 만들기
2	배려	독서 단원	책제목 한자로 바꾸기
3	자율성, 배려	자전찾기 단원	신문 사설에서 한자 찾기

7) 김설화(2010), 62면.

8) 김은정(2012), 7면.

9) 강민구(2013), 74-79면.

10) 오예승(2013), 222-234면.

#### 5) 고전을 넘어 새로운 나를 찾는 창의·인성 자료집<sup>11)</sup>

연번	인성교육요소	학습 제재	교수학습 방법 및 활동
1	배려	최부자 집 일화	기부 마인드맵 그리기, 광고문구 작성하기
2	예의	啐啄同時	토의·토론하기
3	책임	孟母斷機 일화	육색사고모 기법
4	우애	小學, 擊蒙要訣 문장	역할놀이
5	배려	우정관련 성어, 名句, 일화	편지쓰기, 우정명언찾기
6	성찰	을곡 자경문	나만의 자경문 만들기
7	존중, 경청	경청관련 名句	포스터 그리기
8	노력, 성찰	大學 문장	사진보고 말하기
9	희생, 정의	안중근	UCC 만들기
10	책임	한유 雜說	피라미드 토론

#### 6) 인성교육 요소 관련 학습 제재와 교수학습방법 및 활동<sup>12)</sup>

연번	인성교육요소	학습 제재	교수학습 방법 및 활동
1	관용/겸손	관용 및 겸손에 관한 속담·격언	<개별학습> 속담·격언 주제를 표현하는 4컷 만화, 한 컷의 삽화, 포스터 그리기
2	배려	관포지교 고사 원문	<토의·토론학습> 관중과 포숙아 중에 누가 현대에 맞는 인물인지 새 로운 인물형 탐색 및 마인드맵으로 표현하기
3	예(禮)	『논어』 己所不欲 勿施於人 관련 문장 『맹자』 君子三樂 문장	<프로젝트 학습> 논어와 맹자 이야기를 동화로 꾸며 보면서 어린 아 이들에게 전달할 교육동화 쓰기

## IV. 제언

지금까지 2015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한문과 인성’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한문교과 내에서 ‘인성교육’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한문교육과 ‘인성교육’을 연결시키는 일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인식되었으며, ‘한문교육’이 곧 ‘인성교육’이라는 비약된 주장도 없지 않았다. 아마도 그러한 논리의 이면에는 한문교과가 다루고 있는 제재가 인성적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강민구는 ‘한문교과가 가진 인성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언급하면서, 보편적으로 표현되는 ‘인성교육’과 한문교육에서의 그것이 일치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sup>13)</sup>고 하였으며, 김왕규는 ‘창의와 인성이 무엇이며, 과연 가르치고 기를 수 있는 것인지 화두를 던지며,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들을 성찰하고 싶다’<sup>14)</sup>고 하였다. 또 류준경은 ‘한문과 인성’의 구체적인 교육 방향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교훈적인 말의 나열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sup>15)</sup>을 언급한 바 있다.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11) NTTP경기중등한문과교육연구회(2013), 7-86면.

12) 백광호(2015), 422면.

13) 강민구(2013), 51~56면.

14) 김왕규(2013), 88면.

15) 류준경(2015), 20면.

텍스트 중심의 한문교과 인성교육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연구자는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성교육의 구체적 방향을 정해야 한다. 인성교육 개념의 규정과 인성 덕목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교육부단위에서 발표한 개념<sup>16)</sup> 및 인성 덕목<sup>17)</sup>을 따를지 한문교과만의 덕목을 새롭게 조정해야 할지, 새롭게 만든다면 범주화 기준을 어디에 둘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자들의 한문교과 인성 덕목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	범주화 기준	인성 덕목
차석란 <sup>18)</sup> (2004)	관점 중심	효도관, 교우관, 면학관, 국가관, 예절관
정태영 <sup>19)</sup> (2005)	관계망 중심	-개인수양: 학문과, 자아실현의 방법과 양상 -인간관계: 가족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사제 및 교우간의 공경과 신의 -사회생활: 공동체 의식, 민족의식 및 국가관 -인간과 자연의 조화: 생명존중, 과학적 사고
최선정 <sup>20)</sup> (2006)	관점 중심 세부덕목	-개인생활관: 삶의 설계, 생명존중, 성실, 정직, 자주, 절제, 개성신장, 가치갈등 -가정이웃생활관: 경애, 효도, 협동, 애향, 가족, 예절 -학교생활관: 애교, 학교예절, 교우, 체험, 면학, 과학, 적성, 진로탐색 -사회생활관: 전통도덕, 타인배려, 준법, 정의, 경제윤리, 시민윤리, 환경문제 -국가민족생활관: 애국애족, 안보의식, 민족공동체, 민족문화창달, 평화통일, 국가발전
최명희 <sup>21)</sup> (2008)	세부덕목	성실, 존경, 관용, 우정, 애국심, 조화, 지혜
김설화 <sup>22)</sup> (2010)	관계망 중심 세부덕목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아실현, 자아실현을 이루는 방법, 올바른 가치관 -자기 타인과의 관계: 효(부모 자식), 사제(스승과 제자), 우애(친구), 경애(가족 이웃) -자기 공동체의 관계: 공동체 의식, 국가와 민족
김인숙 <sup>23)</sup> (2011)	세부덕목	배려, 책임, 약속, 소유, 공정, 정직
고려진 <sup>24)</sup> (2012)	세부덕목	정직, 약속, 용서, 배려, 책임, 소유 도덕적 예민성, 도덕적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행동실천력
김은정 <sup>25)</sup> (2012)	세부덕목	자아성찰, 효, 희망, 신의, 정직, 배려, 성실, 봉사, 책임, 앓과 실천, 애국 애족
강민구 <sup>26)</sup> (2013)	세부덕목	민주시민의식: 조화, 성실(책임감), 의리, 절개(정의감) 타인존중의식: 존경, 예, 孝慈, 友愛, 友情, 배려, 관용, 신의, 정직 자아존중의식: 자신감, 自尊, 修身, 성찰, 학문(노력), 연행, 근검

#### 16) 교육부 인성교육의 정의

구분	인성 교육의 정의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안)(2013)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주는 성품, 기질, 개성, 인격 등을 올바르게 길러 친 사회적인 덕목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
인성교육진흥법(2015)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 17) 교육부 선정 인성교육 덕목

구분	인성 교육의 덕목
창의·인성 교육 기본방안(2009)	- 창의성을 촉진하는 인간관계 중심의 덕목 정직, 약속, 용서, 배려, 책임, 소유 - 창의적인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인성적 판단능력 도덕적 예민성, 도덕적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행동실천력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2013)	- 인성교육의 핵심 덕목 (나) 정직, 책임 (우리) 존중, 배려, 공감 (사회) 소통, 협동
인성교육법(2015)	- 핵심 가치 덕목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 핵심 역량 핵심 가치 덕목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 의사소통능력, 갈등해결능력

한문교과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새로운 덕목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한문교과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것 이어야 할 것이다. 고전을 통해 선인들의 삶의 태도와 세계관을 배우는 교과임을 고려하여 관점 중심의 분류도 가능하다. 자아관, 학문관, 인간관, 자연관 등. 그러나 이런 경우 관점들 간의 교집합이 크다는 한계를 가진다. 세부 덕목 제시의 경우는 모든 덕목을 제시할 수 없으며, 주어진 덕목이 불변의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한 회의를 피할 수 없다. ‘효’라는 덕목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는 확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덕목이다. 부모에 대한 사랑이라는 핵심 정신에는 동의하면서도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은 다르다. 누구에게 효의 실천인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불효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도덕 교과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덕목 제시 방식대신 화두형 내용 제시 방식을 도입<sup>27)</sup>하였다.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기반으로 물음을 갖는 교육,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교육을 지향하는 한문교육다운 인성교육의 개념과 준거가 필요하다.

둘째, 인성교육을 구현할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규범적이고 교훈적인 텍스트로 가득한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성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백광호가 제시한 ‘전통 놀이를 활용한 인성교육방법’은 이러한 측면에 중요한 대안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교훈적 텍스트를 통한 ‘인성교육’에서 나아가 한문 원전을 통해 ‘전통 놀이’를 학습하고 실제 활동을 하며 배려, 소통, 협동 등의 인성교육 요소를 체험함으로써 인성교육의 실천이 가능하다<sup>28)</sup>고 제안하였는데,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공간만 확보된다면 놀이와 공부가 어우러진 재미있는 인성교육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선인들의 생활문화 속에서 다양한 텍스트를 찾아, 학습자가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활동 중심 수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의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문과 인성’은 개념적 원리나 지식보다는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실천하려는 태도를 기르며, 그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변화와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제 추상적인 성취기준을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한문교과에서의 인성교육은, 교훈적 규범을 주입하기보다 개인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전의 거울에 끊임없이 자신을 투영하게 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텍스트가 인성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여 어떻게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지속적인 도전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이, 마땅히 해야 할, 의미 있는, 어쩌면 교과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 공감하면서도, 현장 교사로서 부담감을 떨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부디 이 영역에 대해 실천 가능한 세부 연구들이 이어지고, 다양한 텍스트의 교과서와 실질적 도움을 주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그리고

18) 차석란(2004).

19) 정태영(2005).

20) 최선정(2006).

21) 최명희(2008).

22) 김설화(2010).

23) 김인숙(2011).

24) 고려진(2012).

25) 김은정(2012).

26) 강민구(2013).

27)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참된 우정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내용제시 방식

28) 백광호(2015), 420면.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교구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적은 단위수, 입시 중심의 교육구조 속에서 느끼는 소외감, 거기에 인성교육에 대한 책임감까지 안고 고군분투하는 한문교사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기를, 나아가 한문교과가 명실상부한 ‘실천력 있는 인성교육’ 교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李珪, 『栗谷先生全書』 한국문집총간 44-45, 민족문화추진회.  
 정민 외 옮김(2006), 『19세기 조선지식인의 생각창고』, 돌베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실천중심 장학자료(2016), 『2016 중등학교 교육과정』  
 NTTP경기중등한문과교육연구회(2013), 『고전을 넘어 새로운 나를 찾는 창·인성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부(2013), 「배려와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성교육 강화 기본 계획(안)」  
 교육부(2015),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

##### [학술논문]

- 강민구(2013), 「중등교육에서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한문교육」, 한문교육연구, Vol.40.  
 고려진(2012), 「인성교육을 위한 한문-도덕 연계수업 지도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석사논문.  
 김병철(2013), 「한문과 창의·인성 교수·학습 방법」, 한문교육연구, Vol.40.  
 김설화(2010), 「21세기 한문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방안 연구-제7차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석사논문.  
 김왕규(2013), 「한문과 창의·인성 학습 내용선정 및 조직」, 한문교육연구, Vol.40.  
 김은정(2012), 「한문고전을 활용한 인성교육-한문수업 인성 글쓰기, 요선도학생 인성 글쓰기 중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김인숙(2011), 「창의·인성 교육을 적용한 한문과 수업방안」,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 전공 석사논문.  
 류준경(2015),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의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백광호(2013), 「한문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가능성과 방향 -2009 개정3 : 중학교한문과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Vol.47.  
 백광호(2015), 「한문과에서의 행복교육 실천 방안」, 교사교육연구, Vol.54.  
 오예승(2013), 「집중이수제 기반의 창의·인성 한문 수업 사례」, 한자한문교육, Vol.32.  
 임동현(2010), 「한문과 정의적 특성 평가의 성과와 과제」, 한자한문교육, Vol.25.  
 정태영(2005),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나타난 가치관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석사논문.  
 차석란(2004), 「한문교과의 가치관 형성 수업방안 연구-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석사논문.  
 최명희(2008), 「한문교과에서의 인성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중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석사논문.  
 최선정(2006), 「제7차 중학교 2학년 한문 교과서에 나타난 도덕적 가치관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석사논문.





# ‘한문의 활용-한문과 문화’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 분석

정효영(서울 등촌중학교)<sup>1)</sup>

## 目次

- I. 서론
- II. ‘한문과 문화’ 영역 교수·학습 및 평가 분석
- III. 결론

## I. 서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이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문과 문화’ 영역의 성취 기준은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려는 태도를 형성한다.’이다. ‘한문과 문화’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은 이러한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되어야 한다. 2007,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문화’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2007 개정) 4.-나-(1)-(다) 한문 영역의 ‘문화’는 토론 학습, 비교 학습법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및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sup>2)</sup>

(2009 개정) 5.-나-(1)-(다) 문화 영역의 ‘한자 문화’는 토론 학습법, 비교 학습법, 웹기반 중심 학습법, 문제 중심 학습법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여,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및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sup>3)</sup>

(2015 개정) 3.-나-(5)-(나)-①

·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학습할 때에는 토의·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 전통문화 그림으로 표현하기, 문화유산 답사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학습할 때에는 토의·토론을 통한 한자문화권 이해하기, 한자문화권 언어·문화 사전 만들기, 한자문화권의 상호 교류 사례 찾아보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sup>4)</sup>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진술은 이전 교육과정에 비하여 구체적이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활동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② 유의 사항’을 통하여 교수·학습 방법과 유의 사항, 기대 효과까지 진술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각 교수·학습 방법마다

1) peter79@sen.go.kr

2) 교육인적자원부(2007), 16면.

3) 교육과학기술부(2012), 16면.

4) 교육부(2015), 17면.

‘~하도록 한다., ~해보도록 한다.’라는 교수·학습 방법이 제시되고, ‘~배려한다., ~중점을 둔다., ~바람직하다., ~제공하도록 한다., ~유의한다.’ 등의 유의 사항이 제시되고 있으며,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기대효과가 진술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문의 활용-한문과 문화’ 영역의 교수·학습과 평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한문과 문화’ 영역 교수·학습 및 평가 분석

2015 한문과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방법은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과 관련하여 토의·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 전통문화 그림으로 표현하기, 문화유산 답사하기가 제시되었고,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와 관련하여 토의·토론을 통한 한자문화권 이해하기, 한자문화권 언어·문화 사전 만들기, 한자문화권의 상호 교류 사례 찾아보기가 제시되었다.

### 1. 토의·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sup>5)</sup>

‘전통문화가 갖는 현재적 의미, 창조적 계승·발전 방안’ 등의 주제에 대하여 모둠별로 토의·토론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주제를 제시하되 토의·토론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sup>6)</sup>

‘토의’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함께 검토하고 협의함.’이고, ‘토론’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함.’이다. 토의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라면, 토론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토론 수업은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에 대한 논리를 보강하며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된다. 토의·토론 수업은 주제에 따라 토의 수업과 토론 수업으로 구분되지만 수업 상황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수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 살펴보고자 한다.

토의·토론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

#### ① 토의·토론을 위한 주제 제시

토의의 주제는 ‘전통문화가 갖는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가,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전통문화란 무엇인가, 전통문화는 왜 한자로 기록되었을까’, 토론의 주제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켜야 하는가, 전통문화는 소중하게 생각하여야 하는가’ 등 다양한 주제가 제시될 수 있겠다. 토의·토론 주제는 교사가 제시할 수도 있겠으나,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찾아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160~161면을 참조하여 재구성.

6) 교육부(2015), 17면.

## ② 주제 설명 및 사전 자료 수집 방법 제시

토의·토론 주제에 대하여 설명한다. 교사의 설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토의·토론이 교사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쟁점을 제시한다.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제를 제시하고, 수집할 자료와 수집 방법을 알려주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의·토론이 진행될 경우, 토의·토론이 산만해지고 의도하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

## ③ 모둠 구성

학급의 인원수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모둠을 구성한다. 남녀 합반인 경우, 남녀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여 모둠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회자와 기록자를 비롯하여 토의·토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둠을 구성한다. 성적을 고려하여 모둠을 구성할 수도 있으나, 실제 토의·토론 수업을 진행해보면, 성적과 무관하게 토의·토론 수업을 활발하게 이끄는 학생이 있다. 따라서 모둠 구성은 교사의 노하우가 필요하겠다. 학생들의 수준, 흥미, 관심 등을 고려하여 모둠을 구성하며, 사회자와 기록자를 포함하여 6~8명 정도로 한 모둠을 구성하면 적절하겠다. 모둠이 구성되면, 모둠 안에서 사회자와 기록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토의·토론 규칙을 정한다. 토의·토론 규칙에는 발언 순서나 발언 시간 등을 정하여 토의·토론이 산만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덧붙여서 모둠별로 조이름을 정하도록 할 수도 있겠다. 조이름을 정할 때는 한문과 관련지어 조이름을 짓게 한다면 학생들의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협組’나 ‘상부상組’, ‘문장의구組’ 등이다.

## ④ 모둠별 토의·토론을 위한 사전 자료 수집

②에서 제시한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하여 모둠별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다. 이는 모둠별로 활동하여도 되고, 상황이 가능하다면 개인별로 사전에 자료를 수집해오도록 할 수도 있다. 교내의 도서관이나 학생들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전 자료가 없이 토의·토론이 진행되면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자료 수집은 토의·토론 수업의 중요한 과정이다.

## ⑤ 모둠별 토의·토론 및 내용 정리

모둠별로 토의·토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자와 기록자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기록자는 주어진 활동지에 꼼꼼하게 기록하도록 한다. 토의·토론 활동을 위한 활동지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지는 상황에 따라 교사가 새롭게 만들거나 적절하게 변형하여 사용하면 된다.

토의·토론 활동지		
조이름 : OO조	학번 : OOOO	성명 : OOO
주제 : 전통문화가 갖는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가		
사전 조사 : 현재까지 전승되는 전통문화를 조사한다.		
<토의·토론 내용> A : B : C : ...(이하 생략)		
결론 : 선조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문화를 소중히 지킴으로써 민족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으며, 이러한 전통문화를 후대에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른 모둠 의견 :		

<표 1> 토의·토론 교수·학습 활동지(예시)

#### ⑤ 모둠별 발표 및 의견 교환

모둠별로 토의·토론이 종료되면, 각 모듬의 의견을 발표하고 경청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는 다른 모듬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와 자신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듬별로 정리한 의견은 발표자를 선정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다른 모듬은 활동지에 발표하는 모듬의 의견을 요약하여 기록하도록 하여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듬의 의견에 질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모듬 내에서의 토론이 모듬별 토론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토의·토론 수업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주제를 제시하거나 학생들이 스스로 찾도록 하여, 토의·토론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사회자는 모듬원들에게 적절한 발언 시간을 배정하여 모듬원들이 골고루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모듬별로 토의·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책상을 적절하게 배열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주제를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지도하여 토의·토론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한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토의·토론은 바람직하나 너무 소란스러워 다른 모듬에게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다른 모듬의 발표를 경청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며, 모듬별로 상호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토의·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에 대한 평가는 선택형 평가보다는 수행평가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토의·토론의 주제를 교사가 일괄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으나, 학급별로 다르게 제시할 수도 있고, 토의·토론 내용이 모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정기고사에서 선택형 평가나 서술형 평가로 출제하기 보다는 수행평가를 통하여 토의·토론의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듬별 평가와 개인별 평가를 병행하여 무임승차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참여도와 결과물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정기고사에 출제할 경우, 전통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하여 선택형 평가로 출제할 수 있으며 서·논술형 평가로 출제할 경우,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참고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한다.

## 2. 전통문화 그림으로 표현하기

명절·세시 풍속 등 전통문화와 관련한 글을 올바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습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도록 한다. 전통문화를 실제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친숙하게 여기게 하고 애정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sup>7)</sup>

명절, 세시 풍속 등 전통문화와 관련한 글을 읽고, 그 내용을 학생들이 실제 해본다면 효과적이 교수·학습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여러 제약으로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것도 효과적인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추상적으로 머물기 쉬운 전통문화를 실재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학습한 전통문화를 그림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① 전통문화 관련 내용 학습

명절이나 절기 등에 행해지는 민속놀이나 풍습을 학습한다. 민속놀이나 풍습 등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의미를 이해한다.

### ② 그림으로 표현하기

학습한 전통문화의 민속놀이나 풍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붓펜 등을 활용하여 수묵화로 표현할 수도 있고, 색연필 등을 활용하여 채색화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순히 그림으로만 표현하고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작품에 민속놀이나 풍습에 대한 설명을 쓰도록 한다. 유래라든지 명절, 절기에 그러한 활동을 하는 이유 등을 조사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또한, 명절이나 절기에 행해지던 민속놀이나 풍습을 개인의 경험과 관련지어 이야기하도록 함으로써 창의력과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b>전통문화 그림으로 표현하기</b>	
학번 : 0000	성명 : 000
전통문화 그림으로 표현	
이러한 풍습이 행해진 이유:	
나의 이야기:	

<표 2> 전통문화 그림으로 표현하기 활동지(예시)

7) 교육부(2015), 18면.

### ③ 전시 및 발표

학급 내에서 전시회를 통하여 서로의 작품을 비교하고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전시회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발표가 끝난 후, 학생들이 우수 작품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상호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수업은 전통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여 그림으로 표현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평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림을 그리는 능력보다는 전통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했는지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3. 문화유산 답사하기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답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문화유산 답사를 통하여 활동지를 작성하고, 답사 후 활동으로 동영상이나 프레젠테이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탐구하는 활동을 통하여 전통문화의 심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계승·발전을 위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sup>8)</sup>

각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다. 학생들이 실제로 이러한 문화유산에 대한 답사를 실시하여 한문 과목이 현재에도 의미 있음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유산을 답사 또는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지역 문화유산 조사

교사는 사전에 지역의 문화유산(문화재, 유적지, 지명의 유래 등)을 조사하여 몇 가지 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학생들이 주제를 선정할 때는 학생 희망이나 제비뽑기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 모둠을 구성한다.

### ② 답사 계획서 작성

실제 답사를 실시하기 이전 답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답사가 되도록 한다.

답사 계획서에는 한문교과 관련, 답사일, 답사 장소, 답사 목적, 답사 방법, 답사 내용, 유의사항, 준비사항 등을 포함한다. 한문교과와 관련하여 답사와 관련 있는 한문 교과서의 쪽수를 작성하게 하여 한문 수업이라는 점을 주지시킨다. 답사 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교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교사는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한다.

---

8) 교육부(2015), 18면.

<b>답사 계획서</b>		조이름: OO조
		조원: 000, 000, 000, 000
한문 교과 관련	VIII. 우리의 역사를 알다 23. 나라를 위한 값진 희생 <sup>9)</sup> 余爲大韓獨立而死, 爲東洋平和而死, 死何恨焉? 遂改着韓服, 從容就刑, 年三十有二. (182쪽~187쪽)	
답사일	2016년 1월 23일(토)	
답사 장소	서대문 형무소	
답사 목적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애국심을 알기 위한 유적지 답사	
답사 방법	예) 관찰, 면담, 사진 찍기, 동영상 촬영 등	
답사 내용		
유의사항	예) 질서 지키기 등	
준비사항	답사 前	‘서대문 형무소 미루나무의 비밀’ - 서울 이야기 21선 中 (인터넷 자료, 도서관 자료 찾기 등)
	답사 당일	교통카드, 휴대폰, 필기도구 등

<표 3> 답사 계획서(예시)

### ③ 답사 자료 수집

답사 자료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는 실제 답사를 실시할 때 소중한 자료가 된다. 사전에 수집한 답사 자료는 답사 계획서에 꼼꼼히 기록하여 효율적인 답사가 되도록 한다. 경험상 대부분의 학생이 인터넷의 검색 사이트를 활용하여 자료를 찾겠지만, 학교 도서관이나 공공 도서관을 활용하여 서적 등의 깊이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④ 답사 실시

학생들은 모둠원들과 답사를 진행한다. 학교의 여건이 허락된다면 평일에 학생들을 인솔하여 진행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주말을 이용하여 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사는 모둠별 답사 현장을 돌아가며 지도한다.

### ⑤ 답사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답사를 실시한 후, 답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답사한 자료를 남긴다. 학생들은 답사 계획서에 기초하여 답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답사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한다. 답사를 통해 알게 된 점, 답사 후 느낀 점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의미 있는 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답사 현장에서 확보한 답사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발표하도록 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답사 보고서		조이름: OO조	
		조원: 000, 000, 000, 000	
한문 교과 관련	Ⅶ. 우리의 역사를 알다 23. 나라를 위한 값진 희생 <sup>9)</sup> 余爲大韓獨立而死, 爲東洋平和而死, 死何恨焉? 遂改着韓服, 從容就刑, 年三十有二. (182쪽~187쪽)		
답사일	2016년 1월 23일(토)	답사 장소	
답사 목적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애국심을 알기 위한 역사 여행		
답사 경로			
사전 조사			
답사 내용			
답사를 통해 알게 된 점			
느낀 점			

<표 4> 답사 보고서(예시)

문화유산 답사하기에 대한 평가는 답사 계획서, 답사 보고서, 발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평가는 한문 교과 관련 답사 여부, 답사 계획서, 답사 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했는지 여부, 효과적인 발표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자기 평가나 상호 평가를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 4. 토의·토론을 통한 한자문화권 이해하기<sup>10)</sup>

‘한자문화권의 개념과 범위, 공통적 특징과 차이점, 상호 이해와 교류 방안’ 등의 주제에 대하여 모둠별로 토의·토론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주제를 제시하되 토의·토론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한다.<sup>11)</sup>

토의·토론을 통한 한자문화권 이해하기 교수·학습은 ‘1. 토의·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와 유사하게 진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토의·토론을 위한 주제 제시

‘한자문화권의 개념과 범위, 공통적 특징과 차이점, 상호 이해와 교류 방안’ 등과 관련한 주제를 제시한다. ‘한자는 한국·중국·일본의 언어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영향을 끼친 이유를 말해 봅시다.’

9) 이동재 외(2013), 182면.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160~161면을 참조하여 재구성.

11) 교육부(2015), 18면.



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다만,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쉽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주제 설명 및 사전 자료 수집 방법 제시

주제를 설명하고 토의·토론의 쟁점을 제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만해지지 않고 효율적인 토의·토론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 한·중·일 세 나라의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거나, 성명, 주소, 국가명, 교통표지판, 지하철 안내도, 간판, 명함 등 실제 생활 속의 한자 표기 활용 사례를 찾고, 비교해 보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한·중·일 세 나라가 과거 필담(筆談)을 통해서 교유(交遊)했던 자료를 찾아보도록 할 수 있다.

## ③ 모둠 구성

모듬을 구성하여 사회자, 기록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모듬별로 토의·토론 규칙을 정하도록 한다. 토의·토론 규칙에는 발언 순서나 발언 시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④ 모듬별 토의·토론을 위한 사전 자료 수집

앞서 교사가 설명한 자료 수집 방법에 유념하여 학생들은 토의·토론을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사전, 서적, 인터넷 사이트 등을 활용하거나 개인의 경험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⑤ 모듬별 토의·토론 및 내용 정리

기초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모듬별로 토의·토론을 진행한다. 기록자는 토의·토론 기록지를 작성한다.

토의·토론 활동지		
조이름 : OO조	학번 : OOOO	성명 : 김한문
주제 : 한자는 한국·중국·일본의 언어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영향을 끼친 이유를 말해 봅시다.		
사전 조사 : 성명, 주소, 국가명, 교통표지판, 지하철 안내도, 간판, 명함 등 실제 생활 속의 한자 표기 활용 사례 조사		
<p>&lt;토의·토론 내용&gt;</p> <p>A : 한국·중국·일본은 공통적으로 한자를 활용하여 언어생활을 하고 있어.</p> <p>B : 세 나라의 성명 표기를 살펴보면, 모두 한자를 사용하고 있어. 다만 읽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p> <p>C : 세 나라를 여행했을 때 <u>교통표지판</u>이 모두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어. 한자를 알고 있어 이해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어.</p> <p>A : ...</p> <p>B : ...</p> <p>(이하 생략)</p>		
결론 : 한·중·일은 공통적으로 한자를 활용하여 언어생활을 하고 있다.		
다른 모듬 의견 : 과거의 기록에 세 나라가 필담(筆談)을 통해 의사소통을 한 기록이 있다.		

<표 5> 토의·토론 교수·학습 활동지(예시)

#### ⑥ 모듈별 발표 및 의견 교환

모듈별로 의견을 정리하고 발표자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다른 모듈의 의견을 활동지에 기록하여 다른 모듈의 의견과 자기 모듈의 의견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여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더욱 논리적으로 다듬을 수 있도록 한다.

토의·토론을 통한 한자문화권 이해하기에 대한 평가는 ‘1. 토의·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와 유사하다. 수행평가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며, 사전 수집한 자료의 적절성, 토의·토론 태도, 활동지 작성 결과, 발표, 다른 모듈 발표 경청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의 항목을 자기 평가나 상호 평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5. 한자문화권 언어·문화사전 만들기<sup>12)</sup>

사전, 서적,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한자문화권 국가의 언어와 문화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한자문화권 언어·문화사전을 만든다. 모듈별 또는 학급별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활용하여 장기적 수행과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제 수행의 목표와 개개인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며 교사는 정기적으로 활동을 관찰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한다.<sup>13)</sup>

한자문화권 국가는 ‘漢字’라는 공통된 언어가 있다. 공통된 언어와 더불어 한자문화권 국가들은 많은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 조사한다면, 한자문화권 국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자문화권 국가 중 특징이 뚜렷한 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대만, 베트남 등 과거 또는 현재에 漢字를 활용하여 언어생활을 하고 있는 국가까지도 포함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한자문화권 언어·문화사전 만들기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

#### ① 한자문화권의 개념 파악

먼저, 한자문화권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사전, 서적, 인터넷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한자문화권의 개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한자문화권의 자세한 내용보다는 ‘한자를 통해 문화적 소통이 가능한 지역<sup>14)</sup>’이라는 개념과 한국, 중국, 일본 등이 한자문화권 국가에 속한다는 정도의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② 한자문화권의 언어·문화 조사

한자문화권 언어·문화사전 만들기는 언어와 관련하여 각국의 성명이나 주소 표기, 교통표지판 표기 등을 조사하고 비교하여 만들 수 있고, 문화와 관련하여서는 각국의 衣·食·住나 명절 등을 조사하고 비교하여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명절 문화사전을 만들 경우, 한자문화권의 명절 문화에 대하여 사전,

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162~163면을 참조하여 재구성.

13) 교육부(2015), 18면.

14) 정민 외(2004), 14면.

서적, 인터넷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여기에서 설이나 추석(중추절) 등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재의 명절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 ③ 언어·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

한자문화권 국가들은 각국의 개별적 차이도 있지만,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보는 것이 이러한 교수·학습 활동에 의의가 있겠다. 학생들이 한국, 중국, 일본 등 한자문화권 국가들에 대하여 서구의 국가들보다 동질감을 느끼는 것은 물리적 거리감의 영향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언어·문화의 동질성이 더 크다는 것을 실제 자료를 통하여 확인시켜줄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한자문화권 국가들의 공통점을 찾고, 그 속에서 차이점도 발견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한자문화권 국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 ④ 언어·문화사전 만들기

언어·문화사전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유롭게 만들도록 지도한다. 특히 사진, 그림 등의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딱딱한 사전의 이미지를 벗을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은 설 명절 문화사전 만들기의 예시 자료이다.<sup>15)</sup>

<명절(名節)> -설-	한국	중국	일본
풍습	세배(歲拜), 덕담(德談) 고향방문	만두, 춘리엔[春聯], 폭죽, 고향방문	오조니[お雑煮], 오세치요리[御節料理]
공통점	새해에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함.		
차이점	음력 1월 1일 설날	음력 1월 1일 춘지에[春節]	양력 1월 1일 오쇼가즈[大正月]
음식			

<표 6> 한자문화권 언어·문화사전 만들기 활동지(예시)

한자문화권의 문화는 의복[衣], 음식[食], 주거[住] 등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자신의 여행 경험이나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타 교과와의 융합 수업을 통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융합 수업을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타 교과 교사와의 긴밀한 협조와 치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 관련 융합 수업을 진행할 경우, 한문과에서 학습할 내용과 타 교과에서 학습할 내용 중 융합 요소를 추출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융합 요소는 의복(가정), 음식(가정), 주거(기술) 뿐만 아니라, 전통놀이(체육), 전통 음악(음악), 전통 미술(미술) 등 다양한 교과와 융합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15) 사진 출처: 한국 떡국: <https://www.flickr.com/photos/josiahlau/6617101919>, 중국 만두: <http://image.baidu.com>, 일본 오세치요리: <https://pixabay.com>

한자문화권 언어·문화사전 만들기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의 결과물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조사한 자료의 정확성, 이미지 자료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사한 자료가 정확하고 활동지에 사용된 이미지 자료 등이 적절한지 여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

## 6. 한자문화권의 상호 교류 사례 찾아보기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한자문화권 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방식의 교류 사례를 찾아보고 이를 정리하여 발표해보도록 한다. 일회성 활동으로도 가능하나 중장기 수행과제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며 개인 또는 모둠별로 진행할 수도 있다. 과제 수행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여 과도하게 흥미 위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한다.<sup>16)</sup>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한자문화권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의 다양한 방식의 교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한자문화권 국가들은 공유하는 감정이나 고전에 대한 지식, 가치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음악이나 영화 등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교류가 여러 영역에 걸쳐서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수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자문화권의 상호 교류 사례 찾아보기 교수·학습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

### ① 한자문화권 국가 파악

과거 한자문화권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 역학관계, 물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등 기초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초 지식은 타 교과와의 융합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면 효과적인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수행과제로 제시한다면 효과적이고 수준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② 교류 사례 찾기

과거 선진 문물은 대개 중국에서 한국을 통해 일본으로 흘러갔다. 지정학적 영향과 당시 대국이었던 중국의 영향이 막강했기 때문이다. 한국, 중국,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였다. 최치원은 당나라의 빈공과에 합격하여 관료를 지냈다. 백제는 일본에 칠지도를 하사하였으며, 조선은 일본에 조선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인천의 소래라는 지명은 당나라 소정방이 중국에서 그곳으로 도착하여 지어졌다는 설 등도 있다. 필담으로 교류한 사실도 한문 전적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문화 교류 사례를 서적이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찾도록 한다. 과거의 교류 사례와 함께 현재의 교류 사례도 찾는다면 학생들이 훨씬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한류 가수나 연예인 등의 교류 사례만 찾아 흥미만을 추구하는 활동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조선 시대의 교류 사례, 현대의 교류 사례 등의 시기로 구분하여 학생들에게 활동하도록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를 통해 각국이 얻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교류가 활발히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16) 교육부(2015), 18면.

### ③ 발표

발표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할 수도 있다. 또한, 학생들이 한자문화권 국가의 인물로 분장하여 상황극을 꾸며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극은 발표하는 학생들은 본인들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생생하게 꾸며봄으로써 깊은 이해가 가능하고, 발표를 듣는 학생들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처럼 생생한 현장을 봄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한자문화권의 상호 교류 사례 찾아보기에 대한 평가는 교류 사례의 정확성, 참신성, 성실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정확한 사례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학생들이 찾지 못한 참신한 자료를 찾았는지 여부, 성실하게 자료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III. 결론

‘한문의 활용-한문과 문화’ 영역의 교수·학습은 한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타 교과와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문과 문화 영역에 대한 교수·학습은 한문 텍스트와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문 텍스트에 대한 교수·학습의 연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서에 문화 관련 텍스트를 본문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범위 내에서 문화 관련 텍스트를 찾아 교과서에 실는다면 한문과 문화 영역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현장의 한문교사들이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교수·학습과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교수·학습과 평가들이 수집되어 다음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에 반영이 된다면 더욱 풍부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17] 한문, 교양 선택 과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201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연구보고 CRC 2015-25-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Ⅱ 한문과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Patrick R. Moran 지음, 정동빈, 남은희, 황선유, 이명관 옮김(2004), 『문화교육』, 경문사.
- 이동재, 김병철, 최종찬, 허연구, 정효영(2013), 『중학교 한문』, 비상교육.
- 정민, 박수밀, 박동욱, 강민경(2004), 『살아있는 한자교과서1』, 휴머니스트.
- 권태주(2012), 「전주시 지역문화를 활용한 한문과 수업자료 개발」,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왕규(2012), 「‘문화’영역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내용 분석과 적용 방안 모색」, 『漢字漢文教育』 제

29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김혜민(2010), 「진해시 지역문화를 활용한 한문과 수업자료 개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배희정(2015), 「한문과 ‘문화’ 영역 교육 현황과 방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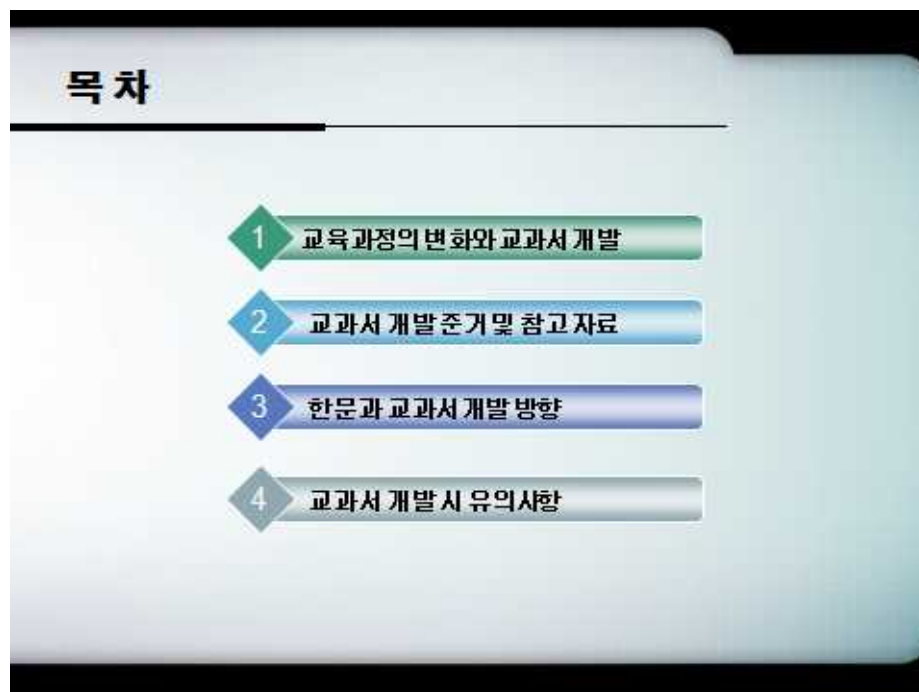
손진희(2011), 「지역문화를 활용한 한문과 수업자료 개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병렬(2007), 「2007년 개정 교육과정(教育課程)에 따른 한문(漢文) 교과(敎科)의 문화(文化) 교육(敎育) 가능성(可能性)」, 『한문교육연구』 제29권, 한국한문교육학회.

이기영(2010), 「남양주시 지역문화를 활용한 한문과 수업자료 개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방향

윤지훈(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 교육과정 변화와 교과서 개발

- ❖ 교과서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은 공인된 교육 자료로서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수업의 매개체이자 중요한 교수·학습 자료임.
- ❖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과 구성 체제, 인쇄 및 제본 상태 등이 변화됨.
- ❖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는 슬로건 하에 교육과정상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하였음.
  - 교육과정을 핵심 역량 중심으론 재편하여 종론 총위의 일반 역량과 각론 총위의 교과 역량을 제시
  - 교과 고유의 영역 및 학년(군)별 내용 요소를 토대로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기능 등을 새롭게 도입
  - 교과별 핵심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내용의 적정화 도모
  - 교실 수업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제시

## 2. 교육과정 개발 준거 및 참고 자료

- ❖ 교과서 개발의 준거
  - <교육과정>
  - <편찬상의 유의점>
  - <인정 기준>
  - <편수 자료> 등
- ❖ 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
  -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는 교과용도서 편찬
    - 추구하는 인간상 / 교과 교육과정의 구현
  - 바른 인성과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과용도서 편찬
    - 바른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교과용도서 편찬
    - 지식의 참조 및 융합 능력을 신장하는 교과용도서 편찬



## 2. 교육과정 개발 준거 및 참고 자료

### ❖ 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

-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용도서 편찬

#### -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도록 편찬

- 교과와 핵심적이며 필수적인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발
-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제시
-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제시

#### -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으며 실생활과 연계되도록 편찬

- 학생의 생활 경험을 반영한 내용으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도록 개발
- 실생활에 응용 가능하도록 실용성 및 유용성을 고려하여 개발
- 다양한 현상과 사례 및 직·간접적 체험 중심의 교육 내용,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 제시

## 2. 교육과정 개발 준거 및 참고 자료

- ❖ 이러한 기본 방향의 구현하기 위해 “핵심성취기준 중심의 교과서 모형”과 “실용교과서 모형”이 개발되었으며, 이들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라는 요구가 있음.

### ❖ “핵심성취기준 중심의 교과서 모형”이 추구하는 교과서

-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주는 교과서

즉,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을 습득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교과서 편찬

-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해야 할 ‘방법’을 알려주는 교과서

즉, 스스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교과서 편찬

- 학습하고 싶은 내적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교과서

즉, 학습 욕구를 유발하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교과서 편찬

-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교과서

즉, 학습에 관한 내적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교과서 편찬

※ 원소현 외(2013), 장기 무학년 근속 과정 교과서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CRT 2013-5 발간

## 2. 교육과정 개발 준거 및 참고 자료

### ❖ “실용교과서 모형”이 추구하는 교과서

- **천절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학생들의 학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과서
-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
-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핵심개념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풍부한 학습활동을 제공**하는 교과서
-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 사례, 경험과 이어져 있어서**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교과서
- 학습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생활에 적용**해 보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과서

※ 국영과(2013), 실용교과서 교육과정 연구, 교육부 연구보고서

## 2. 교육과정 개발 준거 및 참고 자료

- ❖ 두 연구의 핵심은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며**, 학습 안내 및 참고자료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실생활과 연계된 내용의 선정 및 조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 한문 교과서도 <편찬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교과서 쪽수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실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참조> 한문과 편찬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교과서의 개발 방향

- (1)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한다.
- (2)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심화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 적합한 교과서를 개발한다.
- (3) 학습동향을 이해·양성에 적합하며, 핵심역량 함양을 도모하는 실생활 중심의 교과서를 개발한다.
- (4)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이해하기 쉽고 흥미와 즐거움을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를 개발한다.
- (5) 학습자의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기를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교과서를 개발한다.
- (6)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현장 교원의 참여의 권리를 통해 수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교과서를 개발한다.

## 2. 교육과정 개발 준거 및 참고 자료

- ❖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과 <공통 기준> 준수 필요. 특히 <공통 기준>은 위반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바로 심사에서 탈락됨.

심사 영역	심사 권項
I. 헌법 정신과 일치	1.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 체계를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2.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이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3.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북도' 표시와 '통일' 용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가?
	4.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인 태극기, 애국가 등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바르게 알게 해주는 내용이 있는가?
	5. 영토, 종교 또는 사회제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표명하는 내용이 있는가?
	6. 특정 국가, 민족, 민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II. 교육의 중립성 유지	7.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종교를 전파하거나, 특정 종교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 내용이 있는가?
III. 지역·개성·민족의 존중	8. <b>다인적 공요되지 아니한 개성</b> 을 표명 또는 모욕하거나, <b>다인적 공요된 개성</b> 을 전파하게 표명 또는 모욕한 내용이 있는가?

## 3. 한문과 교과서 개발 방향

- ❖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은 구성 및 내용 체계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음.
- ❖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한문 교과의 역할 및 한문 문장 독해력, 한자 어휘 학습, 민성 및 문화 소양 함양 강조
  - 교과 역량을 반영하기 위해 내용 체계를 '영역', '핵심 개념', '내용(일반화된 지식)', '학교급별 주요 내용요소', '기능'으로 구성
  - '교수·학습 및 평가'는 기존과 달리 '영역(성취기준 그룹)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으로 구분하여 제시
    - ① '영역(성취기준 그룹)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는 '학습 요소'와 '성취기준 해설', '영역 또는 성취기준 그룹의 내용 요소에 적합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을 제시
    - ②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은 한문과의 성격과 특성에 비추어 한문과 교수·학습 및 평가가 추구해야 할 철학, 가치 등과 함께 교과 역량의 개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시적 차원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을 기술



### 3. 한문과 교과서 개발 방향

❖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교과서 편찬과 관련지어 보면 다음과 같음.



### 3. 한문과 교과서 개발 방향

- ❖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될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참신한 글감의 선정**이 중요함.
- ❖ 이와 함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수· 학습 및 평가’**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항들을 **학습량이 증가되지 않으면서도** 이를 골고루 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안배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 ⇒ 현재와 같이 평면적이고 형식적인 활동과 평가 문항의 제시는 지양

### 3. 한문과 교과서 개발 방향

❖ 예) 본문에 인성과 관련된 글을 수록할 경우

- 본문 관련 : '한자와 어휘' + '한문의 독해' + '한문과 인성'
- 어휘 관련 : '한자어휘와 언어생활'



### 3. 한문과 교과서 개발 방향

❖ 활동 및 평가 문항 개발에 유의해야 하는 것은

현행 교과서 심사에서 영역 과락 제도가 있음을 감안할 때

'Ⅳ.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영역이 신설되어 있음.

심사 영역	심사 항목	영역별 배 점
Ⅳ.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19. 교과 역량 함양과 교과 지식의 적용 및 활동을 유도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제시하였는가?	16
	20.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학생 참여와 협력 학습이 강화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제시하였는가?	
	21.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제시하였는가?	
	22.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는가?	

## 4. 교과서 개발 시 유의사항

- ❖ 몇 년간 교과서 검·인정 심사가 거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정확성과 관련한 오류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구분		2007 개정 교과과정				2009 개정 교과과정		계 (2)	비율 (%)
		종1	종2	종3	고	종	고		
내용의 정확성 및 조직	내용 수준 부적절	1	2	9	0	7	1	20	0.99
	학습 목표 부적절	1	0	0	0	0	0	1	0.05
	자료 제시 미흡	49	29	36	40	57	101	306	15.1
	문장 부적절	7	12	6	23	13	26	87	4.29
내용의 정확성	틀리 부적절	11	8	15	2	1	6	43	2.12
	세상 내용 부적절	96	42	58	121	190	209	706	34.78
	일관성 결여	9	19	5	5	20	17	75	3.7
	번역 미흡	18	5	10	27	61	113	232	11.45
	구두 미흡	1	3	1	3	1	15	24	1.19
	현도 미흡	2	1	0	5	16	21	45	2.22
	오차	18	14	7	13	17	39	108	5.33
	형식	0	0	0	1	0	0	1	0.05
	지향 부적절	10	8	9	35	3	13	78	3.85
	출판 제시 미흡	18	21	21	27	16	8	111	5.48
내용의 완성성	완전 미흡	18	18	39	67	4	11	157	7.74
	불완전 미흡	3	0	0	17	4	10	34	1.68
총계		259	178	218	366	410	599	2,027	100.00

※ 통계청 2013. 교과서  
검정 결과에 기초하여 2009개정  
교과서 발행, 2013. 10. 30.  
출판

감사합니다.

## 【 토론문 】

### 이군선 선생님의 「‘한문의 이해 - 한자와 어휘’ 영역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분석」에 대한 토론문

김성중(계명대학교)

한문과 학교 문법서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한자와 어휘’영역의 성취기준에 대해 예문과 함께 자세한 해설을 기술하신 선생님의 발표문에 경의를 표합니다. 학문 문법보다 학교 문법의 서술이 더욱 어렵다는 말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술의 엄밀성과 체계성, 전형적 이면서도 실용적인 예문의 제시 등은 연구자 한 사람이 담당하기에는 지난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군선 선생님의 발표를 토대로 한문과 학교 문법이 틀을 갖추기를 기원하며 몇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 1. 허사 용법 서술의 개괄성 관련입니다.

17면 ‘自, 由, 從’에 대해 ‘명사류 앞에 위치하여 동작의 기점을 나타낸다.’라고 서술하셨습니다. ‘自, 由, 從’에 상기의 용법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서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째, ‘自, 由, 從’의 공통 용법만이 부각되고 상이한 용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둘째, ‘동작의 기점’외에 대표적인 용법들이 간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면, 첫째의 경우 ‘自, 由, 從’의 항목을 나누는 방안, 아니면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빈도수가 높거나 혹은 多義的 요소가 높은 것(정확히 표현하면 同字異詞인 것)만을 제시하는 방안이 있을 듯합니다. 둘째의 경우, ‘自’만을 두고 말씀드리면, “동작·행위가 발생하는 장소, 시간, 그리고 동작·행위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등을 나타낸다.”고 서술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한 편의 소논문에서 개별 허사의 용법을 적절히 해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타당한 방안을 말씀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 2. 단어의 짜임 관련입니다.

12, 13면 설명의 핵심은 동일한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의 내부 구조의 차이입니다. 12면 ‘주술·수식 관계의 단어’를 예로 들면, 주로 수식 관계의 단어만 거론되어 있고 해당 한자로 구성된 주술관계의 단어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듯합니다. 기실 이들 용례를 찾는 것은 지난한 일이기에 일부의 예도 소중하다고 생각되지만 추후 보충된다면 교육과정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12면에서 “형태상으로 주술구조이지만 앞에 주어와 있고 명사+동사의 형식을 지니는 단어일 경우 명사가 부사로 쓰여 수식어가 되어 수식 관계의 단어가 된다”고 하셨는데 ‘형태상으로 주술구조’라는 표현은 아마도 ‘명사+동사’의 결합을 염두에 두신 듯합니다. 이는 품사와 문장성분의 대응이 일정한 영어에서는 적절할 수 있을 듯합니다만, 한문에서는 논란이 있을 듯합니다(소견:명사+동사의 형식을 지니는 단어에서 명사가 주어와 아니라 부사어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다). 제가 과문해서 여쭙지만, ‘명

사+동사의 형식을 지니는 단어' 앞에 주어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명사는 일반적으로 부사처럼 쓰이는 것이지요? 제시하신 '명사+동사'의 형식을 지닌 단어들이 앞에 주어(생략된 주어 포함)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해당 단어들의 의미항목에 그러한 것이 있어서인지 여쭙니다.

3. 단어와 구의 경계 관련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한문에서 단어와 구의 경계는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3면 술목 술보 관계의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제시하신 “有子曰 其爲人也孝弟”에서 ‘爲人’은 단어라고 생각됩니다만, “古之學者 爲己 今之學者 爲人”에서 ‘爲人’도 단어일지는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제가 『한어대사전』을 비롯한 몇 개의 사전을 찾아 보았습니만, 전자의 의미항목만 단어로 올려져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단어로 성립되기에는 응고성이 대단히 약하다는 뜻일 듯합니다. 또한 만일 “古之學者 爲己 今之學者 爲人”에서 ‘爲人’이 단어라면 ‘爲己’도 단어가 되어야 할 듯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술목, 술보와 관계된 것이어서 고민이 더욱 큼니다.

4. 예문에 출전을 추가해 주시면 선생님 옥고를 참고하는 연구자들이 더욱 편리할 듯합니다.



# 윤재민 선생님의 「‘한문의 이해 - 한문의 독해’ 영역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분석」에 대한 토론문

안재철(단국대학교)

먼저 2015년 한문과 교육과정을 집필하여 주신 윤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을 개편시킨 교육과정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고, 2009년 교육과정은 그것을 토대로 발전을 가져왔으며, 2015년 교육과정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였다고 여겨집니다. 관계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거듭 고마움을 전합니다.

윤교수님께서 2015년 교육과정을, 2007·2009년 교육과정과 상세하게 비교 설명하여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다만 평소에 아쉬웠던 점, 두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5쪽 1.‘문장’ 分野의 成就基準 分析 중,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장’ 관련 문법 지식으로 ‘문장의 구조’, ‘문장의 유형’, ‘문장의 수사’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장의 수사’를 제외한 두 가지만을 제시하였다.”에서 ‘문장의 수사’를 제외시켰다고 하셨습니다. ‘한문의 독해’시에 ‘문장의 수사’에 관한 내용 요소가 필요해서 2007년, 2009년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배제시킨 이유라도 있는 것이지요? 2015년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필요한 내용이라면, 해설서 등 다른 곳에서라도 설명을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6쪽 “문장의 유형을 話者が 나타내는 語氣를 기준으로 나누면 平敘文, 疑問文, 命令文, 感歎文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에서, ‘문장의 유형’도 문장의 독해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정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유형들, 예를 들면 ‘가정문, 비교문, 사동문, 피동문, 한정문’ 등에 관한 설명도 어느 곳에서든 해설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문문법 통일안’을 학회 차원에서 마련하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시도(1995년, 2001년)가 있었는데, 이제는 꼭 학회 차원에서 제정되어 교과서 집필시 통일안을 중심으로 집필자들이 집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자리를 빌어 부탁하여 봅니다.

이것으로 제 소임을 다 할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훌륭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신 윤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우정 선생님의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한문의 활용’ 영역 중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분석」에 대한 토론문

이동재(공주대학교)

김우정교수님의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한문의 활용’ 영역 중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분석> 발표문 잘을 들었습니다. 육고를 준비하시고 발표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추가하여 듣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마칠까합니다.

첫째, 발표자님께서 언급하신 ‘일반화된 지식’이 된 어휘는 굳이 ‘한자 어휘’라고 하여야 하는가입니다. 이는 발표자의 “다른 학습 내용과의 배분 등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한 어휘보다는 교과 성격에 부합하는 개념적이고 추상적이며 심오한 사상이나 문화가 담지된 어휘를 위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라는 내용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어휘인 ‘커피’의 스펠링이 ‘coffee’라는 것을 굳이 알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新聞이라는 어휘를 ‘新 + 聞’으로 ‘새로운 소식’이라고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히려 한자의 자의를 설명해 주면 ‘聞’이 ‘듣다’라는 의미이므로 ‘신문’이 종이로 이루어지고 활자로 인쇄가 되어 있으므로 듣는 것보다는 읽는다고 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둘째, ‘상하의어’에 대한 의문입니다. 의미가 무엇인지는 맥락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언급을 하지 않은 표현이고, 예시를 보면 생물학의 계통을 분류하는 방법을 원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단어나 어휘를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지요?

셋째, ‘동음어(辭典, 事典, 事前, 史前, 史傳, 私田, 私錢)’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존의 교육과정이나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동음어’라기 보다는 ‘동음이의어’라는 표현이 더 손쉽게 다가옵니다. 일반인이 쉽게 이해되는 ‘동음이의어’를 두고 ‘동의어’로 변경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넷째, 서로 다른 이종의 언어 요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인 혼종어도 한자 어휘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입니다. 요즘에도 ‘심꿈’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널리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님께서 발표하신 ‘밥상’이 우리말 ‘밥’과 한자 ‘床’이 결합되었다는 것은 언어학자들만 알아도 되는 지식이지 굳이 중등학교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다섯째, 고유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표자님께서서는 우리의 고유 어휘도 한자 어휘에서 연변된 것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표기수단이 없어서 한자로 반대로 우리의 고유어를 표기 수단이 없어서 한자로 표기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유어도 언어학자들만 알아도 될 지식을 굳이 중등학교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문은 어렵고 고리타분한 과목이라고 인식되어 학생들과 현대인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눈앞에 이익이 보이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한자 어휘도 한자, 한자 어휘를 배우면 교과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예, 心臟보다는 不隨意筋이 더 유익함)으로 예시를 하고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서없는 질문만 한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더 생각하는 시간을 주신 김우정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질문을 마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왕규 선생님의 「‘한문의 활용 -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 영역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분석」에 대한 토론문

신영주(성신여자대학교)

새로운 한문과 교육과정에 대해 정치하게 분석해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최근 여러 차례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한문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질의와 토론을 반복하면서 분석을 시도하셨고,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익숙할 만하면 개정하고 또 개정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의 학술 발표는 이런 혼란을 가능한 줄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번 교육과정 내용체계 가운데 특별히 한문의 활용 영역에서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에 대해 분석해주셨습니다. 내용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소개하는 방식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기에 논란할 만한 내용은 있지 않았습니

	영역	핵심개념	내용요소
2007년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한문	1.문화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2011년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문화	1.한자문화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2.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언어생활 속의 <u>한자 어휘</u> 알고 활용하기
2015년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한문의 활용	1.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일상용어
			㉡학습용어
			㉢성어
		2.한문과 인성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3.한문과 문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

차제에 공부하는 심경으로 지난 교육과정과 비교해보니, ‘한문의 활용’ 영역은 2007년에 새롭게 ‘한문’ 영역의 세부 영역으로 추가되었던 ‘문화’로부터 진화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문화’가 상위 영역으로 독립되면서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가 추가되었고, 이것이 다시 ‘한문의 활용’으로 바뀌면서 ‘한문과 인성’이 다시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한문의 활용’은 ‘문화’의 발전적 재해석을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번에 핵심개념으로 추가된 ‘한문과 인성’도 역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전 내용체계의 ‘문화-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과 ‘한자문화-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을 ‘한문과 인성’과 ‘한문과 문화’로 분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sup>1)</sup> 하지만 이것이 새롭게 ‘핵심개념’으로 강조되면서 이번 내용체계가 이전과 차별될 수 있게 만든 매우 특색 있는 부분이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1) ‘한자문화-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2011) : 선인들의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 ‘한문과 인성’(2015) : 한문 기록에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이 담겨 있다.

이에 질의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 여쭙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문과 인성’이 강조된 배경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지고, ‘한문과 문화’와는 그 내용 성격을 어떻게 구별해서 구체화해야 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 연구·협력진에 참여하셨던 교수님께 고견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배희정 선생님의 「‘한문의 이해 - 한자와 어휘’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 분석」에 대한 토론문

한은수(서울난향초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 지식과 탐구 과정 및 전략 등의 ‘교과 역량’이 가치 및 태도 등의 요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통합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각 성취기준에 대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하여 교육 수 요자에게 친절한 교육과정이 되도록 개발하였다.<sup>1)</sup>

오늘 우리 학회 학술발표회도 이러한 2015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학교 현장 정착과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한자와 어휘’ 영역의 연구를 진행하신 배희정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논의된 내용 중에서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하려 한다.

## 1. 사전 활용하기

1) 내용요소 ‘한자의 모양·음·뜻’의 성취기준은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이다. 그런데 이 발표문에 제시된 평가 요소 및 채점기준을 보면 ‘사전에서 한자의 모양·음·뜻을 찾아 ○개 바르게 적었다.’로 되어 있다. 연구자께서 평가 기준은 수업사례를 토대로 예시하였다고 기술하고 있기는 하나, 성취기준이 ‘한자의 形·音·義’를 구분하는 것이라면 평가기준도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구분하거나, 음이 비슷한 한자를 구분하기, 뜻이 비슷한 한자를 구분하기’와 같은 것으로 성취 수준을 구별하여야 한다고 본다.

2) 내용요소 ‘한자의 부수’의 성취기준은 ‘한자의 부수를 알고 사전에서 한자를 활용하는데 사용한다.’이다. 연구자께서 밝혔듯이 사전에서 한자를 찾는 법을 익히는 것은 성취기준이 아니다. 곧 ‘부수의 기능’을 학습하여서 모르는 한자에서 부수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통해 사전에서 한자의 음과 뜻을 찾는 데(도달점 행동) 활용하는 것이 성취 목표이다. 그런데 연구자께서 제시한 ‘사전과 모바일 사전을 활용하는 법을 익혀 ○개의 한자의 부수를 바르게 적었다.’는 학습 활동과 학습활동으로 인한 도달점 행동이 도치된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 2. 한자 카드를 활용하여 단어 구조 분석하기와 어휘 만들기

한자 카드를 활용한 어휘 만들기, 어휘 풀이하기, 단어의 짜임 구분하기 등의 활동 사례는 성취 기준인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를 구현할 수 있는 학습활동이다. 다만 어휘 학습과 관련하여 ‘비교·분석하기’, ‘허사 쓰임 유추하기’ 등의 내용 요소와 관련한 교수·학습 활동의 사례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

1)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 II 한문과 교육과정 3~4쪽.

### 3. 한자 카드 활용하여 한자 구조 분석하기

발표문에는 한자 카드를 활용하여 ‘회의와 형성의 원리’를 학습하는 교수·학습 과정을 잘 제시하였다. 이 활동에 대한 평가는 유의사항에서 ‘한 글자의 한자가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기계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한자의 짜임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둔다.’라고 기술하고,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요소 및 채점기준은 생략하였다. ‘한자의 짜임’ 원리를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는 평가요소 및 채점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4. 부수 활용하기

#### 1) ‘부수를 알아 자전에서 한자 찾기’의 교육적 효용성 및 성취기준으로서의 적정성

2015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밝혔듯이 ‘부수 활용하기’ 학습은 ‘학습자에게 부수에 대한 설명을 해 준 후 제시된 한자의 부수를 찾는 활동, 부수의 의미를 통해 한자의 뜻을 유추해 보는 활동, 해당 부수가 들어간 여러 한자를 찾아보는 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수를 알아 자전에서 한자 찾기’도 활동보다는 ‘부수의 의미를 통해 해당 한자의 의미를 유추해 보는 활동’이 더 유의미한 활동으로 여겨지고 교육적 효용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성취기준도 ‘부수를 알아 자전에서 한자 찾기’보다는 ‘부수를 알아 한자의 의미 이해하기’로 치환할 필요가 있다.

2) ‘부수 활용하기’ 수업 사례에서는 한자 자형으로서의 부수의 기능과 자의로서의 부수의 의미를 찾아보는 활동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다만 성취기준의 평가요소 및 채점기준을 예시하면서 ‘한자의 부수를 찾아서 ○개 이상 바르게 색칠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한자의 부수를 안다.’는 성취목표가 ‘바르게 색칠한다.’는 목표로 오해를 하게 되므로 구체적 도달점 행동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 5. 기타

2015년 9월 개정·공포한 한문과 교육과정 ‘3.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에는 각 영역별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개정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학교 현장 정착 및 교육 수요자에 친절한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각 유의사항을 낱낱이 실제적으로 예시한 학습 자료를 만들어 학교 현장에 보급해야 한다.

## 이승현 선생님의 「‘한문의 이해 - 한문의 독해’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 분석」에 대한 토론문

김연수(고려대학교)

2015 한문과 교육과정은 한문의 ‘독해’와 관련된 내용 요소별 교수·학습 방법으로 ‘문장 구조 분석하기’ 등 총 13개(중복 제외)를 제시하였습니다. 발표문 서두에 “2015 한문과 교육과정의 ‘한문의 독해’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총 10개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자세한 해설과 평가 방법 및 문항의 실례까지 제시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 큰 도움이 되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한문의 ‘독해’ 능력 함양은 한문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므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관심이 다른 어떤 영역보다 높은 편입니다. 저 또한 독해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거나 앞으로 적용해볼 만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발표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1) ‘3. 허사의 쓰임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에서 ‘문장의 구조 분석하기’ 교수·학습 방법과 ‘허사의 쓰임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교수·학습 방법을 융합하여 적용한 활동으로 ‘<표-2> 한문 문장 만들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중학교 『한문』 교과서에 수록된 학습 활동인데 중등학교 학습자의 수준에서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문과 교육과정의 학습요소와 성취기준에는 없는 한문 ‘작문’ 활동을 교과서에 수록한 것과 한문 수업 시간에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2015 한문과 교육과정 ‘독해’ 영역 교수·학습에서의 유의사항에 “토는 종류가 매우 많고 현대 국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조사나 어미가 토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장에 사용된 토를 중심으로 그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9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도 “글에서 실제로 사용된 토에 대해서만 그 구실을 이해하도록 하여, 현토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현토의 원리를 지나치게 따지지 않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 토 달아 읽기’에서 제시한 교과서 <읽기 심화활동>이나 ‘평가’의 예시 문항은 모두 학습자가 한문 본문에 토를 직접 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문과 교육과 내용과 다르게 이와 같은 학습 활동과 평가 문항을 소개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3) 2015 한문과 교육과정 ‘독해’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가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독해’ 영역과 비교하여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2015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독해’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에 있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최현선 선생님의 「‘한문의 활용 - 한자 어휘와 언어 생활’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 분석」에 대한 토론문

김병철(군포고등학교)

‘한문의 활용-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영역의 ‘언어생활과 한자문화’와 한문지식영역의 ‘어휘’가 조합된 영역이다. 이 영역은 한문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중 역량 중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직접 관련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2015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며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첫째, 주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본 발표의 주제를 ‘한문의 활용 -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 분석’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발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문의 활용 -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일부분 평가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발표 주제를 ‘한문의 활용 -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사례’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표자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서론에서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과 관련된 교수·학습의 유의 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 ‘일상용어는 단순한 암기보다 그 지시적·문맥적·비유적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진술에서 ‘문맥적으로 의미를 이해하고’는 문장 속에서 한자의 지식이 아닌 문맥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일상용어를 문맥으로 이해하는 것은 한글 전용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한데,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한자의 지식을 바탕으로 일상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 ‘지시적~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저는 이해가 부족한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학습 용어는 단순한 암기보다 해당 교과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교과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의미’는 그 교과에서만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본론에서 ‘일상용어와 학습 용어, 성어는 모두 한자 어휘에 포함되어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은 통용되는 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상용어, 학습용어, 성어는 성취 기준이 다르고 평가 방법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어는 성취기준에서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라는 표현이 있고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도 성어는 겉뜻 뿐만 아니라 속뜻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활용하는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일상용어, 학습용어, 성어’가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에서 일부 통용되는 면이 있지만, 성어의 경우 차별성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는데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넷째, 본론에서 ‘수학 교과 학습 노트 만들기’ 방법을 소개하였고, 이에 대한 평가 문항을 제시하셨습니다. 평가 문항 제시에서 ‘~다음과 같은 선다형 문항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다형 문항은 여러 항목 가운데 적당한 항을 고르는 형식으로 이 방법에는 최선다형, 다답형, 합답형 등의



유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한 문항의 유형은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배합형 문항 중 단순 배합형 문항 유형으로 보입니다.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섯째, 본론에서 ‘고사성어 미니북 만들기’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학습자들이 매우 흥미 있게 학습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니북 만들기 방식은 국어과 토론 수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니북 만들기 방식이 하나의 교수·학습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제시한 8면 각각의 활용 방법과 특징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방법과 특징이 성어학습에 어떻게 유용한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본론에서 ‘신문이나 방송 영상 활용하기’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영상 활용하기는 교수·학습 방법을 나누어 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이나 방송 영상’은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가 다들 뿐 만아나라 활용 방법도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 활용 교수·학습 방법인 NIE(Newspaper In Education)는 신문을 교재 또는 보조교재로 활용해 지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한문과 이외의 교과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그러나 영상은 ‘음악방송, 영상방송, UCC’등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진술에서도 교수·학습 방법적 측면과 도구적 측면을 혼용하여 진술한 부분이 있는데,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일곱째, 본론에서 ‘의미망 만들기’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2015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교수·학습 용어로 생각됩니다. 의미망은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일종의 도식으로, 유의(類義) 또는 반의(反意)의 뜻을 갖는 단어를 조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IT용어사전에서는 의미망을 ‘지식 표현법의 하나로, 지식과 개념 등을 마디점[節點]으로 나타내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방향이 있는 가지[有向枝]로 표시한 유향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실험심리학용어사전에서는 ‘의미 정보는 장기 기억에서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잇는 방식으로 조직된다는 이론적 개념. 여기서 망은 비유적 표현으로 연상적인 사고나 다양한 개념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망은 마디와 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디는 개념에 해당하고 고리는 마디들 간의 관계를 표시한다. 개념들은 망 안에서 위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심리학 용어 사전에서 의미망 설계 방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콜린스와 큐리언은 정보들이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될 때, 상호 연결된 의미망으로 저장된다고 제안하였다. 여기서 의미망은 단위(unit : 사물이나 주어를 나타내는 단어들), 속성(property : 단위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들) 그리고 지침(pointer : 단위와 속성 간의 다양한 연결들) 등의 세 가지 근거를 갖는다. 예를 들면, 동물에 관해 기억을 할 경우 ‘동물’이라는 단위(unit)는 새, 물고기 등의 하위단위로 세분화되며, 이 단위는 다시 카나리아, 타조 등과 같이 세분화된다. 단위와 함께 속성(property)도 기억 속에 저장되는데 이러한 속성과 단위를 연결하는 것이 지침(pointer)이다. 만약 우리가 노란색이며, 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동물의 이름을 말하라고 하면 우리는 동물에서 새, 그리고 카나리아까지 조직망을 따라간다.

한문과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사용되는 의미망에 대한 개념과 의미망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발표자께서 의미망의 사례로 제시한 자료는 저의 생각으로는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파생되는 마이드 맵으로 보이는데,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여덟째, 2015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과 관련하여 4개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고, 성어 학습과 관련하여 5개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9개 교수·학습 방법의 원리와 예시 그리고 평가 방법을 순차적으로 진술하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방법을 이해하는데 이해가 편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에서는 짧은 글 짓기 교수·학습 방법이 누락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과 예시가 궁금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으신 최현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많이 배웠습니다. 과문하고 부족하여 거칠게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질의한 점 양해 바랍니다.

# 김은경 선생님의 「‘한문의 활용 - 한문과 인성’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 분석」에 대한 토론문

김경익(울산여자고등학교)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의 방법 및 유의사항을 구체화하는 작업까지 진행하신 연구진과 발표자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간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실행을 위해 교육과정이 구체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교육과정의 체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여의치 않았는데, 2015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그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후속 작업으로 학회 발표를 통해 학교 현장의 사례를 정리, 발표한다는 점에서 한문 교사이자 한문교육학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문과 인성’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학생 사례까지 제시하며 정리해 주신 선생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선생님의 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며, 몇 가지 질문과 제안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사례를 제시할 때 수업 관련 정보를 포함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Ⅱ-1. 名言·名句를 활용한 수업’를 보면 수업에 적용한 교육과정 영역, 핵심 개념, 내용요소, 성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논문이 한문과 교육과정의 방법 및 평가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업 사례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교육과정의 실행을 위한 해설과 안내의 역할을 위해 수업 관련 정보를 명시적으로 표에 포함했으면 합니다. 교수·학습 방법[강의식, 설명 중심 수업, 직접 교수법 등], 학교 급[중학교, 고등학교] 실행 방법[소집단 협력학습, 개별화 학습, 전체 학습 등], 수업 형태[전체학습, 모둠학습 등] 등이 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방법이나 전략 차원의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례는 한문과 교육과정의 ‘한문과 인성’의 ‘(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중 ‘② 유의사항’에 제시된 것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해설서의 기능이 강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한문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나 평가로 확장을 꾀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문과 교수·학습 방법 분야의 개론서가不在한 실정에서 이번 작업이 지닌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방법이나 전략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교수·학습 모형이나 방법에 대한 연구 성과가 부족하여 그런 접근 방식이 어렵다면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을 좀 더 체계화, 구조화하여 보완했으면 합니다. 논문은 각 사례에 따라 ‘1) 학습 목표 2) 내용 3) 교수학습 과정 4) 평가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견으로는 ‘학습 목표’는 표에 포함하여 제시하고, ‘사례 개관 - 단계 - 유의점 - 학생 활동 자료, 학습지 제시 - 평가 방안 - 활용 방안[다른 텍스트, 방법으로의 활용 방안]’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sup>1)</sup> 특히 ‘단계’는 일반화를 위해 단계별로 활동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수업 적용을 위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정혜승 외(2006),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전략』, 사회평론’과 ‘최지현 외(2007),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역락’ 등의 제시 방식이 참고할 만 합니다.

셋째, 한문과에서 인성교육의 개념 규정과 인성 덕목 정리를 위해 어떤 접근 방식을 택할 수 있을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문과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표, 개념, 학습 요소, 요인 등의 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표자는 ‘제언’에서 선행 연구자들의 한문교과 인성 덕목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교육부에서 선정한 인성 교육의 정의와 덕목을 제시하였습니다. 한문과에서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인성 관련 덕목을 논의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개별 텍스트를 넘어 큰 틀에서 인성교육을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한문과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연구의 방향이나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간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물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실효성 있고 구체화 된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접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질문 드립니다. 더불어 관점 중심으로 자아관, 학문관, 인간관, 자연관 등이 있으며 관점들 간의 교집합이 크다는 한계를 지적하셨습니다. 정의적 특성은 각 요인이 간영역적 성격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계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 정효영 선생님의 「‘한문의 활용 - 한문과 문화’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 분석」에 대한 토론문

허철(한국교원대학교)

지식의 전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활동은 교수와 학습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교과목 목표와 내용에 의해 구성된 것을 교수하거나 학습하기, 혹은 학습하기를 교수하기 등은 결국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만나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평가를 통해 재구성되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항상 변용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교과 학습의 최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도출해 내는 것이 바로 교수·학습과 평가가 유기적인 관계로 파악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실제 교육 활동이 있는 동시에 시작된 교수·학습과 평가이지만, 그간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각 영역에서 수행 가능한 교수·학습 관련된 “명칭”을 제시하거나 짧게 소개만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소개하지 않아서 교과서의 제작이나 학교 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궁금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각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과 평가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향후 한문과의 효율적인 교수·학습과 평가방법 모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신 여러 연구진과 협력진, 그리고 이 논문을 준비해주신 발표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1. 토의와 토론의 차이와 명제 만들기, 그리고 교육적 가치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토의는 의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합의의 과정이며, 토론은 찬성과 반대라는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면서 각기 다양한 사고와 논리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토론은 임하는 태도는 물론이요, 그 과정에서 어떤 논지를 어떻게 전개하는가라는 논리성과 상대방의 발언에서 취약점을 찾아내어 이를 반박하는 등의 여러 과정이 그 주요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토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 속에서 수긍과 합의를 통해 최종적 입장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토의와 토론 모두 그 과정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하며, 그 가치를 지향하는 결정은 토의자 혹은 토론자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물론 두 방법의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척도 또한 다르게 형성됩니다.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토의의 주제는 ‘①전통문화가 갖는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가, ②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③전통문화란 무엇인가, ④전통문화는 왜 한자로 기록되었을까’, 토론의 주제는 ‘⑤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하는가, ⑥전통문화는 소중하게 생각하여야 하는가’ 등”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③의 경우 전통문화의 객관적 의미를 물어보는 것인지, 주관적 판단을 물어보는지가 정확하지 않아 다양한 의견을 도출해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④의 경우 사실관계와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으로 “토의”가 아닌 지식의 활용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토론의 주제로 제시된 것은 가치 중립적이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찬반을 논할 수 있는 명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개인 학습과 모둠학습(협동학습)의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학습법의

제시에 있어 모둠으로 구성하여 시행하시는 것을 예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둠을 구성한 결과와 개인이 학습한 결과를 교사는 다른 평가 척도와 방법을 통해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시하신 것과 같은 활동지만을 구성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교사가 지시하는 과제에 대한 응답일 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때 학생들은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하여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의 결과물만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습득 과정이라면 이 또한 좋은 평가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모둠을 구성하였다면 이 모둠을 구성하여 학습을 하도록 한 충분한 이유와 목적이 존재하고 개인의 학습과는 구분되는 평가 척도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둠학습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사고 방식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협동심을 발휘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태도 등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하고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곧 그 평가의 지향점과 척도, 방법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발표문에서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한자문화권의 상호 교류 사례 찾아보기에 대한 평가는 교류 사례의 정확성, 참신성, 성실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정확한 사례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학생들이 찾지 못한 참신한 자료를 찾았는지 여부, 성실하게 자료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의 경우 이런 협동학습 혹은 모둠학습 그리고 장기간의 프로젝트 학습을 시행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그림으로 활용하기의 경우 그림을 통해 표현하는 내용은 자신이 학습한 내용일 것이며, 문화유산 답사하기도 답사를 통해 문화유산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해와 감상, 현실에의 적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활동 등이 한문과의 교육목표 중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방안인가 하는 점입니다. 결국 한자와 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능력의 배양 보다는 풀이된 내용을 숙지 혹은 기억하고만 있다하더라도 이 활동들은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문이 아닌 국어나 사회와 같은 과목에서의 교수·학습 활동과 구분되는 명확한 차이가 무엇인지요? 그렇다면 그 평가의 척도나 방법은 다른 것이지요?

이러한 맥락은 선생님이 제시한 융합수업에서도 보입니다. “이러한 융합 요소는 의복(가정), 음식(가정), 주거(기술) 뿐만 아니라, 전통놀이(체육), 전통 음악(음악), 전통 미술(미술) 등 다양한 교과와 융합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위의 활동지 내용을 보면 한자문화권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 현상의 동이성을 인지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학습된 내용이 한문과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살리고 있는가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의문이 듭니다. 결국 한자나 어휘, 한문 텍스트를 이용한 활동에서 정작 한자나 어휘, 한문은 학습 내용에서 사라지고 그 의미나 활용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4. “언어·문화”라는 용어를 표기하신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문화는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존재 방법에 따라 유형문화와 무형문화로 나누기도 하고, 학문적 영역으로 다양한 분과로 나누기도 합니다. 결국 언어는 문화를 전달하거나 기록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무형으로 보든 유형으로 보든, 곧 음성언어나 문자언어 무엇으로 파악하던 간에 문화의 한 영역이며, 문화를 이루는 기초요소입니다. 때문에 언어와 문화를 동등한 배열로 구성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결말에서 “교과서에 문화 관련 텍스트를 본문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신 것을 보면 선생님께서는 한문 텍스트를 다시 여러 영역으로 구분되고 그 중에 문화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지요?

## 윤지훈 선생님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한 토론문

최상근(신동중학교)

윤지훈 선생님의 발표 잘 보고 들었습니다. 윤지훈 선생님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하 ‘새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과정과 배경에 정통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성을 살려 새 교육과정의 특징과, 특히 한문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을 핵심만 모아 잘 정리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이나 질의에 앞서, 새 교육과정에 관한 이해의 폭을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는 교과서 집필자의 입장에서 다소 난감하거나 의문이 드는 점 한 두 가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교과서를 집필하기로 되어있는 집필자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함께 의견을 나누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의견입니다.

새 교육과정에 따르면 한문교과서의 쪽수가 중학교의 경우 190쪽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이전의 1, 2, 3학년 분권 체제와 비교하면 절반 이상, 현행 합본 체제와 비교하면 20% 이상 감축된 분량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문과의 문제만은 아니고 새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 아래 모든 과목에 부과된 과제인줄 압니다. 이렇게 쪽수가 줄어드는 데 따른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습 분량이 줄어들면 한문교과서의 시수가 감축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학기당 1단위(총 6단위)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아예 교과서의 내용이 줄어들면 그나마 시간 확보를 위한 명분마저 사라지고 맙니다. 이는 결국 한문교사의 감축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은밀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190쪽 내외가 한문 교과서의 분량으로 적당한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 190쪽으로 제한된 쪽수 안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900자는 당연히 소화해야 하고, 새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요소들을 다 소화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더구나 기존의 요소들은 거의 그대로 있고, 새로 요구되는 요소들은 너무도 많은데, 제한된 쪽수 안에서 다양한 현상과 사례,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과 평가 등이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국가공인 한자시험 YBM 商務漢檢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취득한 YBM 商務漢檢은 단순한 한자 낱 글자의 음과 뜻 풀이 출제형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및 사회 실무에서 사용되는 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이해 능력과 한자를 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실용적인 한자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본 시험은 YBM이 주관·시행하고 한국한문교육학회가 후원합니다.

## ▶ 시험 구성 및 유형

문제 유형		출제	문항 수	시간	총점
생활 한자어	신문 헤드라인 한자어	객관식	70 문항	70분	1,000점
	생활 한자어 이해				
	한자어 변환				
	상대어				
	동자이음(同字異音)				
	약자(略字)				
	한자성어(漢字成語)				
	그림 한자성어				
한자어 퍼즐	주관식				
실무 한자어	한자어 이해	객관식	80 문항		
	한자어 완성				
	한자어 찾기				
	한자어 전환				
	한자어 바로 쓰기	주관식			
	문장 독해	객관식			
	간체자 활용 어휘				
	합 계			150 문항	

## ▶ 정기 시험: 일반인 대상 年 5회 정기시험 실시 (응시료 ₩25,000원)

회 차	시험 일자	접수 기간	성적 발표일
46 회	16. 02. 21(일)	15. 12. 23(수) ~ 16. 02. 16(화)	03. 07(월)
47 회	16. 05. 22(일)	16. 02. 17(수) ~ 16. 05. 17(화)	06. 06(월)
48 회	16. 08. 21(일)	16. 05. 18(수) ~ 16. 08. 16(화)	09. 05(월)
49 회	16. 10. 23(일)	16. 08. 17(수) ~ 16. 10. 18(화)	11. 07(월)
50 회	16. 12. 25(일)	16. 10. 19(수) ~ 16. 12. 20(화)	17. 01. 09(월)

## ▶ 특별 시험: 대학, 기업체, 공공기관 대상의 수시 단체 시험으로, 사전 협의(일시, 장소, 인원) 후 실시

관련 문의: (02) 2280 - 7231 / [www.bizhanja.co.kr](http://www.bizhanja.co.kr)



韓國漢文教育學會  
2015年 冬季學術大會 發表論文集

- 발행일 : 2016년 1월 23일
- 발행처 : 한국한문교육학회
- 주 소 : 경북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승병렬 교수 연구실
- 전 화 : 053-810-3175
- E-mail : 10012@hanmail.net
- Homepage : <http://www.hanmunedu.or.kr>